

2023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기념 국제학술회의

내셔널리즘과 성동원, 그 연속과 단절 국가의 성관리 체제와 일본군 '위안부' 문제

- 일시 : 2023년 8월 11일(금) 09:40 ~ 17:30
- 장소 : 동북아역사재단 11층 대회의실

Program

2023년 일본군'위안부'피해자 기림의 날 기념 국제학술회의
내셔널리즘과 성동원, 그 연속과 단절
국가의 성관리 체제와 일본군'위안부'문제

시간	주제	발표
개회식 사회: 남상구(동북아역사재단 연구정책실장)		
09:40~09:50	환영사	이영호(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
09:50~10:00	휴식	
제1부 주제 발표: 제국주의와 성 관리, 폭력을 비가시화하는 내셔널리즘 사회: 김영숙(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10:00~10:30	가라유키상에게/로부터 보는 성과 권력	다케모토 니나(오차노미즈대 젠더연구소)
10:30~11:00	근대 일본에서 본 구미의 성 관리 정책	하야시 요코(나고야대 젠더다이버시티연구소)
11:00~11:30	식민지 조선에서 일본의 성관리 정책과 '관리되는 여성'	박정애(재단 연구위원)
11:30~12:00	독일 국방군 매춘업소와 일본군'위안소': 제2차 세계대전의 군매춘/ 성노예 제도의 유사점과 차이점	레기나 뮐호이저(함부르크 학술문화지원재단)
12:00~13:30	오찬	
제2부 주제 발표: 지속되는 폭력, 인식의 단절, 관점의 문제 사회: 석주희(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13:30~14:00	'위안부' 담론 안의 '오리엔탈리즘' 고찰	로라 현이 강(캘리포니아대 어바인)
14:00~14:30	자연스러움에 대해서: 평화시의 '문화'와 전시의 '폭력'	장수희(동아대)
14:30~15:00	여성사로서 '위안부' 연구와 일본인 '위안부'의 비가시화 문제	후지메 유키(오사카대)
15:00~15:30	확장과 누락: 전시 성폭력 연구에 대한 고찰과 제언	백재예(메사추세츠 주립대)
15:30~15:50	휴식 및 장내 정리	
제3부 종합토론 좌장: 김은경(한성대)		
15:50~17:30	토론: 오하타 린(오사카대), 염운옥(경희대 글로벌역사문화연구소), 홍양희(한양대 비교역사문화연구소), 신지영(연세대 국학연구원), 이현미(일본군'위안부'문제연구소), 송연옥(아오야마가쿠인대학)	

※ 영어 · 일본어 동시통역

2023年日本軍「慰安婦」被害者たたえる日記念国際学術会議
ナショナリズムと性動員、その連続と断絶：
国家の性管理体制と日本軍「慰安婦」問題

開会式 南相九 東北亜歴史財団 研究政策室長		
09:40~09:50	歓迎の辞	李榮昊 (東北亜歴史財団 理事長)
09:50~10:00	break time	
一部: 帝国主義と性管理, 暴力を非可視化するナショナリズム 金英淑(東北亜歴史財団)		
10:00~10:30	「からゆきさん」に／からみる性と権力	嶽本新奈(お茶の水女子大学, ジェンダー研究所)
10:30~11:00	近代日本から見た欧米の性管理政策	林葉子(名古屋大学, ジェンダーダイバーシティセンター)
11:00~11:30	植民地朝鮮で日本の性管理政策と「管理される女性」	朴貞愛(東北亜歴史財団)
11:30~12:00	ドイツ国防軍売春宿と日本軍「慰安所」: 第二次世界大戦における軍売春/性奴隷制度の類似点と相違点	レギナ・ミュルホイザー(ハンブルク学術文化支援財団)
12:00~13:30	break time	
二部: 持続する暴力、認識の断絶、観点の問題 石珠熙(東北亜歴史財団)		
13:30~14:00	「慰安婦」言説中の「オリエンタリズム」考察	ローラ・カン (カリフォルニア大学アーバイン)
14:00~14:30	自然さについて: 平和時の「文化」と展示の「暴力」	張秀熙(東亜大)
14:30~15:00	女性史としての日本軍「慰安婦」研究と日本人「慰安婦」の非可視化問題	藤目ゆき(大阪大学, 大学院人間科学研究科)
15:00~15:30	拡張と欠落: 戦時性暴力研究に対する考察と提言	白在礼(マサチューセッツ大学アマースト)
15:30~15:50	break time	
三部: 総合討論 金垠慶(漢城大)		
15:50~17:30	大畑凜(大阪大学), 廉雲玉(慶熙大), 申知瑛(延世大), 李憲美(日本軍'慰安婦'問題研究所), 洪良憲(漢陽大), 宋連玉(青山学院大)	

**Continuity and Discontinuity in Nationalism and Sexual Mobilization:
Sexuality Management Policies at the State Level and
the “Comfort Women” Issues**

opening ceremony Sang-gu, Nam(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09:40~09:50	words of welcome	Young-ho, Lee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09:50~10:00	break time	
Session 1: Silencing Sexual Violence: Imperialism and the Appropriation of Sexuality Young-suk, Gim(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10:00~10:30	Sex and Power Studied With/From Karayuki-san	Nina, Takemoto(Institute for Gender Studies, Ochanomizu University)
10:30~11:00	Understanding Western Sexuality Policies in Modern Japan	Yoko, Hayashi(Center for Gender Diversity, Nagoya University)
11:00~11:30	Japan’s Sexuality Control Policy and “Managed” Women’ in Colonial Korea	Jung-ae, Park(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11:30~12:00	German Wehrmacht Brothels and Japanese “Comfort Stations”: On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of Systems of Military Prostitution/Sexual Enslavement in WWII	Regina Mühlhäuser(Hamburg Foundation for the Advancement of Research and Culture)
12:00~13:30	break time	
Session 2: Continued Violence, Discontinued Awareness, and Issues of Perspective Ju-hee, Suk(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13:30~14:00	Interrogating “Orientalism” in “Comfort Women” Discourse	Laura Hyun Yi Kang(University of California, Irvine)
14:00~14:30	On Naturalness - the ‘Culture’ in Peacetime and the ‘Violence’ in Wartime	Soo-hee, Jang (Dong-a University)
14:30~15:00	An Approach to Japanese Military Sexual Slavery as a Study of Women’s History and the Problems in the Sink-down of the Japanese ‘ <i>Ianfu</i> ’	Yuki, Fujime(Osaka University)
15:00~15:30	Expansion and Omission: Rethinking and Reimagining the Study of Conflict-Related Sexual Violence	Jaeye, Bæk(University of Massachusetts, Amherst)
15:30~15:50	break time	
Session 3: Panel Discussion Eun-kyung, Kim(Hansung University)		
15:50~17:30	Yun-ok Song, Woon-ok Yeom, Ji-young Shin, Hun-mi Lee, Lin Ohata, Yang-hee Hong	

목 차

1. 가라유키상(からゆきさん)에게/로부터 보는 성과 권력	
- 다케모토 니나 (嶽本新奈, 오차노미즈대 젠더연구소)	/ 11
2. 근대 일본에서 본 구미의 성 관리 정책	
- 하야시 요코 (林葉子, 나고야대학 젠더다이버시티연구소)	/ 33
3. 식민지 조선에서 일본의 성관리 정책과 '관리되는 여성'	
- 박정애 (동북아역사재단)	/ 75
4. 나치 독일 국방군 매춘업소와 일본군 "위안소": 2차대전 상시 군매춘/군성노예 제도의 유사성과 차이점에 관하여	
- 레기나 뮐호이저 (Regina Mühlhäuser, 함부르크 학술문화지원재단)	/ 101
5. '위안부' 담론 안의 '오리엔탈리즘' 고찰	
- 로라 현이 강 (Laura Kang, 캘리포니아대 어바인)	/ 145
6. 자연스러움에 대해서 - 평화시의 '문화'와 전시의 '폭력'	
- 장수희 (동아대)	/ 151
7. 여성사로서 일본군 '위안부' 연구와 일본인 '위안부'의 불가시화 문제	
- 후지메 유키 (藤目ゆき, 오사카대)	/ 165
8. 확장과 누락: 전시 성폭력 연구에 대한 고찰과 제언	
- 백재예 (메사추세츠 주립대)	/ 189
■ 토론문	/ 223

환영사

안녕하십니까.

무더위와 태풍이 번갈아 찾아들고 코로나19 또한 쉽사리 가라앉지 않고 있는 이때, 동북아역사재단에서 개최하는 2023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기념 학술회의'를 찾아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은 1991년 8월 14일 한국인 피해자 김학순의 공개증언을 기려, 2018년에 한국정부에서 8월 14일을 국가기념일로 제정했습니다. 또한 이 날은 2012년 '제11차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아시아연대회의'에서 제정한 '세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림일'이기도 합니다.

1991년 8월 14일 김학순의 증언 이후, 1993년 8월 4일 일본정부는 고노담화를 발표하여 "본인의 의사에 반한 위안부 여성의 피해 사실 확인과 가해국으로서 일본의 재발 방지 노력"을 공표했습니다. 고노담화는 역사부정론에 의해 형해화 되기는 했어도 여전히 살아 있는 기준이 되고 있는데, 올해는 고노담화가 나온 지 30년이 됩니다.

김학순의 증언은 전시 성폭력 피해와 식민지 지배 책임 문제를 공론화했습니다. 한국 뿐만 아니라 중국, 대만, 일본, 네덜란드, 필리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에서 일본군 위안부 생존자가 등장하여 목소리를 모았습니다. 이들의 바람은 가해와 피해의 진상을 철저하게 밝혀 "다시는 이런 일을 반복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제는 거의 생존자의 목소리를 직접 들을 수 없지만, 우리가 공유해온 피해자의 기억은, 다시 우리들의 기록과 이야기의 형태로, 더욱 전 세계에 확산될 것이라 믿습니다.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둘러싼 역사 갈등 해소와 문제 해결 방안 모색은 동북아역사재단의 핵심 사업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 재단은 기림의 날이 국가기념일로 제정된 2018년부터 '일본군위안부연구센터'를 설치하여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선 학문적 진실성에 기초하여 이 문제가 생산적으로 논의될 수 있도록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하고,

공유해 왔습니다. 또한 매년 학술회의를 개최하여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해결을 위해 한국과 일본, 그리고 국제사회가 어떻게 노력해 왔는지 점검했습니다.

올해는 학술회의의 규모도 키워 국제화하는 한편 연구의 관점도 확장하여, 학술적으로 심화된 결과를 도출해 내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동안 일본군'위안부' 연구는 제2차 세계대전 시기 또는 일본의 전쟁터와 식민지라는 시공간의 한계 속에서 논의해온 측면이 없지 않았습니다. 오늘 국제학술회의는 그동안의 협소한 논의를 성찰하고, 이 문제의 시간적 연속성, 공간적 확장 위에서 여성 인권과 평화의 가치를 국제적으로 재인식하는데 초점을 맞추고자 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뿐만 아니라 그 이전과 이후, 국익을 위한 성 동원의 실태를 시간적 연속성 속에서 검토하고자 합니다. 제국주의 국가인 일본과 독일, 제국주의 본국과 식민지 및 점령지, 아시아와 유럽 등 공간적 차이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공론장에서 진행되어온 일본군'위안부' 관계 논의의 현황을 점검하여, 이 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 및 논의의 논점을 뚜렷하게 하고자 합니다.

오늘 일본과 독일, 미국에서 참석해주신 발표자, 토론자 선생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각 주제에 오랫동안 천착해온 전문가로서 외롭게 읽고 고민하며 집필한 글을 이 자리에서 함께 공유할 수 있게 해주셔서 기쁩니다. 모든 발표문을 읽고 토론을 준비해주신 토론자 선생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차가운 머리와 뜨거운 가슴으로 오늘 토론이 풍성하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학술회의를 기획하고 추진해온 재단의 박정애 박사의 열정과, 또 지난 몇 개월 동안 학술회의 개최를 위해 어려운 일들을 감당해온 재단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고마움을 표합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08월 11일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 이영호

가라유키상(からゆきさん)에게/로부터 보는 성과 권력

다케모토 니나 (嶽本新奈, 오차노미즈대 젠더연구소)

가라유키상(からゆきさん)에게/로부터 보는 성과 권력

다케모토 니나 (嶽本新奈, 오차노미즈대 젠더연구소)

오늘 귀중한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케모토 니나입니다. 나는 ‘가라유키상(からゆきさん)에게/으로부터 보는 성과 권력’이라는 제목으로 보고하고자 합니다.

보고의 내용과 흐름은 슬라이드에 있습니다.

나는 일본 근대의 젠더사를 주된 전문 영역으로 하여 특히 ‘가라유키상’이라고 총칭된 일본인 여성을 연구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먼저 ‘가라유키상’이라는 말에 대해서부터 설명하겠습니다. ‘가라유키상’이란 일본이 개국을 한 후 해외로 건너가, 건너간 곳(渡航先)에서 성매매로 경제적 영위를 삼았던 여성들을 의미합니다. 원래 규슈 북서부의 사투리로, 한자로 ‘唐行き・さん’이라고 표기하듯이 ‘唐(가라)’로 ‘가는(行く)’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가라(唐)’는 당시 중국의 한 나라 이름이지만, 엄밀하게 국가로서의 중국은 아니었고, 바다 건너의 나라들을 총칭하여 ‘가라’라고 부른 듯 합니다.

‘가라유키상’의 출신지로는 나가사키현(長崎県)의 시마바라 반도(島原半島)와 구마모토현(熊本県)의 아마쿠사(天草)가 유명합니다. 이 지역이 유명한 이유는, 석탄을 실어나르는 국제선이 정박할 수 있는 구치노츠항(口之津港)이라는 항구가 시마바라에 있었고, 여성들이 석탄과 함께 이곳에서 밀항으로 송출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구치노츠항과 아마쿠사에 있는 오니케항(鬼池港)은 지금도 30분 정도의 페리 항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당시부터 바다를 사이에 두고 매우 가까운 장소였습니다.

1.

‘가라유키상’들의 행선지는 당시 국제무역항으로 번영하던 상하이나 러시아 배가 정박해 있다는 관계에서 블라디보스토크가 많았습니다. 특히 나가사키와 상하이의 관계는 ‘상하이는 과거 나가사키현 상하이시에서 우편이 도착한 곳’이라고 불릴 정도로 지리적으로 가까웠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상하이에 일본인 창관(娼館)이 출현하고 일본인 창부(娼婦)가 증가하면서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를 우려한 외무성 장관 이노우에 가오루(井上馨)는 상하이 일본영사관의 안도 다로(安藤太郎) 영사에게 ‘국체’에도 관련된 사항이니 단속

하라고 요청했습니다(사료는 슬라이드 참조). 이 시점에서 일본 정부는 일본인 여성이 ‘외국인의 치아’에 걸리는 것을 국가의 체면 문제로 대처하고자 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 정부의 ‘가라유키상’ 대책은 메이지 20년대의 해외 팽창주의 전환과 함께 명확하게 변했습니다. 정부는 해외에 있는 일본인 여성을 단속할 준비를 하고 있던 1891년(메이지24)에 ‘일본부인보호법안’을 제국의회에 제출했다가 다음 달 바로 철회했습니다. 그 이유는 밝히지 않았지만 이듬 해에 외무대신 에노모노 다케아키(榎本武揚)가 중국, 조선, 홍콩, 싱가포르, 샌프란시스코, 밴쿠버 영사관에 보낸 내훈을 보면, 그 철회 의도를 볼 수 있습니다. 내훈에는 “점점 우리 국민의 세력을 해외에 신장하는 대방침을 취”하는 이상에는 “사소한 보호책에 구애”되는 곤란 때문에 “우리나라 부녀의 해외 도항 단속”에 “너그럽지(寬)” 않을 수 없다는 견해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 국민 세력의 해외에 신장한다”는 것과 “우리나라 부녀의 해외 도항 단속” 문제는 다른 차원의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에는 관련된 것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만, 왜 그럴까요?

정부의 의도를 1896년에 시행된 이민보호법에서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이민보호법은 매춘(売春)을 하는 자나 그 업자의 해외 도항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지만, 조선과 중국은 적용 외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일본인 거리나 식민지에 대한 공창제도의 수출 때문이었습니다. 이민보호법이 나온 시기는 청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이 대만을 영유하면서 조선을 사실상의 ‘보호국’으로 만든 뒤였습니다. 일본은 정책의 중심을 대외 팽창으로 삼았고 상하이와 조선, 타이완 등 그때까지 성매매에 종사하는 일본 여성들을 단속하고 있던 지역에 속속 국내의 공창제도에 준하는 법령과 규칙을 공포하고 정비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이민보호법은 일본 국내에서 ‘창부’를 이동시키는 데 편의를 제공하는 내용이었습니. 즉 일본 정부에게는 대외 팽창에는 일본인 여성에 의한 성적 위안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부녀보호법안 철회 이후 일관된 일본 정부의 의도를 읽을 수 있습니다.

2.

일본 사회가 ‘가라유키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었는지 아주 간단하게 확인하고자 합니다. 1에서 확인한 사고방식은 사실 정부만의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를 들어 이민보호법이 나온 같은 해에 후쿠자와 유키치(福沢諭吉)는 자기가 주재하는 『지지신보(時事新報)』에 「인민의 이주와 창부의 별이(出稼ぎ)」라는 기사를 싣고, “인민의 해외 이식을 장려할 때 특히 창부 외출의 필요성을 인정받아야 한다. (중략) 부인의 별이는 인민의 이주와 옳고 그름 모두 양립할 수 있다면 오히려 공공연히 허가하는 것이야말로 득책”이라고 서술했습니다. 또 같은 해에 타이완 병참감(台灣兵站監)을 맡았던 육군 소좌인 히시지마(比志

嶋)는 타이완에 오래 있는 남성을 진정시키기 위해서는 공창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후쿠자와나 히시지마의 주장에서, 관리된 여성의 신체를 일본인 남성에게 ‘공급’하려는 사고를 읽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 주장은 항상 해외팽창론으로 포섭되었습니다. 후쿠자와나 히시지마와 같이 공창제도를 존속시켜야한다는 사람들을 존창파라고 합니다. 존창파와 정부의 방침이 거의 겹쳐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외 팽창을 이루는데 이주하는 일본인 남성에게는 위생적으로도 신체적으로도 관리된 창부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공유한 것입니다. 이것은 후에 ‘위안부’ 제도로도 이어지는 사고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에 공창제도를 필요로 하는 존창파와는 반대로, 공창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며 폐창운동에 매진했던 것은 기독교 관계자였습니다. 그중에서도 1886(메이지19)년에 설립된 일본기독교교풍회는 현재까지도 오랜 역사를 가진 것으로도 유명한 부인단체입니다. 이 교풍회가 활동 초기부터 조직했던 것이 ‘일부일처 청원’과 ‘재외 매음부 단속법 제정에 관한 청원’이었습니다. 교풍회가 제국의회에 제출한 ‘재외 매음부 단속법 제정에 관한 청원’에는 “일본의 오욕스러운 밀항 매음부”는 “일본제국”에게 “국기의 오염”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기독교 성 규범을 내면화한 교풍회에게 ‘재외 매음부 단속 청원’ 운동은 일본 제국의 체면을 위해 해외에 있는 일본인 창부 단속을 요구한 것이지, 그녀들에게 다가가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두 번째 인용에는, 교풍회의 해외 일본인 창부에 대한 초조함이 배어 있습니다. 그녀들이 “교묘하게 범망을 피해” 자신의 ‘성’을 자유롭게 “외국인에게 싸게 팔고” 있다고 교풍회는 파악했습니다. 교풍회가 요구하는 이상적 부부라는 것은 성행위가 부부라는 닫힌 관계에서만 주고받는 형태였습니다. 남편이 첩이나 창기와 같이 처 이외의 존재에게서 성적 만족을 얻는 것은, ‘이에(家)’ 안에서 처가 가벼워지게 되고, 게다가 여성의 ‘성’이라는 것은 결코 돈으로 매매할 수 있는 것이 아닌 유일무이한 것이 돼야 했습니다. 그렇지만, 전해지는 해외의 일본인 창부는, 매춘을 하는 것으로 도덕적 관념이 희박함을 보여주는 것이었고, 교풍회가 이상으로 생각하는 닫힌 관계의 ‘성’의 본연의 모습에 저촉되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존창파인 후쿠자와 유키치가 등장합니다만, 그는, 구미 가족을 본뜬 ‘근대가족’을 이상으로 삼았기 때문에 사회의 안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창기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다고 공창제 필요론을 주장하면서, 그곳에서 일하는 여성들을 “돈으로써 정을 파는 예창기와 같이, 인류의 가장 하류 등급인 인간사회 이외의 일(業)”이라면서, 그녀들을 혈뜬는 발언을 반복했습니다. 이 점에서 본래 벡터(Vektor)가 역방향이어야 하는 폐창파와 존창파인 후쿠자와의 주장이 겹쳤습니다. 즉 폐창파와 존창파의 주장은 모두 근대적인 ‘가족’의 창출을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성매매에 종사하는 여성을 차별, 주변화시키는 것이 일치합니다.

3.

이상으로 일본 정부의 정책과 일본 사회의 ‘가라유키상’을 둘러싼 담론을 대략 확인했습니다만, 여기에서 ‘가라유키상’ 자신의 이야기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사다 나츠요(笹田夏代)’라는 여성 이야기입니다. 이 이름은 가명입니다. 이분을 모델로 하여 시마바라 출신의 작가인 미야자키 고헤이(宮崎康平)가 『가라유키상 이야기』라는 소설을 썼는데, 그 안에서 사용한 이름입니다. 사사다의 이야기는 ‘가라유키상’의 소설을 쓰고 싶다고 생각한 미야자키의 요청에 응해 사사다가 자신의 생애를 말한 음성을 기초로 합니다. 미야자키와 사사다가 만난 것은 1961년으로, 이때 사사다는 73세였습니다. 우선 그녀의 약력을 간단하게 확인하겠습니다.

그녀는 1888년에 시마바라에서 태어나 아게야(揚屋)에서 하인 일을 하었는데, 16세 때 모친이 사망했습니다. 병으로 일하지 못하는 부친과 동생과 함께 궁핍한 생활을 벗어나기 위해 그녀는 외국에 가기로 결심합니다. 실제로 사마다의 무덤에 새겨진 모친의 사망 연도와 그녀의 별이 시기는 같았습니다. 그리고 외국에 가는 것을 도와줄 사람을 찾고 있을 때, 목욕탕에서 함께 있는 여성이 “먼 곳으로 갈까”라고 말을 걸어, 그 권유에 따르기로 결정했습니다. 1904년의 일이었습니다. 도항(渡航) 상황도 이야기하고 있는데, 시마바라의 구치노츠항에서 24명의 ‘딸’들과 4명의 밀항 알선업자들과 함께 석탄선을 타고 싱가포르로 밀항했다고 합니다. 싱가포르까지 한 달 정도 배 안의 창고에 갇혀 그동안 밀항업자들이 여성들을 성폭력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녀 자신은 오물을 몸에 바르고, 석탄 그늘에 숨어 몸을 지켰다고 합니다. 싱가포르에 상륙한 후에는 ‘말레이 거리(Maley Street)’라고 불리는, 일본인의 창관(娼館)이 즐비한 곳에서 1년 반 정도 일한 뒤, 18세에 영국인 남성에게 청을 받아, 그 남자가 제1차 대전에 종군할 때까지 8년 정도 함께 살았습니다.

싱가포르 ‘가라유키상’의 역사를 간단히 기억하고자 합니다. 먼저, 영국 해협 식민지였던 싱가포르의 발전과 팽창의 원인은 1880년대부터 이어진 중국인 노동자의 대량 유입에서 비롯됩니다. 이민 대부분이 독신자였기 때문에, 창부의 수요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1860년대의 시점에서 남녀의 비는 14대 1로, 이는 큰 변화 없이 이후 70년간, 남녀 불균형이 계속되었습니다. 1905년 화민호위사서(華民護衛司署)의 공적 자료에 따르면, 일본의 창관은 109채이고, 창부 수는 633명을 헤아린 것 같습니다. 사사다는 1888년에 태어나 1904년에 싱가포르에 건너갔기 때문에 어쩌면 이 공적 자료에 포함되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그녀의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사사다가 하루에 손님 49명을 상대했다는 이야기로부터 시작합니다. 시마바라의 사투리로 말하기 때문에 듣기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만, 실제 그녀의 음성을 들어보고자 합니다(2분 15초 정도).

사사다 나츠요가 하룻밤 사이에 49명을 상대했다고 미야자키에게 말합니다. 성병 검진이 1주일에 한 번 의무화된 가운데 이 검진에 걸리지 않기 위해 손님을 대할 때마다 매번 세정을 해야 했습니다. 1층에 있는 화장실까지 왕복해야 했고, 화려한 계단을 오르내리는 괴로움과 함께 기억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위생’을 위해서라고 ‘귀가 아프게’ 들었기 때문에, 그녀는 이 말을 지켰던 것 같습니다. 창관에서 일하는 여성들에게는, 의사가 건네준 장부가 있었고, 거기에는 여성들이 상대한 손님의 정보와, 상대 시간, 생리 주기 등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 장부를 의사가 확인하고 사인을 했습니다. 손님이 “보여줘”라고 하면, 그녀들은 거부할 수 없었다는 것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에서 ‘귀가 아프게’ 들었던 ‘위생’이 여성의 몸을 위해서가 아니라 어디까지나 손님을 위해, 창관을 위해서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하룻밤에 49명이나 손님을 상대하게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창관에서 일하는 여성의 몸에 대한 배려를 도외시한 관리가 의사와 손님과 창관 업주 3자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던 것입니다.

사사다는 18세에 영국인 남성에게 의해 창관을 그만두었습니다. 그녀는 당시 좋아하는 다른 영국인 손님이 있었지만, 이 영국인 남성이 빚을 청산하고, 역지로 그녀를 데리고 나온 것 같습니다. 결국 그녀는 8년 정도 그 남자와 함께 생활합니다. 역지로 함께 살게 됐지만, 그녀의 말을 들으면, 그와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서 사사다의 개인적 경험에서 빠져나와 주변을 둘러보면, 아시아의 식민지 도시에는 많은 단신의 유럽인 남성이나 경제력 있는 중국인 남성이 ‘가라유키상’을 현지처나 첩으로 두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가라유키상’의 입장에서 여기에 응하는 것은 창관에서 벗어나는 수단이기도 했습니다. ‘가라유키상’ 자신이 첩이 되는 것을 ‘첩봉공(お妾奉公)’이라고 표현했고, 워렌은 이를 ‘더 나은 가정부’라고 바꾸어 말했습니다. ‘현지처’나 ‘첩’은 상대 남성과의 관계 성격을 드러내는 호칭이지만, 그 내막은 어디까지나 계약 관계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모종의 계층 상승에 해당하는 낙적(身請け) 후 여성들의 다음 역할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이 아닌 새로운 ‘계약 주인’과의 1대 1 성적 관계에 더해, 그들 주변의 재생산 노동을 하는 ‘가정부’, 즉 돌봄 요원으로서 역할이 기대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창관을 나온 후 사사다의 생활은, 영국인 남성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던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만, 한편으로 마찬가지로 영국인 남성에게 의해 창관을 나오게 된 오사키(オサキ)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첩 봉공을 하고 나서는 상대가 한 사람뿐이어서, 일하기 편하지 않냐고 다들 말했다. 서양인들이 우리를 취급하는 것은, 성을 팔 때와 다르지 않았다. 그것이 끝나면 조로야(女郎屋)에 있을 때와 마찬가지로 남자의 것을 소독수로 씻어야 했다. 아무리 오랫동안 함께 살아도, 병이 없는 것을 알았어도, 용납되지 않았다. 대부분 우리를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4.

여기까지 ‘가라유키상’에 대한 일본 정부의 방침 전환과 ‘가라유키상’을 둘러싼 담론, 그리고 ‘가라유키상’의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가라유키상’이 놓인 입장에 대해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첫째, 해외 팽창으로 방향을 잡은 일본 정부는 일본인 남성을 위한 여성의 공급과 관리를 우선시하여, 식민지, 점령지 이외 지역에 있는 여성들에 대한 ‘보호’를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가라유키상’은 일본에서 보면, 일본의 공창제도에 편입되지 않은, 즉 관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단속해야 할 대상인 ‘사창’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사다나 오사키는, 영국 해협 식민지라는 싱가포르에서 그녀들의 몸이 관리되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창관을 나온 후에도 계속되어, 주변화된 여성에게야말로, 더욱 강한 섹슈얼리티나 몸이나 생식 관리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독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덧붙여서, 사사다는 영국인 남성과의 사이에서 임신을 했지만, ‘하프’가 태어나는 것을 기피한 상대방부터 설득당해 중절했습니다.

‘가라유키상’이 처했던 입장의 두 번째입니다. 1960년대 후반부터 ‘가라유키상’에 대해 기록한 모리사키 가즈에(森崎和江)가 홍콩에서 ‘위안부’의 감독을 했던 사토(サト)라는 여성에 대해 썼습니다. 사토가 감독한 ‘위안부’는 중국인 여성 20명, 조선인 여성 5명으로 상대는 일본 군인이었습니다. 사토는 태도가 건방졌던 일본 남자를 강하게 비판했지만, ‘위안부’의 감독이라는 입장에 보이듯이 ‘위안부’였던 중국인 여성이나 조선인 여성과 같은 처지에 입장을 두지 않았습니다. 나아가 사토는 감독으로서 중국인, 조선인 여성의 몸 관리를 맡고 있었습니다. 말할 것도 없이 ‘가라유키상’의 삶과 경험은 다양하고 천차만별입니다. 그러나 그녀들을 둘러싼 다층적인 권력에는 깊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성 사이의 위계질서도 그렇지만, 여성의 경험이나 관계성도 젠더 개념뿐만 아니라, 계급이나 민족성, 식민주의와 같은 문제와 관련지어 함께 정밀하게 살펴볼 필요성을 재인식하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からゆきさん」に / からみる性と権力

嶽本新奈 (お茶の水女子大学, ジェンダー研究所)

本日は、貴重な機会を与えていただきまして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嶽本新奈と申します。私からは、「からゆきさん」に / からみる性と権力」というタイトルで報告をさせていただきます。

報告の内容と流れはスライドにあるとおりです。

私は、日本近代のジェンダー史を主な専門領域とし、特に「からゆきさん」と総称された日本人女性を研究の対象としています。まずは、この「からゆきさん」という言葉から説明をはじめたいと思います。「からゆきさん」とは、日本が開国をして以降に海外へ渡り、渡航先で性売買を経済的営為としていた女性たちを意味します。元は九州北西部の方言であり、漢字で「唐行き・さん」と表記するように、「唐(から)へ行く」人を指した言葉でした。「唐」は当時の中国ですが、厳密な国としての中国ではなく、海の向こうの国々を総じて「唐」と呼んでいたようです。「からゆきさん」の出身地としては長崎県の島原半島と熊本県の天草が有名です。この地域がなぜ有名なのかといえば、石炭積み出しのための国際船が停泊できる口之津港という港が島原にあり、女性たちが石炭とともにここから密航で送り出されていたからです。この口之津港と天草にある鬼池港は今でもフェリーで30分程度の航路で結ばれていますが、当時から海を挟んで大変近い場所でした。

では早速1に入っていきます。「からゆきさん」たちの行き先は、当時国際貿易港として繁栄していた上海や、ロシア船が停泊していた関係からウラジオストックが多かったのですが、とりわけ長崎と上海の関係は、「上海は、かつて長崎県上海市で郵便が届いたところ」と言われるほど地理的に近い存在でした。そうした状況下で上海に日本人娼館が出現し、日本人娼婦が増加したため問題視されるに至りました。このことを憂慮した外務省長官の井上馨は上海領事館の安藤太郎領事宛に、「不体裁至極」で「外国人の歯牙に相懸り候様にては御国体に相関し不容易儀に候」と、「御国体」にも関わる事柄であるから取締り

をしろと要請しています。尚、該当箇所の史料は長いのでスライド最後に参考として入れておきますので、ご関心がある方はそちらをご覧ください。スライドには抜き出した文章を載せています。この時点での日本政府は、日本人女性が「外国人の歯牙」にかかるのは国家の体裁の問題であるとして対処しようとしていたことがわかります。

しかし、日本政府の「からゆきさん」対策は明治20年代の海外膨張主義への転換とともに明確に変化しました。政府は、海外の日本人女性を取り締まるべく準備していた1891（明治24）年の日本婦女保護法案を帝国議会に提出するも翌月すぐに撤回をします。撤回の理由は明らかになっていないのですが、その翌年に外務大臣榎本武揚から中国、朝鮮、香港、シンガポール、桑港、バンクーバ領事館宛てに出された内訓をみると、撤回の意図がみえてきます。内訓には、「益々我國民の勢力を海外伸暢するの大方針を執る以上は「些細の保護策に拘泥」することの困難ゆえに「我国婦女の海外渡航取締」には「寛」にならざるを得ない、との見解が打ち出されています。「我國民の勢力を海外伸暢する」とことと「我国婦女の海外渡航取締」の問題は異なる次元の問題であるにもかかわらず、ここでは関連するものと位置づけられています。なぜでしょうか。

政府の意図を1896年に施行された移民保護法から考えてみます。この移民保護法は売春をする者や売春業者の海外渡航を禁じる内容を盛り込んでいましたが、朝鮮と中国を適用除外としていました。適用除外を設けた理由は、日本人街や植民地への公娼制度の輸出のためでした。移民保護法が出された時期とは、日清戦争に勝利した日本が台湾を領有し、事実上朝鮮を「保護国」とした後でした。対外膨張を政策の中心に据えていく日本は、上海や朝鮮、台湾へと、それまで性売買に従事する日本人女性に取締りでもって臨んでいた地に次々と国内の公娼制度に準ずる法令・規則を公布、整備していく方向へと舵を切ったのです。移民保護法は日本国内から娼婦を移動させる上で便宜を図る内容でした。すなわち、対外膨張には日本人女性による性的慰安が必要であるとの認識が政府にはあったといえます。ここに婦女保護法案撤回から一貫した日本政府の意図を読み取ることができます。

では、2に入ります。日本社会が「からゆきさん」をどのようにまなざしていたのかをごく簡単に確認したいと思います。1で確認したような考え方は、実は政府だけのものではありませんでした。たとえば、移民保護法が出された同じ年に福沢諭吉は、自身が主宰する『時事新報』に「人民の移住と娼婦の出稼ぎ」という記事を掲載し、「人民の海外移植を奨励するに就て特に娼婦外出の必要なるを認めればなり。（中略）婦人の出稼は人民の移住と是非とも相伴ふ可きものなれば、寧ろ公然許可するこそ得策なれ」と述べています。またやはり同年に、台湾兵站監の任に就いていた陸軍少将の比志嶋は、台湾に長く日本人男性を落ち着かせるためには公娼制度が必要であると主張しています。福沢や比志嶋の主

張からは、女性の管理された身体を日本人男性に「供給」しようとする思考を読み取ることが出来ます。しかも、この主張は常に海外膨張論と抱き合わせでした。福沢や比志嶋のように、公娼制度を存続させるべきとする人々を存娼派と呼びますが、この存娼派と政府の方針はほぼ重なりあっていたといえます。対外膨張をなすうえで移住していく日本人男性には、衛生的にも身体的にも管理された娼婦が必要であるとの認識を共有していたのです。これは後の「慰安婦」制度にも繋がる思考であったといえるかと思えます。

さて、日本に公娼制度を必要だとする存娼派とは反対に、公娼制度を廃止すべきと廃娼運動に邁進したのはキリスト教関係者でした。その中でも1886(明治19)年に設立された日本キリスト教婦人矯風会は、現在に至るまで長い歴史を有することでも有名な婦人団体です。この矯風会が活動初期より取り組んでいたのが、「一夫一婦の請願」と「在外売淫婦取締法制定に関する請願」でした。矯風会が帝国議会に提出した「在外売淫婦取締法制定に関する請願」には、「日本の汚辱なる密航売淫婦」は、「日本帝国」にとって「国旗の汚」であると書かれていました。キリスト教の性規範を内面化した矯風会にとって「在外売淫婦取締請願」運動は、日本帝国の体面のために海外にいる日本人娼婦の取り締まりを求めたものであって、彼女たちに寄り添おうとしたものではありませんでした。2つ目の引用には、矯風会の海外の日本人娼婦への苛立ちがにじみ出ています。彼女たちは「巧みに法網を逃れ」て、その自らの「性」を自由に「外人に安売り」していると矯風会は捉えています。矯風会が求める理想の夫婦とは、性行為が夫婦という閉じられた関係の中だけで需給する形でした。夫が妾や娼妓といった妻以外での性的な満足を得ることは、「家」の中での妻が軽んじられることになり、しかも女性の「性」とは、決して金で売買できるものでなく、唯一無二のものでなければなりません。ですが、伝えられる海外の日本人娼婦は、売春をすることへの道徳的観念の希薄さを窺わせるものであり、矯風会が理想とする閉じられた関係における「性」のあり方に抵触するものだったのです。

再び存娼派の福沢諭吉に登場してもらいますが、彼は、欧米の家族を範とする「近代家族」を理想としていたために、社会の安寧を保つためには娼妓に頼るしかないと公娼制度必要論を唱えながら、そこで働く女性たちを「金を以て情を売るの芸娼妓たるが如きは、人類の最下等にして人間社会以外の業」であると、彼女たちを貶める発言を繰り返していました。この点において、本来ベクトルが逆向きであるはずの廃娼派と存娼派である福沢の主張が重なってしまいます。つまり、廃娼派と存娼派の主張は、どちらも近代的な「家族」の創出を目的としていたために、性売買に従事する女性を差別、周縁化するものとして一致してしまうのです。

さて、日本政府の政策と日本社会の「からゆきさん」をめぐる言説をざっと確認してき

ましたが、ここから「からゆきさん」自身の語りをみていきたいと思います。取り上げるのは「笹田夏代」という女性です。ちなみに、笹田夏代というのは仮名です。この方をモデルにした島原出身の作家である宮崎康平が『からゆきさん物語』という小説を書いているのですが、その小説の中での名前をお借りしています。笹田の語りは、「からゆきさん」の小説を書きたいと考えた宮崎の要請に応じて、笹田が自身の生涯を語った音声を基にしています。宮崎と笹田が会ったのは1961年で、この時笹田は73才でした。まずは、彼女の略歴を簡単に確認します。彼女は1888年に島原に生まれ、揚屋で下働きをしていましたが、16歳のときに母親が亡くなってしまいます。病気で働けない父親と弟妹を抱えての窮乏生活を脱するために彼女は外国へ行くことを決意しました。実際、彼女の墓に刻まれた母親の死亡年と彼女の出稼ぎ時期は同じでした。そして外国へ行く世話をしてくれる人を探しているときに、風呂屋で一緒になった女性から「遠い所に行かんかな」と声をかけられ、その誘いに乗ることに決めたのです。1904年のことでした。渡航の状況も語られていますが、島原の口之津港から24人の「娘」と4人の密航斡旋業者たちとともに石炭船に乗ってシンガポールに密航したそうです。シンガポールまで一ヶ月ほど船倉に閉じ込められ、その間、密航業者たちによる女性たちへの性暴力を目撃しています。彼女自身は汚物を体に塗って、石炭の陰に隠れて身を守ったそうです。シンガポールに上陸後は、「マレイ・ステレツ (Maley Street)」と呼ばれる、日本人の娼館が並ぶ場所で1年半ほど働いた後、18歳でイギリス人男性に請け出され、その彼が第一次大戦に従軍するまでの8年ほど一緒に暮らしていました。

シンガポールの「からゆきさん」の歴史を簡単におさえておきます。まず、イギリスの海峡植民地であったシンガポールの発展と膨張の原因は、1880年代から続いた中国人労働者の大量流入に始まります。移民のほとんどが単身者であったため、娼婦の需要が増加したそうです。1860年の時点で男女比は14:1で、これはあまり変化することなくこれ以降70年間、男女比の不均衡が続きます。1905年の華民護衛司署の公的資料によると、日本の娼館は109軒あり、娼婦数は633人を数えたようです。笹田は先ほど述べたように、1888年の生まれで1904年でシンガポールに渡っているのです、もしかしたらこの公的史料に数えられた一人かもしれません。

では、彼女の語りを具体的にみていきます。笹田が1日で49人の客をとったことがあったという話からはじまっています。島原の方言で話されているのでわかりづらいかもしれませんが、実際に彼女の声を聴いていただくとうと音声も用意しました(2分15秒程度)。(※次のスライドで説明しているので、通訳や時間の関係上飛ばしてもいいかもしれない)

笹田夏代が一晩で49人の相手をしたことを宮崎に語っていました。性病健診が一週間

に一回義務づけられていた中で、その検診に引っかけられないために客ごとに毎回洗浄をしなければならなかったと語られています。彼女の中では、一階にある洗い場まで往復しなければならず、立派な階段の往復の辛さとともに記憶されていたことがわかります。「衛生」のためと「やかましく」言われていて、彼女はその言いつけを守っていたようです。娼館で働いていた女性たちには、医者から渡された帳面があり、そこには女性たちが相手をした客の情報や客をとった時間、生理の周期などが記録されていました。この帳面を医者が確認してサインをし、客から「出せ」と言われれば、彼女たちがそれを拒否することはできなかったことも語られていました。彼女の語りからは、「やかましく」言われた「衛生」が女性の身体のためでなく、あくまで客のため、娼館のためであったことがわかります。そうでなければ、一晩で49人もの客をとらせたりはしなかったでしょう。娼館で働く女性の身体への配慮を度外視した管理が医者と客と娼館主の三者によって行われていたのです。

さて、笹田は18歳の時に英国人男性に身請けされました。彼女にはこの当時、他に好きな英国人の客がいたのですが、この身請けした英国人男性が借金を清算し、強引に彼女を連れ出したようです。結局、彼女は8年間ほどその男性と生活を共にします。身請けそのものは強引でしたが、彼女の語りからは、彼と親密な関係を築いていたことが伺えました。ここで笹田の個人的な経験から離れて、周辺を見渡すと、アジアの植民地都市では多くの単身のヨーロッパ人男性や経済力のある中国人男性が「からゆきさん」を現地妻や妾とする習慣がありました。「からゆきさん」にとってこれに応じることが娼館から抜け出す手段でもあったわけです。「からゆきさん」自身が妾となることを「お妾奉公」と表現し、ワレンはこれを「よりましな家政婦」と言い換えています。「現地妻」や「妾」は相手の男性との関係性における呼称ですが、その内実はいくまで契約関係だったといえます。ある種の階層上昇にあたる身請け後の女性たちの次なる役割は、不特定多数の客ではなく新たな「契約主」との一对一での性的関係に加えて、彼らの身の回りの再生産労働を行う「家政婦」、つまりケア要員としての役割を期待されていたといえます。

笹田の身請け後の生活は、英国人男性と親密な関係を築いていたようだと述べましたが、他方で、同じく英国人男性に身請けされたおサキは、次のように語っています。「お妾奉公になってからは、相手はたったひとりじゃけん、おつとめは楽じゃとみんな言うとったーばって、西洋人のうちらへの扱いは、お娼売のときと変わらんじゃった。あれが済むと、女郎屋にいたときとおんなじに、消毒水でおとこのもんを洗わにゃならんじゃった。どげん長う一緒に暮らしとつても、病気の無かことがわかっつても、許されることはなかったとね。大方、うちらを、おんなじ人間とは思っておらんじゃったからじゃろ。」

だいぶ雑駁に「からゆきさん」に対する日本政府の方針転換と、「からゆきさん」をめぐる言説、そして「からゆきさん」の語りをみてきました。最後に、「からゆきさん」が置かれていた立場についてまとめたいと思います。まず1点目に、すでに確認したように、海外膨張へと舵を切った日本政府は、日本人男性のための女性の供給と管理を優先して、植民地、占領地以外の地域にいる女性たちの「保護」を放棄していました。ですので、「からゆきさん」は日本からみると、日本の公娼制度下に入っていない、つまり管理されていないがゆえに取り締まるべき対象の「私娼」でした。しかしながら、笹田やおサキの語りからは、イギリスの海峡植民地というシンガポールで、彼女たちの身体が管理されていたことが語られていました。それは身請け後にも続き、周縁化された女性においてこそ、より強くセクシュアリティや身体や生殖の管理がなされたことを読み取ることができたと思います。ちなみに、字数の関係で触れませんでした。笹田は英国人男性との子どもを妊娠しますが、「ハーフ」が生まれてくることを忌避した相手から説得されて中絶をしています。

「からゆきさん」が置かれていた立場の2点目ですが、「からゆきさん」について1960年代後半に聞き書きをした森崎和江が、香港で「慰安婦」の監督をしていたサトという女性について書いています。サトの監督下にあった「慰安婦」は中国人女性20名、朝鮮人女性5名で、相手は日本軍人でした。サトは、尊大な態度の日本の男を強く批判しますが、「慰安婦」の監督という立場が示すように、「慰安婦」だった中国人女性や朝鮮人女性と同じ境遇に身を置くことはなく、しかも、サトが監督として、中国人、朝鮮人女性の身体管理を担っていたのです。言うまでもありませんが、「からゆきさん」の生き様や経験は多様で千差万別ですが、しかし、彼女たちをとりまく複層的な権力には注意深くあらねばならないと考えています。女性間のヒエラルキーもそうですが、女性の経験や関係性をジェンダー概念のみならず、階級やエスニシティ、植民地主義といった問題系とともに精緻にみていく必要性を再認識しつつ、報告を終えたいと思いま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Sex and Power Studied With/From *Karayuki-san*

Nina, Takemoto (Institute for Gender Studies, Ochanomizu University)

My major is modern Japanese gender history, and I am especially studying Japanese women collectively called 'Karayuki-san'. 'Karayuki-san' refers to women who have moved abroad since Japan opened its ports [to foreign countries] and lived there for economic activities through prostitution. It originated from a northwest Kyushu dialect, meaning a person 'going 가는(行く)' to the 'continent (唐)' in Chinese characters.

Karayuki-san's hometown is famous for the Shimabara Peninsula in Nagasaki Prefecture and Amakusa in Kumamoto Prefecture. This area is famous because there was a port in Shimabara called the Port of Kuchinotsu, where international coal-carrying ships could dock, and women were smuggled out of the port with coal. Port Kuchinotsu and Port Onike in Amakusa are still connected approximately by a 30-minute ferry route. Since then, they have been very close over the sea.

1.

Karayuki-san's destinations were usually Shanghai, a flourishing international trade port at the time, and Vladivostok, where Russian ships were anchored. In particular, Nagasaki was so geographically close to Shanghai that, as people say, "Shanghai is called the place where mail arrived from the Shanghai of Nagasaki Prefecture in the past". In such circumstances, Japanese brothels (娼館) appeared in Shanghai, and the number of Japanese licensed prostitutes (娼婦) increased, which became a problem. Foreign Minister Kaoru Inoue was concerned about this, so he asked Consul Taro Ando at the Shanghai Consulate for the crackdown as it was related to "national decency" (see the slide for historical records on it). It demonstrates that the Japanese government wanted to deal with this situation of Japanese women caught in 'foreign law and order' as a matter of national decency.

However, the Japanese government's measures on *Karayuki-san* changed clearly as overseas expansionism changed in the 1890s. In 1891, while preparing to regulate

Japanese women abroad, the government submitted the "Japanese Women Protection Bill" to the Imperial Diet and withdrew it immediately the next month. The reason is not known, but according to the instructions sent by Foreign Minister Takeaki Enomoto to the Consulates of China, Joseon, Hong Kong, Singapore, San Francisco, and Vancouver the following year, the intention of withdrawal can be understood. The instructions show the view that "taking a grand policy of gradually expanding the power of our people abroad" may confront difficulties due to minor protective measures," so we cannot but be "generous" on "regulation of the overseas migration of our nation's women" because there is a difficulty of "pending on protective measures" above "taking a grand policy to gradually expand the power of our people abroad" says we cannot but be generous on "the regulation of overseas migration of our nation's women." Even though "expanding the power of our people abroad" and "regulation of the overseas migration of our nation's women" are issues on different levels, they are positioned here as being related. I wonder why.

The government's intentions would be considered under the 1896 Immigration Protection Act. This included prohibiting prostitutes and their managers from overseas movement, but Joseon and China did not apply it. It was due to the export of licensed prostitution to Japanese streets and colonies in foreign countries. The Immigration Protection Act was introduced after Japan, with its victory in the Sino-Japanese War, had owned Taiwan and made Joseon a de facto "protectorate." Japan put external expansion at the center of its policy and turned to promulgating and overhauling laws and regulations equivalent to Japan's domestic licensed prostitution system in such regions as Shanghai, Joseon, and Taiwan, which had previously regulated Japanese women engaged in prostitution. The Immigration Protection Act was in fact intended to offer convenience to move 'licensed prostitutes' from within Japan. In other words, the Japanese government is perceived to have needed Japanese women's sexual comfort in the process of external expansion. It demonstrates the Japanese government's consistent intention with the withdrawal of the Japanese Women Protection Bill.

2.

What the Japanese society thought would be briefly examined here. The way of

thinking discussed above was never only that of government. For example, in the same year when the Immigration Protection Act came out, Yukichi Fukuzawa published an article titled "People's Migration and the Earnings of Prostitutes (창부)" in the media of his own and stated, "In case of encouragement of people's migration abroad, the necessity to export prostitutes should be recognized. ... If we say people's migration has both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to permit publicly women's earnings must be a good policy. Hishijima, a major in the army who served in charge of logistics in Taiwan in the same year, also argued that licensed prostitution was necessary to calm down those men staying in Taiwan for a long time. Fukuzawa and Hishijima's arguments reveal the idea of trying to provide controlled women's bodies to Japanese men. Moreover, such arguments have always been accepted by overseas expansionists. Those who need to maintain licensed prostitution are called 'prostitution continuation group'. The policies of the prostitution continuation group and the government almost overlapped each other. They shared the perception that the Japanese men migrating for foreign expansion need prostitutes controlled physically and hygienically. This idea later led to Japanese military slavery.

Meanwhile, it was Christian officials who focused on the movement to abolish licensed prostitution in Japan. Among them, the Japanese Christian Association for Good Morals founded in 1886, is a women's organization famous for its long history even now. From the beginning of its activities, the Association for Good Morals organized "a petition for monogamy" and "a petition for the enactment of the Prostitutes Overseas Crackdown Act." The Association for Good Morals' actions for the Prostitutes Overseas Crackdown Act, which internalized Christian sexuality norms, were not to get close to Japanese prostitutes overseas but to crackdown on them for the sake of Japanese Empire's decency. The following quote is imbued with the Association for Good Morals' anxiety about the Japanese prostitutes overseas: The Association for Good Morals realized that prostitutes "artfully dodge law and order" to "sell cheaply to foreigners" their sexes freely. The ideal husband-and-wife relationship required by the Association for Good Morals consisted of exchanging sexual behaviors only in a closed relationship between husband-and-wife. It is said that the husband's sexual satisfaction from anyone but his wife, like concubines' and prostitutes, belittles the wife's position in the house. And It is said that women's "sex" should never be

traded for money and should be unique. To the Association for Good Morals, Karayuki-san seems to have weak moral notions and get into prostitution, so as to violate the true essence of “sex” in a closed relationship, which the Association for Good Morals thought was ideal.

As Hukujawa Yukichi in the prostitution continuation group took a model of "modern family" after the European family as his ideal type of family, he argued that in order to maintain the well-being of society, he had no choice but to rely on licensed prostitutes, which ultimately means the necessity of licensed prostitution. In this respect, the arguments of the prostitution continuation group and Fukujawa's prostitution abolition group were overlapped, whose original vector should be in the reverse direction. In other words, both the abolishment and the continuation groups' arguments aimed at the creation of the modern 'family', so they are consistent with discriminating against and marginalizing women engaged in prostitution.

3.

Now a story of *Karayuki-san* will be discussed. It is the story of 'Natsuyo Sasada (assumed name)'. As Kōhei Miyazaki, a writer from Simabara, wrote a novel taking her as a model, he used this name. Sasada's story is based on her voice telling her life in response to Miyazaki's request that he write a novel about *Karayuki-san*. Miyazaki and Sasada met in 1961, when Sasada was 73 years old.

She was born in 1888 and worked as a maid in an *ageya* (揚屋, brothel). At 16, her mother died. She lived with her sibling and father, who couldn't work due to his illness, and decided to go abroad in order to escape poverty. Actually, the year of her mother's death engraved in her tombstone and the time she started to earn were the same. And when she was looking for someone to help, a woman with me in the bathhouse talked to me, saying, "Shall we go somewhere far?" and decided to follow the recommendation. It was 1904. It is told that from the port of Kuchinotsu in Shimabara, twenty-four "daughters" and four stowaway agents stowed away together in a

coal boat to Singapore. On the way to Singapore, she was trapped in a warehouse on board for about a month and witnessed stowaways sexually assaulting women. She was said to have put dirt on her body and hid in the shade of coal. After landing in Singapore, she worked for about a year and a half in a place full of Japanese brothels called 'Maley Street' and, at the age of 18, she was proposed to by a British man and lived with him for about eight years until he joined World War I.

Looking briefly at the history of Singapore's *Karayuki-san*, the development and expansion of the Singapore Colony of the [British] Straits Settlements resulted from the large influx of Chinese workers in the 1880s. It is said that the demand for prostitution increased as most of the immigrants were single. As of the 1860s, the ratio between men and women was 14 to 1, and this imbalance continued for the next 70 years without much change.

Meanwhile, Sasada starts her story by saying that she dealt with 49 customers a day. While it was mandatory to undergo an STD check-up once a week in order not to catch this check-up, I had to clean up every time I treated a customer. I had to go back and forth to the bathroom on the first floor, which you can see is remembered with the pain of going up and down the fancy stairs.

As she heard "for the sake of 'sanitation'" too "clamorously", she seemed to keep this word in her mind. For women working at brothels, there were books handed over by doctors. It recorded the information of the guests the women dealt with, the relative time, and the menstrual cycle. The doctor checked the book and signed it. When the guest told me to "show it to me," I couldn't resist him. The very "sanitation" that she heard too "clamorously" was not for the woman's body but for the guests and brothels. Otherwise, she wouldn't have had 49 guests a night. Doctors, guests, and three brothel managers were neglecting the consideration of women's bodies working at brothels, neglecting consideration, and controlling them.

Sasada quit her job in a brothel at the age of 18 after a British man *redeemed* her. There was another English customer she liked at the time, but it

seems that this English man paid off his debts and forced her out. Eventually, she lived with him for about eight years. According to her, though she was forced to live with him, she appears to have a close relationship with him.

In those Asian colonial cities at that time, many short European men and economically powerful Chinese men used to have *Karayuki-san* as a local wife or concubine. In the position of *Karayuki-san*, accepting this proposal would also be a means of getting out of brothels. *Karayuki-san* expressed herself as a concubine as ‘public offering of a concubine (お妾奉公)’, and Warren changed its expression to ‘better than a housekeeper’. ‘Local wife’ and ‘concubine’ are titles that reveal the relationship with her male partner, but actually the relationship can be regarded as a contractual one. Such women’s role after quitting brothels, which must be a certain kind of rise of status, was added one-to-one sexual relationship with a new ‘contracted master’ other than a number of unspecified guests, and could be expected to be a ‘housemaid’ working for the reproduction occurring around her, which means an agent for caring.

By the way, Osaki, who also came out of the brothel with Sasasida by a British man said as follows: “People told me if work became easier after the public offering of a concubine as I had only one partner. The way Westerners treat us was never different from when I sold my sex. When it was over, I had to wash his *thing* with disinfectant water, just like when I was in brothels. No matter how long we live together, I am not acceptable though he knew that I am not ill. It was because he did not think I was not the same human as him.”

4.

Finally, I would like to summarize the position of *Karayuki-san*. First, the Japanese government, turning its direction toward overseas expansion, prioritized the supply and management of women for Japanese men and gave up ‘protection’ for women from outside of colonies and occupied territories.

Therefore, *Karayuki-san* was not incorporated into Japanese licensed

prostitution, in other words she was not controlled and meant as a 'prostitute without license'. It means that she was a subject to regulation. By the way, Sasada and Osaki said that their bodies was controlled by Singapore Colony of the [British] Straits Settlements. This continued even after they left brothels, which can be interpreted that there was more enforced control on the sexuality, body, and reproduction targeting marginalized women. In addition, Sasada was pregnant with a British man, but she was terminated as she was persuaded by her partner who didn't want the birth of 'half' [or a child of mixed blood].

The second position of *Karayuki-san* is found in the writing about a woman named Sato. It was written by Kazue Morisaki, who had recorded *Karayuki-san* since the late 1960s. Sato worked as a director of *ianfu* in Hong Kong. The *ianfu* under supervision by Sato consisted of 20 Chinese women and five Korean women, and their partners were Japanese soldiers. Sato strongly criticized the Japanese men of arrogant manners, but as in the position of supervision of *ianfu*, she did not put herself in the same position as the Chinese or Korean women of Japanese Military Sexual Slavery. Moreover, Sato, as a director was in charge of controlling the bodies of Chinese and Korean women. Needless to say, the life and experiences of *Karayuki-san* are all different in variety. Therefore, thorough attention should be paid to the multi-layered power surrounding them. It is necessary to examine hierarchies among women, of course, as well as women's experience and relationships. And also other issues like their class, ethnicity, and colonialism will be required.

근대 일본에서 본 구미의 성 관리 정책

하야시 요코 (林葉子 나고야대학 젠더다이버시티연구소)

근대 일본에서 본 구미의 성관리 정책

하야시 요코(林葉子)

(나고야대학 젠더다시버시티 센터)

문제의 소재: 근대 일본의 성관리정책에 보이는 일본
특유의 문제는 무엇인가

- ① 왜, 일본군에 의한 전시성폭력이, 세계사적으로 봐도 가장 심각한 수준까지 확대했는가, 라는 문제
- ② 왜, 심각한 일본군'위안부'문제에 대해, 일본정부는, 전후 78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여전히 피해자들이 납득할 수 있는 문제 해결의 길을 제시하지 못하는가, 라는 문제

구미와 일본의 성과리정책 비교연구와
구미와 일본의 폐창운동 교류사 연구의 중요성

- ① 구미와 일본의 성과리 정책을 비교하여 일본 성과리 정책의 특징을 밝힐 필요가 있다. (일본군'위안부' 문제가 심각해진 원인을 해명하기 위해)
- ② 구미와 일본의 폐창운동이 어떻게 연계, 교류하고 있었는지 밝혀야 한다. (일본은 서구의 폐창운동에서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배우지 않았는지 밝히고, 일본 자신의 힘으로 공창제도를 폐지하지 못한 원인을 밝히기 위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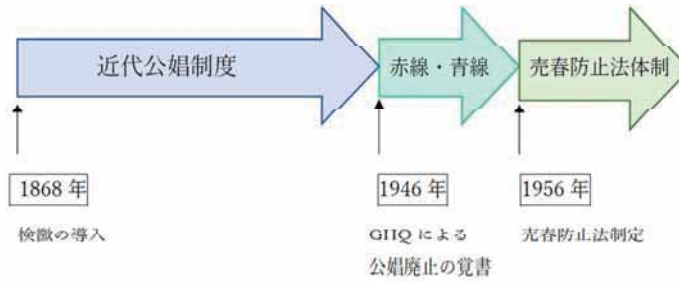
근대 일본의 공창제도 존폐문제에 관한 역사자료에 대해

- ① 공창제도 존폐와 관련된 일본 국내의 다양한 견해(존창론 포함)를 알기 위해서는 『가쿠세이(廓清)』 등의 폐창운동 잡지를 가장 중요한 기초자료로 볼 수 있다(정부 관계자, 이사, 보수파 사람들도 폐창운동 잡지에 주목했고 여기에 스스로 집필했다.)
- ② 그밖의 자료로는 일반 신문 등에 발표된 정치인이나 사회운동가의 발언 등이 있다. 다만, 신문기사는 단편적인 정보가 많다.
- ③ 성병 관련 국제회의에 일본 정부 관계자들도 참석하고 있었는데, 여기에서는 공창제도에 대한 견해가 거의 표명되지 않았다.

일본 공창제도의 시작과 끝

- 매독(미독, 梅毒)병원의 설립 (1868년) 과
김미제도의 도입
- GHQ에 의한 공창제 폐지의 각서(覚書) (1946년)
- 매춘방지법 (1956년 제정, 1958년 완전 시행)

일본에서 근대 공창제의 개시도 그 종언도, 모두 외국으로부터의 압력·명령에 따라 결정되었기 때문에, 일본 자신이 그에 대해 독자적으로 고안하고, 결정한다는 의식이 희박하다.



러시아군, 영국군과 근대 일본 공창제의 시작

1860년 나가사키(長崎)

러시아 해군을 위해 일본에서 최초로
검미를 실시



1868년 요코하마(横浜)

영국 해군이 압력을 받아 일본 최초로
매독병원을 건설





영국인 폐창운동가의 일본 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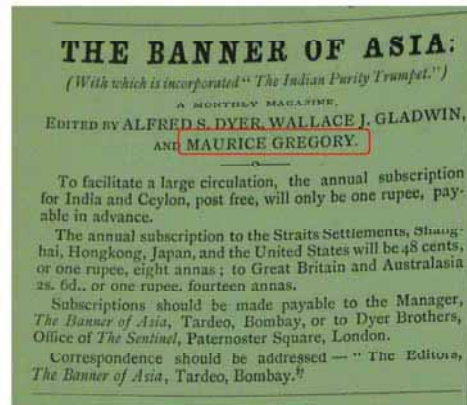
: 모리스 · 그레고리 (Maurice Gregory, 1859-1932) 의
일본 방문의 배경

- 1880년대부터 인도에서 활동하던 영국의 사회운동가 모리스 그레고리가 일본 방문 (1911-1912년)
- 그레고리는 일본에 영국의 근대 공창제도가 도입된 과거를 알고 책임감을 느낀
- 퀘이커 기독교도였던 그레고리는, 영국의 속죄를 위해, 일본의 폐창운동을 지원
- 그레고리의 증개로 일본의 폐창운동단체인 가쿠세이카이(廓清會)가 만국폐창동맹회(The International Federation for the Abolition of the State Regulation of Vice)의 지부기 됨



The Banner of Asia 『아시아의 깃발』, 1889년 창간

폐창, 금주, 아편 거래 근절을 목적으로 인도 봄베이에서 간행된 사의훈종잡지도 인도, 영국, 일본, 해협식민지, 상하이, 홍콩, 미합중국,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뉴기니아 등에서 판매됨.



『아시아의 깃발』 제 3 호 (1889년 3 월) 사설 「일본정부에 대한 어필」



林業子 「モーリス・クレコリーの来日と脱婚運動の全国組織・廓清会の発足」
イギリス・インド・中国・日本を結ぶ社会改良運動史の一断面」 『キリスト
教社会問題研究』第69号、2020年。

이 사설은 영국의 해군제독 알프레드 라이더(Ryder)가 1870년 중국 바다에서 영국 함대를 이끌고 있을 유럽. 상하이에 몰래 근대 공장제를 도입했으며, 일본정부에 대해서도 근대공장제가 '문명화를 위한 영국의인 제도'라고 주장하면서, 이를 일본에 실제로 도입한 것을 언급하면서, 근대 공장제도가 '영국적인 제도'라는 라이더의 설명은 완전히 거짓이라고 설명했다.

그리고 근대공장제도가 영국 본국에만 한정되지 않고, 어느 나라에서도 감염방지정책으로서는 실패하고 있는 것을 상세한 데이터를 거론하면서 설명했다. 일본정부에 대해, 이 사설은, 이처럼 "근대공장제도는 국가를 약하게 만든다"면서, "신은 씩씩하게 버텨하는 일본이 그러한 쇠퇴의 길을 견도록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서술하고, 일본 정부에 대해 "선전 부도덕을 공인하는 모든 법률을 폐지할 것과 여성과 아이를 확대하는 모든 기루업주(樓主)들을 엄중하게 처벌할 것"을 촉구했다.

『아시아의 깃발』 과 일본의 폐창운동

- 『아시아의 깃발』에는, 영국의 식민지인 인도나 실론의 CD법 (Contagious Diseases Act) 실시, 곧 창부로 간주되는 여성들에 대한性病검사의 강제실시 문제나, 그 사회배경으로서 여성의 인권 경시에 대해서, 거의 매호 비판 기사가 실렸다. 창간호에는 문제해결을 위한 협력을, 인도, 실론, 버마, 해협식민지, 중국, 일본에 있는 '진짜 기독교도'에게 호소했다.
- 일본에서도 『아시아의 깃발』이 구독되고 있었으며, 특히 그레고리가 다루고 있던 인신매매 사건('파트너 사건')에 대해서는 도쿄부인교풍회의 『도쿄부인교풍 잡지』에서 1889년 4월에 소개되었다.
- 『아시아의 깃발』에는, 폐창운동뿐만 아니라, 일본의 사회개량운동 전반에 관심이 집중되어, 예를 들어 『여학잡지』나 시마다 사부로(島田三郎)를 소개했다.

일본과 미국의 교풍회 기관지의 정보공유 : *Union Signal* 과 교풍회

기관지



왼쪽 : *Union Signal*,
1900년 6월 14일호
[일본의 야지마
가지코(矢島捐子) 소개]

오른쪽 : 『도쿄 부인
교풍잡지』 창간호,
1888년 4월
(가운데에, “Japanese
Leaflet of the World
Women’s Christian
Temperance Union”라고
기재되어 있다)



오구찌 렌지 씨(安部磯雄)의 소개

핵심인물로서 아부라다니 지로시치(油谷治郎七)

아부라다니 지로시치(1871.1.4 - 1935.1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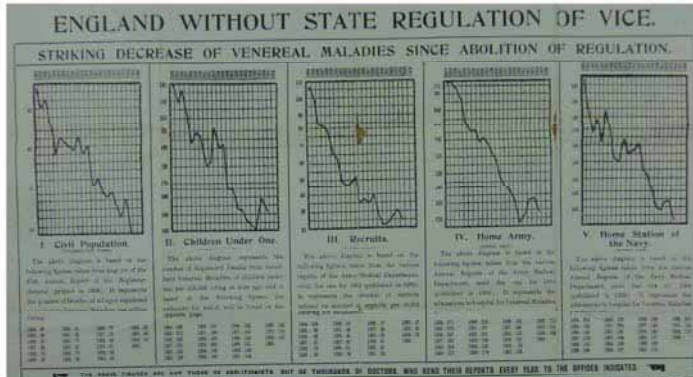
- 1900년 5월 일본조합 기독교회 총회에서 안수례를 받다
- 1902년 9월 - 미국 뉴욕 유니온신학교 콜롬비아 대학에서 공부하고, 귀국 전에 유럽을 돌다
- 그레고리는 일본 방문 직전, 당시 런던에 있던 아부라다니 지로시치에게, 일본 패창운동의 추진방안에 대해 상의하고, 아부라다니는 시마다 사부로(기쿠세이카이), 아지마 기치코(교풍회), 이네 이소오(安部磯雄, 가쿠세이카이), 야마무로 군페이(구세군) 4명에게 소개장을 써서 그레고리에게 건넸다.
- 1913년 일본 귀국
- 1916년 - 우에회(友會) 교육부장
- 1919년 - 외무성에 근무하면서 패창운동에 진력
그레고리로부터 구미의 성관리 정책에 대한 정보를 입수

그레고리의 일본 방문과 일본에서 인적 교류

- 일본 도착 직후 그레고리는 주일 영국대사 클로드 맥도널드(Claude MacDonald)로부터 일본방문의 성공을 기원하는 편지를 받았는데, 그레고리의 일본방문은 주일 영국대사관으로부터도 영일 외교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졌을 가능성이 있다. 주일 미국대사관 직원이나 주일 러시아대사관의 일등서기관으로부터도, 일본 방문에 대한 환영의 뜻이 전해졌다.
- 그레고리는, 일본에서 약 5개월 동안 머무는 동안 수많은 강연을 하고 일본정부 관계자와 면담했다.
- 그레고리는, 일본 방문 후에 쓴 회상록에서, 특히 구세군 야마무로 군페이를 칭찬했다. 또한 야시마 가시코는 일본의 폐상운동의 리더이자 일본의 소세핀 버들러라고 평가했다.



「공창제도가 없는 영국」
 "England without State Regulation of Vice"
 (LSE, Women's Library 소장)



일본에 방문하여 그레고리 내무성이나 육군성 등에서 행정을 담당하는 일본인과 면회했을 때, 그들로부터 접수한 질문은 대부분 공창제도의 성감염증 예방 효과에 관한 것이었다. 특히, 군대와 공창제도의 관계에 초점이 놓여 있었다. 그레고리는 일본 통치자의 이러한 관심에 따른 해설용 자료로서, 옆의 자료를 미리 준비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는 이후 『가쿠세이(廓清)』에 일본어로 번역되어 게재되었다.

아부라다니 지로시지가 소개한 다른 나라의 존창(存娼)·폐창(廢娼) 사정

1913년, 1914년만 해도 아래의 국가와 도시에 대해 소개

중국, 인도, 싱가포르, 벨기에, 러시아, 미국(시애틀, 샌프란시스코, 시카고, 워싱턴DC, 볼티모어, 뉴욕), 캐나다(밴쿠버), 일본, 오스트리아(빈), 독일(브레멘, 함부르크, 맨하임, 프랑크푸르트, 베를린), 벨기에(브뤼셀), 프랑스, 영국, 노르웨이, 덴마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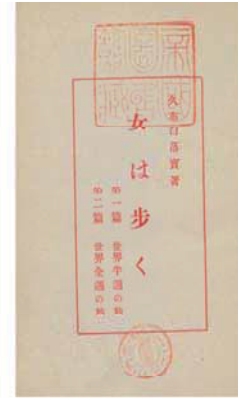
아부라다니는 1935년에 사망하기까지, 해외 공창제도나 폐창 사정에 대해 「가쿠세이」에 계속 소개했다.

- 공창제도와 그 폐지
- 폐창운동에 관한 단체나 개인의 사정
- 공창제도나 폐창에 대한 책 소개
- 폐창이나 성병대책에 관한 국제회의 개최상황
- 부인보호사정

구부시로 오치미(久布白落実, 1882-1972, 교풍회)에 의한
다른 나라의 폐창사정 소개

「복유립을 찾다」(1928년)

- 스위스·세네바 국제연맹·여성아동내대부 방문
- 영국·런던에서 조세핀 버틀러의 「백년제(百年祭)」에 참가, 「그 정신은 흘러 국제연맹까지 이르고…」
- 덴마크→노르웨이·오슬로도 이동, 노르웨이 공창제도 폐지의 배경 및 '여자홈'에 착안
- 스웨덴·스톡홀름의 교풍회 방문. 스웨덴에서 폐창 후의 단속이 여자만이 아니라 남자에게도 적용되는 것을 소개
- 핀란드 방문, 러시아를 경유하여 일본 귀국
- 북유럽 기독교의 '정신생활'에 강한 인상을 받고 "건전한 종교의 철저"가 중요하다고 주장.



久布白落実「女は歩く」市
民協会出版部、1928年

가쿠세카이(廓清会) 부인교풍회(婦人矯風会) 폐창연맹 (1926년

~)

연맹의 목적은 “우리나라 공창제도를 철폐하는” 것

위원을 10명 선출 (교풍회 6명, 가쿠세카이 4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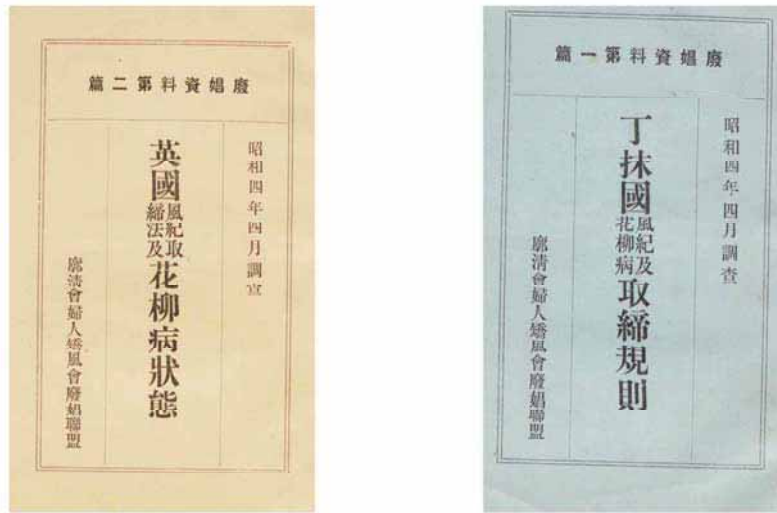
위원장(겸 총무부장) : 미츠야미 야헤이(松宮彌平, Matsumiya Yahei)

부위원장 : 하야시 우타코(林歌子)

위원 : 이토 히데키치(伊藤秀吉, 사업부장), 구부시로 오치미(재정부장), 가와사키 마사코(川崎止子), 다카시마 베이호(高島米峰), 마스토미 마사스케(益富政助), 고사키 지요코(小崎千代子), 와타세 가메코(渡瀬香芽子), 센모토키 미치코(千本木道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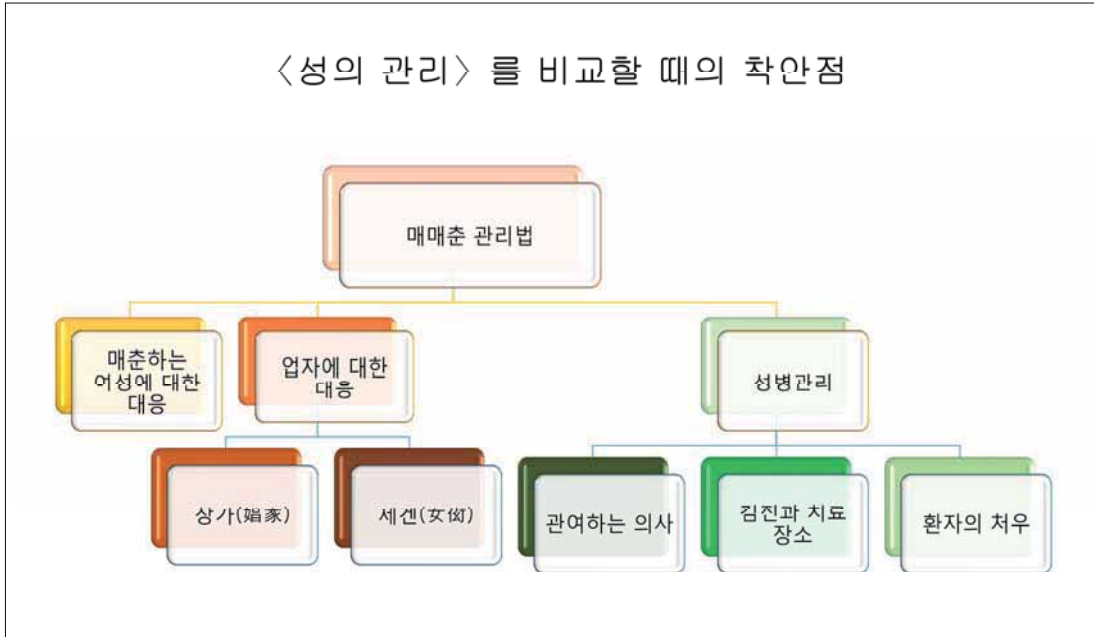
- 이 동맹의 사업은, ①중앙운동(정부, 의회에 대한 압력) ②지방운동(지방의회에 대한 압력) ③교육운동(강연, 언설, 출판)의 세 가지
- 지방의 '동지단체': 1929년 시점에서 20개현(縣)

『폐창자료』 (도시사대학 인문과학연구소 소장)

가쿠세카이(廓清会) 부인교풍회(婦人矯風会) 폐창연맹에 의한
다른 나라 공창제도의 조사결과 간행

- | | |
|--------------------|--------------------|
| 1 덴마크 (1929년) | 8 일본 (1929년) |
| 2 영국 (1929년) | 9 핀란드 (1930년) |
| 3 독일 (1929년) | 10 에스토니아 (1930년) |
| 4 프랑스 (1929년) | 11 네덜란드 (1931년) |
| 5 오스트리아 (1929년) | 12 영국령 캐나다 (1931년) |
| 6 헝가리 (1929년) | 13 노르웨이 (1932년) |
| 7 체코·슬로바키아 (1929년) | 14 스웨덴 (1931년) |

〈성의 관리〉를 비교할 때의 착안점



	단속주의 제도 유지	단속주의 제도 폐지
성병 치료의 강제	일본 프랑스 오스트리아 독일 헝가리	덴마크 에스토니아 체코 슬로바키아 노르웨이 스웨덴
성병 치료의 일부 강제		핀란드
성병의 임의 진료		영국 네덜란드 영국령 캐나다

성을 파는 여성에 대한 대응

- 경찰 등록의 필요성
- 매춘(売春) 처벌의 유무
- 상습인가 아닌가에 따른 행정 대응의 차이
- 호객의 제한
- 손님에 따른 처벌 차이
- 거주지나 매춘장소의 제한
- 교정소(矯正所)
- 보호소

업자에 대한 대응

창가(娼家)

- 허가제도인가 아닌가
- 처벌과 그 방법 (금고, 벌금 등)
- 소녀상대 (13세 또는 14세 이하) 의 경우 엄벌화의 유무
- 상습적인가 아닌가에 따른 대응 차이

제겐(女衛, 인신매매 업자)

- 처벌과 그 방법 (금고, 벌금, 강제노역)
- 소녀 상대 (13세 또는 14세 이하) 의 경우 엄벌화의 유무
- 상습적인가 아닌가에 따른 대응 차이
- 히모(ヒモ)의 벌칙
- 여성·어아(女児)를 외국에 끌고 나가는 것의 제한 및 벌칙

성병관리

의사와 병원

관여하는 의사

전문의 제도, 여성 의사,
검진방법의 제한, 의무화의 규정,
광고의 가부

진료와 치료의 장소

진료소, 상담소, 강제입원의 가부,
무료진료의 유무

환자

- 병든 것(罹患)을 모르고 감염시킨 경우 처벌
- 병든 것을 알면서도 감염시킨 경우 처벌
- 다른 사람에게 감염시킨 경우에 치료비 지불, 손해배상
- 수유로 인해 감염시킨 경우 (유모 등)
- 환자를 양자로 준 경우
- 부부사이에서 감염시킨 경우

맺음말

- 근대 일본의 구미 성관리 정책을 파악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주로 폐상운동 잡지에 그 견해가 제시되어 있다. 일본 정부관계자들도 그 정보에 관심을 갖고 있었다.
- 일본에서는, 이미 1880년대부터 구미의 성관리 정책에 대해 높은 관심을 가지고 폐상운동 잡지에 소개하고 있었다. 그 자료로 사용된 것은 주로 영문 잡지이다.
- 1880년대 이후 일본이 특히 강한 관심을 가진 것은, 영국의 성관리정책과 폐창사정이었다. 이는 일본의 근대공창제도가 영국의 영향 아래 도입된 경위와 관련이 있으며 영국의 폐창운동가인 모리스 그레고리로부터 강한 압력을 받은 것과도 관련이 있다.
- 일본에서는 1920년대부터 북유럽의 폐창에도 관심을 기울였다. 영국과 북유럽은 성관리 정책이 달라서 그 차이도 주목했다.
- 일본의 폐창운동에서 성관리 정책의 모델로 포착된 것은 영국이었다. 영국은 제국이였기 때문에 일본의 성관리 정책에 대해 논의하면서 제국주의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을 보인 경우는 거의 없었다.

近代日本から見た欧米の性管理政策

東北アジア歴史財団 日本軍「慰安婦」被害者をたたえる日記念国際学術会議

〈ナショナリズムと性動員、その連続と断絶

国家の性管理体制と日本軍「慰安婦」問題〉

2023年8月11日

林 葉子

(名古屋大学 ジェンダーダイバーシティセンター)

問題の所在：

近代日本の性管理政策にみられる日本特有の問題は何か

- ①なぜ、日本軍による戦時性暴力が、世界史的に見ても最も深刻なレベルにまで拡大してしまったのか、という問題
- ②なぜ、深刻な日本軍「慰安婦」問題に対して、日本政府は、戦後78年経った現在においてもなお、「慰安婦」被害者の方々の納得のいく問題解決への道筋を示すことができないのか、という問題

欧米と日本の性管理政策の比較研究、および、 欧米と日本の廃娼運動の交流史の研究の重要性

- ① 欧米と日本の性管理政策を比較し、日本の性管理政策の特徴を明らかにする必要がある
(日本軍「慰安婦」問題が深刻化した原因について解明するため。)
- ② 欧米と日本の廃娼運動がどのように連携、交流していたのかも明らかにする必要がある
(日本は、欧米の廃娼運動から何を学び、何を学ばなかったのかを明らかにし、日本人自身の力によって公娼制度を廃止することができなかった原因を明らかにするた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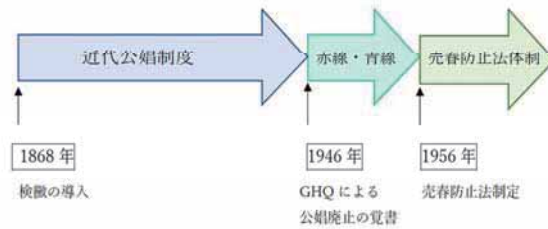
近代日本における公娼制度存廃問題に関する史資料について

- ① 公娼制度の存廃に関わる日本国内の多様な見解（存娼論を含む）を知る上では、『廓清』等の廃娼運動雑誌は、最も重要な基礎資料と見做しうる（政府関係者、医師、保守派の人々も廃娼運動雑誌に着目し、自らそこに執筆している）
- ② その他の資料としては、一般の新聞等に発表された政治家や社会運動家の発言等がある。ただし、新聞記事は、断片的な情報が多い
- ③ 性感染症関連の国際会議には、日本の政府関係者も出席しているが、そこでは、公娼制度についての見解は、ほとんど表明されていない

日本における近代公娼制度の始まりと終わり

- 梅毒病院の設立（1868年）と検査制度の導入
- GHQによる公娼制度廃止の覚書（1946年）
- 売春防止法（1956年制定、1958年完全施行）

日本では、近代公娼制度の開始もその終焉も、双方ともに、外国からの圧力・命令によって決められたため、日本人自身がそれらについて独自に考案し、決定したという意識が薄い。



ロシア軍、イギリス軍と近代日本の公娼制度の始まり

1860年 長崎

ロシア海軍のために日本で最初の検査を実施



1868年 横浜

イギリス海軍の圧力のもとで日本初の梅毒病院を建設





イギリスの廃娼運動家による日本への働きかけ
：モーリス・グレゴリー (Maurice Gregory, 1859-1932) の来日の背景

- 1880年代からインドで活動していたイギリスの社会運動家・モーリス・グレゴリーが来日 (1911-1912年)
- グレゴリーは日本にイギリスの近代公娼制度が導入された過去を知り、責任を感じる
- クエーカーのキリスト教徒であったグレゴリーは、イギリスの贖罪のため、日本の廃娼運動を支援
- グレゴリーの仲介により、日本の廃娼運動団体・廓清会 (かくせいかい) が、万国廃娼同盟会 (The International Federation for the Abolition of the State Regulation of Vice) の支部になっ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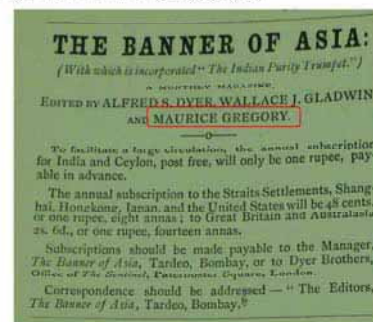
2023-08-08

7



The Banner of Asia 『アジアの旗』、1889年創刊

廃娼、禁酒、アヘン取引廃絶を目的として、インドのボンベイで刊行された社会運動雑誌。インド、イギリス、セイロン、日本、海峡植民地、上海、香港、アメリカ合衆国、オーストラリア、ニュージーランド、ニューギニア等で販売された。



2023-08-08

8

『アジアの旗』第3号(1889年3月)社説「日本政府へのアピール」



林業子「モリス・グレゴリーの来日と廃娼運動の全国組織・廓清会の発足：イギリス・インド・中国・日本を結ぶ社会改良運動史の一断面」『キリスト教社会問題研究』第69号、2020年。

同社説は、イギリス海軍の提督のアルフレッド・ライダー (Ryder) が1876年に中国の海でイギリス艦隊を率いていた頃、密かに上海に近代公娼制度を導入し、日本政府に対しても近代公娼制度は「文明化のためのイギリス的な制度」であると主張して、それを日本に実際に導入したことに言及しながら、近代公娼制度が「イギリス的な制度」だというライダーの説明は、まったくの虚偽であると説明した。

そして、近代公娼制度は、イギリス本国に限らず、どの国においても感染防止策としては失敗していることを詳細なデータを挙げながら説明した。

日本政府に対し、この社説は、そのように「近代公娼制度は国家を弱くする」ものであり、「韓は、たくましく繁栄している日本の国家が、そのような衰微の道をたどることを許さないだろう」と述べ、日本政府に対し、「性的不道徳を公認するすべての法律を廃止することや、女性や子どもを虐待している全ての楼主たちを厳重に処罰すること」を求めた。

2023-08-08

9

『アジアの旗』と日本の廃娼運動

- 『アジアの旗』では、イギリスの植民地であるインドやセイロンにおけるCD法 (Contagious Diseases Act) の実施、すなわち娼婦と見なされた女性たちに対する性病検査の強制実施の問題や、その社会的背景としての女性の人権の軽視については、ほぼ毎号、批判の記事が掲載されている。創刊号では、問題解決のための協力を、インド、セイロン、ビルマ、海峡植民地、中国、日本にいる「本物のキリスト教徒たち」に呼びかけた。
- 日本でも『アジアの旗』は購読されており、特にグレゴリーが取り組んでいた人身売買事件 (「バトナー事件」) については、東京婦人矯風会の『東京婦人矯風雑誌』で、1889年4月に紹介されている。
- 『アジアの旗』では、廃娼運動だけでなく、日本での社会改良運動全般に関心が寄せられ、たとえば『女学雑誌』や島田三郎のことが紹介されている。

2023-08-08

10

日米の矯風会の機関誌における情報共有：Union Signalと矯風会機関誌



左：Union Signal,
1900年6月14日号
(日本の矢島摂子を紹介)

右：『東京婦人矯風雑誌』創刊号、1888年4月
(中央に、"Japanese Leaflet of the World Women's Christian Temperance Union"と記載されている)

1 / 1



イギリスと日本の廃娼運動をつないだ
キーパーソンとしての油谷治郎七

油谷治郎七(あぶらだに・じろしち 1871.1.4-1935.10.9)

- 1000年6月 日本組合基督教教会総会で挨拶を受ける
 - 1902年9月 米国・ニューヨークのユニオン神学校、コロンビア大学で学ぶ 帰国前にヨーロッパを周る
 - グレゴリーは来日の直前、当時ロンドンにいた油谷治郎七に、日本での廃娼運動の進め方について相談し、油谷は、島田三郎(廓清会)、矢島摂子(矯風会)、安部磯雄(廓清会)、山室軍平(救世軍)の4名に紹介状を書いて、グレゴリーに持たせた
 - 1910年 日本に帰国
 - 1916年 友愛会教育部長
 - 1919年 社務所に勤務する中、にわが廃娼運動に尽力
- グレゴリーから、欧米の性管理政策についての情報を入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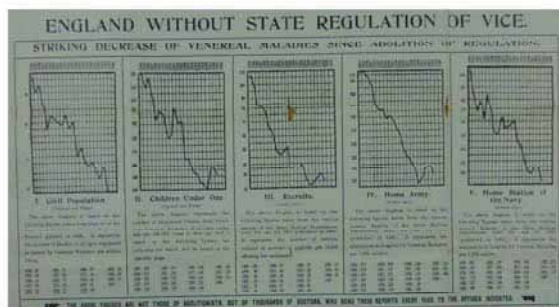
1 / 2

グレゴリーの来日と日本での人的交流

- 日本への到着直後にグレゴリーは、駐日イギリス大使のクロード・マクドナルド (Claude MacDonald) からこの日本訪問の成功を祈念する手紙を受け取っており、グレゴリーの来日は駐日イギリス大使館からも日英の外交関係に影響を及ぼしうると受けとめられていた可能性がある。駐日アメリカ大使館の職員や駐日ロシア大使館の一等書記官からも、来日への歓迎の意が伝えられた
- グレゴリーは 日本での約5ヶ月間の滞在中 数多くの講演を行い、日本政府の関係者らと面会した
- グレゴリーは、来日後の回想録で、特に、救世軍の山室軍平を称賛した。また、欠島楯子は日本の廃娼運動のリーダーであり、日本のジョセフィン・バトラーであると評している



「公娼制度のなき英国」
 "England without State Regulation of Vice"
 (LSE, Women's Library 所蔵)



来日の際、グレゴリーが内務省や陸軍省等で行政に携わる日本人と面会した時に、彼らからグレゴリーに寄せられた質問は、ほとんどが公娼制度の性感染症予防の効果についてであった。

特に、軍隊と公娼制度との関係に質問の焦点が当てられていた。グレゴリーは、そのような日本の統治者側の関心に沿った解説用の資料として、左の資料を、あらかじめ用意していたと考えられる。これは後に、『廓清』に、日本語に翻訳されて掲載された。

2023-08-08

15

油谷治郎七が紹介した他国の存娼・廃娼事情

1913年、1914年だけでも、以下の国と都市について紹介

中国、インド、シンガポール、ベルギー、ロシア、アメリカ（シアトル、サンフランシスコ、シカゴ、ワシントンDC、ボルチモア、ニューヨーク）、カナダ（バンクーバー）、日本、オーストリア（ウィーン）ドイツ（ブレーメン、ハンブルク、マンハイム、フランクフルト、ベルリン）ベルギー（ブリュッセル）、フランス、イギリス、ノルウェー、デンマーク

油谷は、1935年に亡くなるまで、海外の公娼制度や廃娼事情について『廓清』誌上で紹介しつづける

- ・公娼制度とその廃止
- ・廃娼運動に関わる団体や個人の情報
- ・公娼制度や廃娼についての本の紹介
- ・廃娼や性病対策に関する国際会議の開催状況
- ・婦人保護事業

2023-08-08

16

久布白落実（1882-1972、矯風会）による他国の廃娼事情の紹介

「北欧を訪ふ」（1928年）

- ・ スイス・ジュネーブ 国際連盟・婦人児童禁売部訪問
- ・ イギリス・ロンドンでジュゼフィン・バトラーの「百年祭」に参加、「その精神は流れて国際連盟にまで達し…」
- ・ デンマーク→ノルウェー・オスロへ移動、ノルウェーの公娼制度廃止の背景および「女子ホーム」に着目
- ・ スウェーデン・ストックホルムの矯風会訪問。スウェーデンで廃娼の後、取締を女子だけでなく男子にも適用することが議論されていることを紹介
- ・ フィンランド訪問、ロシア経由で日本に帰国
- ・ 北欧におけるキリスト教の「精神生活」に強い印象を受け、日本でも「健全なる宗教の徹底」が重要であると主張



久布白落実「女は歩く」市民協会出版部、1928年

廓清会婦人矯風会廃娼連盟（1926年～）

連盟の目的は「我国公娼制度を撤廃する」こと

委員を10名選出（矯風会6名、廓清会4名）

委員長（兼総務部長）：松宮彌平 副委員長：林歌子

委員：伊藤秀吉（事業部長）、久布白落実（財務部長）、川崎正子、高島米峰、
倉宮政助、小崎千代子、渡瀬香芽子、千木本道子

- ・ 同連盟の事業は、①中央運動（政府、議会への働きかけ）、②地方運動（地方議会への働きかけ）、③教育運動（講演、演説、出版）の3つ
- ・ 地方の「同志団体」：1929年の時点で20県

2023-08-08

『廃娼資料』（同志社大学人文科学研究所蔵）



19

2023-08-08

廓清会婦人矯風会娼娼聯盟による
他国の公娼制度の調査結果の刊行

- | | |
|----------------------|-------------------|
| 1 デンマーク (1929年) | 8 日本 (1929年) |
| 2 イギリス (1929年) | 9 フィンランド (1930年) |
| 3 ドイツ (1929年) | 10 エストニア (1930年) |
| 4 フランス (1929年) | 11 オランダ (1931年) |
| 5 オーストリア (1929年) | 12 英領カナダ (1931年) |
| 6 ハンガリー (1929年) | 13 ノルウェー (1932年) |
| 7 チェコ・スロヴァキア (1929年) | 14 スウェーデン (1931年) |

20

〈性の管理〉の比較の際の着眼点



	取締主義制度 維持	取締主義制度 廃止
性病治療の強制	日本 フランス オーストリア ドイツ ハンガリー	デンマーク エストニア チェコ・スロヴァキア ノルウェー スウェーデン
性病治療の一部強制		フィンランド
性病の任意診療		イギリス オランダ 英領カナダ

性を売る女性への対応

- 警察への登録の必要性
- 客による処罰の違い
- 売春処罰の有無
- 居所や売春の場の制限
- 常習か否かによる行政の対応の違い
- 矯正所
- 保護所
- 客引きの制限

業者への対応

娼家

- 認可制度か否か
- 処罰とその方法（禁錮、罰金等）
- 少女相手（13歳または14歳以下）の場合の厳罰化の有無
- 常習か否かによる対応の違い

女衞

- 処罰とその方法（禁錮、罰金、強制労役）
- 少女相手（13歳または14歳以下）の場合の厳罰化の有無
- 常習か否かによる対応の違い
- ヒモの罰則
- 女性・女兒を外国に連れ出すことの制限および罰則

性病管理

医師と病院

関与する医師

専門医制度、女医、検診方法の制限、義務化の規定、広告の可否

検診と治療の場所

診療所、相談所、強制入院の可否、無料診療の有無

患者

- 罹患を知らずに感染させた場合の処罰
- 罹患を知らずから感染させた場合の処罰
- 他者に感染させた場合の治療費支払、損害賠償
- 授乳により感染させた場合（乳母等）
- 患者も里子に出した場合
- 夫婦間で感染させた場合

まとめ

- 近代日本における欧米の性管理政策の捉え方については、主に廃娼運動雑誌に、その見解が示されている。日本の政府関係者もその情報に関心を寄せていた
- 日本においては、すでに1880年代から、欧米の性管理政策に強い関心を持たれ、廃娼運動雑誌で紹介されていた。その資料として用いられたのは、主に英文の雑誌である
- 1880年代以降、日本人が特に強い関心を寄せたのは、イギリスの性管理政策と廃娼事情であった。それは、日本の近代公娼制度がイギリスの影響のもとで導入された経緯と関係があり、イギリスの廃娼運動家であるモーリス・グレゴリーからの強い働きかけがあったこととも関連している
- 日本では、1920年代からは、北欧の廃娼にも関心が寄せられていた。イギリスと北欧とは性管理政策が異なり、その違いも注目されていた
- 日本の廃娼運動において、性管理政策のモデルと捉えられたのがイギリスであり、イギリスは帝国だったので、日本の性管理政策についての議論の中で、帝国主義に対する批判的な視点が打ち出されることは、ほとんど無かった

Understanding the Western Sexuality Policies in Modern Japan

Yoko, Hayashi(林葉子)
(Center for Gender Diversity, Nagoya University)

Thesis of Argument: What is the problem unique in Japan regarding modern Japan's sexuality governing policy

- ① The question of why wartime sexual violence by the Japanese military got escalated to the most serious level in world history
- ② The question of why, in 78 years after the war, the Japanese government still didnot provide a resolution that victims can understand for the serious 'Japanese Military Sexual Slavery' issue

**Significance of the Comparative Study on Sex Governing Policy
between Europe & USA and Japan, and the Study on the History of Exchange
between Europe and Japan on the Movement of Prostitution Abolishment**

- ① With comparison between Europe and Japan on their sex governing policies, it is necessary to elucidate significant features of Japan's sex governing policies (to explain the cause of "Japanese Military Sexual Slavery" issue to have got serious)
- ② The involvement and exchange between Europe and Japan on the Movement of Prostitution Abolishment should be clarified (to find out what Japan learned and what did not from the Europe's prostitution abolition movement, and to find out why Japan failed to abolish the licensed prostitution on its ow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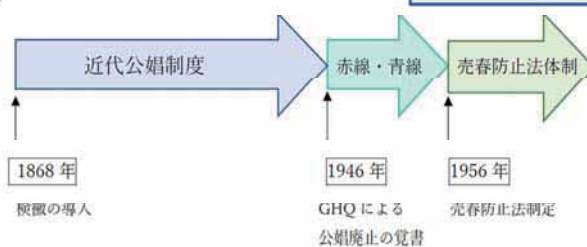
**The Historical Sources on the Existence and Abolition of
licensed prostitution in Modern Japan**

- ① In order to understand different views in Japan on the existence and abolishment of the licensed prostitution, including the theory of maintainance of prostitution, the Prostitution Abolishment Movement magazines such as *Kakusei* 廓清 can be regarded as the most important basic resources (government officials, medical doctors, and conservatives also paid attention to the Prostitution Abolishment Movement magazines and wrote articles themselves).
- ② Other resources include remarks by politicians or social activists published in general newspapers. However, newspaper articles have a lot of fragmentary information.
- ③ Japanese government officials were also attending an international conference on STD, where few opinions were expressed on the licensed prostitution.

The Beginning and End of the Japanese licensed prostitution

- Establishment of Lock Hospital (1868) and Introduction of the venereal disease screening system
- memorandum on the Prostitution Abolishment Movement by GHQ (1946)
- The Prostitution Prevention Act (enacted in 1956; fully enforced in 1958)

Since the beginning and the end of the modern public singing system in Japan were all determined by foreign pressure and orders, there is little consciousness that Japan itself devised and decided on it independently.



Beginning of the Modern Japan's licensed prostitution for Russian & British Military

Nagasaki In 1860

First venereal disease screening in Japan implemented for Russian Navy



Yokohama in 1868

Japan's first Lock Hospital established under pressure from the Royal Nav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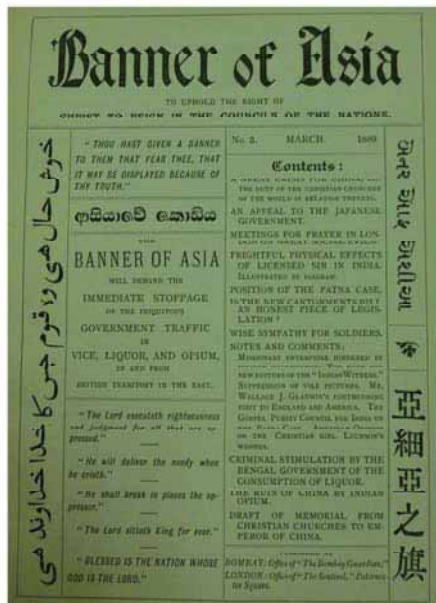


Background of Maurice Gregory (1859-1932)'s visit to Jap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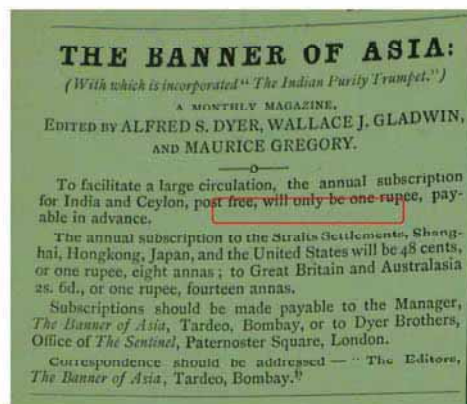
Maurice Gregory, British social activist who had been active in India since the 1880s, visited Japan (1911-1912)

He felt responsible for the introduction of British modern licensed prostitution to Japan

- As a Quaker Christian, he supported Japan's abolitionist movement for British atonement
- Through Gregory's mediation, the Japan's abolitionist organization Kakuseikai (the Purity Society) became a branch of the International Federation for the Abolition of the State Regulation of Vice



The Banner of Asia, Founded in 1889.



THE BANNER OF ASIA.

A GREAT CRISIS FOR CHINA,
AND THE DUTY OF THE CHRISTIAN CHURCHES OF
THE WORLD IN RELATION THERETO.



MEETS of signatures in various languages have begun to come in to us for the Memorial to the Chinese Government suggested in our January issue. We are hopeful that the membership of the Christian Churches of Great Britain, America, and Australasia, and also of some countries of continental Europe where there is vital Christian life, will join heartily with their brethren in Asia, to seize this momentous opportunity. The *Harvest Field*, a Missionary magazine published in South India, speaks thus, voicing we believe, the feelings of Christians in India generally—

We entirely agree with the suggestion made by the *Banner of Asia* in regard to the opium traffic of China. Mr. Dyer says that in 1855 the Chinese Government obtained from Great Britain an opium agreement which can be made to terminate on January 18th, 1891, by twelve months notice being given on either side. The opium traffic has got so decided a hold on China, that the Chinese Government will not find it easy to take effective steps for banishing the curse from the country; but Mr. Dyer suggests that the British Churches should unite all their strength in encouraging the Chinese authorities to close the present agreement, and to refuse to be party to another. In this we think the Churches of India, a country where the evil of opium is far more patent than it is in England, should

AN APPEAL TO THE JAPANESE
GOVERNMENT.

At the commencement of last year an English Admiral named Ryder, was drowned in the Thames under circumstances which pointed to suicide. He had a history. When he was Commander-in-Chief of the English Fleet in the Chinese Seas in 1876, he, secretly and unknown to the English people, introduced an iniquitous system of licensing immorality into Shanghai, China, and used his influence to get it introduced wherever else he could. In urging the system upon the Japanese Government, he said that it was a "civilizing and English system;" and without sufficient enquiry it was thereupon introduced into the great towns of Japan.

It was quite false on Admiral Ryder's part to say that the system was an "English" one. Although it has been introduced in many places in the British Empire, it has always been done secretly, and unknown to the English people, and directly it has been brought fairly before them, it has been at once abolished. It was introduced in this underhand manner into the great Indian Empire, where it was carried out in seventy districts. Last year it was unearthed by the Editor of the *English Sentinel*, who paid a visit to Asia for the purpose, and at once the English House of Commons passed a Resolution commanding it to be swept away.

The Banner of Asia No. 3
(March 1889)

editorial article

林葉子「モーリス・グレゴリーの来日と廃娼運動の全国組織・廃娼会の死因：イギリス・インド・中国・日本を結ぶ社会改良運動史の一断面」『キリスト教社会問題研究』第69号、2020年。

The Banner of Asia and Japan's Abolition Movement

- *The Banner of Asia* almost always published critical articles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Contagious Diseases Act in India, Ceylon, and other British colonies, on the compulsory implementation of STD testing on women considered to be prostitutes, and on the disrespect of women's human rights as a social background. The first issue appealed to "real Christians" in India, Ceylon, Burma, Strait Colonies, China and Japan for cooperation in resolving the issue.
- *The Banner of Asia* was also subscribed to in Japan, and particularly the Women's Association for Good Morals (Tokyo Fujin Kyofukai) introduced the human trafficking cases ("partner cases") that Gregory was dealing with in *The Journal of Tokyo Fujin Kyofukai* in April, 1889.
- *The Banner of Asia* focused on the Prostitution Abolishment Movement as well as on the overall social improvement movement in Japan, and it introduced *Jogaku zasshi* or Saburō Shimada.

Japan-U.S. Information Sharing on :
Union Signal and Kyofukai's Institutional Magazine



Jiroshichi Aburatani, a Key Figure Connecting the British and the Japanese Prostitution Abolishment Movemen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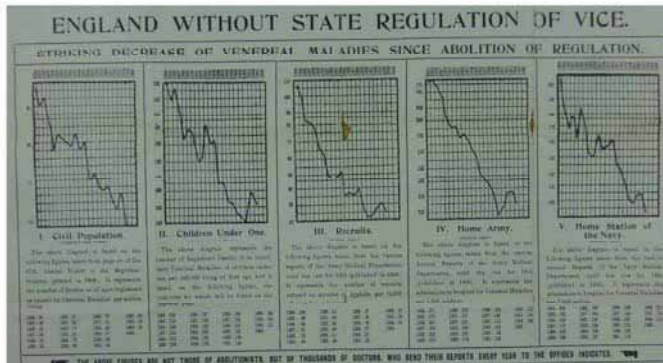
- Jiroshichi Aburatani (1871.Jan.4-1935.Oct.9)
- Ordained at the General Assembly of the Christian Association of Japan in May, 1900.
- Studied at Columbia University, Union Theological Seminary in New York, USA, and traveled around Europe before returning home from September in 1902 .
- Just before visiting Japan. Gregory consulted Aburatani Jiroshi staying in London at the time, on how to promote the Prostitution Abolishment Movements in Japan, and Aburatani wrote an introduction letter to Saburo Shimada, Kajiko Yajima, and Ieu Abe and Gunpei Yamuro and gave it to Gregory.
- 1913 "Return to Japan"
- From 1916 Director of Education at Yuaikai (友愛会)
- From 1919 Worked in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devoted to the abolition movement
- Got information about sex governing policies in the US and Europe from Gregory

Gregory's Visit to Japan and Face-to-Face Communication in Japan

- Right after arriving in Japan, Gregory received a letter from Claude MacDonald, the British ambassador to Japan, wishing for the success of his visit to Japan, which may have also been accepted by the British Embassy in Japan as affecting British-Japanese diplomatic relations. Staffs at the U.S. Embassy in Japan and the first secretary of the Russian Embassy in Japan also welcomed the visit.
- Gregory gave numerous lectures and met with Japanese government officials during his five-month stay in Japan.
- Gregory praised Gunpei Yamamuro at the Salvation Army, in particular, in his memoirs after his visit to Japan. Kaziko Yajima also called Japan's leader in the closing movement and Japan's Josephine Butler.



"England without State Regulation of Vice" (collected in the Women's Library at LSE)



When Gregory visited Japan and met with Japanese administrators at the Ministry of Home Affairs and the Ministry of Army, most questions received from them were about the preventive effect of STD in the licensed prostitution.

In particular, the focus lay i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military and the licensed prostitution.

Gregory is assumed to have prepared the following data in advance as an explanatory source due to such interest by the Japanese ruler. It was later translated into Japanese and published in *Kakusei* (廓清).

Jiroshichi Aburatani Introduced the Circumstances of Maintenance and Abolition of Prostitution in other countries

In 1913 and 1914, the following countries and cities were introduced:

China, India, Singapore, Belgium, Russia,
(Seattle, San Francisco, Chicago, Washington,
DC, Baltimore, New York) USA, (Vancouver)
Canada, Japan, (Vienna) Austria, (Bremen,
Hamburg, Manheim, Frankfurt, Berlin)
Germany, (Brussels) Belgium, France, Britain,
Norway, Denmark

Aburatani continued introducing the licensed prostitution and the situation of the Prostitution Abolishment in *Kakusei* until he died in 1935.

- the licensed prostitution and the abolition of it
- the situation of those organizations or individuals related to the prostitution abolishment movements
- books on the licensed prostitution and the prostitution abolishment
- the situation of international conferences on the prostitution abolishment and countermeasures against sexually transmitted diseases
- the situation of protection of women

Ochimi Kubushiro(久布白落実, 1882-1972)'s Introduction to Other Countries' Prostitution Abolishment at Fujin Kyofukai or Women' s Association for Good Morals

"Visit Northern Europe" (1928)

Visited the Women and Children Trafficking Department of the International Federation at Geneva, Switzerland.

Participated in Josephine Butler's Centennial Festival in London, England, as in "The spirit flows to the League of Nations..."

Traveled from Denmark to Oslo, Norway and noticed the background of the prostitution abolishment in Norway and took notice of the "Women's Home."

Visited the Women's Association for Good Morals in Stockholm, Sweden, and introduced the fact that the crackdown after the prostitution abolishment in Sweden applied to men as well as women.

Visited Finland and returned to Japan via Russia.

Impressed by the Christian "spiritual life" in Northern Europe, and argue that "the thoroughness of a healthy religion" is important.



"Woman Walks," Published at the Department of the Citizens Association of Hokusane, KUFA, 1928

Fujin Kyofukai(廓清会) or the Federation of Prostitution Abolishment in Women's Association for Good Morals (婦人矯風会) (from 1926)

The object of the federation is to "abolish our nation's licensed prostitution."

Elected 10 members of committee (six from the Fujin Kyofukai and four from Kakusekai)

Chairman (Deputy General Manager): Yahci Matsumiy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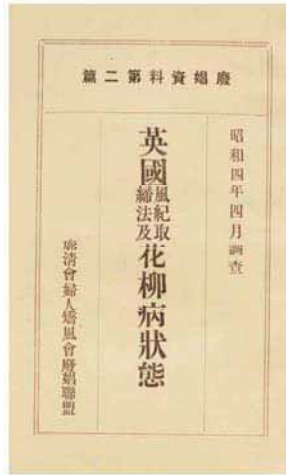
Vice-Chairperson: Utako Hayashi

Member: Hideyoshi Ito (Director of Business Division), Ochimi Kubushiro (Director of Finance), Masako Kawasaki, Dcihō Takashima, Masasuke Masutomi, Chiyoko Kosaki, Kameko Watase, Michiko Semotoki

This association's activities consisted of central actions (pressure on the government and the Diet), local actions (pressure on local councils), and educational actions (lecture, speech, publication)

Local 'companion organizations': 20 prefectures as of in 19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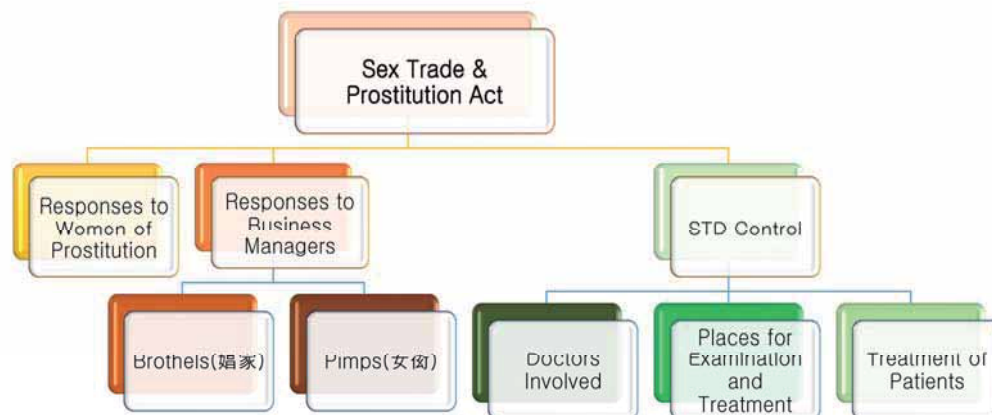
『Data on the Campaign to Abolish the licensed prostitution System』
 (a collection of the Humanities Research Institute at Doshisha University)



Publication of the results of the investigation of other
 countries' licensed prostitution systems by League of
 Movement for the Abolition of the Licensed Prostitution
 System

- | | |
|--------------------------------------|--------------------------|
| 1 Denmark (1929) | 8 Japan (1929) |
| 2 Great Britain (1929) | 9 Finland (1930) |
| 3 Germany (1929) | 10 Estonia (1930) |
| 4 France (1929) | 11 Netherlands (1931) |
| 5 Austria (1929) | 12 British Canada (1931) |
| 6 Hungary (1929) | 13 Norway (1932) |
| 7 Czech Republic and Slovakia (1929) | 14 Sweden (1931) |

A Point of View in Comparison of "Governing Sexuality"



	Maintaining a regulatory system	Abolition of the regulatory system
compulsory treatment of venereal disease	japan france Austria germany Hungary	Denmark Estonia czechoslovakia Norway Sweden
Part of the compulsion of venereal disease treatment		Finland
voluntary venereal disease treatment		uk Netherlands british canada

Responses to Women in Prostitution

- Need for police registration
- Existence or lack of prostitution punishment
- Differences in administrative responses according to whether they are habitual or not
- Restrictions on the number of customers
- Different customer-specific punishment
- Restrictions on residence and prostitution
- Correctional facilities
- Shelters

Responses to Business Managers

Brothels(娼家)

- Is it a permission system or not?
- Punishment and its methods (cash, fine, etc.)
- Whether there is severe punishment in the case of a girl (aged 13 or under 14)
- Different responses to inveterateness

Pimps (女衞, Human Traffickers)

- Punishment and its methods (inmate, fine, forced labor)
- Is there any severe punishment in the case of a girl (aged 13 or under 14) or not?
- Different responses depending on inveterateness
- the punishment of a *himo* (ヒモ)
- Restrictions and Penal Provisions on Dragging Women and Girls (女児) to Foreign Countries

STD Control

Medical Doctors and Hospitals

Doctors Involved

specialist system, women doctors,
restrictions on examination methods,
mandatory regulations, possibility of
advertisement

Places for Care & Treatment

clinics, counseling centers, compulsory
hospitalization, and free medical treatment

Patients

- Punishment for infections without knowing that they are sick
- Punishment for infection inspite of knowing he/she is sick
- Payment of medical expenses and compensations for damages in case of infection to another person
- In case of infection due to lactation (by nanny, etc.)
- In case of sending a patient for adoption
- Infection between husband and wife

Closing remarks

- Opinions are mainly presented in the magazines on the prostitution abolishment movement, concerning how to understand the Europe's sex governing policy in modern Japan. Japanese government officials were also interested in the information.
- In Japan, since the 1880s, Europe and the U.S's sex governing policy had already been introduced, in the prostitution abolishment movement magazines with high interest. It is mainly English magazines that are used as source books.
- Since the 1880s, Japan has been particularly interested in the sex governing policy and the prostitution abolishment movement in UK. This is related to how modern Japan's prostitution abolishment movement was introduced under British influence, and to strong pressure from British abolitionist Maurice Gregory.
- Japan has also paid attention to the northern Europe's prostitution abolishment movement since the 1920s. UK and Northern Europe have different sex governing policy, so they also noted the differences.
- It was UK that was captured as a model for gender management policy in Japan's prostitution abolishment movement. Since IJK was an empire, it rarely showed a critical view of imperialism while discussing Japan's sex governing policy.

식민지 조선에서 일본의 성관리 정책과 '관리되는 여성'

박정애 (동북아역사재단)

식민지 조선에서 일본의 성관리 정책과 ‘관리되는 여성’

박정애 (동북아역사재단)

1. 발표의 목적

① 근대 ‘제국 일본’의 공창제에 대해 재정의하는 것. 이는 공창제를 내세워 ‘위안부’제의 피해를 부정하는 역사부정론자에 대한 대응이자, 그 둘의 차이를 ‘굳이 언급’하면서 ‘위안부’의 피해 성격을 강조하는 대응 방식에 대한 비판적 문제 제기이기도 하다.

② 조선에 시행된 공창제의 식민주의 문제라고 할 때, 이는 조선인 창기 문제가 아니라 식민지라는 지역 문제임을 주장하고자 한다. 이는 ‘제국 일본’ 공창제의 속지주의 적용에서 기인하며, 조선에서 성 매수를 했던 남성 ‘유객(遊客)’의 성격에서 비롯한다. 그리고 일본군 ‘위안부’ 동원과정에서 식민지라는 지역이 활용되는 방식에서 힌트를 얻었다.

③ ‘외지’와 ‘내지’를 포함한 ‘제국 일본’의 공창제를 살펴보고, 공창제에 대한 영문 표기를 ‘regulationism’이나 ‘system of licensed prostitution’이 아니라 ‘Koushousei(公娼制)’로 표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자 한다. 미리 얘기하자면, 이것이 절대적으로 옳아서가 아니라, 역사적 실태와 성격에 대한 생산적인 논의를 위해서 제안하는 것이다.

2. 공창제 연구에 대한 검토로 보는 공창제/‘위안부’제 비교의 문제점

일본에서 발간된 역사 사전에는 공창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되어 있다.

① 근세의 공창 “근세의 공창제도는 에도의 요시와라, 교토의 시마바라, 오사카 신마치의 3대 유곽에 전형적으로 보이는 것처럼 매매춘 영업 면허지를 헤자나 흠담으로 에워싸고 일반 시가지에서 격리하여 공인한 점에 특징이 있다. 곧 근대 공창제도가 매독 검사를 하고 창부 ‘개인’에게 감찰을 교부하여 공창으로 등록한 것에 반해, 근세의 경우에는 공허 ‘지역’을 공간적으로 격리한 것에 그치고 엄밀하게 개개인의 공창을 장악하기에는 이르지 못했다.”¹⁾

② 근대의 공창 “특정한 지역과 여성에게 감찰을 주고, 이 사람들의 매춘 영업이나 매

1) 曾根ひろみ, 『日本女性史大辞典』, 吉川弘文館, 2007, 244쪽.

춘 주선옥을 국가가 공인하는 제도 … 메이지가 되자 전국 각지의 유곽이 공허되는 동시에 성병 만연 방지를 목적으로 한 검매제도가 도입되었다 … 공창제도 하에서는 전차금에 기초한 여성의 인신매매가 사실상 공인…”²⁾

③ 공창 “공허된 유녀 … 1193년 유군별당 … 그 지배를 받은 … 유녀가 일본 공창의 시초로 여겨지고 있다. … 공창은 근대의 명칭이었다.”³⁾

시대와 성격 규정은 각각 다르지만 모두 공창제라는 용어의 범주 안에서 정치권력의 성매매 관리를 다루고 있다. 19세기 후반, 20세기 초 일본은 군대를 앞세워 대륙에 진출하고, 이곳의 일본 남성을 위해 성매매 집결지역을 정하고, 이곳의 여성들에 대한 등록과 성병검진을 했다. 일정 기간 동안, 그러니까 일본의 그 지역 정치적 지배가 확고하지 못하고 국제사회의 눈치를 보는 기간에는, ‘창기’라는 호칭을 피하고, 예기, 작부 등의 이름으로 관리했는데 이 주제 연구자들은 이를 ‘공창제’라는 범주 아래에서 연구해 왔다⁴⁾.

그런데, 어째서 아시아·태평양 전쟁 기간 동안 일본군이나 그 지역 영사관 경찰 등에 관리당한 ‘위안부’들은 ‘공창’의 범주에서 이탈해야 하는 것일까. 실제로 이 시기 공문서에 ‘위안부’보다 더 자주 나오는 표현이 ‘작부’나 ‘예기’, ‘특수부인’ 같은 표현인데도 불구하고 말이다. 앞에서 얘기했지만, 실질적인 성매매 관리 대상 여성이라도, 이에 대한 ‘창기’나 ‘작부’, ‘예기’ 등이 호칭 차이가 나는 것은 그 지역 일본의 정치권력의 성격 차이(+국제사회의 공인)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둘 다 성노예 피해자지만, 그래도 ‘공창’과 ‘위안부’는 다르다고 주장하는 연구자는 요시미 요시아키와 오노자와 아카네다. 이들은 일본 공창제에는 형식 차원의 자유폐업 규정이 있지만, ‘위안부’ 제도에는 이마저도 없다고 말한다⁵⁾. 그러나 이들이 가리키는 것은 일본 내지의 공창제 사례이다. 비교 대상인 ‘위안부제’는 어느 시기, 어느 지역에 존재했던 것을 가리키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창기의 외출 제한이나 자유 폐업은 내지와 조선을 통해서 상당히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있지만, 다른 점은 내지에는 농중조에 점점 자유가 나타나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 것과 반대로 조선에서는 불행한 여성들이 방화, 형무소, 칼모틴 자살기도, 유치장 등과 같은 비참한 길을 더듬어 가고 있다는 점이다. (増田道義, 「公娼制度並に藝娼妓自由廢業に關する若干の考察資料

2) 小野沢あかね, 『日本女性史大辞典』, 吉川弘文館, 2007, 244-245쪽.

3) 小森隆吉, 『国史大辞典』, 吉川弘文館, 1985, 384쪽.

4) 야마시타 영애, 「한국 근대 공창제도 실시에 관한 연구」, 이화여대 석사논문, 1992; 宋連玉, 「日本の植民地支配と国家的管理売春: 朝鮮の公娼を中心にして」, 『朝鮮史研究会論文集』 32, 1994; 藤永壯, 「日露戦争と日本による「満州」への公娼制度移植」, 『快樂と規制 近代における娯樂の行方』 大阪産業大学産業研究所, 1998.

5) 오노자와 아카네,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공창제도」, 『그들은 왜 일본군 ‘위안부’를 공격하는가』, 휴머니스트, 2014, 271-272쪽. (『「慰安婦」バッシングを越えて—「河野談話」と日本の責任』, 大月書店, 2013.)

(1)』, 『警務彙報』 327, 1934.)

조선의 창기제도, 곧 1916년에 제정된 <가시자시키창기단속규칙>이 1900년에 제정된 일본의 <창기단속규칙>보다도 자유 폐업이 규정이 누락된 채(=애매한 채)로 구성되었다는 것은 이미 1992년에 야마시타 영애가 지적한 바 있다⁶⁾. 위의 인용문에서 보듯이 조선총독부 경무국 사무관을 지낸 마스다 미치요시도 조선의 창기는 내지의 창기에 비해 ‘비참한 길’을 더듬고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내지의 <창기단속규칙>은 내무성령으로, 가시자시키 단속 관련 규정은 경시청령(警視庁令)과 현령(縣令)으로 정하였고, 조선의 <가시자시키창기단속규칙>은 경무총감부령(→경령(警令))으로 정했다. 각각의 상위법은 ‘제국 헌법’과 ‘제령(制令)’으로 또 달랐다.

양 지역에서 서로 달랐던 창기제도를 비교하는 이유는, 성 관리 정책에 반영된 식민주의를 분석하기 위해서다. 그리고 그동안 이는 ‘일본 공창제 연구’의 범주에서 이루어져 왔다. ‘위안부’제도는 일본 내지의 창기제도보다 공창제(창기제도+예기작부에 대한 성관리 제도)와 성격이 더 가깝고, 일본 내지의 공창제보다 식민지 조선의 공창제와 성격이 더 가깝다. ‘위안부’는 일본 내지의 창기와 같아서 피해자가 아니라는 역사부정론자에 대해 일본 내지의 창기는 자유 폐업 규정의 적용대상자라서 ‘위안부’와는 다르다는 대응이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공창제’와 ‘위안부제’는 서로 다른 범주의 시스템이었다는 이러한 주장은, ‘위안부’는 공창이 아니어서 피해자가 맞다는 결론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3. 식민지 조선이라는 정치적 지역의 공창제: 창기 제도를 중심으로

이 주제를 다루는 연구자들은 1916년 경무총감부령 제1호~제4호로

조선에서는 과연 언제 허가할까라고 묻는 일도 있지만, …… 조선의 매소부(売笑婦)가 자기 집에서 손님을 맞는 일은 결코 사창이라고 볼 수 없다. 내지인을 집단시키는 것에 반하여 이들은 각각 영업하는 것만으로 공창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 이 감찰을 준 것이다(警務總監部 保安課長 中野有光, 「鏡臺の油斗に勘定帖を持っている芸妓」, 『朝鮮及滿州』 107, 1916. 6.).

조선에서 공창제가 확립될 때 조선인 창기의 집결화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규제주의(regulationism)로 번역되는 공창제의 정의가, 집결화, 등록제도, 강제성병검진이라는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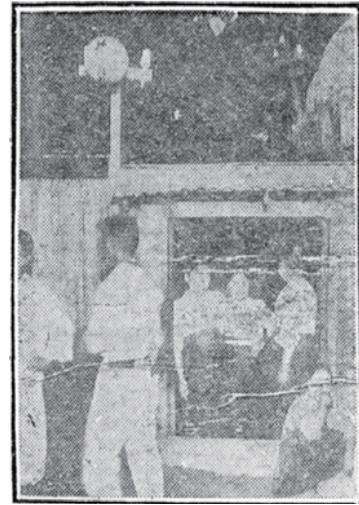
6) 야마시타 영애, 위 논문, 50쪽.

을 생각할 때, 조선의 창기는 공창이 아닌 것이 된다. 성병 검진도 일본인이나 조선인이냐에 따라 달랐다. 1922년 현재 “경성부는 내지인 창기는 5일마다, 조선인 창기는 1주일마다 1회 시행하기로 하고 지방에서는 1주 1회 또는 약 10일에 1회”⁷⁾ 시행한 것이다.

조선총독부는 ‘토지 상황’에 따라 이런 차이가 생겼다고 설명했지만, 더욱 근원적으로는 조선에 남성식민자들의 정착이 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위의 보안과장 나가노 아리미쓰도 같은 글에서 “금일은 이미 내지인 이주자도 다수에 올랐고, 선인(鮮人)이 내지인 동일 상태에 이르기도 다수여서 이 업태의 자와 일반인의 접촉하는 기회도 나날이 빈번해졌다. 즉 편리, 풍기, 위생 차원에서 획기적인 법규를 둘 시기에 도달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고 밝혔다. 여기에서 “편리, 풍기, 위생”은 이용자의 입장에서 말하는 것이다.



신정(新町) 가시자시킴 구역/



「병목정 '갈보」 『동아일보』 1924.7.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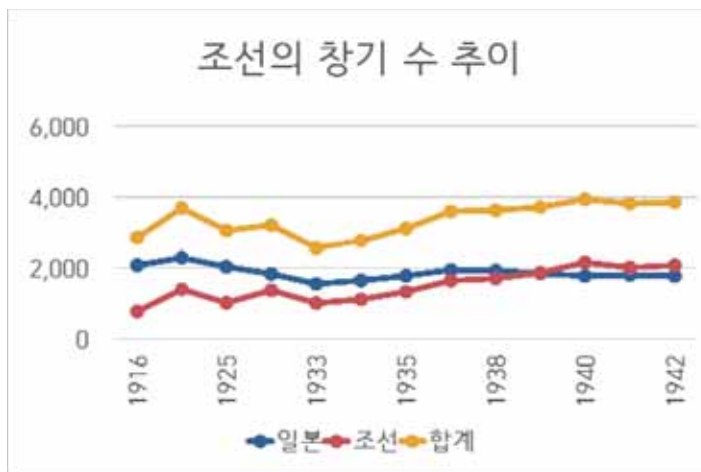
조선에서 가시자시킴을 찾아 창기의 성을 매수하는 남성은 주로 일본인이 많았다.

	이용객		소비금액		1인당 소비금액	
	일본	조선	일본	조선	일본	조선
1916	437,727	101,633	1,446,717	151,948	3.31	1.50
1917	487,090	135,928	1,850,503	235,790	3.80	1.73
1925	474,980	161,628	3,863,681	554,625	8.13	3.43
1929	450,315	110,638	3,587,693	436,459	7.97	3.94

7) 朝鮮總督府, 「伝染病及其ノ予防ノ二」, 『朝鮮衛生事情要覽』 1922.

가시자시키 이용객은 일본인 쪽이 조선인보다 4배가량 많았고, 사용하는 돈의 액수도 2-3배가량 많았다. 이는 도쿄의 가시자시키 이용객의 소비금액에 비해 2배가 많은 것이었다⁸⁾. 식민자들이 식민지의 가시자시키에서 돈을 더 많이 쓰는 것이다. 1934년 3월 17일 하루 동안 신정의 업소들을 찾은 이용객이 일본인 261명, 조선인 2명이고, 소비금액은 일본인 3,681.85원, 조선인 12.20원이었다고 하니⁹⁾, 이러한 경향은 1930년대에도 계속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재조 일본인 학생들이 일본 내지의 교육제도에 따라 교육받았다면, 재조 일본인 예창기, 작부 등은 조선의 관련 규정을 따라야 했다. 따라서 식민지 공창제의 불리한 규정, 곧 내지에 비해 허가 연령이 더 낮거나, 자유폐업이 더 어려운 등 생업(稼業) 조건이 더 열악했다.



조선의 창기 수 추이를 보면 대체로 일본인 여성이 많았다¹⁰⁾. 조선으로 온 가락유기 상들이라고 할 수 있다. 1930년 이후 계속 감소하고 있는데, 만주사변 이후, 그리고 중일 전쟁 이후 조선에 있던 일본인 창기들이 일본의 점령 지역으로 상당수 진출했다는 점을 생각하면, 이 시기 일본이나 조선 안에서 새로 유입된 일본인 창기는 이전 시기에 비해 늘었을 것으로 보인다. 조선인 창기는 꾸준히 늘어 중일전쟁 이후 일본인 창기 수를 넘어섰다.

유곽의 유객 및 창기 매상 상황

내지인 유객: 사변 후 유객은 군인의 출입이 빈번하여 인원이 평균 1할 5분의 증가를 보이고
 ... 매상고의 근소함에 비하여 유객이 비교적 증가한 것은 군인 등루자(登樓者)가 다수인 결과

8) 망중한인(忙中閑人), 「창기와 유흥비」, 『동아일보』 1927.1.23.

9) 「首都京城のエロ街風景」, 『朝鮮及滿洲』 317, 1934.4.

10) 이글의 창기 수는 宋連玉, 위의 논문, 58쪽에 의한다.

로 보인다.

선인(鮮人) 유곽: 선인 측은 내지에서 처음 조선에 와서 조선인을 알지 못하는 다수의 내지인 유객 및 병사의 등루자 증가에 따라 매월 모두 매상이 증가했다. (『支那事變關係 - 事變下二於ケル經濟界ノ諸情勢』, 『治安狀況』京畿道, 1938. 9.)

특히 증감을 거듭하던 창기 수가 일관되게 상향세를 보이는 것은 만주사변이 일어난 후인 1933년부터이다. 중일전쟁 이후 경기도의 경제정세를 기록한 위의 인용문에는 군인 유객이 늘어나 유곽(=가시자시킴)의 경기가 좋다고 나와 있다.

그렇다면 저 시기에 일본군을 상대해야 했던 조선인과 일본인 창기들은 ‘위안부’일까 아닐까. 상하이의 군 상대 ‘작부’는 ‘위안부’라고 하면서 조선의 군 상대 ‘창기’는 왜 ‘위안부’ 범주에서 제외되어야 하는 것일까. 1938년 1월 조선 용산의 미생정(彌生町) 창기 조합에서 창기 10명을 선택하여 ‘황군 위문’을 위해 상하이로 보냈다¹¹⁾. 이들은 형식상의 자유폐업 규정도 적용받기 어려운 조선의 <가시자시킴창기단속규칙>에 구속받는 이들이었다. 이들은 ‘위안부’일까 아닐까. 또 형식상의 자유폐업 규정에 적용받으면서 전시기에 군인을 상대한 일본 내지의 창기들은 ‘위안부’일까, ‘창기’일까. 피해자 입장에 서서 사건을 바라보면 문제는 더 복잡해지기도 하고, 오히려 더 또렷해지기도 한다.

4.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식민주의

[나의 연구 주제에 한정하여 말하면] 식민지 지배 책임 문제로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본다는 것은, 조선인 피해자의 피해만을 강조한다는 뜻이 아니다. ‘강제성’의 정도로 성폭력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권위적인 사회에서, 피해인정을 받기 위해 피해를 서로 경쟁해야 하는 것은, 피해자에게 너무 고통스러운 일이다. 그리고 그러한 피해 경쟁이 결국은 누구의 이해를 옹호하는 결과로 돌아가는지 생각해야 한다.

식민주의 문제에 천착하는 나의 관심은, 조선이라는 식민지 지역의 성격이 젠더(=민족과 계급 문제가 결합된 다층적인 성별성) 차원에서 어떠한 것인지에 대한 것이다. 그리하여 식민지 지배 과정에서, 그리고 전쟁 수행 과정에서 일본이 그러한 식민지라는 지역과 그 안에 살던 사람들을 어떻게 이용했는지에 대해 드러내고 싶다. 재조 일본인 창기들은 일본 내지의 창기보다 열악한 조건 속에 있다가 전쟁터 또는 점령지로 넘어갔다. 일본이 가입했던 1921년 여성아동매매 억제 국제협약에 식민지가 제외되어 있었다는 사실은, 재조 일본인 창기에게 어떤 의미였을까.

11) 「상하이 전선으로 창기의 위문 행」, 『매일신보』 1938.1.14.

[1938년 5월 하순] 각 지역의 추업부는 … 내지에서 도항하여 추업에 종사하는 자가 아직 소수이다. 그런데 내지에서 지나로 도항하는 추업부로서 신분증명서를 교부받을 가능성이 희박한 자는 일단 조선 또는 만주로 건너온 후 북지에 거주하는 지인이나 동업 관계자에게 초청 방법을 의뢰하여 북지로 향하는 자도 적지 않다. 연령 관계로 단속 규칙에 따라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는 자는 여급, 조츄(女中) 등의 신분증명서를 받아 지나에 들어온 후 추업에 종사하는 자가 있다.

(外務省 條約局長 → 內務省 警保局長, 「支那渡航婦人ノ取締ニ關する件」 1938.6.30.)

일본은 1938년 2월 23일 내무성 문서로 「중국 도항 부녀 취급에 관한 건」을 발송하여 중국 ‘위안부’로 가는 여성은 21세 이상의 창기 또는 사실상 추업 일을 하는 자에 한정한다고 했다. 따라서 일본이 1921년 국제협약을 어기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위의 인용문에서 보듯이 내무성 문건이 나오고 3개월 뒤, 연령 등의 문제로 내지에서 중국으로 바로 갈 수 없는 여성에 대해서는 조선이나 만주 등 식민지로 가게 해서 다시 중국으로 건너가게 하는 편법을 썼다. 위의 문서에서 보듯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중국 산하이관의 영사관은 “추업 종사 부녀를 여급, 조츄 등의 명의로 내지 관청의 신분증명서를 받게 하는 자”, “부녀의 무지를 이용해서 실상을 은폐하고 고용하여 추업에 종사시키는 자”가 중국으로 들어오고 있지만, “입국을 거부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보고한 것이다.

한편 조선 사회에는 ‘전시기에 정신대로 끌려가서 위안부가 되었다’는, 여성에 대한 사회적 기억이 1990년대까지 형성되어 있었다. 1938년 전시체제가 이후 조선사회에 새로 출현한 ‘정신대’라는 말은 국가동원과 맞물린 용어였다. 그 이전 시기까지 조선인 여성은 식민권력에 의해 제대로 정책 대상이 된 적이 없었다. 식민지 조선의 가족제도, 교육제도, 취업 및 실업구제 제도와 관련하여 여성은 언제나 타자이거나 부차적인 존재가 되어야 했다. 그런데 이러한 정치사회경제 구조 속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선택’을 한다는 것이 가능한 일이거나 했을까. 식민지 가부장제와 사회경제적 차별구조 안에 놓였던 조선 여성이 예창기가 되는 과정, 또는 전쟁 시기 ‘위안부’가 되는 과정은 식민주의 폭력구조 안에서 일어난 일이다. 이때의 예창기와 ‘위안부’의 차이는 전쟁이라는 극단적인 정치적 폭력 상황이 평시의 폭력구조를 얼마나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하는지 설명하는 것에서 나올 것이다.

마지막으로 나는 공창제의 영어 표기를 Koushousei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이는 state-regulated prostitution으로 표기되나, 이는 일본 공창제에 대한 이해가 없는 상태에서 서구 사례나 논의를 먼저 떠올리게 한다. 코쇼세는 19세기 후반부터 1945년까지 일본의 정치적 지배가 미치는 모든 지역에서 시행된 근대 일본의 성관리 정책이다. 당시 국제사회에 보내는 문서에서 일본은 공창의 번역어로 licensed prostitute를 썼지만, 이는 그 정치세력권에서 비면허 등록 여성에 대한 성매매 관리에

초점을 둔 ‘제국 일본’의 성 관리 정책을 포괄한 것이 아니다. 국제연맹은 1932년 12월 작성한 동양 여성아동매매 실지조사보고서에서, 일본 외의 지역에 존재하는 일본의 성매매 여성은 일본인 남성만 상대한다고 했다. 또 일본법률에는 성매매 계약을 위한 소개소가 합법이기 때문에, 여성들은 대출을 받기 위해 이 소개소에 의지하여, 제국 내외의 성매매 업소에 보내진다고 했다. 따라서 여성매매가 합법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일본군‘위안부’문제는 20세기 최대의 인신매매 사건이었다는 국제적 공감대가 있다. 다른 전시 성폭력 사례와는 달리, 조직적 체계적이었다는 일본군‘위안부’ 제도의 역사적 특수성은 제국 일본의 성관리 체제에서 형성된 인신매매 매커니즘에서 비롯했다. 따라서 코쇼세에 대한 역사적 이해를 제대로 하는 것에서부터 우리는, 일본군‘위안부’문제의 역사적 성격에 관한 생산적 논의를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

植民地朝鮮における日本の性管理政策と「管理される女性」

朴貞愛 (パク・ジョンエ)
東北アジア歴史財団 研究委員

1. 発表の目的

① 近代「帝国日本」の公娼制度を再定義すること。これは公娼制度を前面に出して「慰安婦」制度の被害を否定する歴史否定論者に対する対応であり、その二つの違いに「あえて言及」しながら「慰安婦」被害の性格を強調する対応の仕方に対する批判的問題提起でもある。

② 朝鮮に施行された公娼制度の植民地主義問題というとき、それは朝鮮人娼妓の問題ではなく、植民地という地域の問題であることを主張したい。これは「帝国日本」の公娼制度の属地主義適用に起因し、朝鮮で性を買った男性「遊客」の性格に依る。そして、日本軍「慰安婦」の動員過程における、植民地という地域の活用のされ方からヒントを得ている。

③「外地」と「内地」を含む「帝国日本」の公娼制度を見た上で、公娼制の英文表記を「regulationism」や「system of licensed prostitution」ではなく、「Koushousei(公娼制)」と表記すべきであると主張する。あらかじめ断っておきたいが、これが絶対的に正しいからではない。歴史的事実と性格に関する生産的な議論のために提案するものである。

2. 公娼制度研究の検討からみた公娼制度/「慰安婦」制度の比較の問題点

日本で出版された歴史辞典には公娼制度が次のように説明されている。

① こうしょうせいど(近世)「近世の公娼制度は、江戸の吉原、京都の島原、大阪の新町の三大遊廓に典型的にみられるように、売買春営業免許の地を堀や土塁で囲み一般市街地から隔離して公認した点に特徴がある。すなわち、近代公娼制度が梅毒検査のうえ娼婦「個人」に鑑札を交付し公娼として登録したのに対して、近世の場合は、公許の「地域」を空間的に隔離したにとどまり、厳密に個々の公娼を掌握するには至らなかったということである。」¹⁾

② こうしょうせいど(近現代)「特定の地域(貸座敷免許地)と女性(娼妓)に対して鑑札を

1) 曾根ひろみ、『日本女性史大辞典』、吉川弘文館、2007、244頁。

与え、その人々の売春営業や売春周旋業を国家公認する制度のこと。…明治になると、全国各地に遊廓が公認されると同時に、性病蔓延防止を目的とした検梅制度が導入された。…公娼制度の下では前借金に基づく女性の人身売買が事実上公認されており…」²⁾

③ 公娼「公許された遊女… 1193年遊君別当 … その支配を受けた… 遊女が日本公娼の始まりとされている。… 公娼は近代の名称だった。」³⁾

時代と性格規定はそれぞれ異なるが、いずれも公娼制度という用語の範囲において政治権力の性売買管理を扱っている。19世紀後半、20世紀初めに、日本は軍隊を先立たせて大陸に進出し、この地での日本人男性のために性売買の集結地域を定め、この地の女性に対し登録と性病検診を行った。一定期間は、つまり当該地域における日本の政治支配が確立していない間、国際社会の顔色をうかがっている間には、「娼妓」という呼称を避け、芸妓や酌婦などの名で管理していたが、本テーマの研究者たちはこれらを「公娼制度」の範疇下で研究してきた⁴⁾。

ところで、なぜアジア太平洋戦争の時期に、日本軍やその地域の領事館警察などに管理された「慰安婦」たちは「公娼」の範疇から離脱しなければならないのだろうか。実際、この時期の公文書に「慰安婦」より頻繁に出てくる表現は「酌婦」や「芸妓」、「特殊婦人」のような表現であるにもかかわらずだ。前述したように、実質的な性売買管理対象の女性でも、それらに対する「娼妓」や「酌婦」、「芸妓」など呼称の違いが出るのは、その地域における日本の政治権力の性格の差(+国際社会の公認)に依る。

いずれも性奴隷被害者だが、それでも「公娼」と「慰安婦」は違うと主張する研究者は、吉見義明と小野沢あかねである。両氏は日本の公娼制には形式としての自由廃業規定があるが、「慰安婦」制度にはそれさえないと言う⁵⁾。しかし、そこで指しているのは内地日本での公娼制度の事例だ。比較対象の「慰安婦制度」は、どの時期、どの地域に存在したものを指しているかは明らかにされていない。

娼妓の外出制限や自由廃業は内鮮を通じて可成りのセンセーションを起きしてをるが、只異るところは内地に於ては所謂『籠の鳥』に段々自由が与えられんとする傾向あるに反して、朝鮮に於ては彼等不幸なる女たちが、放火、刑務所、カルモチン、留置場と

2) 小野沢あかね、『日本女性史大辞典』、吉川弘文館、2007、244-245頁。

3) 小森隆吉、『国史大辞典』、吉川弘文館、1985、384頁。

4) 山下英愛、「韓国近代公娼制度実施に関する研究」、梨花女子大学修士論文、1992； 宋連玉、「日本の植民地支配と国家的管理売春：朝鮮の公娼を中心にして、『朝鮮史研究会論文集』32、1994； 藤永壮、「日露戦争と日本による『満州』への公娼制度移植」、『快樂と規制 近代における娯楽の行方』大阪産業大学産業研究所、1998。

5) 小野沢あかね、『「慰安婦」バッシングを越えて—「河野談話」と日本の責任』、大月書店、2013。

益々悲惨なる途を辿らんとしつつある。(増田道義, 「公娼制度竝に芸娼妓自由廃業に関する若干の考察資料(1)」、『警務彙報』327、1934。)

朝鮮の娼妓制度、すなわち1916年に制定された<貸座敷取締規則>が、1900年に制定された日本の「娼妓取締規則」から自由廃業規定が抜けたまま(=曖昧なまま)構成されていることは、1992年の時点ですでに山下英愛が指摘している⁶⁾。上記の引用文に見られるように、朝鮮総督府警務局事務官を務めた増田道義も、朝鮮の娼妓は内地の娼妓に比べ「悲惨なる途」を辿ろうとしていると述べた。そして内地の<娼妓取締規則>は内務省令で、貸座敷取締関連規定は警視庁令と県令で定め、朝鮮の<貸座敷娼妓取締規則>は警務総監部令[→警令]で定めた。それぞれの上位法は「帝国憲法」と「制令」で違っていた。

両地域で互いに異なっていた娼妓制度を比較する理由は、性管理政策に反映された植民地主義を分析するためである。そして、これまでそれは「日本公娼制研究」の範疇で行われてきた。「慰安婦」制度は、日本内地の娼妓制度より公娼制度(娼妓制度+芸妓酌婦に対する性管理制度)の性格により近く、日本内地の公娼制度より植民地朝鮮の公娼制度の性格により近い。「慰安婦」は日本内地の娼妓と同じであって被害者ではないという歴史否定論者に対して、日本内地の娼妓は自由廃業規定の適用対象者であり「慰安婦」とはちがう、と対応することから得られるものは何だろうか。「公娼制度」と「慰安婦制度」は互いに異なる範疇のシステムだったというこのような主張は、「慰安婦」は公娼ではないので被害者であるという結論につながっているのが現実である。

3. 植民地朝鮮という政治的地域の公娼制：娼妓制度を中心に

このテーマを扱う研究者たちは、1916年、警務総監部令第1号~第4号で<宿泊業営業取締規則>、<料理店飲食店営業取締規則>、<芸妓酌婦芸妓置屋営業取締規則>、<貸座敷娼妓取締規則>が公布され、これにより植民地朝鮮の公娼制が全国的に一元化されたと評価する。この時、在朝日本人娼妓とはちがって、朝鮮人娼妓は「散娼」状態で娼妓免許を受けた。

内地人は内地の多くの例と同じく、朝鮮人はほとんど娼妓が一つの家の中で営業する風習だ。…公娼許可、私娼許可という問題が近来議論されている模様で、朝鮮では果たしていつ許可するのかと聞かれることもあるが、……朝鮮の売笑婦が自分の家で客を迎える

6) 山下英愛、前掲論文、50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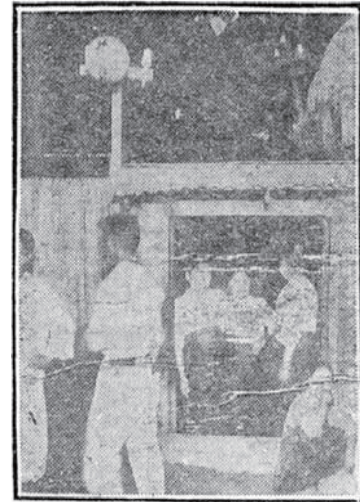
ことは決して私娼と見ることはできない。内地人を集団させることに對し、これらはそれぞれ営業するだけで公娼といえる。最近、この監察を与えたのだ。(警務總監部保安課長中野有光、「鏡臺の油斗に勘定帖を持っている芸妓」、『朝鮮及滿州』107、1916. 6.)。

朝鮮で公娼制が確立される時、朝鮮人娼妓の集結化はなされなかった。規制主義(regulationism)と訳されている公娼制の定義が、集結化、登録制度、強制性病検診であるという点を踏まえると、朝鮮の娼妓は公娼ではないことになる。性病検診も日本人か朝鮮人かによって違っていた。1922年の時点で、「京城府は、内地人娼妓は5日ごとに、朝鮮人娼妓は1週間ごとに1回行うことにし、地方では1週間に1回または約10日に1回」⁷⁾実施されていた。

朝鮮総督府は「土地状況」によってこのような違いが生じたと説明していたが、より根本的には朝鮮に男性植民者の定着が増えたためと見られる。前述の保安課長中野有光も、同文で「今日はすでに内地人移住者も多数に上り、鮮人が内地人同一状態に至ることも多数あり、この業態の者と一般人との接触機会も日々頻繁になった。すなわち、便利、風紀、衛生の次元で画期的な法規を設ける時期に達したと考えるからだ」としている。ここでの「便利、風紀、衛生」とは利用者の立場からの話である。



新町、貸座敷区域



「竝木町'カルボ」『東亜日報』1924.7.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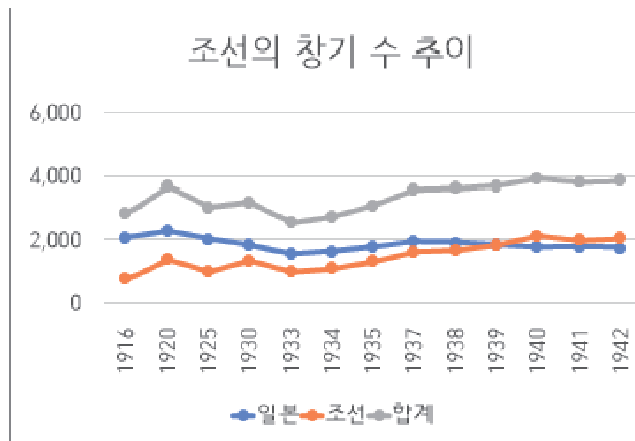
7) 朝鮮総督府、「伝染病及其ノ予防ノ二」、『朝鮮衛生事情要覧』1922。

朝鮮で貸座敷に行き娼妓の性を買う男性は主に日本人が多かった。

	利用客		消費金額		一人当り消費金額	
	日本	朝鮮	日本	朝鮮	日本	朝鮮
1916	437,727	101,633	1,446,717	151,948	3.31	1.50
1917	487,090	135,928	1,850,503	235,790	3.80	1.73
1925	474,980	161,628	3,863,681	554,625	8.13	3.43
1929	450,315	110,638	3,587,693	436,459	7.97	3.94

貸座敷の利用客は日本人が朝鮮人より4倍ほど多く、使用するお金の額も2~3倍ほど多かった。これは東京の貸座敷利用客の消費金額より2倍多いものだった⁸⁾。植民者のほうが植民地において貸座敷にお金をもっと多く使っていたことになる。1934年3月17日の一日間、新町の店を訪れた利用客は日本人261人、朝鮮人2人であり、消費金額は日本人3681.85円、朝鮮人12.20円だったというから⁹⁾、このような傾向は1930年代にも続いたと見られる。

一方、在朝日本人学生は日本内地の教育制度によって教育を受けたが、在朝日本人芸娼妓や酌婦などは朝鮮の関連規定に従わなければならなかった。したがって、植民地公娼制の不利な規定、すなわち内地に比べ許可年齢がもっと低い、または自由廃業がもっと難しいなど、稼業の条件はより劣悪だった。朝鮮における娼妓数の推移は次のとおりである。



朝鮮における娼妓の数は概して日本人女性が多かった¹⁰⁾。朝鮮にやって来た、からゆ

8) 忙中閑人、「娼妓と遊興費」、『東亞日報』1927.1.23.。

9) 「首都京城の工口街風景」、『朝鮮及満洲』317、1934.4.

10) 本文の娼妓数は、宋連玉、前掲論文、58頁による。

きさんたちと言える。1930年以降減少し続けているが、満州事変以後、そして日中戦争以後、朝鮮にいた日本人娼妓が日本の占領地域にかなり進出したという点を考えれば、この時期に日本や朝鮮の中で新たに流入した日本人娼妓は、以前の時期より増えたと思われる。朝鮮人の娼妓は着実に増え、日中戦争以降、日本人の娼妓の人数を上回った。

遊廓の遊客及び娼妓の売上状況

内地人遊廓：事変後の遊客は軍人の出入りが頻繁で人数が平均1割5分の増加を示し…売上高の僅少に比べ遊客が比較的増加したのは軍人登楼者が多数である結果と見える。

鮮人遊廓：鮮人側は内地から初めて朝鮮に来て朝鮮人を知らない多数の内地人遊客および兵士の登楼者が増加したことにより毎月すべて売上が増加した。(「支那事変関係－事変下二於ケル経済界ノ諸情勢」、『治安状況』京畿道、1938. 9.)

特に増減をくり返していた娼妓数が一貫して増加傾向を示しているのは、満州事変が起きた後の1933年からだ。日中戦争以後、京畿道(キョンギド)の経済情勢を記録した上の引用文には軍人遊客が増え、遊廓(=貸座敷)の景気が良いと出ている。

だとすれば、この時期に日本軍の相手をした朝鮮人や日本人の娼妓たちは「慰安婦」だろうか、それとも違うだろうか。上海の軍を相手した「酌婦」は「慰安婦」としながら、朝鮮の軍を相手した「娼妓」はなぜ「慰安婦」の範疇から外されなければならないのだろうか。1938年1月、朝鮮龍山(ヨンサン)の弥生町娼妓組合から娼妓10人が選ばれ「皇軍慰問」のため上海に送られた¹¹⁾。彼女らは形式上の自由廃業規定も適用されにくい朝鮮の「貸座敷娼妓取締規則」に縛られている人々だった。彼女らは「慰安婦」だろうか、ちがうだろうか。また、形式上の自由廃業規定を適用されながら、戦時期に軍人相手をした日本内地の娼妓は「慰安婦」だろうか、「娼妓」だろうか。被害者の立場に立って事件を眺めると、問題はより複雑になったり、むしろよりくっきりしたりもする。

4. 日本軍「慰安婦」問題と植民地主義

[私の研究テーマに限って言えば] 植民地支配責任問題として日本軍「慰安婦」問題を見つめるということは、朝鮮人被害者の被害だけを強調するという意味ではない。「強制性」の程度をもって性暴力の有無を判断するのだという権威的社會において、被害を認められるために被害を競い合わなければならないなんて、被害者にとっては苦しすぎる話だ。そして、そのような被害の競い合いが結局は誰の利害を擁護する結果に帰結したかを

11) 「上海戦線へ娼妓の慰問行」、毎日新報、1938.1.14.

考えなければならない。

植民地主義問題へのこだわりとしての私の関心は、朝鮮という植民地地域の性格がジェンダー(=民族と階級問題が結びついた多層的な性別性)の次元ではどのようなものなのかに向けられている。そして、植民地支配過程で、戦争遂行過程で、日本が植民地という地域とそこに生きる人々をどのように利用したかを明らかにしたい。在朝日本人娼妓は日本内地の娼妓より劣悪な条件に置かれた後、戦場や占領地に渡った。日本が加盟した1921年女性児童売買抑制国際条約において植民地が除外されていたという事実は、在朝日本人娼妓にとってどのような意味であっただろうか。

[1938年 5月 下旬] 北支各地ノ醜業婦ハ … 内地ヨリ渡航醜業ニ従事スルモノハ未ダ小數ナリ而シテ内地ヨリ渡支スル醜業婦ニシテ身分證明書ノ下付ヲ受クル望ミ薄キモノハ一旦朝鮮又ハ滿洲ニ到リタル後北支那居住ノ知己又ハ同業關係者ニ呼寄方ヲ依頼シテ北支ヘ向フモノ少カラズ。(年齢ノ關係ニ依リ取締規則ニ依ル證明書ヲ受け得ザルモノハ女給、女中等ノ身分證明書ヲ受け入支後醜業婦ニ従事スルモノアリ。)

(外務省條約局長 → 内務省警保局長、「支那渡航婦人ノ取締ニ関する件」1938.6.30.)

日本は1938年2月23日、内務省文書「支那渡航婦女ノ取扱ニ関スル件」を發し、中国に「慰安婦」として行く女性は、21歳以上の娼妓または事実醜業に従事する者に限るとした。つまり、日本が1921年の国際条約に抵触していないということだ。しかし、上の引用文からも分かるように、内務省文書が出て3ヵ月後、年齢などの問題のため内地から中国に直接行けない女性に対しては、朝鮮や満州など植民地に行ってそこから中国へ渡るという手を使った。上記の文書において、中国山海館の領事館は、「醜業ニ従事センムル婦女ヲ女給、女中等ノ名義ニテ内地官廳ノ身分證明書ヲ受けシメ雇傭ルルモノ」、「婦女ノ無智ニ付入り實狀ヲ隱蔽シテ傭入醜業ニ従事センムル等ノ事實アルノミ」だが、「入国ヲ拒否スルコト困難」と実態を報告している。

一方、朝鮮社会においては「戦時期に挺身隊に連れて行かれ慰安婦になった」という女性への社会的記憶が1990年代まで形成されていた。1938年の戦時体制期以降、朝鮮社会に新たに出現した「挺身隊」という言葉は、国家動員とかみ合った用語だった。それまで朝鮮人女性は、植民地権力のまともな政策対象になることはなかった。植民地朝鮮の家族制度、教育制度、就職および失業救済制度などで、女性は常に他者であるか副次的な存在でしかなかった。それなのに、このような政治社会経済構造の中で「本人の意思に反しない選択」をするなど可能と言えたのだろうか。植民地家父長制と社会経済的差別構造の中に置かれた朝鮮女性が芸娼妓となる過程、または戦争時期に「慰安婦」となる過程は、植民

地主義の暴力構造の中で起きたことである。このときの芸娼妓と「慰安婦」の違いは、戦争という極端な政治的暴力の状況が、平時の暴力構造をどれほどもっと積極的に活用するかを説明することから導かれるだろう。

最後に私は、公娼制の英語表記を *Koushyousei* にすべきだと主張したい。一般的には *state-regulated prostitution* と表記されているが、これは日本の公娼制度への理解がない状態でまず西欧の事例や議論を思い浮かばせる。公娼制は、19世紀後半から1945年まで、日本の政治支配がおよぶすべての地域で施行された近代日本の性管理政策である。当時、国際社会に送る文書の中で、日本は公娼の翻訳語として *licensed prostitute* を使ったのだが、これはその政治勢力圏において非免許登録女性の性売買管理に焦点を置いた「帝国日本」の性管理政策まで包括したものではなかった。国際連盟は、1932年12月に作成した東洋女性児童売買実地調査報告書の中で、日本の外に存在する日本の性売買女性は日本人男性だけを相手にすると述べた。また、日本の法律では性売買契約のための紹介所が合法であるため、女性たちは貸付を受けるためにこの紹介所を頼りに帝国内外の性売買業所に送られるともある。だから女性の売買が合法的に行われるのだと。

日本軍「慰安婦」問題は20世紀最大の人身売買事件だったという国際的共感がある。他の戦時性暴力の事例とはちがって、組織的かつ体系的だったという日本軍「慰安婦」制度の歴史的特殊性は、帝国日本の性管理体制で形成された人身売買メカニズムの上に始まった。したがって、公娼制に対する歴史的な理解をきちんとすることから、私たちは日本軍「慰安婦」問題の歴史的な性格に関する生産的議論を始めることができるだろう。

Japan's Sexuality Control Policy and "Managed" Women' in Colonial Korea

Park Jung-Ae

(Fellow Researcher,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1. Objectives of the Presentation

① To redefine licensed prostitution in the modern Empire of Japan. It is a response to history denialists who assert *koushusei* (公娼制) and deny the affliction from Japanese military sexual slavery, as well as a critical issue-raising against reactions that 'tenaciously mention' differences between the two and emphasize features of the affliction from Japanese military sexual slavery.

② It is due to the application of the territorial principle in Imperial Japan's *koushusei*, and it resulted from the characters of male 'yugaku (遊廓 遊客 who is guest of brothels)' who bought sex in Joseon. And I got some hints from the way the colony was used in the process of mobilizing the Japanese military's *ianfu*.

When it comes to the colonial issue of licensed prostitution implemented in Joseon, my argument intends that this is not the issue of the Korean prostitutes but the regional issue of a colony. This is due to the application of territorial principle to the 'Imperial Japan's' licensed prostitution, and it stems from the character of a male 'yugaku' who bought sex in Joseon. In addition, it was inspired by the way to use the colony in the process of mobilizing the Japanese military's *ianfu*.

③ The licensed prostitution of 'Imperial Japan,' including both the inland and outland, will be discussed, and then my argument that the romanization of *koushusei* (公娼制) should be used for English nomination for *koushusei* instead of 'regulationism' or 'licensed prostitution' will be presented. To talk in advance, It is not because it is absolutely right but in order to facilitate a productive discussion of the

historical realities and features that I proposed it.

2. Problems of Comparison Between the Koushousei and ianfu Systems in the Critical Study of Koushousei

In spite of the different time and character prescriptions, every approach to the term *koushousei* deals with the political powers' control over sex trafficking. In the late 19th and early 20th centuries, Japan advanced into the continent with its troops at the forefront, and established a prostitution gathering area for Japanese men who registered and screened women here for STDs. For a period of time, when Japan was not politically dominated in the region and was wary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ies, they avoided the term '*shogi* (しょうぎ 娼妓)', and controlled those women under names like *geigi* (いぎ 芸妓), *jakfu* (しゃくふ 酌婦), or *koushousei* which researchers on this thesis have studied them in the category of *koushousei*.

By the way, during the Asia-Pacific War, why should the *ianfu* controlled by the Japanese military and local consular police be left out from the category of *koushousei*? in fact, in official documents published during this period, expressions like *geigi*, *jakfu* or 'special women' appeared more than *ianfu*. As mentioned above, even women controlled under actual sex trafficking may have different titles such as *shogi*, *geigi* or *jakfu*, and the difference in title stems from the difference in the nature of political power in Japan (and the recognition of international communities).

Both are victims of sexual slavery, but researchers like Yoshii Yoshimi and Akane Onozawa claim that *koushousei* and *ianfu* are different. They said that Japanese *koushousei* has a free closure rule, at least on a formal level, but *ianfu* system doesn't even have it. What they pointed out are, however, cases of *koushousei* in the inland of Japan. They did not discuss when and where the *ianfu* system existed, which is the subject of comparison.

The fact that Joseon's licensed prostitution, which was the 1916 enacted Gasijasiki's Rule of Licensed Prostitutes Regulation, was composed by omitting [or indefinitely including] the free closure rule, which was included in Japan's Rule of *Shogi* Regulation enacted in 1900, was once pointed out by Yamashita Young-ae in 1992. Masda Michiyosi, a former officer at the police department of the Government-General

of Joseon, stated in an article in 1934 that free closure appeared differently in the inland and in Joseon and that Joseon's licensed prostitutes were seeing a 'disastrous end' compared with those of the inland. In addition, the Ministry of Home Affairs' ordinance promulgated the inland's Rule of *Shogi* Regulation, the metropolitan police's ordinance by the prefecture's decree promulgated the Gasijasiki's Rule of Licensed Prostitutes Regulation, and the metropolitan police [Seoul] Department's ordinance (that is, the police ordinance 警令) promulgated the Joseon's Gasijasiki's Rule of Licensed Prostitutes Regulation. The higher laws of each were also different, as 'the Constitution of the Empire of Japan' and 'the Imperial Decree'.

The comparison of the licensed prostitution system, which was different in both regions, aims for an analysis of the colonialism reflected in the gender management policy. And so far, this has been done in the category of the Japanese *koushusei* study. The *ianfu* system is closer to *koushusei* (licensed prostitution plus the sex controlling system for *geigi* and *shakufu*) in its character than the licensed prostitution of inland Japan, and the Colonial Joseon's *koushusei* is closer to that in inland Japan. Against the historical denialists claiming that *ianfu* are not victims as they are the same as the inland Japan's licensed prostitutes, what could we get from the response stating that, because the inland Japan's licensed prostitutes are the subjects to free closure regulations, they are different from *ianfu*? The reality is that such a claim that *koushusei* and the *ianfu* system are different systems in different categories leads to the conclusion that it is right that *ianfu* are victims because they are not *koushou*.

3. *Koushusei* in a Political Area Called the Colonial Joseon, Focused on Licensed Prostitution

Researchers dealing with this topic believe that, as the Rules for Accommodation Business Regulation, the Rules for Restaurants and Bistros Business Regulation, the Rules for *Geigi* and *Shakufu* Business Regulations, and the Rules for *Gasijasiki* Licensed Prostitutes Regulations were promulgated under Acts 1 to 4 of the Ordinance of the General Inspector of Police in 1916, the colonial Joseon's *koushusei* was unified nationwide. Then, unlike Japanese licensed prostitutes in Joseon, Joseon's

licensed prostitutes got the prostitution license in the status of *sansho* 散娼. When *koushousei* was established in Joseon, the gathering of Joseon's licensed prostitutes was not achieved. Considering that the definition of *koushousei*, which is translated as regulationism, might be gathering, concentration, registration system, and forced STD, Joseon's licensed prostitutes couldn't be *koushousei*. The VD examination depended on whether they were from Japan or Joseon. As of 1922, "the City of Seoul decided to conduct [examinations] on the inland's licensed prostitutes every five days and Joseon's licensed prostitutes once a week, and other provinces have them conducted once a week or about 10 days."

The Japanese Government-General of Korea explained that such differences occurred depending on the 'land situation,' but more fundamentally, it seems that the settlement of male colonists in Joseon has increased. Arimitsu Nagano, the head of the security department above, also said in the same article, "Many inland migrants have already been listed today, and many Joseon people have the same status as inland people, so the opportunities to contact persons in this business became more frequent day by day. It means that we reached the time to establish groundbreaking laws and orders in terms of convenience, airflow, and hygiene." Here, "convenience, ventilation, and hygiene" are what are referred to from the user's point of view.



Gasijasiki area in Shinmachi (新町) / 「Byeongmokjeong's 'Garubo or licensed prostitute」 『The Dong-A Ilbo』, July 11, 1924.

In Joseon, many of men who visited *gasijasiki* (that is, licensed sex trade business) to buy licensed prostitutes' sexes were Japanese. Among users of *gasijasiki*, the number of Japanese was four times higher than Joseon, and the amount of money used was two to three times higher. It was twice as much as the consumption of *gasijasiki* in Japan. Colonists spend more money on *gasijasiki* in the colony.

By the way, whereas the Japanese students in Joseon should have had education in accordance with the inland's educational system, the Japanese *geigi* and licensed prostitutes in Joseon should observe the Joseon's laws and orders involved. Therefore, their employment conditions got worse due to unfavorable regulations of the colonial system, such as the lower age of permission than that of the mainland and the more difficult conditions for free closure.



Changes in the number of Joseon Periods
Japan Joseon Total

Looking at the changes in the number of licensed prostitutes in Joseon, there were generally more Japanese women. It can be said that they are those who are Karayuki-san, who came to Joseon. They are a kind of Karayuki-sans who came to Joseon. They were on the decline since 1930, but, considering that Japanese licensed prostitutes significantly went into Japanese occupation regions after the Mukden Incident, and then after the Sino-Japanese War, the number of Japanese licensed

prostitutes who newly flowed into Japan and Joseon would increase during this period compared to the previous period. The number of Korean licensed prostitutes has steadily increased, surpassing the number of Japanese licensed prostitutes since the Sino-Japanese War.

In particular, the number of licensed prostitutes, which had been increasing and decreasing repeatedly, showed a consistent upward trend since 1933, after the outbreak of the Mukden Incident. According to the report on the security situation of Gyeonggi-do Province in Joseon, which recorded the economic situation of Gyeonggi-do Province after the Sino-Japanese War, the business of *youkaku* or *gasijasiki* is good due to the increased number of soldier guests, or *yugaku*.

Then, Are the Joseon and Japanese licensed prostitutes, who had to deal with Japanese soldiers at that period, *ianfu*, or not? While *shakufu* who dealt with soldiers in Shanghai is called *ianfu*, should the licensed prostitutes who dealt with soldiers in Joseon be excluded from the category of *ianfu*? In January 1938, the Licensed Prostitutes' Union of *Youkaku* in Yongsan, Joseon, selected and sent 10 licensed prostitutes to Shanghai for 'consolation of the Imperial Army.' They were bound by Joseon's Crackdown Rules of the Licensed Prostitutes of *Gasijasiki*, which were difficult to apply even to perfunctory regulations of free closure. Are they *ianfu*, or not? How about Japan's inland licensed prostitutes, who were subjected to perfunctory regulations of free closure and dealt with soldiers during wartime? Are they *ianfu* or licensed prostitutes? If looking at the cases from the position of victims, the problem sometimes becomes more complicated or sometimes more vivid.

4. The Japanese Military Sexual Slavery Issue And Colonialism

[To talk about my research topic,] the view on Japanese military sexual slavery issue as a matter of the responsibility for the ruling of colonies does not mean only the emphasis on the damage to Joseon victims. In an authoritative society seeking to judge whether sexual violence is committed to the degree of 'forced', recognition of damage requires victims to compete with each other, which is too painful for victims. And we

need to think over the defense of whose interests such competition of damage ultimately resulted in. My scrutinizing interest in questions of colonialism lies in the nature of the colonial region of Joseon in terms of gender or in multi-layered differences among women entangled with matters of nation and class. So what I want to reveal is how Japan, in the course of ruling the colony and conducting the war, took advantage of the region of colony and the people who lived in it. Japanese licensed prostitutes in Joseon worked in worse conditions than those in the Japanese inland and were then transferred to battlefields and occupied areas. What does it mean to Joseon's Japanese licensed prostitutes that colonies were excluded from the 1921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Control of the Trade of Women and Children, which Japan joined?

On February 23, 1938, Japan sent a document from the Ministry of Internal Affairs titled "Regarding the Treatment of Women and Girls at Crossing," stating that women going to China to work for *ianfu* are limited to licensed prostitutes at the age of 21 or older and women working literally for prostitution. It might mean that Japan did not violate the 1921 International Convention. three months after issuing the document by the Ministry of Internal Affairs, however, [prostitution] traders used some expedients to take women, who couldn't travel directly from the inland to China, to colonies such as Joseon and Manchuria and then send them to China. The consulate in Shanghai, China, reports that "those who help women engaged in prostitution to receive identification certificates in the name of a waitress or maid from the inland government office" and "those who use the ignorance of women to cover up and hire them to engage in prostitution" entered China, but that it is difficult to refuse their entry.

Meanwhile, until the 1990s, there was a social memory that [women] "were taken as *deosintai* 挺身隊 and became a *ianfu* in Joseon society. *Deosintai*, which first appeared in Joseon society in a state of war in 1938, was the term associated with national mobilization. Until this period, Joseon women have never been properly the subject of policy by the colonists' power. In relation to the colonial Joseon's family system, education system, employment system, and unemployment relief system, women always had to be other or secondary beings. Was it possible, however, to make a "choice that does not go against one's will" in such a political socio-economic structure? The process by which Joseon women became *shogi* and *geigi* was situated in

the discriminating economic and social structure, and the process by which they became *ianfu* during wartime occurred in the colonialist violence structure. At this point, the difference between *shogi-geigi* and *ianfu* will come from the explanation of how actively the war or the extreme situation of political violence uses the violence structure in peacetime.

Finally, I would like to argue that the English notation of *koushyousei* should be *koushyousei*. It is generally translated and used as state-regulated prostitution in English, but it reminds us of the Western cases or discussions studied without understanding Japanese *koushyousei*. *Koushyousei* was the sex-control policy implemented in all regions of Japan's political dominance from the late 19th century to 1945. At that time, Japan used the term 'licensed prostitution' as a translation of *koushyou* in documents sent to the international communities, but this does not include Imperial Japan's sex-control policy, which its political powers focused on for the unlicensed women in the political sphere. The League of Nations said in a report on the Field Research into the Sale of Women and Children in the Orient in December 1932, that Japanese prostitutes outside Japan dealt only with Japanese men. In addition, it stated that, since Japanese law allowed agencies for prostitution contracts, women relied on these agencies to get loans, and they were sent to prostitution businesses in and out of the empire. Therefore, it is said that the sale of women was legal.

There is an international consensus that the Japanese military's *ianfu* issue was the largest human trafficking case in the 20th century. Unlike other wartime sexual violence cases, the historical specificity of the Japanese military's *ianfu* system, which was organized and systematic, resulted from the human trafficking mechanism formed in Imperial Japan's sex-control system. Therefore, an appropriate historical understanding of *koushyou* will enable us to start productive discussions on the historical nature of the Japanese military's *ianfu* issue.

나치 독일 국방군 매춘업소와 일본군 "위안소":
2차대전 상시 군매춘/군성노예 제도의 유사성과 차이점에 관하여

레기나 뮐호이저 (함부르크 학술문화지원재단)

나치 독일 국방군 매춘업소와 일본군 “위안소”: 2차대전 상시 군매춘/군성노예 제도의 유사성과 차이점에 관하여

레기나 뮐호이저 (함부르크 학술문화지원재단)

오늘날, 독일의 유럽 침략과 홀로코스트 당시의 성폭력 연구가 증가하고 있다. 독일 남성과 그 협력자들이 강제적인 옷 벗기기, 성기 구타, 성적 협박, 성적 고문, 성기 절단, 음경 강간, 물건 강간, 집단 강간, 죄수 사이의 강압적 구강성교, 성노예화를 포함한 다양한 형태의 성폭력을 저질렀다. 그리고 독일군은 여성에게 보호, 음식 또는 그밖의 희귀 물품과의 교환을 대가로 성 거래를 강요했다. 그들은 독자 매춘부, 지역 매춘업소, 군 매춘업소를 방문했다. 게다가 독일 남성들은 지역 여성과의 합의된 간통과 낭만적인 만남에 관여했고, 이는 때때로 결혼 허가 신청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관행의 형태, 역학뿐만 아니라 범위와 강도까지도 제2차 세계 대전과 홀로코스트 당시 지역, 시기, 단계에 따라 달랐다. 더욱이 최근에는 남성 간의 성적 접촉이 더욱 체계적인 연구 주제가 되었고 소년과 남성에 대한 성적 고문도 포함한다. 어떤 사례에서는 강제 수용소의 여성 경비원이 수감자에게 성폭력이나 성적 폭력을 행사한 사례도 논의되었다.

나는 '국제 연구그룹 '무력 분쟁 지역 성폭력'(www.warandgender.net)에서 일하며, 국제 및 학제 간 토론 사례 연구를 위해 연구자와 전문가, 활동가들과 해마다 만나면서, 한편으로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했는지, 다른 한편으로는 분쟁 관련 성폭력 사례의 역학과 영향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지 더욱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다양한 시나리오를 비교하는 것이 유익함을 깨달았다. 경험에 기반하여 소개하자면, 나는

- 1) 남성성, 성, 폭력을 생각하는 독일군
- 2) 점령지 독일군 매춘업소 여성과 소녀들에 대한 성적 착취와 노예화
- 3) 그리고 이러한 역사적 발견을 일본군을 위한 '위안소'와 어떻게 비교할 수 있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을 논의하고자 한다.

먼저 이러한 역사적 사례를 둘러싼 우리의 접근 방식, 지식 기반 및 논쟁이 서로 다른 방식으로 발전했기 때문에 이러한 비교 연구가 취약할 수밖에 없음을 밝히고 싶다.

들어가는 말: 다양한 연구 방법과 지식 기반

특히, 우리는 "위안소"보다 독일군 매춘업소에 대해 잘 알지 못하며, 각각의 연구와 논쟁은 상당히 다르다. 이러한 차이는 당연히 독일에 책임을 묻는 원고가 유럽에 없기 때문이다.

한국과 다른 나라들에서는 1980년대 후반부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활발한 여성 운동이 시작되었다. 페미니스트들은 생존자들이 자신의 경험을 증언하고, 지원받고, 일본에 대한 요구를 발전시킬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다. 같은 시기 서유럽에서 페미니스트들은 a) 인종차별적이고 반유대주의적인 나치 살균 및 인구정책의 희생자였던 여성과, b) 나치 요원 또는 협력자로 활동했던 (그들의 어머니 세대) 여성을 다루는 데 더 집중했다. 반면 동유럽의 페미니스트 논쟁은 1989년 냉전 종식 후 c) 바로 겪은 소련 점령기에 집중했다. 과거에 더 심했던 나치즘은 거의 역할을 하지 못했다. 따라서 나치 성폭력의 생존자들은 침묵을 지키거나 개인적으로 자신들의 경험을 이야기할 뿐이었다.

1990년대 미국 홀로코스트 기념박물관의 개관과 생존자들과의 수많은 인터뷰 프로젝트가 시행되면서, 분쟁 관련 성폭력 문제에 대한 인식이 커졌다. 더욱 많은 연구자들이 생애사 구술의 맥락에서 성적 학대와 강간에 대해 문제 제기했다. 하지만 홀로코스트 생존자들은 종종 이에 대해 말하기를 주저했고, 면담자들은 대체로 적절한 방법으로 질문하는 법을 훈련받지 못했다. 따라서 진술은 종종 짧고 단편적이었다. 게다가 군 매춘업소는 거의 언급되지 않았다.

독일군 매춘업소 연구는 나치 사료에 크게 기반을 두고, 나치 정치, 규정 및 관행에 주목한다. 이 여성과 소녀 매춘부들의 실제 경험에 대해서는 거의 알려지지 않았다. 또한 이 연구는 학술 토론에서만 거의 알려져서, 분쟁 관련 성폭력에 대한 페미니스트 논의는 더욱 알려지지 않았다. 지금부터 독일군 사례에 대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간략하게 소개하겠다.

I. 성에 대한 군사적 사고: 유익과 위협

[나치 독일] 국방군은 시민군 1,700만 명이 동원된 징집군이었고, 그중 약 천만 명이 동부 전선에서 복무했다. 이들은 모든 사회 계층 출신이었다. 가톨릭, 개신교 또는 무신론자였고 그들의 정치적 신념은 사회주의자, 자유주의자, 사회민주주의자, 보수주의자에서 광적인 나치에 이르기까지 다양했다. 육군 최고 사령부는 종종 어린 남자들이 직접적인 군사 행동가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과제에 직면했다. 인간 존재의 가장 극단적인 경험 중 두 가지를 기꺼이 마주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즉 살인의 힘과 살해의 가능성이다.

울리히 브뢰클링(Ulrich Bröckling)이 주장했듯, 이는 군인들이 전투에 대비하여 "폭력에 대한 개인의 잠재력"을 발휘하기 위해 주 군대에서 훈련하는 한 부분이었다. 동시에 이러한 잠재력은 통제 아래 있어야 하고 군사적 목표를 향해 흘러가야 한다. 따라서 모든 군인은 폭넓고 다양한 훈련 방식에 따라야 하고, 총체적 기관으로서 군은 일반적으로 다른 기관보다 훨씬 엄격하게 이상 행동을 처벌한다. 그러나 동시에 개인이 기대하는

정복에 대한 보상을 약속한다. 얀 필립 림쯔마(Jan Philipp Reemtsma)는 "'해(must)!'라는 명령에는 '해도 돼(may)'라는 면허가 수반된다"고 주장한다. "군인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혹독한 훈련을 해야 하지만 적어도 전쟁 중에는 더 많은 자유를 얻을 수 있다." (독일 해군, 공군, SS의 명령뿐만 아니라) 육군 최고사령부 OKH도 부하들에게 부여한 자유 중 하나는 성폭력 가해를 포함한 성적 모험이었다.

그리고 성적 만족은 일반적으로 심리적으로나 신체적으로 군인을 강화시킬 것이고, "남성적 모험"을 공유하는 것은 남성끼리의 응집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믿었다. 독일군은 약하고 의존적이며 여성적인 것으로 여겨지는 모든 특성을 극복한 강철처럼 강인한 "아리안" 병사의 이상을 전파했다. 이는 제1차 세계대전에서 독일이 패배한 수치를 극복하려는 생각이었고 군인들의 이성애 성애에 대한 이미지와 얽혀 있었다. 노래, 엽서, 잡지에 보급된 군인들의 이야기 중심에 여성과 소녀들을 이용할 가능성이 자리했다.

종종 매우 젊은 남자들은 자신들이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성폭력의 해악과 부당성에 대해서도 거의 인식하지 못했으며 지역에 따라 달리 이해했다. 예를 들어, 그들은 전형적으로 프랑스를 낭만주의의 나라로, 네덜란드를 자유로운 섹스의 나라로 여겼다. 암스테르담에서 군인들은 때때로 섹스투어 관광객처럼 행동했고, 의무를 방기하고 흥등가를 방문하기도 했다.

그러나 특히 폴란드와 소비에트 연방 국가 절멸 전쟁 동안, 이 남성들은 강건하고 강인한 "아리안" 남성의 이상을 충족시키기가 불가능함을 깨달았다. 군인들의 편지와 일기에는 이들의 두려움과 가족과 사랑하는 이에 대한 의지가 보인다. 여기에 성행위가 고난을 승화시키는 수단을 훨씬 더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 히틀러는 1942년 4월 "독일인이 군인으로서 무조건 죽을 준비가 되어 있다면 무조건 사랑할 자유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히틀러의 논평은 20세기 중반 서구 사고에 만연한 이해를 드러낸다: 전투와 "사랑", 특히 성적 만족은 남성 존재의 바로 그 실존적 경험이라는 것이다.

그럼에도 [나치 독일] 국방군 사령부는 성병의 확산, 군 기강 상실, 국방부 평판 해악, 성폭력으로 지역 주민들이 선동할 수 있는 저항, 적의 스파이 행위에 대한 두려움, 동성애자의 동성애 활동에 대한 두려움, "인종적으로 혼합된 사생아들"의 탄생 등과 같이 군인들의 성적 "욕망"이 군사 작전에 대단히 위험함을 확인했다. 이러한 위험을 통제하고 군인들의 성적 활동을 군사적 목표로 전환하기 위해 군인다운 성생활은 군사 정책의 핵심 요소가 되었다.

독일이 프랑스를 점령한 한 달 후인 1940년 7월 31일, 육군 총사령관 발터 폰 브라우치치 (Walther von Brauchitsch)는 극기(Selbstzucht)라는 주제로 '야전에서 군인들의 성생활'에 대해 연설했다. 1941년 9월 그의 발언은 동부 전선 부대 지도자들 사이에서도 퍼졌다:

군인을 구성하는 조건은 군사 기동 동안과 전투 작전 종료 후(…)와 성격이 다르며 때로는 가정의 조건과도 근본적으로 다르다. 남성들의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눈을 감을 수도 없고 감아서도 안 되는 성적 영역의 긴장과 괴로움이 여기저기서 생기는 것은 어쩔 수 없다. 이 문제는 성행위를 금지하는 것으로는 결코 해결될 수 없다. 금지하면, 다른 부정적인 결과 외에도, 성폭력 범죄의 수와 175조[남성-남성 성행위를 처벌한 독일 형법 조항]에 대한 범죄의 위험을 증가할 것이다.

성적인 "긴장과 고통"이 많은 남성에게 쌓일 것이라는 폰 브라우치치의 가정은 당시 군이 가르쳤던 남성의 성에 미치는 전쟁 잔혹성의 영향과 양립할 수 있었다. 제1차 세계 대전 이후, 독일 군의관들은 군인들이 전장의 경험 결과 발기부전을 겪을 수 있다는 사실을 관찰했다. 게다가, 독일, 영국, 미국의 제1차 세계 대전 군인 모두 폭력을 자행했을 때 원치 않은 흥분과 오르가즘 경험을 묘사했다. 군 지휘관들은 자기 병사들의 신체적, 심리적 마모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대조적으로, 이성애 활동은 "긴장과 고통"을 위한 건강하고 바람직한 "출구"로 나타났다 - 이것은 심지어 강간을 포함할 수 있다. 실제로 폰 브라우치치는 이미 군 판사들에게 (그들이 재범자이거나 극단적인 잔인성으로 그 행위를 수행한 것으로 알려진 경우가 아니라면) 강간범을 심각하게 처벌하는 것을 면제하라고 지시했다. 지휘관은 병사의 행동이 작전을 위태롭게 하거나 점령 목적에 어긋난다고 판단한 경우에만 징계 또는 군사법원 절차를 따랐다.

비르지트 벡(Birgit Beck)에 따르면, "강간(Notzucht)" (문자 그대로 번역하면 필요에 의한 재생산)에 대한 처벌은 동부 전선보다 서부 전선의 사단 법정에서 더 높았다. 왜냐하면 지역 주민들의 협력 의지를 포함한 평화로운 점령을 보장하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서부 전선에서조차 강간은 주요 범죄가 아니라 대체로 사소한 것으로 간주되었다.

나치 독일 국방군 사령부는 조직적으로 사병들의 성폭력 방지를 위해 노력하기보다, 의학적, 신체적, 심리적 위험을 제한하는 데 전반적인 주의를 기울였다. 예를 들어, 군 의무대는 남성들에게 성접촉의 위험과 성병의 증상에 대해 교육하도록 지시받았다. 독일 국방부는 대도시에 남성들이 성교 후 성기를 소독할 수 있는 "위생 시설"을 설치했다. 독일 국방부가 남성들의 성적 활동을 관리하기 위해 가장 광범위하게 조치한 것은 군 매춘업소의 설립이었다.

II. 나치 독일 국방군 매춘업소

독일 군대에서 매춘은 역사가 길다. 예로, 제국군의 업소 방문은 군인들 사이에서 흔

했다. 제1차 세계 대전 중 육군은 처음으로 보병과 장교를 위해 군대 조직에 매춘업소를 설치했고, 일부 부대를 따라다니는 이동식 마차에 설치하기도 했다. 제2차 세계대전 중에는, 국방군이 그러한 전통에 기반하여 설치했다. 히틀러가 1924년 『나의 투쟁 Mein Kampf』에서 나치즘이 바이마르 공화국 기간 동안 독일의 "도덕적 쇠퇴"의 근본 원인으로 매춘을 단호히 거부할 것을 요구했음은 인정한다. 그리고 나치 정권이 처음에는 엄격한 도덕적 사상을 선언함으로써 나치즘에 대한 기독교 지지자들을 얻기 위해 매춘을 단속했다는 것도 인정한다. 그러나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이 입장은 비현실적이고 역효과를 낳는 듯 보였다.

1939년 9월 9일 폴란드 침공 직후, 제국의 내무부 장관은 "경찰의 매춘 조치"에 관한 법령을 발표했고, 이 법령은 제국 국경 내 군대 작전 지역에 매춘업소를 설치하고 감독하는 것을 사법경찰과 보건당국의 권한 아래 둘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리고 이 법령은 세 가지 전략을 개발했는데, 첫째, 성매매를 했거나, 성매매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여성들을 추적하고, 등록하고, 의학적으로 감시하도록 했다. 둘째, 현존하는 매춘업소는 독일 당국의 감독을 받도록 했다. 셋째, 군 매춘업소는 나치 독일 국방군 병사 전용으로 설치되었다.

마렌 뢰거가 주장했듯, 폴란드는 최초로 침략당하고 점령당한 국가로서 독일 매춘 정책의 "실험장"이었다. 그러나 전쟁이 진행되는 동안 이 법령은 점령된 모든 지역 국방군 매춘 정책의 지침이 되었다. 1939년과 1944년 사이 독일 국방군은 독일 점령 지역 대부분에 매춘업소를 설치했다. (지방 당국의 협력 및/또는 저항의 정도 포함하여) 각 지역의 조건과 직업 정책에 따라 설치 및 조직이 달라졌다.

나치의 인종차별주의와 반유대주의 이데올로기도 한몫했다. 예를 들어, 폴란드 주민과 소비에트 연방의 폴란드인들은 주로 민족적으로 이질적이라 "외국인"으로 간주되었고, 독일 남성들은 이들과의 성관계가 금지되었다. 그러나 나치 독일 국방군 매춘업소에서는 이러한 접촉이 용인되었고 실제로 장려됐다. "매번 바뀌는 방문객과 매춘부의 관계"가 "비개인적이고 경제적"이라 간주되었기 때문이다. 나치 친위대 SS 지도자 하인리히 힘러 Heinrich Himmler 조차 동유럽에서 매춘 여성과의 만남을 명시적으로 묵인하면서, 이런 만남은 개인적인 관계나 재생산의 맥락 밖에서 일어났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접근법이 유대인 여성에게는 적용되지 않았다. 1942년 3월 20일, OKH 최고 의료 책임자는 유대인 여성이 독일군 매춘소에서 엄격하게 금지되어야 한다고 명시적으로 명령했다.

폴란드

1939년 9월 150만 명의 독일 군사가 폴란드를 침공했을 때, 이들은 자주 불법 성매매와 성 거래를 했다. 이러한 상황을 통제하기 위해 경찰 당국은 자주 거리를 급습했고 호

텔과 카페를 수색했다.

폴란드 당국에 이미 매춘하는 것으로 알려졌던 여성들이 이제 독일 시스템에 등록되었다. 게다가, 당국은 매춘이 의심되는 여성뿐만 아니라 [성]거래에 종사하는 여성들도 등록했다. 일단 등록된 여성은 매춘 여성으로 내몰렸다. 전업 여성은 더 이상 그들이 일하고 싶은 곳이 매춘업소인지 길거리인지 결정할 수 없었다. 그리고 매춘 혐의가 있는 여성들은 이미 그 제도 안에 갇혀 있었다. 등록 때문에, 이들은 정기적으로 건강 검진을 보고해야 했고, 중산층 일자리로 돌아가는 길이 막힌 환경에 점차 더욱 접촉하게 되었다.

1940년 9월 25일, 독일제국의 총독 아르튀르 그리저(Arthur Greiser)는 (폴란드의 독일 합병 지역인) 바르테가우(Warthegau)에서 "독일인과 성관계를 가진 폴란드 여성들을 매춘업소에 배치할 수 있다"는 명령을 내렸다. 여기서 매춘업소가 "금지된 관계"에 대한 처벌이 된 것이다. 이 주문이 얼마나 자주 이행되었는지는 불분명하다. 하지만 뢰거는 포즈난에 사는 판매원 마리아 K.의 사건을 발견했다. 1940년 5월, 그녀는 독일 남성과 "금지된 성관계"를 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그 결과, 보호감호소에 수감되었으며, 1940년 11월 23일, 매춘업소로 보내졌다. 그녀가 서명한 경찰 의정서는 다음과 같다:

오늘 이후 나는 도덕적 감시(시텐크 통제)를 받으며, 매춘업소 피셔르하이(Fischerei) 19에 거주해야 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또한 일주일에 두 번 시 보건소에 출석해야 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그렇지 않으면 처벌받는다고 한다. 매춘부 관련 소책자가 오늘 내게 전달되었다. 나는 정해진 행동 규칙을 준수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예방구금되거나 강제수용소에 수감될 것이다.

나치가 매춘 여성으로 만든 젊은 여성들은 "도덕적 감독"뿐만 아니라 행동 규칙에 반항했다. 1943년 5월, 마리아 K.는 아우슈비츠로 추방되었고, 그곳에서 1943년 10월 4일부터 25일까지 수용소 매춘업소에서 성노예가 되었다. 그 후 그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모른다. 추측컨대 그녀는 살해당했을 것이다.

뢰거는 직접적인 성노예화 사례를 두 가지 언급한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뢰거는 나치 독일 국방군 병사용 위안소에 가게 된 여성 대부분이 직접 강요받은 것은 아니라고 결론 내렸다. 그들의 수입은 비록 높지 않더라도, 보통 여성이 다른 직업, 예를 들어, 여성 판매원으로 벌 수 있는 것보다 많았다. 그러나 어떤 이유였든 모든 여성들이 행동할 수 있는 공간이 매우 제한적이었다. 매춘업소 운영은 엄격하게 감독되었다. 그곳에서 여성들은 폭행당했고 야간외출은 금지되었다. 휴가는 독일 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했다. 그리고 건강 검진 때문에 3일 이상 떠날 수 없었다.

실제로 독일 당국은 기존 매춘업소를 면밀하게 감시해 현지 남성의 접근을 제한하고 술 제공을 규제했으며 여성과 방문 군인들을 위한 행동 규칙을 시행했다. 매춘업소가 존재하지 않는 곳에는 군대 매춘업소를 세우도록 했다. 하지만 조직적인 어려움뿐만 아니라

인종적, 도덕적인 우려로 인해 지연됐다. 1년이 지나서야 군 매춘 업소가 더욱 광범위한 규모로 설치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한 나치 독일 국방군 보고서가 나왔다.

프랑스

1940년 7월, 프랑스 점령 직후 육군 최고 사령부는 1) 매춘 여성의 기소와 2) 독일 통치를 받는 프랑스 영토 전체에 감독 매춘업소 설치를 요구하는 두 가지 명령을 내렸다. 매춘업소 설치에 대한 책임은 (나치와 협력한 프랑스 정부인) 비시 정권과 협력하여 육군 의료 서비스를 받도록 했다. 이러한 위안소의 운영을 관리하는 규칙 목록에는 1) 장교, 2) 군인, 3) 나치 독일 국방군 해외 자원봉사자에 대한 서비스가 분리되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이것은 군인들 사이에 군사적, 인종적 위계를 명확하게 유지하고 경쟁과 싸움을 피하기 위한 것이었다. 사실 후자는 이후 몇 년이 지나면서 훨씬 심각해졌다. "동방 원정"이 시작된 무렵 약 백만 명의 외국인 자원봉사자들이 나치 독일 국방군에서 복무했지만, 소비에트 연방에서의 전쟁 중에는 이 숫자가 두 배가 되었다.

인사 메이넨(Insa Meinen)이 찾은 바로는, 프랑스의 독일 당국이 여성 민간인 대다수에 대한 직접적이고 공개적인 폭력을 자제시켰다. 하지만 폴란드와 비슷하게, 이들은 비매춘업소에서 매춘 범죄화를 시작함으로써 주저없이 급습하여 여성을 매춘업소에 몰아넣었다.

독일인들은 기존의 프랑스 매춘업소를 전용하여, 프랑스 민간인들에게는 폐쇄하고 나치독일 국방군에게 개방했다. 또한 새 매춘업소를 세우기 위해 호텔뿐만 아니라 개인 별장과 유대인 시설도 압수했다. 이러한 시설 중 일부는 수요, 군대 이동 또는 위생 상태에 따라 불과 몇 주 만에 문을 닫았다. 일반적으로 현지인을 업소의 관리자로 임명했지만, 감독은 독일인이 했다.

이전에는 업소 운영자가 고용인 명부를 보관해야 했지만, 이제는 여성들도 통제 카드와 신분증을 휴대해야 했다. 방에는 번호가 매겨졌고, 여성들은 고정된 방에 배정되었다. 그리고 군인은 그 여성의 업소 이름과 방 번호가 기록된 방문객 카드를 받았다. 사병들은 잠재적인 성병 조사를 위해 이 카드를 보관해야 했다.

국방부는 군인들이 지불해야 하는 금액을 표준화했다. 여성들은 그 절반을 보관했고, 그 안에서 숙박비와 음식값을 지불해야 했다. 수입은 매우 다양했을 것이다. 전쟁이 끝난 후, 한 여성은 하루 수입을 1,500프랑으로 보고했고, 또 다른 여성은 한 달 수입을 10,000프랑으로 보고했다.

1970년대 이후 "창녀 운동"에서 우리가 알고 있듯, 성노동을 하는 여성들은 각각의 장단점을 저울질하며 매춘업소 내부/외부에서 일하는 것을 평가한다. 마이넨 Meinen에 따르면, 프랑스의 나치 독일 국방군 매춘업소를 그 자체로 특히 잔인하거나 성적 노예로 보

는 것은 잘못이다. 실제로 독일 점령하에서도 매춘업소 운영자가 매춘부를 의사에 반하여 구금하거나, 외상으로 물건을 팔거나, 외출에 필요한 옷을 불허하는 것은 불법이었다. 여성들은 휴가를 내고 직장을 그만둘 수 있었다. 그러나 나치 독일 국방군은 매우 열성적으로 여성과 그들의 건강을 관리했기 때문에 상황은 점점 더 억압적으로 되었다. 예를 들어, 독일 국방부는 위안소 직원들이 자주 바뀐다는 것을 발견했을 때 (이는 성병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 그들은 여성이 머무는 최소 기간을 4주에서 3개월 사이로 설정했다.

게다가, 일부 여성들은 직접 매춘업소로 끌려갔다. 만약 여성이 병에 걸리면, 그녀는 강제로 입원해야 했다. 성병에서 회복한 여성들은 수용소에 가둬두는 것이 규칙이었다. 그 후 결혼한 사람들이나 독일군 매춘업소에 입대한 사람들만 풀려났다. 이런 상황에서, 몇몇 여성들은 독일군 매춘업소에서 굴복하고 성적 노예가 되었다.

네덜란드

라우라 파넨브룩(Laura Fahnenbruck)은, 네덜란드의 경우 여성의 상황이 덜 억압적이었다고 언급한다. 이는 나치가 네덜란드인을 "게르만인"으로 간주했다는 사실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 보통 독일 국방부 의료 서비스의 감독을 받는 업소에서 일하는 여성들은 이전에 성노동에 참여한 경험이 있었다. 돈을 벌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네덜란드의 현지 주민 상황은 폴란드보다 훨씬 좋았다) 독립을 얻기 위해서였다. 때때로 파넨부르크는 독신 여성들이 이러한 방식으로 더 자기 결정적 삶을 살 수 있었다고 주장한다. 이 여성들은 연장이나 퇴사를 선택할 수 있는 최대 4개월의 계약으로 일했다.

일부 매춘업소의 여성들은 하루에 많은 수의 군인들을 만나야 했다. 라우라 판브룩 Laura Fanenbruck은 나치 독일 국방군 매춘업소를 "이제 막 시작된 섹스 산업 시장의 새로운 고점"이라 했다. 네덜란드 여성들도 성관계 후에 스스로를 위생적으로 처리하고 매주 건강 검진을 견뎌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치 독일 국방군 매춘업소의 조건은 종종 개방형 시장보다 더 나은 듯 보였다. 물론 여성들은 폭력을 경험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폭력은 술로 인해 발생했고 그 강도는 개방형 시장에서보다 덜 발생했다. 때로 여자들이 밤새 매춘 업소에 지내야 할 때도 있었지만 자유롭게 떠날 수도 있었다.

소비에트 연맹

자료에 따르면, 여기서도 독일 당국은 '비밀 매춘'을 단속하고 '수상한 여성'을 등록했다고 한다. 특히 짧은 드레스를 입거나 립스틱을 바른 여성을 수상하게 여겼다.

독일 침공 이전 소련에는 공식적으로 매춘이 금지되어 있었다. 사회주의 이론은 상업적인 섹스를 "부르주아의 타락"으로 간주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독일군 의료 서비스가 기존의 매춘업소를 수용할 수 없었다. 폴란드와 프랑스에서와 마찬가지로, 그들은 공공 및

사유 재산을 압류했다. 우크라이나 노보모스코브스크(Novomoskovsk) 출신 안토니나 이바노브나 (Antonina Ivanovna)는 독일군이 아버지가 빨치산에 가담한 사실을 알게 된 후 자신의 집이 나치 독일 국방군의 매춘 업소로 변했던 과정을 회상했다. 이러한 경우, 매춘 업소의 설치는 특히 강력한 상징적 효과를 가지고 있었다. 또한 정복자들은 그들이 영토를 점령했음을 성적인 측면에서 보여주었다.

안토니나는 여성과 소녀들이 "꼭 노보모스코프스크에서 온 것은 아니고 주변 마을에서 왔다"고 기억했다. "[...] 그들이 모집한 소녀들도 일부 있었고, 어쩔 수 없이 매춘업소로 간 여성도 있었다." 다른 목격자들도 독일군이 가끔 거리나 나이트클럽에서 급습하면 여성들을 붙잡았다고 지적했다. 소련 신문들은 여성과 소녀들에게 상응하는 경고를 했다. 이 이야기들은 확실히 사실이기도 했지만, 경고와 소문이 되어 널리 퍼졌다.

대조적으로, 이전에 매춘부로 일했거나 자신과 가족을 부양할 다른 방법을 찾지 못한 다른 여성의 경우, 매춘업소에서 자발적으로 일하는 것에 동의한 듯하다. 하지만 자발적인 행동과 강요 사이의 경계는 모호했다. 젊은 여성들이 독일로 일하러 갔을 때 일어날 수 있는 끔찍한 이야기들이 떠돌았다. 강간, 성노예화, 불임, 심지어 살인. 그러한 무서운 전망은 비록 그것이 매춘 업소에서 일하는 것을 의미하더라도, 어떤 젊은 여성들에게는 분명 익숙한 환경에서 지내고 싶은 충동이 있었을 것이다.

게다가, 나치 독일 국방군이 폴란드와 네덜란드에서 여성들을 많이 모집한 후 소련의 전쟁 지역으로 데려왔다는 징후가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이 채용에 대한 정보, 여성들이 경험한 강요나 강요의 정도에 대해 갖고 있는 정보는 더 이상 없다.

마리스 로이스 맥컬로치(Maris Rowis McCulloch)는 1942년 12월 24일부터 1943년 1월 말까지 약 4주 동안 존재했던 러시아 로스토프나도누(Rostov-on-Don)의 나치 독일 국방군 매춘 업소에 대한 미시 연구를 최근 출판했다. 그녀의 통찰 1944년 독일 범죄에 대한 특별 국가 위원회 조사에서 인터뷰한 두 여성, 창녀 관리인으로 일했던 알렉산드라 보로니나 (Aleksandra Voronina)와 성병 검사를 실시한 의사 두브로브스카이어(E. K. Dubrovskaja)의 증언에 기초한다. 이 여성들은 오츠크만단투르(Ortskommandantur, 현지 지휘관)가 낸 여성 식당 종업원 채용 공고에 따라 채용된 듯하다. 하지만 보로니나는 여성들이 무엇에 빠져들고 있는지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그들 중 많은 이들이 독일로 강제 노동을 위해 보내질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 사령관 코르포랄 메예르홀드(Corporal Meyerhold)가 재정을 포함한 매춘 업소 운영을 직접 감독했다. 그는 그 광고에 응답한 여성들의 최초 목록을 만들었다. 군의관 루데르스 박사(Dr. Lüders)가 신체를 검사했다. 선발된 여성은 성병 검사를 위해 병원으로 보내졌다. 만약 그들이 건강하다고 여겨지면, 그들은 바로 일을 시작했다. 신분증은 회수되었고, 매춘여성으로 일하는 방에서 잠을 자야 했다. 즉 외부 세계로부터 고립된 것이다. 게다가 서로의 대화는 처

별받았기 때문에, 매춘 업소 안에서도 고립되었다. 군인 방문과는 별개로, 그들은 심리적으로 학대받았고 가학적인 관행을 따르는 경향이 있는 메에르홀드와 루데르스의 강간을 견뎌야 했다.

III. 일본군 “위안소”와 비교

나치 독일 국방군 매춘업소 제도와 일본의 “위안소” 제도를 비교해 보면 유사점과 차이점을 알 수 있다.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요소를 지적하여 논의를 시작해 보겠다.

이념적 토대

a) 일본의 오랜 매춘 역사를 보면 섹스가 남성에게 필수적인 활동으로 여겨졌다. 그것이 심지어 사람들의 수명을 연장시킨다고 여겨지기도 했다. 19세기 말 도입된 남성 “성욕”에 대한 현대 의학적 개념은 이러한 남성 성욕의 필연성에 대한 오랜 가정을 심화시킬 뿐이었다. 일본 제국 군대에게, 이는 군인의 성적 욕구를 억제할 수 없음을 의미했다. 오히려 관리되어야 했다. 이러한 의미에서, 일본군의 근거는 나치 독일 국방군과 대체로 유사한 듯하다. 양국 군 지휘관들은 남성의 성욕이 자연스럽게 피할 수 없는 것이며, 그들의 남성들이 신체적, 심리적으로 균형을 이루고 강해지기 위해서는 성적 만족이 필요하다고 가정했다. 게다가 양 군대 지휘관들은 남성의 성생활이 전쟁과 전투에 이용될 수 있고, 또 이용되어야 하며, 선동되어야 한다는 가정 하에 행동했다.

b) 게다가 양 군은 군인다운 성행위, 즉 성병의 확산과 점령군에 대항하여 지역 주민들을 돌리게 하는 “야생 강간”의 위험성에 대해 유사한 평가를 내렸다. (연합군이 그랬던 것처럼) 일본군과 독일군 모두 통제된 매춘을 해결책으로 보았다. 그들의 남성들의 “성적 욕구”를 관리하고 위험을 통제하기 위해서 말이다.

c) 셋째, 일본과 독일의 군사 및 민간 당국의 여성혐오적 접근방식에도 분명한 유사성이 있다. 두 시스템 모두에서, 여성은 자신의 권리가 존재하지 않았다. 여성은 그렇게 살 가치가 있거나 보호받을 가치가 있다고 여겨지지 않았다. 단지 군인들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자원으로 여겨졌을 뿐이다. 그리고 잠재적인 의학적, 도덕적 위협으로 인식되었다. 그러므로 여성은 자신을 위해 검사하고 치료받은 것이 아니라 군인들 (그리고 그들의 가치 있는 아내들과 국가)을 여성과 “여성의” 질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였다.

이러한 유사점 외에도, 우리는 양 군의 이념 기반에 있어서 많은 차이를 관찰할 수 있다.

d) 위에서 언급했듯이, 독일 육군 최고 사령부가 나치 독일 국방군 매춘업소를 설립한 이유 중 하나는 병사들이 (군내 및 지역 남성들과) 동성애적인 만남을 갖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다.

일본 군대에게 동성애는 심각한 의학적 또는 도덕적 문제가 아니었다. 동성 관계를 금지하거나 규제하는 법은 없다. 대조적으로, 나치 정권은 1871년 독일 형법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악명 높은 175항을 확장했다 (그리고 1994년까지 완전히 폐지되지 않았다). “인민의 고질병 동성애 Volksseuche Homosexualität” (나치의 눈으로 볼 때 바이마르 공화국 시절에 퍼진 동성애라는 전국적 전염병)의 근절은 나치 정치의 주요 주제가 되었다. 전통적인 동성애 혐오적 고정관념과 사이비 과학적 인종 이론을 혼합하여, 동성애자로 간주된 남성들은 광범위하게 박해받았다.

법정에서, 1) 태어날 때부터 "동성애 성향 (veranlagt)"이라고 여겨졌고 성적 파트너를 "유혹"했다고 알려진 남성과 2) 유혹되어 잘못된 이성애자로 보였던 남성 사이에 구분이 확립되었다. "유혹자들"은 "국가 조직에서 제거"되어야 했고, 따라서 거의 확실한 죽음을 의미하는 강제수용소로 보내졌다. "유혹자들"은 형사 기소와 징역형을 통해 "올바른 길"로 되돌려져야 했다. 특히 폴란드와 소비에트 연방의 군사법원은 "동성애 성향"으로 간주되는 사람들에게 사형을 선고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다. 반대로, 짧은 형량을 받은 후 군대는 범죄자들을 독일 국방부로 다시 복귀시켰다. 이런 식으로 그들은 군대를 위한 인력을 유지하고, 이성애 동지들이 전선에서 목숨을 걸고 있는 동안 이들이 상대적으로 안전한 감옥에서 살아남지 못할 것임을 남성들에게 분명히 하고자 했다.

독일군 지휘관들이 매춘업소의 형태로 이성애적 "출구"에 접근하는 것이 그들의 남자들이 "잘못된" 것을 막고 동성 접촉에 관여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믿게 만든 것은 "자연적인 유혹자"와 "잘못된 유혹자"에 대한 생각이었다.

e) 또 다른 차이는 일본과 독일의 인종주의적이고 반유대주의적인 이념의 특수성에 있는 듯하다는 점이다. 물론, 일본 군대의 잔혹한 제국주의 캠페인은 이를 주장한 일본의 우월성과 다른 아시아 사람들의 상상된 인종적 열등에 대한 생각이 기름을 붓고, 정보를 제공했으며, 특징이 되었다. 사실, 이와 같이 위안부 제도는 일본에 만연했던 성차별, 인종차별, 내셔널리즘의 조합에 기초하고 있었다. 그러나 일본은 다른 민족이나 집단 사이의 성적 접촉에 대한 추진, 용인, 규제, 금지, 처벌을 독일과 동일한 방식으로 집착하지는 않았다. 이러한 접촉이 "독일 국가 신체"에 긍정적으로 간주되는지 아니면 부정적으로 간주되는지에 따라 이는 오랫동안 유지되어 온 고정관념과 조잡한 나치의 "인종 이론"이 혼합된 것이었다.

이를 위한 첫 단계가 "독일의 피와 독일의 명예 보호를 위한 법" (1935년 9월의 뉘른베르크 법)이었다. 이에 따라 "아리안"으로 여겨지는 사람들은 유대인과의 성관계가 금지되었다. 이러한 "인종 훼손"에 대한 금지는 엄격하고 대체로 모호하지 않았다. 나아가 그 후 나치 행정 군사 당국은 여러 영토에서 이른바 "교제 금지(Umgangsverbote)"

(접촉 금지, 즉 성관계 금지)를 다수 부과하였다.

나치 독일의 매춘업소 설치를, 특히 동유럽에서, 정당화하는 구실이 된 것은 바로 성적 위반에 대한 반유대주의적이고 인종주의적 금지였다. 말하자면, 매춘업소는 독일 군사들이 신체적 또는 감정적 애착 없이 “인종적 이방인”인 여성(fremdvölkisch) 또는 “다른 인종”(artfremd)의 여성과 성관계를 갖는 환경을 제공한다는 이유가 있었다.

다나카 유키는 "관련된 여성의 수, 작전의 국제적 범위, 여성을 조달하는 데 필요한 군 조직 시스템의 규모, 그 시스템이 작동된 기간, 그리고 그 시스템이 관리된 일본의 전시 제국의 지리적 넓이" 면에서 위안부 제도가 인류 역사상 가장 크고 정교한 그리고 잔인한 여성 인신매매 제도였다고 주장했다.

a) 일본 육군은 1930년대 초에 중국에 성노예 제도를 확립했다. 따라서 시간적인 측면에서 1939년/1940년에 겨우 시작된 나치 독일 매춘업소 제도보다 더 오래 존재했다.

b) 또한 오늘날의 연구에 따르면, 이것이 일본인들이 독일군이 설립한 매춘업소보다 순전히 숫자상으로 더 많은 "위안소"를 가졌던 이유 중 하나일 수 있다.

c) 위안소의 지리적 범위가 나치 독일 국방군 매춘업소보다 실제로 더 광범위했는지에 대해서는 확답할 수 없다. 개별 자료에서 아프리카에서의 나치 독일 국방군 매춘업소 설치 가능성을 나타내듯, 이에 대해 아직 체계적으로 조사되지 않았다.

d) 일반적으로, 일본의 제도는 여성들의 인신매매에 크게 의존했다. 특히, 과거 일본 식민지였던 한국의 여성들이 속아서 납치되어 종종 집에서 수백 또는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전쟁 지역으로 끌려갔다. 이것은 식민지 권력 구조에 기초했다.

그리고 이 여행들은 군대, 민간 당국, 그리고 민간 기업가들이 협력하여 조직한 대규모 작전이었고, 많은 자원과 돈이 들었다. 사실, 이 요인들이 오랜 경험과 접촉 속에 가능했는데, 일부는 가라유키상 시스템의 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에 비해 여성의 인신매매와 독일군의 관련성은 훨씬 낮았다. 여기서도 군대가 인신매매범 역할을 했고 폴란드와 네덜란드에서 여성을 모집하여 소련의 전쟁 지역으로 데려갔지만, 이것이 주요한 작전은 아니었던 것 같다.

e) 독일의 매춘업소 제도는 인종차별적인 정치적 위계와 성적 고정관념에 의해 매우 크게 형성되었다. 예를 들어, 네덜란드에서 여성들은 나치 독일 국방군 매춘업소에서 육체적으로 강제로 일하지 않았고, 매춘업소 외부에서의 성폭력도 덜 흔했는데, 이것은 네덜란드인들이 "게르만계"라고 생각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프랑스에서 점령자들은 성매매를 의심하는 여성들에게 더 억압적이었다. 그러나 심지어 이곳에서조차 이들은 여성 인구 대다수에 대한 공개적인 강요와 폭력을 지시하는 데 관심이 없었다. 대조적으로 폴란드와 소련의 상황은 달랐다. 인종차별과 반유대주의, 나치의 기아 정치, 가난, 그리고 계속 증가하는 점령과 대량 학살의 강도 때문에 이곳의 강요와 폭력은 불균형적으로 더 높았다.

일본군도 모든 영토에서 같은 방식으로 행동하지는 않았다. 다시 말해, 각 나라의 성

정책은 항상 갈등의 본질과 특정 공간에서의 점령 정책의 중요한 지점을 드러냈다.

맺음말

불행하게도, 우리는 나치 독일 국방군 매춘업소 여성들의 현실에 대해 거의 알지 못한다. 그들은 말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고, 전쟁이 끝난 후 오늘날에 와서야 비로소 자신들이 오명을 쓰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사람들이 차라리 침묵해줬으면 하는 운명에 대해 그들이 자원했고 스스로 책임이 있었다는 생각이 교묘히 심어졌고 지금도 심어주고 있다.

이렇게 교묘히 조작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위안부 제도의 생존자들이 그들의 기억과 얼굴을 공개할 용기를 발견했다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선물이자, 과거는 물론 현재에도 폭력의 형태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근본적으로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나치 독일 국방군 매춘업소에 대한 연구의 현황을 보면, 더 넓은 페미니스트 논의를 시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나치 독일 국방군의 성적 착취와 성 노예화 시스템의 폭력적이고 강압적인 상황을 어떻게 설명하고 이해할 수 있으며, 동시에 다양한 해석과 행동의 범위와 그들이 한 (그리고 하지 않았거나 하지 않은) 선택을 포함하여 여성의 현실을 파악할 수 있을까?

ナチス・ドイツ国防軍の売春宿と日本軍「慰安所」： 第二次世界大戦当時の軍売春・軍性奴隷制度の類似性と相違点について

レギーナ・ミュールホイザー

今日、ドイツのヨーロッパ侵攻とホロコースト当時の性暴力に関する研究が増えている。ドイツ人男性とその協力者は、強制的な脱衣、性器殴打、性的脅迫、性的拷問、性器切除、陰茎によるレイプ、物によるレイプ、集団レイプ、囚人間の強制フェラチオ、性奴隷化などさまざまな形態の性暴力を実行した。さらに、ドイツ兵は女性に対し、保護や食料、または希少品と引き換えに性的物々交換を強制した。彼らは独立した売春女性、地元の売春宿、軍の売春宿を訪れた。さらに、ドイツ人男性は合意された性交渉や地元の女性とのロマンチックな出会いに関わり、時には結婚許可の申請につながることもあった。研究によれば、このような慣行の形態や力学、範囲や強度は、第二次世界大戦とホロコースト当時の領域、時期、段階によってそれぞれ異なっていた。さらに、最近では、男性同士の性的接触がより体系的な研究テーマとして扱われており、そこには少年や男性への性的拷問も含まれている。また、強制収容所の女性警備員が囚人に性的暴行を加えたケースも議論されている。

私は「国際研究グループ『武力紛争における性的暴力』(www.warandgender.net)」で働きながら、国際的かつ学際的な議論や事例研究のために、研究者、専門家、活動家たちと毎年会合を持ち、一方では誰が誰に対し何をしたのか、他方では紛争に関連する性暴力のさまざまな事例の力学や影響をどのように理解できるかを正確に把握する上で、多様なシナリオを比較することが役に立つということに気づいた。これらの経験をもとに、わたしは、

- 1) 男性性、セクシュアリティ、暴力に対するドイツ軍の考え方
- 2) 占領地のドイツ軍売春宿における女性と少女に対する性的搾取と奴隷化
- 3) そして、これらの歴史的発見を日本軍の「慰安所」とどう比較できるかについて、基本的な考えを論じたい。

先ず、これらの歴史的事例をめぐる私たちのアプローチ、知識ベース、議論が互いに違った形で発展してきたため、このような比較研究は必然的に脆弱さを抱えていることをことわっておきたい。

はじめに：さまざまな研究方法と知識ベース

とりわけ、私たちは「慰安所」に比べ、ドイツ軍の売春宿について知っていることが多くなく、それぞれの研究や論争はかなり異なっている。その違いの主な理由は、ドイツに対し責任を問う原告がヨーロッパにはいないことにある。

韓国やその他の国々では、1980年代後半からこの問題を解決するために活発な女性運動が取り組まれ始めた。フェミニストたちは、生存者が自分たちの体験を報告し、支援を受け、日本に対する要求を発展させるための構造を作り出した。同時期に西ヨーロッパにおいてフェミニストは、a)人種差別的で反ユダヤ主義的なナチスの不妊化や人口政策の犠牲者となった女性と、b)ナチスのエージェントや協力者として活動した(母親世代の)女性を扱うことに、より焦点を当てていた。一方、東欧でのフェミニストの議論は、1989年の冷戦終結後に c)つい直前に経験したソ連占領期に焦点が当てられた。もっと過去のナチズムはほとんど機能しなくなっていた。したがって、ナチスの性暴力の生存者たちは沈黙するか、プライベートに自分の体験を話すにとどまった。

1990年代に入り、米国ホロコースト記念博物館が開館し、ホロコースト生存者との数多くのインタビュー・プロジェクトが取り組まれる中、紛争に関連する性暴力問題に対する認識が高まった。より多くの研究者が生涯史の口述という脈絡で、性的虐待やレイプについて質問するようになった。しかし、ホロコーストの生存者はこのことについて語ることをためらいがちで、面接者は適切な方法で質問する訓練が通常なされていなかった。そのため、陳述は往々にして短く断片的であった。しかも、軍の売春宿についてはほとんど言及がなされなかった。

したがって、ドイツの売春宿研究は主にナチスの史料に大きく基づいており、ナチスの政治、規制、慣行に注目している。これらにおける女性や少女の実際の経験については、ほとんど知られていない。さらに、この研究は学術的な議論の外ではほとんど知られておらず、紛争関連の性暴力に対するフェミニストの議論はなおさら知られていない。まずはドイツ軍の事例について私たちの把握していることを簡単に紹介したい。

I. 性に対する軍事的思考：利益とリスク

ナチス・ドイツ国防軍は市民兵士1700万人が動員された徴兵軍であり、そのうち約1000万人が東部戦線で勤務した。彼らはあらゆる社会階層の出身者で構成された。カトリック、プロテスタント、または無神論者であり、政治信条は、社会主義者、自由主義者、社会民主主義者、保守主義者から熱狂的なナチまで多岐にわたった。陸軍最高司令

部はしばしば、幼い男子が直接的な軍事行動者になるよう準備させるという課題に直面した。つまり、人間という存在の最も極端な二つの経験に、進んで立ち向かえるようにするという課題である。二つとは、殺人の力と殺される可能性である。

ウルリッヒ・ブレックラング (Ulrich Bröckling) が主張したように、それは兵士の戦闘準備として「暴力に対する個人の潜在力」を発揮させるために軍で行う訓練の一部であった。しかし同時に、この潜在的な力はコントロール下に置かれる必要があり、軍事目標に向けられなければならなかった。したがって、すべての兵士は広範かつ多様な訓練に従わねばならず、全体的な機関としての軍は一般的に他の機関よりも厳しく異常行動を処罰する。しかし同時に、個人が期待する征服に対する補償を約束する。ヤン・フィリップ・リームツマ (Jan Philipp Reemtsma) は『『しなさい(You must)!』という命令には『しても良い(You may)』という免許が付いている』と主張する。「兵士たちは他の人々よりも厳しい訓練を受けなければならないが、少なくとも戦争中にはより多くの自由を得ることができる」。(ドイツ海軍、空軍、SSの命令だけでなく)陸軍最高司令部が部下に与えた自由の一つは、性暴力加害を含む性的冒険であった。

さらに、性的満足は一般的に心理的・肉体的に兵士を強め、「男性的冒険」を共有することは男性間の結束に肯定的な影響を与えるだろうと信じられていた。ドイツ軍は、弱く依存的で女性的と見なされるあらゆる特性を克服した、鋼鉄のような「アーリア」兵士の理想を広めた。これは第一次世界大戦におけるドイツの敗北の羞恥を克服するための考え方であり、兵士たちの異性愛的な性愛のイメージと絡み合っていた。歌や葉書、雑誌などで普及された兵士たちの物語の中心に、女性や少女を利用する可能性が位置していた。

他にも私は論じてきたが、非常に若い男子たちは性暴力の害悪や不当さをほとんど認識しておらず、ましてや自分が重大な犯罪を働いたとは認識していなかった。そして、彼らの理解も地域によって異なっていた。だが、彼らはポーランドとソビエト連邦国家の絶滅戦争の間、強く強靱な「アリアン」男性の理想を満たることが不可能であることに気づいた。軍人たちの手紙や日記には、彼らの恐怖と家族と愛する人への依存が現れている。ここでは性行為が苦難を昇華させる手段を提供しているように見える。ヒトラーは1942年4月、「ドイツ人が軍人として無条件に死ぬ覚悟ができているならば、無条件に愛する自由がなければならない」と主張した。ヒトラーの論評は、20世紀半ばの西欧思考に蔓延していた理解を示している。戦闘と「愛」、特に性的満足は、男性存在の実存的経験であるというのだ。

にもかかわらず、ナチス・ドイツ国防軍司令部は、性病の拡散、軍紀の喪失、国防総省の評判への損害、性暴力によって誘発される可能性のある地域住民の抵抗、敵のスパイ

行為に対する恐怖、同性愛者の同性愛活動に対する恐怖、「人種的に混合された私生児」の誕生など、兵士の性的「欲望」が軍事作戦に非常に危険であることを確認した。このような危険を統制し、軍人の性的活動を軍事的目標へと転換するために、軍人らしい性生活は軍事政策の核心要素となった。

第一次世界大戦以後、ドイツの軍医は兵士が戦場での経験の結果、勃起不全に陥る可能性があるという事実を観察した。しかも、ドイツ、英国、米国の第1次世界大戦の兵士すべてが暴力を振るった時の、望まない興奮とオルガズムの経験を描写した。軍の指揮官らは、自分の兵士たちの身体的・心理的摩耗を考慮しなければならないことを知っていた。性的な「緊張と苦渋」が多くの男性に積もるという仮定は、当時軍が教えていた男性の性に及ぼす戦争の残酷性の影響と両立し得た。対照的に、異性愛行為は「緊張と苦悶」の健全で望ましい「はけ口」として現れ、これにはレイプも含まれる可能性がある。指揮官は、兵士の行動が作戦を危険にさらすか、占領の目的に反すると判断した場合にのみ、懲戒や軍事裁判の手続きに従った。

ビルジット・ベック(Birgit Beck)によれば、「強かん(Notzucht)」(文字通り訳すると、必要に迫られての再生産)に対する処罰は、東部戦線よりも西部戦線の師団の裁判所のほうが重かった。なぜなら、そこでは地元住民の協力の意志を含む平和的占領を確保することが目的であったからだ。しかし西部戦線においてさえ、レイプはほとんどが主要な犯罪とはみなされず、些細なものとしてされた。

ナチス・ドイツ国防軍司令部は、組織的に兵士らの性暴力防止に努めるのではなく、医学的、身体的、心理的リスクを制限することにほとんどの注意を向けた。例えば、陸軍医療部隊は、性的接触の危険性や性病の症状について教育するよう指示されていた。ドイツ国防省は、大都市に、男性が性交渉後に性器を消毒できる「衛生施設」を設置した。ドイツ国防省が男性の性的活動を管理するためにもっとも広範囲に取った措置は、軍の売春宿の設立だった。

II. ナチス・ドイツ国防軍の売春宿

ドイツ軍での売春には長い歴史がある。例えば、帝国軍では兵士の間で売春宿の訪問は珍しくなかった。第一次世界大戦中、陸軍は初めて歩兵と将校のための売春宿を分けて軍隊組織に設置し、一部は部隊に同行する移動ワゴンに設置することもあった。第二次世界大戦中、国防軍はそのような伝統に基づいて設置した。確かに、ヒトラーは1924年『我が闘争』で、ナチズムがワイマール共和国時代のドイツの「道徳的衰退」の根本原因として

売春を断固として拒否するよう求めていた。そして確かに、ナチス政権は当初、厳格な道徳的思想を宣言することで、ナチズムに対するキリスト教支持者を獲得するため売春を厳しく取り締まったりもした。しかし、第二次世界大戦の開始とともに、この立場は非現実的で逆効果を生んでいるように見えた。

1939年9月9日のポーランド侵攻直後、帝国内務大臣は「警察の売春の取り扱い」に関する法令を公布し、帝国国境内の軍隊作戦地域に売春宿を設置・監督すると宣言し、この売春宿は司法警察と保健当局の権限下に置かれることになった。そしてこの法令は3つの戦略を開発した。第一として、性売買をしたり、性売買をしたと疑われる女性たちを追跡し、登録し、医学的に監視することにした。第二に、現存する売春宿はドイツ当局の監督を受けられるようにした。第三に、軍の売春宿はナチス・ドイツ国防軍の兵士専用を設置された。

マレン・レーガー(Maren Röger)が主張しているように、ポーランドは最初に侵略され占領された国家として、ドイツの売春政策の「実験場」であった。だが、戦争が進む中、この法令は占領されたすべての地域における国防軍の売春政策のガイドラインとして機能するようになった。1939年から1944年にかけて、ドイツ国防軍はドイツ占領地域のほとんどに売春宿を設置した。(地方当局の協力および/または抵抗の程度を含め)各地域の条件や職業政策に応じて設置や組織が異なった。

ナチスの人種差別主義と反ユダヤ主義イデオロギーも一役買った。例えば、ポーランド住民とソビエト連邦のポーランド人は主に民族的に異質であるため「外国人」と見なされ、ドイツ男性は彼らとの性関係が禁止された。しかし、ナチス・ドイツ国防軍の売春宿ではこのような接触が容認され、実際に奨励された。「毎回変わる訪問客と売春婦の関係」が「非個人的で経済的」と見なされたためだ。

しかし、このアプローチはユダヤ人女性には適用されなかった。1942年3月20日、OKHの最高医療責任者は、ユダヤ人女性がドイツの売春宿で厳しく禁止されるべきだと明確に命令した。

ポーランド

1939年9月に150万人のドイツ男性がポーランドに侵攻したとき、彼らは頻繁に違法な売春や性的物々交換を行った。その状況をコントロールするために、警察当局は頻繁に街に繰り出しホテルやカフェを捜索した。

ポーランド当局からすでに売春女性と知られていた女性たちは、ドイツの制度に登録されることになった。さらに当局は、売春の疑いがある女性のみならず、性の物々交換に従事する女性からも登録した。いったん女性が登録されると、売春宿に押し込まれた。登録

されたことで、彼女らは定期的に健康診断を報告せねばならなくなり、ますますその環境で接触を増やすことになり、中産層の仕事への復帰が妨げられた。

レーガー(Röger)は、直接的な性奴隷化の事例を二つ言及している。だが、最終的には、ナチス・ドイツ国防軍の兵士用慰安所に行くことになった女性のほとんどは直接強制されたわけではないと結論づけている。彼女たちは収入が高なくても、女性が他の仕事、例えば販売員として得られる以上を稼いでいた。しかし、どのような理由で採用されたかに関係なく、女性が行動できる空間は非常に限られていた。売春宿の運営は厳しく監督されていた。女性たちはそこで暴行を受け、夜間の外出は禁止された。休暇を取るにはドイツ当局の承認を受けなければならなかった。そして健康診断のため、女性は3日以上外出できなかった。

実際、ドイツ当局は既存の売春宿を厳しく監視し、地元の男性の出入りを制限し、アルコールの提供を制限し、女性と訪問兵士の行動規則を施行した。売春宿が存在しない場所には、軍の売春宿が設立されることになっていた。しかし、人種的、道徳的懸念、組織上の困難により遅れが生じた。ナチス・ドイツ国防軍の報告書で軍用売春宿が大規模に設置されていることが確認されるまで約1年かかった。

ソビエト連邦

資料によると、ここでもドイツ当局は「秘密売春」を取り締まり、「不審な女性」を登録したという。特に短いドレスを着たり、口紅を塗った女性が不審に思われた。

ドイツ侵攻以前のソ連では売春が正式に禁止されていた。社会主義理論は商業的セックスを「ブルジョアの墮落」と見なしたためだ。したがって、ドイツ軍の医療サービスは既存の売春宿を流用することができなかった。ポーランドやフランスと同様に、彼らは公共財産や私有財産を押収した。ドイツ軍がソ連に抵抗する人々の家屋を売春宿にしたことは、特に強力な象徴的效果を持っていた。征服者たちは彼らが領土を占領したことを性的な面でも示した。

対照的に、前に売春婦として働いたことがある場合や、自分と家族を扶養する他の方法を見つけられなかった他の女性の場合、売春宿で自発的に働くことに同意したようである。しかし、自発的な行動と強制の境界は曖昧だった。若い女性がドイツに出稼ぎに行くことと起こり得る恐ろしい話が広まっていた。レイプ、性奴隷化、不妊手術、さらには殺人まで。そのような恐ろしい見通しを考えると、たとえ売春宿で働くことになるとしても、慣れ親しんだ環境にとどまりたいと思う若い女性もいたかもしれない。

その上、ナチス・ドイツ国防軍がポーランドとオランダから女性を多く募集して、ソ

連の戦地に連れいったと見られる兆候もある。しかし、今のところ、この採用に関連して女性たちが経験した強制やその程度について、これ以上の情報は得られていない。

III. 日本軍「慰安所」との比較

イデオロギーの基盤

a) 日本における長い売春の歴史は、セックスが男性に不可欠な活動と見なされたことを示している。しかも人々の寿命を延ばすとさえ考えられていた。19世紀末に導入された男性の「性欲」に対する現代医学的概念は、このような男性の性欲の必然性に対する長年の仮定を深めるだけであった。大日本帝国軍にとって、これは軍人の性的欲求を抑制することはできないことを意味した。むしろ管理する必要があった。このような意味で、日本軍の根拠はナチス・ドイツ国防軍と概ね似ているように思われる。両国の軍指揮官は、男性の性欲は自然なもので避けられないものであり、男性が身体的・心理的にバランスを取り強くなるためには性的満足が必要だと考えていた。その上、両軍の指揮官たちは、男性の性生活を戦争や戦闘に利用することができ、利用されるべきであり、扇動され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う前提の下で行動した。

b) さらに、両軍は軍人らしい性行為、すなわち性病の拡散や、占領軍に対する地域住民の反感を買う「野生レイプ」の危険性に対しても同様の評価を下していた。（連合軍がそうであったように）日本軍とドイツ軍は、部下たちの「性的欲求」を管理しリスクを抑制するためには、統制された売春が解決策だと見なした。

c) 第三に、日本とドイツの軍・文民当局の女性蔑視的アプローチにも、明確な類似性がある。いずれのシステムにおいても、女性は自分の権利を持っていなかった。女性は、権利を持って生きる価値があり保護される価値がある存在とは考えられなかった。軍人の性的欲求を満たす資源と見なされたに過ぎない。そして潜在的な医学的・道徳的な脅威と認識された。したがって、女性は自分自身のためではなく、兵士（そして彼らの価値ある妻と国家）を女性と「女性の」病気から守るために、検査や治療を受けた。

これらの類似点に加えて、両軍のイデオロギー基盤におけるいくつかの違いも観察することができる。

d) 上で述べたように、ドイツ陸軍最高司令部がナチス・ドイツ国防軍の売春宿を設置した理由の一つは、兵士たちが（軍隊内や地域の男性たちと）同性愛的な出会いを持つことを防ぐことであった。

日本軍にとっては、同性愛は深刻な医学的・道徳的問題ではなかった。同性関係を禁

止または規制する法律はない。対照的に、ナチス政権は、1871年のドイツ刑法にさかのぼる悪名高い175項を拡大した(そして1994年まで完全に廃止されなかった)。「人民の慢性病同性愛」(ナチスの目には、ワイマール共和国時代に広がった同性愛という全国的伝染病)の根絶は、ナチス政治の主要テーマとなった。伝統的な同性愛嫌悪の固定観念と疑似科学的な人種理論を組み合わせ、同性愛者と見なされた男性は広く迫害された。

法廷では、1) 生まれつき「同性愛の傾向がある」と考えられ、性的パートナーを「誘惑」したとされる男性と、2) 誘惑され、誤った異性愛者と見なされた男性に対する区別が確立された。「誘惑者」は「国家組織から排除」されるべき存在で、したがってほぼ確実に死を意味する強制収容所に送られた。「誘惑された人」は刑事訴追と懲役刑により「正しい道」に戻されるべきとされた。特にポーランドとソビエト連邦の軍事裁判所は、「同性愛者」とみなされる人々に死刑を宣告することはほとんどなかった。むしろ、短い刑期を終えた後に、軍隊は犯罪者をドイツ軍に復帰させた。このように彼らは軍隊のための人員を維持し、異性愛者の同志が戦線で命を賭けている間、彼らが相対的に安全な刑務所で生きてはいけないのだということを兵士たちに明確に示そうとした。

この「自然な誘惑者」と「誤った誘惑者」という考え方により、ドイツ軍の指揮官たちは、売春宿という形の異性愛的な「はけ口」にアクセスすることができれば、部下が「誤った」誘惑を受け同性との接触にかかわることを防げると信じたのであった。

e) もう一つの違いは、日本とドイツにおける人種差別主義や反ユダヤ主義的イデオロギーの特殊性にあるようだ。もちろん、日本軍の残酷な帝国軍策戦は、他のアジア人に対する日本人の優越性や想像上の人種的劣等性という考え方によって煽られ、情報を得て、特徴づけられた。実際、「慰安婦」制度は、日本に蔓延していた性差別、人種差別、ナショナリズムの組み合わせに基づいていた。しかし、日本は他の民族や集団との間の性的接触を推進、容認、規制、禁止、処罰することに、ドイツのような形で執着してはいなかった。ドイツではそのような接触が「ドイツ国体」にとって肯定的であるか否定的であるかによって異なっていたが、そのような規制を引き出したのは、長年維持された固定観念とナチスの粗雑な「人種理論」が混ざりあった考え方であった。

その第一段階は「ドイツの血とドイツの名誉の保護に関する法律」(1935年9月のニュルンベルク法)だった。これにより「アリアン」と見なされる人々には、ユダヤ人との性行為が禁止された。この「人種毀損」に対する禁止は厳しく、概して明確であった。さらにその後の数年間、ナチスの文民および軍事当局は様々な領土でいわゆる「Umgangsverbote 交際禁止」(接触禁止、すなわち性行為の禁止)を課した。

ナチス・ドイツの売春宿設置を、とりわけ東欧で正当化させる口実になったのは、ま

さに性的違反に対する反ユダヤ主義的で人種主義的な禁止であった。売春宿には、ドイツ軍が身体的または感情的な愛着なしに「人種の異邦人」である女性または「他の人種」の女性と性関係を持つ環境を提供するという理由付けがなされた。

田中(Yuki Tanaka)は、「かかわった女性の数、策戦の国際的範囲、女性を調達する上で必要とされた軍事組織システムの規模、そのシステムが機能した期間、そしてそのシステムが管理された日本の戦時帝国の地理的な広さ」の面で、「慰安婦」制度は人類史上でも大規模で、最も精巧かつ残忍な女性人身売買制度であったと主張している。

a) 日本陸軍は1930年代初頭に中国で性奴隷制度を確立した。したがって時間としては1939年から1940年にかけて始まったばかりのナチス・ドイツの売春宿制度より長く存在していた。

b) 今日の研究によると、このことが、日本人がドイツ人の設立した売春宿よりも純粋に数値的にはもっと多くの「慰安所」を持っていた理由の一つかもしれない。

c) 慰安所の地理的範囲のほうがナチス・ドイツ国防軍の売春宿よりも本当に広がったかどうかについてはまだ確答できない。個別の資料がアフリカにおけるナチス・ドイツ国防軍の売春宿設置の可能性を示しており、これについてはまだ体系的に調査されていない。

d) 一般的に日本の制度は女性の人身売買に大きく依存していた。特に、日本の植民地朝鮮の女性たちは騙されて拉致され、しばしば家から数百、数千キロ離れた戦場に連れて行かれた。このことは植民地支配構造に基づいていた。

そして、この旅とは軍隊、民間、当局、民間企業家が協力して組織した大規模な策戦であり、多くの資源と資金を費やしたものであった。実際、それは長年の経験や人脈を背景にしており、一部はkらゆきさん制度の時代にまで遡るものもある。

それに比べ、女性の人身売買はドイツ軍との関係ははるかに低かった。ここでも軍隊が人身売買犯の役割を担い、ポーランドやオランダから女性を募ってソ連の戦場に連れて行ったが、それが主要な策戦ではなかったようである。

e) ドイツの売春宿制度は、人種差別的な政治的ヒエラルキーと性的固定観念によって大きく形成された。例えばオランダでは、女性が強制的にナチス・ドイツ国防軍の売春宿で肉体的に強いられる形では働いておらず、売春宿の外での性暴力も頻繁ではなかったが、それはオランダ人が「ゲルマン系」だと思われたためとみられる。フランスでは、占領者は性売買が疑われる女性に対してより抑圧的であった。しかし、ここでさえ、彼らは女性人口の大多数に対する公然の強制と暴力を指揮することには関心がなかった。対照的に、ポーランドとソビエト連邦では状況が違っていた。人種差別と反ユダヤ主義、ナチスの飢餓政治、貧困、増え続ける占領と大量虐殺により暴力が激しくなっていたため、強

制と暴力は不釣り合いに強かった。

日本軍もすべての地域で同じように行動したわけではない。重ねて指摘するが、各国の性政策は常に、対立の本質や特定の空間での占領政策に関する重要な側面を明らかにしている。

まとめ

残念ながら、私たちはドイツの売春宿にいた女性たちの現実をほとんど知らされていない。彼女たちは発言権を与えられず、戦争が終わってから今日に至るまで自分たちが汚名を着せられ続けていた。沈黙してほしいと人々に思われている彼女たちの運命について、彼女たちは自発的に行動したのだから責任があるのだという考え方が、今でも巧妙に植え付けられ暗示されている。

慰安婦制度の生存者たちは、そのような巧妙な操作にもかかわらず、勇気を出して自らの記憶と顔を公開するようになったことは、私たちすべてに対する贈り物であり、過去から現在まで性暴力被害者の経験を聞き理解できるようにする場をつくる機会でもある。

ナチス・ドイツ国防軍の売春宿に関する研究の現状を見ながら、より広範にフェミニストの議論を始める必要があると思う。私たちはナチス・ドイツ国防軍の性搾取や性奴隷制度の暴力的で強圧的な状況をどのように説明し理解することができるのか。同時に彼女たちの多様な解釈や行動の範囲、彼らが取った(そして、取れなかったか、取らなかった)選択を含む、女性たちの現実を把握するにはどうすれば良いだろうか。

German Wehrmacht brothels and Japanese “comfort stations”: On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of systems of military prostitution/sexual enslavement in WWII

Regina Mühlhäuser

Today, there is a growing body of research on sexual violence during the German invasion of Europe and the Holocaust. German men and their collaborators perpetrated different forms of sexual violence against women and girls, including forced disrobement, genital beatings, sexual blackmail, sexual torture, genital mutilation, rape with the penis, rape with objects, gang rape, enforced fellatio between prisoners, sexual enslavement. In addition, German soldiers coerced women into sexual barter in exchange for protection, food or other scarce goods. They visited independent prostitutes, local brothels and Wehrmacht brothels. What is more, German men were involved in consensual liaisons and romantic encounters with local women, which led at times to applications for marriage permits. Research findings indicate that forms, dynamics but also the extent and intensity of these practices varied across territory, time and stage of WWII and the Holocaust. What is more, sexual encounters between men have recently become a more systematic subject of research, including sexual torture of boys and men. Also, some cases have been discussed in which female guards in concentration camps committed acts of sexual and sexualized violence against prisoners.¹⁾

Working in the “International Research Group ‘Sexual Violence in Armed Conflict’” (www.warandgender.net), where researchers, professionals and activists meet annually for an international and interdisciplinary discussion case studies, I have come to realize that it is helpful to compare different scenarios in order to, on the one hand, grasp more precisely who did what to whom and, on the other hand, how we can understand the dynamics and impact of different cases of conflict-related sexual violence. Based on

1) Cp. the rich body of German and English literature collected in the Selected Bibliography “Sexual Violence in Armed Conflict”, <https://warandgender.net/bibliography/> (15.07.2023).

these experiences, I would like to give you a brief introduction into

- 1) the German military thinking about masculinity, sexuality and violence, and
- 2) the sexual exploitation and enslavement of women and girls in German military brothels in the occupied territories.
- 3) I would then like to discuss some preliminary thoughts about how we can compare these historical findings to the “comfort stations” for Japanese soldiers.

At the outset, I would like to point out that this comparison is necessarily fragile because our approaches, knowledge-base and debates around these historical cases have developed in different ways.²⁾

Introductory remark: Different approaches and knowledge–bases

Notably, we know less about the Wehrmacht brothels than about the “comfort stations”, and the respective approaches and debates vary considerably. Arguably, the main reason for these differences lies in the fact that there are no plaintiffs in Europe who hold Germany accountable.

In Korea and other countries, an active women's movement began to address the issue since the late 1980s. Feminists created structures where survivors could report on their experiences, receive support and develop demands against Japan. In Western Europe at the same time, feminists were more focused on addressing a) women as victims of the racist and antisemitic Nazi sterilization and population policies and b) women (of the generation of their mothers) as active Nazi agents or collaborators. In Eastern Europe, in contrast, the feminist debate after the end of the Cold War 1989 focused c) on the Soviet occupation period that had just passed. Nazism, which was further in the past, hardly played a role. Survivors of Nazi sexual violence thus remained silent or only discussed their experiences in private.

Only the growing awareness of the problem of conflict-related sexual violence in the 1990s – combined with the opening of the United States Holocaust Memorial Museum and the implementation of numerous interview projects with Holocaust

2) For more details on the following passage cp. Regina Mühlhäuser, „Umkämpfte Erinnerungen und mangelndes Unrechtsbewusstsein. Zur Un/Sichtbarkeit sexueller Gewalt während des Zweiten Weltkriegs in Asien und Europa,“ in: Eva Labouvie, ed, *Geschlecht, Gewalt und Gesellschaft. Interdisziplinäre Perspektiven* (Bielefeld: transcript, 2023).

survivors – led more and more researchers to ask questions about sexual abuse and rape in the context of life history interviews. However, Holocaust survivors were often hesitant to talk about this, and interviewers were usually not trained how to inquire in adequate ways. Hence, the mentions are often short and fragmented. Additionally, military brothels are rarely mentioned.

When it comes to the Wehrmacht brothels research is thus largely based on historical Nazi documents and focuses on the Nazi politics, regulations and practices. Little is known about the actual experiences of women and girls in these brothels.

Furthermore, this research is little known outside of the academic debate and thus much less informed by feminist debates around conflict related sexual violence.

That said, let me start by giving you a brief introduction on what we know about the case of the German Wehrmacht.

I. Military thinking about sex: benefits and risks

The Wehrmacht was a conscript army fielding 17 million citizen-soldiers, of whom approximately 10 million served at the Eastern front. Conscripts came from all social strata; they were Catholic, Protestant, or atheist and their political beliefs ranged from apolitical, socialist, liberal, social democratic, and conservative to fanatically Nazi. The Army High Command faced the task of preparing these often very young men to become direct military actors, that is, to be willing to face two of the most extreme experiences of human existence: the power to kill and the possibility of being killed.³⁾

It is, as Ulrich Bröckling argued, part of soldiers' training in state armies to unleash the "individual's potential for violence" in order to prepare them for combat. At the same time, however, this very potential has to be kept under control and channeled toward military goals.⁴⁾ Every soldier is therefore subjected to a broad variety of disciplinary measures, and as a total institution, the military generally punishes aberrant behavior more rigorously than other institutions. At the same time,

3) This part is based on Regina Mühlhäuser, *Sex and the Nazi soldier. Violent, commercial and consensual encounters during the war in the Soviet Union, 1941-45* (Edinburgh UP, 2021). Original German version 2010.

4) Ulrich Bröckling, „Schlachtfeldforschung. Die Soziologie im Krieg,“ in: Steffen Martus, Marina Münkler, Werner Röcke, eds, *Schlachtfelder: Codierung von Gewalt im medialen Wandel* (Berlin: Akademie Verlag, 2003), 189-206, here 189-99.

however, it promises to compensate the individual for the subjugation it expects. “The order ‘You must!’ is accompanied by the license ‘You may’”, asserts Jan Philipp Reemtsma. “Soldiers are not only disciplined more rigorously than other people, they can also – at least during war – take more liberties.”⁵⁾ One of the liberties that the Army High Command OKH (as well as the commands of the German navy, air force, and SS) granted their men was that of sexual adventures, including the perpetration of sexual violence.

What is more, it was commonly believed that sexual satisfaction would strengthen the soldier psychologically and physically, and that shared “masculine adventures” would have a positive effect on the cohesion among the men. The German army propagated the ideal of the steeled, virile “Aryan” soldier who overcame all characteristics regarded as weak, dependent and womanly – an ideal that was meant to overcome the shame of German defeat in WWI. This was intertwined with an image of the soldiers’ heterosexual virility. The availability of women and girls was a central trope of soldiers’ stories, disseminated in songs, on postcards, in magazines.

As I have argued elsewhere, the often very young men had little awareness of the harm and injustice of sexual violence, let alone that they committed a grave crime. And their understanding also varied by territory. They regarded France, for example, stereotypically as a country of romantics, the Netherlands as a country of free sex. In Amsterdam, for example, the soldiers sometimes behaved like sex tourists, evading duties in order to visit the red-light district.⁶⁾

Particularly during the war of annihilation in Poland and the countries of the Soviet Union, however, the men came to realize that it was impossible to fulfill the ideal of the steeled and virile “Aryan” men. Soldiers’ letters and diaries reveal their fear and their dependence on family and loved ones. Here, sexual activity seems to have provided even more a means of sublimating hardships. “If the German man as a soldier is to be ready to die unconditionally,” Hitler asserted in April 1942, “he must have the freedom to love unconditionally.”⁷⁾ Hitler’s comment reveals an understanding

5) Jan Philipp Reemtsma, „Gewalt: Monopol, Delegation, Partizipation,” in Wilhelm Heitmeyer, Hans Georg Soeffner (eds), *Gewalt. Entwicklungen, Strukturen, Analyseprobleme* (Frankfurt/M: Suhrkamp, 2004), 346–361.

6) Laura Fahrenbrück, *Ein(ver)nehmen. Sexualität und Alltag von Wehrmachtssoldaten in den besetzten Niederlanden 1940-1945* (Göttingen: V&R unipress, 2018).

prevalent in Western thinking in the mid 20th century: that combat and “love,” in particular sexual satisfaction, are the existential experiences of male existence.

Yet the Wehrmacht command identified a number of risks of soldiers’ sexual “desires” for military operations: the spread of sexually transmitted disease (STD), the loss of military discipline, the harm for the Wehrmacht’s reputation, the resistance that sexual violence could incite in the local populations, the fear of enemy espionage, the fear soldiers would get into homosexual activities, and the birth of “unwanted racially mixed bastards”.

In order to keep these risks under control and to channel the soldiers’ sexual activities towards military goals, soldierly sexuality became a key part of military policy.

On 31 July 1940, one month after the German occupation of France, Commander-in-Chief of the Army Walther von Brauchitsch addressed the ‘sex life of soldiers in the field’ in an order with the subject *Selbstzucht* (self-discipline). In September 1941 his remarks were also disseminated among troop leaders on the Eastern Front:

The conditions that form the soldier, not only during military maneuvers but also (. . .) after the end of combat operations, are of a different nature and sometimes diverge fundamentally from those at home.

Since the predispositions of men differ, it is (. . .) inevitable that tensions and distress [*Spannungen und Nöte*] in the sexual realm will arise here and there that we cannot and should not close our eyes to.

This problem can by no means be solved with a ban on sexual activity. Besides other negative consequences, such a ban would increase the number of sexual violation crimes and the risk of offenses against §175 [the statute of the German criminal code that punished male-male sexual activities].⁸⁾

Von Brauchitsch’s assumption that many men would build up sexual “tensions and distress” was compatible with contemporary military teachings about the potential

7) Quoted in Henry Picker, ed, *Hitlers Tischgespräche im Führerhauptquartier: Entstehung, Struktur, Folgen des Nationalsozialismus* (1951; repr., Berlin: Propyläen TB, 1997), 332.

8) Von Brauchitsch (OKH) to Generalquartiermeister, 31 July 1940, Bundesarchiv-Militärarchiv Freiburg (BA-MA), RH 53-7/v. 233a/167.

effects of the brutality of war on men's sexuality. After World War I, German military doctors had started to observe that soldiers could suffer impotence as a result of their experiences on the battlefield. What is more, German, British and American WWI soldiers had all described their unwanted experiences of arousal and orgasm while perpetrating violence. Military commanders were aware that they had to take such physical and psychological frictions of their men into account.

In contrast, heterosexual activity appeared as a healthy and desirable "outlet" for "tensions and distress" – this could even include rape. Indeed, von Brauchitsch had already instructed military judges to exempt rapists from serious punishment (unless they were known to be repeat offenders or had carried out the act with extreme brutality).⁹⁾ Only in cases where commanders believed that a soldier's behavior endangered an operation or ran counter to occupation objectives was he subject to disciplinary action or military court proceedings.

As Birgit Beck has shown, the punishment for "Notzucht" (rape; literal translation: breeding out of need) was higher in the division courts on the Western Front than on the Eastern Front, since the aim here was to ensure a peaceful occupation, including the willingness of the local population to collaborate. Yet even at the Western Front, rape was not considered a primary crime and largely trivialized.¹⁰⁾

Instead of systematically attempting to prevent their men from perpetrating sexual violence (and from being sexually active more generally), the Wehrmacht command directed most of its attention towards limiting the medical, physical, and psychological risks. The army medical corps, for example, was instructed to educate the men about the dangers of sexual contacts and the symptoms of STDs. In larger cities, the Wehrmacht established "sanitation facilities" where men could disinfect their genitals after intercourse.

The most far-reaching measure by which the Wehrmacht tried to manage the sexual activities of its' men was the establishment of military brothels.

9) Memorandum by von Brauchitsch (OKH), "Notzuchtverbrechen," 5 July 1940, BA-MA, RH 14/v. 30.

10) Birgit Beck, "Sexual violence and its prosecution by courts martial of the Wehrmacht," in: Roger Chickering, Stig Förster, Bernd Greiner, eds, *A world at total war. Global conflict and the politics of destruction, 1937-1945* (Cambridge: Cambridge UP 2005), pp. 317-331.

II. Wehrmacht brothels

Prostitution had a long history in the German military. In the army of the Kaiserreich, for example, brothel visits were common among military personnel. In WWI, the army for the first time set up military-organised brothels – for infantrymen and officers separately, and partly in mobile wagons that accompanied the units. During WWII, the Wehrmacht built on such traditions. Admittedly, Hitler had demanded in *Mein Kampf* 1924 that Nazism must resolutely reject prostitution as a root cause of Germany’s “moral decline” during the Weimar Republic. And admittedly, the Nazi regime had initially cracked down on prostitution, not least to win Christian supporters for Nazism by proclaiming rigid moral ideas. With the beginning of WWII, however, this position seemed unrealistic and counterproductive.

Immediately after the invasion of Poland on 9 September 1939 the Reich Minister of the Interior published a decree on the “Handling of prostitution by the police” which declared that the establishment and supervision of brothels in the army’s area of operations within the borders of the Reich was to be placed under the authority of the criminal police and the health authorities. Furthermore, this decree advanced a threefold strategy: Firstly, women who worked in prostitution or who were suspected of doing so were to be tracked down, registered and medically monitored. Secondly, existing brothels were to be supervised by the German authorities. Thirdly, military brothels were to be set-up for use of Wehrmacht soldiers only.¹¹⁾

As Maren Röger has argued, Poland, as the first invaded and occupied country, was an “experimental field” for the German prostitution policy.¹²⁾ Yet in the course of the war this decree would come to serve as guideline for the Wehrmacht’s prostitution policy in all occupied territories. Between 1939 and 1944, the Wehrmacht established brothels in most German occupied territories. The set-up and organization varied according to the respective conditions and occupation politics in a region (including the degree of collaboration and/or resistance of the local authorities).

11) Reichsministerium des Innern, Erlass, betr: Zur polizeilichen Behandlung der Prostitution, Berlin, 9.9.1939, Bundesarchiv Berlin (BArch), R 22/1515, pp. 8f.

12) Maren Röger, *Kriegsbeziehungen. Intimität, Gewalt und Prostitution im besetzten Polen 1939 bis 1945* (Frankfurt/M: S. Fischer, 2015).

The Nazi racist and antisemitic ideology also played a role. The local peoples in Poland and the Soviet Union Poles, for example, were largely deemed to be “fremdvölkisch” (ethnically alien), and German men were prohibited from engaging in sexual intercourse with them. In Wehrmacht brothels, however, such contacts were tolerated and, indeed, facilitated, because “the relationships of the prostitutes with their changing visitors” was seen as “impersonal and economic”. Even SS-leader Heinrich Himmler explicitly condoned brothel encounters in Eastern Europe, arguing that they took place outside the context of personal connection and reproduction.¹³⁾

Yet this approach did not apply to Jewish women. On 20 March 1942, the head medical officer of the OKH explicitly ordered, that Jewish women were strictly prohibited in Wehrmacht brothels.

Poland

When 1.5 million German men invaded Poland in September 1939, they frequented illegal prostitution and sexual barter.¹⁴⁾ In order to get the situation under control, police authorities conducted frequent street raids and searched hotels and cafes: Women who had already been known as prostitutes to the Polish authorities were now registered in the German system. In addition, the authorities registered women engaged in barter as well as women suspected of prostitution. Once a woman was registered, she was pushed into brothel prostitution: Professional prostitutes could no longer decide whether they wanted to work in a brothel or on the street. And women who were suspected of prostitution found themselves trapped in the system. Because of their registration, they had to report regularly to health checks, and increasingly came into contact with the milieu, blocking their way back into middle-class jobs.

On 25 September 1940, Reich Governor Arthur Greiser furthermore issued an order in Warthegau (German annexed part of Poland) stating that “Polish women who have sexual intercourse with German nationals may be assigned to a brothel”. Here, the brothel thus became a punishment for “prohibited relations”. It is unclear how often this order was implemented. But Röger found the case of Maria K., a saleswoman living in Poznan. In May 1940 she was accused of “forbidden sexual intercourse” with

13) Mühlhäuser, *Sex and Nazi Soldier*, p. 156.

14) For the following see Röger, *Kriegsbeziehungen*.

a German man. As a result, she was placed in protective custody. On 23 November 1940, she was then sent to a brothel. A police protocol, signed by her, reads:

It has been communicated to me that as of today I have been placed under morality supervision (*Sittenkontrolle*) and will have to take up residence in the brothel, Fischerei 19. I have also been informed that I must appear twice a week (···) at the Municipal Health Office. Otherwise, I will be punished. A leaflet concerning prostitutes was given to me today. I must observe the outlined rules of conduct, otherwise I will be taken into preventive custody or placed in a concentration camp.¹⁵⁾

The young woman whom the Nazis had made a prostitute rebelled against the rules of conduct as well as the “morality supervision”. In May 1943, Maria K. was deported to Auschwitz where she was sexually enslaved in the camp brothel from 4 to 25 October 1943. What happened to her afterwards, we do not know. Yet we must assume that she was murdered.

Röger mentions a couple of other cases of direct sexual enslavement. Ultimately, however, she comes to the conclusion that most women who ended up in the brothels for Wehrmacht soldiers had not been directly forced. And even if their earnings were not high, it was usually more than a woman could make in other jobs, for example being a saleswoman. Yet all of the women, regardless of how they were recruited, had very limited space for action. The brothel operation was strictly supervised. The women were barracked there and were not allowed to stay outside during nighttime. They could take a vacation but it had to be approved by the German authorities. And because of the health checks, the women could not leave for more than three days.

Indeed, the German authorities monitored the existing brothels closely, limiting the access of local men, restricting the serving of alcohol, and implementing rules of conduct for the women as well as the visiting soldiers. Where no brothels existed, military brothels were supposed to be established. However, racial and moral concerns as well as organizational difficulties resulted in a delay. It took about a year until Wehrmacht reports confirmed that military brothels were being set up on a broader scale.

15) Cit. in Röger, *Kriegsbeziehungen*, pp. 46-47.

France

At the same time, in July 1940, immediately following the occupation of France, the Supreme Command of the Army issued two orders calling for 1) the prosecution of prostitutes and 2) the establishment of supervised brothels for the entire French territory under German control. Responsibility for setting up the brothels was assigned to the army medical services in cooperation with the Vichy regime (French government that collaborated with the Nazis). The list of rules governing the operation of such brothels included that the services should be separate for 1) officers, 2) servicemen, and 3) foreign Wehrmacht volunteers. This was aimed at keeping-up a clear military AND racial hierarchy between the soldiers as well as to avoid competition and fights. In fact, the latter became more important in subsequent years: At the start of the “Eastern campaign” about one million foreign volunteers served in the Wehrmacht, yet during the war in the Soviet Union this number doubled.

Insa Meinen found that the German authorities in France refrained from direct and open violence against the mass of the female civilian population.¹⁶⁾ However, similar to Poland, they did not shy away from conducting raids and pushing women into brothels by initiating a criminalization of non-brothel prostitution.

The Germans appropriated existing French brothels, closed them to French civilians and opened them to Wehrmacht soldiers. They also confiscated hotels as well as private villas and Jewish establishments to set up new brothels. Some of these establishments were closed after only a few weeks, depending on demand, troop movements or hygienic conditions. In general, the Germans installed locals as brothel managers, but kept the oversight.

Previously, brothel managers had to keep index cards of their employees, but now the women also had to carry control-cards and brothel IDs. The rooms were numbered, and each woman was allocated to a fixed room. The soldiers were then given visitor cards which documented the woman’s work name and her room number. The men were obliged to keep these cards for potential STD investigations.

The Wehrmacht standardized how much the soldiers had to pay. The brothelkeeper

16) or the following see Insa Meinen, *Wehrmacht und Prostitution während des Zweiten Weltkriegs im besetzten Frankreich* (Bremen: Ed. Temmen, 2002).

kept half of it, and from her half a woman had to pay for lodging and food. What the women earned could vary greatly. After the war, one woman reported her daily earnings as 1500 francs, another her monthly earnings as 10.000 francs.

As we know from the “whore movement” since the 1970s, women in sex-work evaluate working inside/outside of brothels, weighing the respective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According to Meinen, it would thus be wrong to see the Wehrmacht brothels in France per se as particularly brutal or sexual enslavement. Indeed, even under German occupation, it was illegal for brothel-managers to detain prostitutes against their will, sell them goods on credit, or deny them the clothing they needed to leave the house. The women could take leave and resign their employment. Yet the Wehrmacht was so eager to control the women and their health that the conditions became more and more repressive. When the Wehrmacht found, for example, that the brothel employees changed frequently (which would increase the risk of STD), they set a minimum term for a woman to stay, i.e. between 4 weeks and 3 months.

What is more, some of women were directly forced into the brothels: If a woman had contracted a disease she was subjected to forced hospitalization. After a while it became the rule to imprison women recovering from STDs in camps. Then only those who got married or those who enlisted in a Wehrmacht brothel were released. In this situation, some women succumbed and were sexually enslaved in a Wehrmacht brothel.

Netherlands

For the Netherlands, Laura Fahnenbruck notes that the situation of women was less repressive which is likely connected to the fact that the Nazis considered the Dutch to be “Germanic”. Usually, the women who worked in brothels supervised by the Wehrmacht medical service had been involved in sex work before, or chose to do so - not only out of need to earn money (the situation of the local population in the Netherlands was significantly better than in Poland) but also to gain independence. Sometimes, Fahnenbruck argues, single women were able to live more self-determined lives this way. The women worked on contracts of up to four months, with the option to extend or leave. They were given a minimum wage of 600 guilders, but sometimes earned up to 1000 guilders a month.

In some brothels women had to receive large numbers of soldiers a day. Laura

Fahnenbruck speaks of the Wehrmacht brothels as marking a new “high point in the industrial sex market that had just begun.”¹⁷⁾ Furthermore, Dutch women, too, had to sanitize themselves after sex and endure the weekly medical inspections. Still, the conditions in a Wehrmacht brothel often appear to have been better than on the open market: of course, the women experienced violence. But overall, alcohol induced violence and robbery occurred less frequently than on the free market. Sometimes, women lodged in the brothels and stayed overnight, but they were free to leave.

Soviet Union

The sources indicate that here, too, the German authorities cracked-down on “secret prostitution” and registered “suspicious women”. Notably, it was considered to be suspicious if a woman wore a short dress or wore lipstick.

Officially prostitution had been banned in the Soviet Union prior to the German invasion, as Socialist theories considered commercial sex a “bourgeois degeneration”.¹⁸⁾ The German army medical services therefore could not appropriate existing brothels. As in Poland and France, they thus seized public and private property. Antonina Ivanovna from Novomoskovsk (Ukraine) recalls how her family home was turned into a military brothel after the Germans discovered that her father had joined the partisans. In such cases, the establishment of a brothel had a particularly strong symbolic effect: the conquerors demonstrated that they had also seized the territory in sexual terms.

The women and girls, Antonina remembers “didn’t necessarily come from Novomoskovsk, but were from the surrounding villages. [. . .] They were able to recruit some of the girls. Others were forced to go to the brothel.” Other witnesses, too, indicated that the Germans sometimes captured women during raids in the street or in night clubs. Soviet newspapers issued corresponding warnings for women and girls. These stories surely had a reality but were also spread widely as warnings and rumors.

Other women, in contrast, seem to have agreed to work in the brothels of their own volition, particularly if they had previously worked as prostitutes or saw no other way of supporting themselves and their families. But the line between voluntary action and coercion was blurry. Horrifying stories circulated about what could happen when

17) Fahnenbruck, Ein(ver)nehmen, p. 347.

18) The following passage is based on Mühlhäuser, Sex and the Nazi Soldier, p. 154.

young women went to Germany to work: rape, sexual enslavement, sterilization, even murder. Such terrifying prospects might well have compelled some young women to want to stay in familiar surroundings, even if it meant working in a brothel.

Additionally, there are indications that the Wehrmacht recruited a number of women in Poland and the Netherlands and then brought them to the war zone in the Soviet Union. Up to now, however, we have no more information about this recruitment, about the degree of coercion or force the women experienced.

Maris Rowis McCulloch recently published a microstudy of a Wehrmacht brothel in Rostov-on-Don (Russia) which existed for about 4 weeks, from 24 December 1942 to late January 1943. Her insights are based on the testimonies of two women who were interviewed by the Extraordinary State Commission Investigation into German crimes 1944: Aleksandra Voronina who had worked as the brothel manager, and E.K. Dubrovskaja who was the doctor who conducted STD examinations. Their testimonies present the following picture: The women appear to have been recruited by the Ortskommandantur (office of the local commander) who posted job ads for waitresses. Voronina stated, though, that the women knew what they were getting into. And that many of them came forward anyway because they feared would otherwise be sent to Germany for forced labor. The commandant, Corporal Meyerhold, oversaw the brothel operation, including the finances, himself. He made a first list of the women who had responded to the ad. The army doctor, Dr. Lüders, then conducted physical examinations. The selected women were then sent to hospital for STD examinations. If they were considered healthy they started working right away. Their ID cards were withdrawn, and they had to sleep in their brothel rooms, i.e. isolated from the outside world. Furthermore, conversations among each other were punished, so they were also isolated inside the brothel. Apart from the soldiers' visits, they had to endure rapes by Meyerhold and Lüders, who also psychologically abused them and tended to sadistic practices.¹⁹⁾

19) Maris Rowe-McCulloch, "Sexual Violence under Occupation during World War II: Soviet Women's Experiences inside a German Military Brothel and Beyond, in: *Journal of the History of Sexuality* 31 (2022), 1, pp. 1-27

III. Comparison to “Comfort Stations” for Japanese Army

Comparing the Wehrmacht brothel system with the Japanese “comfort station” system we can see similarities as well as differences. Let me try to open-up the discussion by pointing out a number of factors:

Ideological underpinnings

a) The long history of prostitution in Japan demonstrates that sex was seen as a necessary activity for men. It was even thought to prolong men’s lives.²⁰⁾ Modern medical notions of a male “sex drive” introduced at the end of the 19th century only deepened this longstanding assumption of the inevitability of male sexual desire.²¹⁾ For the Japanese Imperial Army, this meant that soldiers’ sexual needs could not (and should) not be suppressed. Rather, they had to be managed. In this sense, the rationale of Japanese army appears to have been largely similar to that of the German Wehrmacht: military commanders in both armies assumed that the male sex drive was natural and unavoidable, and that their men needed sexual satisfaction in order to be physically and psychologically balanced and strong. What is more, commanders in both armies acted on the assumption that male sexuality is something that can and should be utilized and incited for war and combat.

b) What is more, both armies had a similar assessment of the risks of soldierly sexual activities, i.e. the spread of STD, and “wild rapes” that would turn the local population against the occupation forces. In order to manage the “sexual needs” of

20) The following discussion of the “comfort stations, is based on Yonson Ahn, “Taming soldiers’: the gender politics of Japanese soldiers in total war,” in: Jie-Hyun Lim, Karen Petrone, eds, *Gender politics and mass dictatorship. Global perspectives* (New York: Palgrave Macmillan, 2011), 213-234; Chin Sung Chung, “The origin and development of the military sexual slavery problem in Imperial Japan,” in: *positions. east asia cultures critique* 5 (1997), 1, 219-253; Hirofumi Hayashi, “Structure of Japanese imperial government involved in military comfort women system”, 2002; Yuki Tanaka, *Japan’s comfort women. Sexual slavery and prostitution during World War II and the US occupation* (London: Routledge, 2002); Hyunah Yang, “Revisiting the issue of Korean ‘Military Comfort Women’. The question of truth and positionality”, in: *positions. east asia cultures critique* 5 (1997), 1, 51-71; Yoshimi Yoshiaki, *Comfort women. Sexual slavery in the Japanese military during World War II* (New York: Columbia Univ. Pr., 2000).

21) Sabine Frühstück, „Sex zwischen Wissenschaft und Politik“, in: Nachrichten der Gesellschaft für Natur-und Völkerkunde Ostasiens 155-156 (1996), pp. 11-41.

their men and keep the risks under control, both the Japanese and German armies saw controlled prostitution as a solution (as did the Allied forces).

c) Third, there is also a clear similarity in the misogynistic approach of Japanese and German military and civilian authorities. In both systems, these women did not exist on their own right. They were not considered worthy of living or protection as such. They were merely seen as a resource to satisfy the sexual needs of their soldiers. And they were perceived to be a potential medical and moral threat. Hence they were not examined and treated for their own sake but to protect the soldiers (and their worthy wives and the nation) from them and “their” diseases.

Besides these similarities, we can also observe a number of differences in the ideology underpinnings of both armies:

d) As I mentioned above, one of the reasons for the German Army High Command to establish Wehrmacht brothels was to prevent their soldiers from engaging in homosexual encounters (both within the army and with local men).

For the Japanese army homosexuality was not a significant medical or moral problem. No law prohibited or regulated same-sex relationships. The Nazi regime, in contrast, expanded the infamous paragraph 175, which dated back to the German Penal Code of 1871 (and was not fully repealed until 1994). The eradication of the “Volksseuche Homosexualität” (national epidemic of homosexuality, which, in the eyes of the Nazis, had spread during the Weimar Republic) became a major subject of Nazi politics. Using a mixture of traditional homophobic stereotypes and pseudo-scientific racial theories, men who were considered homosexual were widely persecuted.²²⁾

In court, a distinction was established between 1) men who were considered to be “homosexually inclined” by birth (*veranlagt*) and who had allegedly “seduced” their sexual partners and 2) those who had been seduced and were seen as misguided heterosexuals. While the “seducers” were supposed to be “eliminated from the national body” (*Volkskörper*), and thus were sent to concentration camps which meant almost certain death; the “seduced men” were supposed to be put back on the “right path” by

22) E.g. Burkhard Jellonnek, Rüdiger Lautmann, eds., *Nationalsozialistischer Terror gegen Homosexuelle. Verdrängt und ungesühnt* (Paderborn 2002); Geoffrey Giles, “The Institutionalization of Homosexual Panic in the Third Reich”, in: Robert Gellately, Nathan Stolfus, eds, *Social Outsiders in Nazi Germany* (Princeton UP 2001), pp. 223-255.

means of criminal prosecution and a prison sentences. Notably military courts in Poland and the SU seldom sentenced those considered “inclined homosexuals” to death. On the contrary, sentences were usually short and afterwards the military reintegrated the offenders into the Wehrmacht. In this way, they sought to retain manpower for the army and to make it clear to the men that they would not survive in the relative safety of a prison while their heterosexual comrades risked their lives at the front.

It was this idea of the “natural seducers” and the “misguided seduced” that led Wehrmacht commanders to believe that access to heterosexual “outlets” in form of brothels could prevent their men from getting “misguided” and involved in same-sex contacts.

e) Another difference seems to lie in the particularities of racist and antisemitic ideologies in Japan and Germany. Of course, the brutal imperial campaign of the Japanese army was fueled, informed and characterized by the idea of an alleged Japanese superiority and an imagined racial inferiority of other Asian populations. In fact, the “comfort women”-system as such was based on a combination of sexism, racism, and nationalism that was prevalent in Japan. However, Japan was not obsessed in the same way as Germany with promoting, tolerating, restricting, prohibiting, and punishing sexual contacts between different populations and groups – depending on whether such contacts were considered positive or negative for the “German national body”. Again, it was a mix of long-held stereotypes and crude Nazi “racial theories” that guided such regulations (which were, by the way, always gender-specific).

The first step to this was the “Law for the Protection of German Blood and German Honor” (part of the “Nuremberg Laws” of September 1935). Accordingly, those who were considered “Aryan” were forbidden to engage in sexual intercourse with Jews. This ban on “race defilement” was strict and largely unambiguous. Furthermore, in the subsequent years, the Nazi civil and military authorities imposed a number of so-called “Umgangsverbote” (prohibitions of contact, i.e. sexual intercourse) in various territories.

It were these antisemitic and racist prohibitions of sexual transgressions that were instrumental in justifying the establishment of the Wehrmacht brothels, in particular in Eastern Europe – namely on the grounds that the brothels would provide an environment for German soldiers to have sexual intercourse with “ethnically alien”

women (fremdvölkisch) or women “of other races” (artfremd) without getting physically or emotionally attached.

Establishment

Yuki Tanaka has argued that the “comfort women”-system was the largest, most elaborate and brutal system of trafficking in women in the history of mankind: “The scale of the operation was unprecedented in several ways: the number of women involved, the international scope of the operation, the scale of the military-organized system required for procuring women, the length of time over which the system operated, and the geographical breadth of Japan’s wartime empire wherein the system was administered.”²³⁾

In my opinion, Tanaka has already addressed some specificities of the “comfort women” system here, which also apply in comparison to the Wehrmacht brothel system:

a) The Japanese Army established its system of sexual slavery in China in the early 1930s. In terms of time, it thus existed longer than the Wehrmacht brothel system, which only started in 1939/1940.

b) This may also be one of the reasons why the Japanese – according to today’s research – had more “comfort stations” in purely numerical terms than the Wehrmacht established brothels.

c) I am unsure about the question of whether the geographical scope of the comfort stations was really wider than that of the Wehrmacht brothels, as individual sources point to the potential establishment of Wehrmacht brothels in Africa. Yet this has not yet been systematically investigated to date.

d) In general, the Japanese system relied heavily on the trafficking of women. In particular women from the former Japanese colony of Korea women were deceived and abducted and brought to the war zones, often hundreds or thousands of kilometers away from home. This was based on colonial power structures.

And these journeys were a massive operation which was organized by the army, civilian authorities and private entrepreneurs in cooperation, and that cost a lot of resources and money. In fact, these actors drew on long-standing experiences and

23) Tanaka, Comfort women, p. 298.

contacts, some of which dated back to the time of the karayuki-san system.

In comparison, trafficking in women was much less relevant to the German Wehrmacht. Here, too, the army acted as trafficker, and recruited women from Poland and the Netherlands to bring them to war zones in the Soviet Union. But this does not seem to have been a major operation.

e) The German brothel system was very much shaped by racist political hierarchies and sexual stereotypes. In the Netherlands, for example, women were not physically forced to work in the Wehrmacht brothel, and sexual violence outside the brothels was also less common, which was likely due to the fact that the Dutch were thought to be "Germanic." In France, the occupiers were more repressive towards the women they suspected of prostitution. But even here they had no interest in directing open coercion and violence against the mass of the female population. In contrast, the situation was different in Poland and the Soviet Union. Here coercion and violence was disproportionately higher due to racism and antisemitism, Nazi starvation politics, poverty, and the ever-increasing intensity of occupation and genocidal violence.

The Japanese army also did not act in the same way in all territories. Again, the sexual policies in each country always reveal something about the nature of the conflict and the policies of an occupation in a particular space.

Final Remark

Unfortunately, we know so little about the reality of the women in the Wehrmacht brothels. They were not authorized to speak, found themselves stigmatized after the war ended and until today. It was (and is) insinuated that they volunteered and were themselves responsible for a fate that people prefer to keep quiet about.

That the survivors of the "comfort women" system, despite such insinuations, found the courage to go public with their memories and their faces is a gift to us all. It is an opportunity to fundamentally rethink our understanding of this form of violence and to create spaces in which it becomes possible to hear and understand the experiences of those affected by conflict-related sexual violence – in the past as well as in the present.

Looking at the current state of the research on Wehrmacht brothels, I think it is necessary to start a broader feminist discussion: How can we describe and understand the violent and coercive circumstances of the Wehrmacht's system of sexual exploitation and sexual enslavement and, at the same time, grasp the women's realities, including their varying scopes of interpretation and action and the choices they did (or did not or could not) make?

'위안부' 담론 안의 '오리엔탈리즘' 고찰

로라 현이 강 (캘리포니아대 어바인)

일본군 '위안부' 담론 안의 '오리엔탈리즘' 고찰

로라 현이 강 (캘리포니아대 어바인)

이 논문은 일본군 성노예 제도와 그 지속적인 문제화, 추모, 구제에 관한 최근의 영어 학문에서 오리엔탈리즘이라는 중요한 개념용어가 어떻게 인용되고 적용되어왔는지 고찰한다. 먼저 에드워드 사이드의 영향력 있는 1979년의 저서인 오리엔탈리즘의 중요한 논의와 방법론적 혁신을 떠올릴 것이다. 다음으로 일본군 '위안부' 담론의 불균등하고 감당할 수 없는 권력/지식 구성을 구성하는 중요한 역사적 문화적 인식론적 차이를 교대로 밝혀 굴절시키고 모호하게 하는 방법으로 몇몇 학자들이 어떻게 오리엔탈리즘을 정리해왔는지 검증할 것이다. 이 논문은 설명 패러다임으로서의 오리엔탈리즘의 유혹에 저항함으로써 '위안부' 문제에 대한 비판적 이해에서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 묻는 것으로 마무리된다.

日本軍「慰安婦」言説の中の「オリエンタリズム」考察

ローラカン（カリフォルニア大学アーバイン）

この論文では、批判的な概念である「オリエンタリズム」が最近のいくつかの英語で書かれた研究において、日本軍慰安婦のシステムとその進行中の問題化、記念化および是正するための努力についてどのように適用され応用されているかを考察する。まず、1979年に出版されたエドワード・サイードの影響力ある著書『オリエンタリズム』の重要な論点と方法論的革新を思い出す。その後、論文では、「慰安婦」の不均等で手に負えない力/理論構成を構成する重要な歴史的、文化的および認識論的差異を交互に照らし、屈折させ曖昧にさせる方法で、何人かの学者たちが「オリエンタリズム」をどのように評価してきたかを検証する。最後にこの論文は、説明パラダイムとしての「オリエンタリズム」の誘惑に抵抗することで、問題のある「慰安婦」に対する批判的な理解から何が得られるかを問うことで閉じる。

Interrogating “Orientalism” in “Comfort Women” Discourse

Laura Hyun Yi Kang (University of California, Irvine)

This paper examines how the critical concept-term, “Orientalism,” has been invoked and applied in some recent English-language scholarship about the system of Japanese military sexual slavery and its ongoing problematization, memorialization and redress efforts. To begin, I will recall the key arguments and methodological innovations of Edward Said’s influential 1979 book, *Orientalism*. The paper will then examine how several scholars have marshalled “Orientalism” in ways that alternately illuminate, refract and obfuscate important historical, cultural and epistemological differences that constitute the uneven and unruly power/knowledge composition of “comfort women” discourses. The paper ends by asking what might be gained in critical understandings of the “comfort women” problematic by resisting the lure of “Orientalism” as an explanatory paradigm.

자연스러움에 대해서 - 평화시의 '문화'와
전시의 '폭력'

장수희 (동아대)

자연스러움에 대해서 - 평화시의 ‘문화’와 전시의 ‘폭력’

장수희 (동아대)

1. 들어가며

지금부터 나는 세상의 파괴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한다. 그 세상은 어떤 세상인가? 를 상징하기 위해 전쟁과 폭력이 겹겹이 쌓여 있는 세계와 역사에 대해서 먼저 말해야겠다. 일본군‘위안부’ 이야기는 태평양 전쟁과 한국전쟁 그리고 냉전으로 중첩되는 전쟁들 속에서 망각되어 왔다. 이러한 망각의 본질은 제국 일본과 일본군이 아시아태평양전쟁에서 가해자로서의 자신과 피해자로서의 일본군‘위안부’를 비가시화시키는 것과 관계되어 있다. 따라서, 이러한 세상 속에서 ‘자연스러움’이라는 것은 ‘망각’, 그리고 가해와 피해의 ‘비가시화’를 의미한다. 여성들에게 일어난 일은 너무 특수하여 보편적이지 않거나 너무나 보편적이어서 특정할 수 없거나 둘 중의 하나이고, 너무나 인간적이어서 여성적일 수 없거나 또는 너무나도 여성적이어서 인간적일 수 없든지 어느 하나를 뜻한다.¹⁾

전쟁 중의 일본군‘위안부’를 봤거나 위안소를 기억하고 있는 군인들이 위안소와 ‘위안부’ 여성에 대해 “전쟁 중의 일”로 담담하게 기록하거나, 전쟁 중이기 때문에 당연한 일 혹은 과거의 안타까웠던 에피소드 등으로 회상하는 장면을 보는 것은 어렵지 않다. 일상에서 일어나는 보통의 이야기, 흔히 있는 일은 ‘사건’도 ‘가해’도 ‘피해’도 되지 못한다. 그러한 ‘세상’ 속에서 피해를 살고 있는 사람에게는,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인식하기도 힘들 뿐더러 그 일상적 가해의 주체가 누구인지를 파악하는 것도 어렵다. 피해자들은 폭력을 휘두르는 눈 앞의 가해자, 위안소를 찾는 군인들, 납치 혹은 취업 사기를 한 업자들을 알게될 뿐이다.

성폭력과 민간인의 노예화가 “전쟁 중이기 때문에 늘 있는 일”로 인식되게 만든 시스템, 가해자들이 스스로 가해를 인식하지 못하게 되는 시스템에 잠시 고개를 돌려보자. 이 글에서 중층의 억압 상태였던 식민지 여성들의 고통에 대해 포커스를 맞추지 않는 것은 다수의 역사수정주의자들이 일본군‘위안부’ 제도에 대한 책임을 가장 하부의 ‘업자’에 전가하고 군부와 식민종주국의 책임을 삭제하기 때문이다. 일본군‘위안부’ 제도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해 중층적 가해주체들을 분명히 하고, 이 억압주체들이 시스템적으로

1) 캐더린 맥किन, 「전쟁시의 범죄, 평화시의 범죄」, 조시현 옮김, 『현대사상과 인권』, 사람생각, 2000, 109쪽.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전쟁 중에 일어난 성폭력은 당연하다. 전쟁 중의 위안소 이용은 보통의 일이었다와 같은 인식은 전쟁 중에만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전쟁의 전-후를 통해 지속적으로 만들어졌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인식하고 있다. 이는 단지 사람 머릿속의 ‘인식’ 차원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세계 2차대전과 아시아 태평양 전쟁의 실제 상황과 이후 전범 재판의 여성에 대한 범죄 불처벌, 그리고 식민 지배와 식민 지배 이후의 식민 시스템의 작동 속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따라서 이것은 단지 피해자와 가해자라는 두 ‘사람’뿐 아니라 이 둘이 어떤 상황과 조건, 구조 속에 놓여 있는지를 보아야 한다는 의미이다. 또한 이는 구조 속의 직접적 가해자와 피해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이 구조/사회/시대를 이루고 지탱하며 유지하고 있었던 인간들에 대한 책임감의 요구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다.

2. 사건의 인지 불가능성과 전시의 ‘폭력’

“뒤편지 숨겨져 있었습니다. 오른쪽을 봐도 왼쪽을 보아도 무엇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너머를 볼 수 없었습니다.”²⁾

쇼샤나 펠만은 영화 <쇼아> 속에서 죽음의 수용소 트레블린카의 수위였던 프란츠 즈호멜의 증언을 인용하는데, 유대인들의 죽음이 가시화되지 않도록 수용소가 수목으로 둘러싸여 은폐되어 있었음에 주목한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열차로 내리는 장소가 어떤 의미인지, 무엇을 목격해야 하는지, 자신이 그 곳에 존재하는 것의 의미와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는지에 대해 전혀 이해할 수 없었던 순간에 대해 언급한다. 존재하고 있고, 어떤 시스템 속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그 움직임으로 아무것도 인지할 수 없는 상황, 그 너머, 시스템이 어떤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는지, 앞으로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에 대해 얘기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가해의 시스템이 어떻게 은폐되어 있는지, 그 속 피해자들에게 사건/상황이 벌어질때까지의 인지불가능성에 대해 말하는 것이기도 하다. 즉 이 시스템 속에서는 가담하고 있는 가해자도, 그 속의 피해자도, 누구도 시스템의 전모와 결과라는 ‘그 너머’를 보지 못한 채로, 죽음으로 향하게 만든다.

이 은폐와 인지불가능성은 양쪽으로 다른 의미를 부여한다. 가해의 시스템을 가동시키고 가해의 시스템을 원활하게 작동하는 위치에 있었던 사람에게는 ‘(암묵적으로 예감하게 되지만) 모르는 일’이 된다. 그리고 이후 절멸이라는 것을 명백히 알게 되었을 때, ‘몰랐던 일’로 알리바이를 만들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 피해의 쪽은 죽음당함으로써 혹은 죽임으로서 이 시스템을 원활히 작동하게 하게 된다. 가해자와 피해자는 이 폭력 시스템의 구성요소가 되어 전시의 ‘폭력’

2) 쇼샤나·펠만, 「声の回帰 クロード・ランズマンの『ショアー』」, 崎山正毅·細見和之訳, 『批評空間』第Ⅱ期(Ⅱ-4), 1995, 108쪽 재인용.

으로 자연화된다.

우리는 모두 규슈에 있는 군대 세탁부로 가는 줄 알았지. 아무튼 지정된 날짜에 우리는 동사무소 마당으로 나갔다. (중략)

우리는 읍으로 인솔되었고 거기서 부산행 기차를 탔다. 부산에 내려 선창으로 갔는데 커다란 창고 같은 합숙소에선 벌써 수백 명의 처녀들이 모여 저녁을 먹고 있었다. 그 처녀들 중엔 주로 농촌 처녀들이 많았지만 더러는 도시 처녀도, 여학생들도 섞여 있었다. (중략)

내가 인솔된 곳은 요코하마에서 온 군용 수송선이었는데 배에 오를 때 얼핏 남양군도로 간다는 소리를 들었다. 나는 규슈로 가지 않는 게 이상해서 (중략)

또 뜻밖인 것은 선실에는 약 백 몇쯤의 일본여성들이 먼저 자리를 잡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 녀들은 모두 돈이나 벌여 보자고 많은 선금을 받고 지원해 온 창녀나 기생들이었다는 걸 나는 나중에야 알았다. (중략)

검은 통치마에 하얀 저고리 일색인 우리 조선 처녀들은 저마다 보따리를 가슴에 안고 어디로 실러가는지 몰라 애를 태우고 있었다.³⁾

다소 길게 인용한 이 장면은 일본군‘위안부’ 소설이나 영화에 많이 등장하는 장면이다. 조선인 여성들이 징모되어 일본 여성들과 함께 기차나 배에 수용되고 전지로 이동하게 되는 장면이다. 다르거나 비슷한 이유로 이 공간에 모인 여성들은 막연히 중국이나 일본의 ‘공장’에 간다고 알고 있다. 징모될 때부터, 이동의 과정 중에도 전지의 군수품으로 다루어지고 있다가, 전장의 위안소로 가게 될 거라거나, 위안소에 도착해서도 자신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이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고 있다. 순박하고 어린 여성들끼리 가는 곳을 전혀 모른 채 성냥공장이라거나 피복공장이라는 따위의 정보를 교환하는 서사 속 장면들(영화 <귀향> 속 기차 안 장면이라든가)은 일본군‘위안부’ 서사의 민족주의적 재현의 한 요소로 해석되어 왔다. 옆에 있는 직업여성이었던 일본인 ‘위안부’들과 달리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자신에게 일어날, 혹은 일어난 일이 어떤 의미인지 모르는 조선인 여성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순결한 조선인 여성’의 근거로서 활용되어 왔다. 이른바 민족주의 ‘모델 서사’ 속의 클리셰처럼 사용되어 온 부분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 부분에서 주목해야하는 것은 이 여성들은 왜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 속에 놓여 있었는가이다. 여성들이 많이 배우지 못해서, 여성들의 출신이 시골이라서라는 피해자들의 개인적인 근거가 아니라, 이 여성들은 자신들이 가는 곳에 대한 정보도, 자신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 전혀 알 수 없도록하는, 가해의 시스템이 은폐되어 있었기 때문이며, 가해의 시스템 속에서 그 외부를 상정할 수 없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 가해 시스템에 대한 인지불가능성에 대해 일본군‘위안부’ 서사는 전쟁 때면 으레 여성들에게 일어나는 당연하고 불쌍한 일, 영화 속의 클리셰 정도로만 해석되어 왔다. 그러나 오히려

3) 윤정모, 『에미이름은 조센삐였다』, 당대, 1997, 117-120쪽.

이 인지불가능성이야말로 이 사건이 제노사이드임을 드러내는 근거이기도 하다.

가해의 시스템 속에서 일본군‘위안부’ 제도라는 틀과 그 제도를 작동시키고 있는 주체를 등장시키지 않고 그 제도 속을 빙빙 돌게 하는 행정을 보여주는 부분도 있다.

“자시한 건 저, 저사람한테 물어보이소. 저 사람이 계원이니까요.”

또 이러는 것이었다.

턱으로 가리키는 사람을 보니, 아까 처음에 부닥뜨린, 이마가 시퍼런 그 젊은 녀석이 아닌가. 그런데 그 젊은 서기는 자기에게 가서 물어보라는 소린 줄을 번히 알면서도 한번 거들떠보지도 않고 못 들은 체 단전만 부리고 있었다.(중략) 사람을 앓혀 놓고만 병신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빙빙 돌려가면서 병신을 만들 작정인 모양이었다.⁴⁾

1970년에 발표된 하근찬의 소설 『야호』에는 식민지 지방 행정조직을 이용해 조직적으로 여성들을 징모하는 모습과 면사무소와 같은 지방 행정에서 이에 대한 책임을 체계적으로 방기하는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책임자를 찾고 “테이신타이(정신대)”로 가게 된 딸을 구하기 위해 면사무소로 간 소설 속 ‘갑례’의 아버지는 면사무소의 부서를 돌다가 책임자를 찾지 못하고 돌아 나온다. 피식민지 시스템 속에서 일본군‘위안부’를 구하고 책임을 묻는 방법은 행방을 알 수 없도록 은폐된다.⁵⁾ 나치와 제노사이드의 본질이 나치 자신과 유대인들을 본질적으로 비가시화하기⁶⁾였던 것처럼, 피식민지 당국의 행정은 제도를 시행하는 ‘제국’과 ‘조선인 여성’이 직접대면하거나 드러나지 않도록 교묘하게 작동한다. 갑례의 아버지가 빙빙 돌았던 저 건물, 면사무소 자체가 식민지 책임이자 일본군‘위안부’ 제도를 만들고 시행한 그 몸통의 일부였음에도 불구하고 갑례의 아버지는 이 건물 속을 빙빙 돌았을 뿐 실체를 만나지 못한다. 후지메 유키는 ‘위안’ 시설의 원형을 만든 내무관료인 사카 노부요시에 대한 연구를 통해 일본의 ‘군부’에게만 책임을 묻는 것에 문제제기 하며, ‘군부’뿐 아니라 국가 ‘행정’의 책임에 대해 밝힌 바 있다.⁷⁾

그리고 피해자들이 직접 대면할 수 있었던 것은 ‘업자’와 식민지 하부 권력이 된다. 1946년 2월 잡지 『우리문학』에 발표되었던 엄흥섭의 「귀환일기」는 태평양전쟁 중 순이는 ‘여자정신대’로 탄약을 만드는 일본의 군수공장으로 갔다가 격심한 강제노역 중 공장을 탈출하는데, 그 때 가짜 형사에게 인신매매를 당한 뒤 술집을 전전하게 된다.

4) 하근찬, 『야호(상)』, 산지니, 2021, 85-86쪽.

5) 장수희, 「단절과 고립의 냉전서사로서의 일본군‘위안부’ 서사 연구」, 『감성연구』 제22집, 2021, 107쪽.

6) ショシャーナ・フェルマン, 앞의 글, 108쪽.

7) 후지메 유키, 「사카 노부요시: 가노야 지역에 점령군 ‘위안’ 시설 원형을 만든 내무관료」, 『동아시아 시각에서 본 일본군‘위안부’ 문제 그 뿌리와 연속성』, 일본군‘위안부’연구회 한일심포지엄, 2017. 6. 22 참조.

(전략) 동무끼리 단단히 짜고 합숙소를 탈출하여 고향으로 도망가려 하였다. 그러나 도중에서 가짜 형사에게 붙들려 취조를 당한 □에 나중에는 그 가짜 형사 놈에게 감쪽같이 속아 술집 작부로 팔린 몸이 되고 말았다.

전장과 위안소에서 일본군‘위안부’와 일본군이 함께 재현되어 있는 소설과 영화는 많다. 1953년 발표된 박용구의 「함락직전」에는 전쟁 중 일본군‘위안부’의 상황이 전쟁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일’로 그려진다.

<위안소>라는 것은 헌병의 관할 하에 있는 그들 병정들의 매음굴인 것이다. 여기에는 일본 각지에서 끌려온 여인들이 있다. 그 중에는 이것이 직업이었던 여인도 있다. 간호부라는 미명으로 잡혀온 한국의 여인도 있다. 중국에서 끌려온 여인도 있다.⁸⁾

이처럼 여성이 대면할 수 있었던 업자와 식민지 하부권력뿐 아니라 이러한 여성에 대한 착취와 가해가 가능하도록 한 시스템인 군대와 행정,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용인하고 있는 식민종주국 자체가 중첩된 가해의 시스템으로서 작동하고 있었다. 이는 식민지 시기, 혹은 전쟁시기의 당연한 일로 취급되어 왔다. 중첩된 가해의 시스템을 은폐 혹은 자연화 하는 사고방식으로 이루어진 세계는 아시아태평양 전쟁이 끝난 이후에도 계속된다.

3. 평화시의 ‘문화’

식민지 하부권력-군대와 행정-식민종주국으로 중층화된 가해 주체는 이른바 ‘패전’으로 무력화되는 듯했다. 1945년 8월 15일의 해방은 일본군‘위안부’에게 ‘감금’이라는 성노예 상태로부터의 ‘해방’으로 받아들여진다.

해방! 그러면 다른 모든 것이 그래야만 하듯이 곰녀네도 해방이 돼야 했다. 해방이 돼도 다른 모든 것에 앞서 돼야만 했다.(전략) 오늘부터는 동무들도 해방이 됐다는 말을 했다.(전략) 뒤에서 누가, 그라문 오늘부터는 이 지랄을 안해도 좋다카는 말이요? 하고 소리를 질렀다.(전략) 사회부에서 나왔다는 지금의 여자가, 그렇다고 했다.(전략) 참말이고 거짓말이고가 있느냐고, 지금이라도 당장 여기를 나가도 좋다고 했다.(전략) 이렇게 이날 가루개 청루거리는 이들 창녀들의 천지였다.⁹⁾

황순원의 『별과 같이 살다』의 가난한 농부의 딸 ‘곰녀’는 식모살이를 하던 주인집 남자들로부터 강간을 당하고 공장에 취직 시켜준다는 말에 속아 인신매매를 당한 뒤 계속

8) 박용구, 「함락직전」, 『안개는 아직도』, 수도문화사, 1953, 16-17쪽.

9) 황순원, 『황순원 전집6(별과 같이 살다/카인의 후예)』, 문학과지성사, 1990, 133-134쪽.

팔려서 술집과 ‘몸을 파는 집’을 전전했었다. 식민종주국과 식민지라는 억압의 ‘해방’은 가해주체가 사라졌다는 의미로 해석되어 여성들은 ‘해방’을 “지금이라도 당장 여기를 나가”서 “이 지랄”을 하지 않아도 좋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그러나 일본군‘위안부’ 서사에 드러나는 식민지 여성에 대한 성노예화의 과정에서 가해지는 가해주체의 중층성은 식민지 이후에도 국민국가 만들기의 상황에서 같은 구조로 반복된다. 성차별과 성폭력의 국가시스템은 앞서 언급한 숲 속의 절멸 수용소처럼 은폐되어 왔다. 그리하여 ‘해방’은 새로운 국가를 만들기위한 어떤 ‘단절’을 요청하고 있었으나 전쟁은 전쟁으로 이어졌고 식민지는 식민지 이후의 국가시스템으로 이어졌다. 아시아태평양 전쟁의 종전-미군의 점령-남한 정부수립-한국전쟁-휴전과 냉전으로 이어지는 상황 속에서 여성들의 노예적 상황 또한 전쟁과 군부대와 함께 연장되고 일상 속으로 은폐되었다.

이는 특히 대한민국 군대의 근간이 일본군이나 만주군 출신이었다는 사실과 태평양 전쟁의 군대경험이 한국전쟁 중 한국 군대의 중요한 자원이었다. 식민지시기 경험했던 군대의 시스템은 한국전쟁 중 한국군대의 제도와 문화에 그대로 적용되었다.¹⁰⁾

한반도 분단의 공고화와 냉전의 일상화, 전지구적으로 계속되는 전쟁은 역설적으로 일상의 ‘평화시’를 만들어 냈다. 그러나 이 ‘평화시’는 한반도에 있어왔던 모든 전쟁들과 냉전이 겹겹이 쌓여 있는 속에서 만들어진 ‘평화’의 모습을 띤 또다른 모습의 군사주의이기도 했다. 이 군사주의는 ‘문화’라는 이름을 띤 성폭력을 ‘기생관광’의 이름으로 공인하거나 기지촌 성병관리 정책으로 묵인해왔다.

이런 것이 가능했던 것은 평화시의 ‘문화’ 속에서 일본군‘위안부’ 이야기가 전쟁시에 일어나는 당연했던 일로 치부되거나, 평화시인 ‘지금’의 여성들과는 다른 여성들과는 다른 여성들의 이야기로 여성들 사이의 이야기가 이어지지 않고 단절되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소설을 이끌어가는 주요 서사의 맥락 속에서 일본군‘위안부’ 이야기의 행방이 도중에 알수 없어져 버리거나, 사라져 버린다.

환송식이 끝나자, 잠시 후 일행은 출발을 했다. 젊은 면서기의 인솔 하에 읍내로 가는 것이었다. 열댓 명이나 되는 큰아기들이 머리에 하치마키를 매고 손에는 옷 보따리들을 들고 줄을 지어 신작로로 걸어가는 광경은 구경거리가 아닐 수 없었다. 처녀들의 뒤를 가족들이 따르고 있었다.¹¹⁾

정신대로 출발하는 여성들의 모습을 끝으로 『야호』에서는 더이상 그녀들의 삶을 알 수 없다. 그러나 전쟁이 끝난 이후에도 여성들을 “구경거리”로 목격했던 많은 사람들이

10) “...과거 일본군에 종사했던 한국 군인들이 일본군으로부터 한국의 국방경비대로 옮겨 오게 되었기 때문에 한국군의 초창기에는 일본의 군사 문화가 많이 전수되었다.”(김귀옥, 「일본 식민주의와 친일파의 합작품, 한국군 위안소 제도」, 『식민주의, 전쟁, 군‘위안부’』, 선인, 2017, 166쪽.

11) 하근찬, 앞의 책, 97-98쪽.

한국사회에 계속 살고 있었다는 것을 생각하면, 이들 또한 자신들이 ‘목격’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었는지 전후의 군사주의 문화 속에서는 의미화 할 수 없었던 것이라 생각된다. 전후와 냉전의 역설적 평화시라는 시기는 이런 목격자들이 살고 있었고, 피해 당사자들이 살고 있는 공간이었다.

전쟁 중 전시 국가시스템을 통해 ‘당연하게’ 일어났던 성적 폭력들은 전후 평시가 되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문화’라는 다른 이름으로 존재하게 되었다. 자본주의화 된 문화적 매체들을 통해 여성혐오와 타자화가 교육되고, 군사주의와 군사기지 주위의 성매매와 기생관광에 의한 ‘유흥문화’로 지속되었다.

성노예 제도로서의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제국과 군대의 역사적 가해를 드러내고 책임자를 밝혀 책임자를 처벌하는 것은 중요하다. 그리고 이것은 일본군‘위안부’ 문제가 식민주의 범죄로서, 제노사이드 범죄로서는 다루어지지 않았지만, 2000년 전범법정에서 목표로 했던 일이기도 하다. 그러나 한편으로 이러한 역사적 사실이 이후 한국사회에 어떠한 ‘문화’를 존속하게 했는지를 기억해야 한다.

4. 세상의 파괴

‘지금도 엄존하는 군기지 부근의 성매매’에 대한 논의에서 국가폭력과 책임은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 온당하다 볼 수 있는가? 성매매와 국가폭력, 책임을 부정하여 국가 주요기관인 군대와 군인들이 저지르는 성매매/폭력이 평화시의 ‘문화’와 전쟁시의 ‘폭력’으로 면죄부를 받게되는 빌미가 되는 점을 고려하면 군기지 부근 성매매와 국가는 떼놓을 수 없다. 일본군의 『진중일지』에 등장하는 일본군의 ‘허가를 받은 식당’과 ‘위안소’들에 대한 기록은 전후 오키나와의 A사인바나 한국에서의 미군 전용 클럽이 자연스럽게 떠오른다. 일본군의 허가를 받은 식당, 일본군 위안소, 그리고 오키나와의 A사인바, 한국의 미군 전용 클럽, 군기지 주변의 합법적 업소들은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지만 한편으로 국가-군인의 성폭력, 민족차별과 젠더 차별로 관통되며 계속해서 조금씩 다른 모습으로 변주되어 나타난다. ‘국가’의 허가를 받아 한국 사회 속에 존재해 온 이른바 ‘유흥문화’에 은폐되어 있는 국가와 사회의 책임이 누구에 대한 가해를 전제하고 있는지 생각해야 한다.

이 장소들을 겹쳐놓기 위해서는 과거-현재-미래라는 근대적인 일직선적 시간성이나 평화/전쟁이라는 이분법적 시공간이 아닌 다른 보는 눈이 필요하다. 겹겹의 눈이란 메타포는 멀티버스를 다룬 영화 <에브리씽, 에브리웨어 올댓원스>를 연상시킨다. 각각 시대와 장소를 달리하지만 여전히 폭력이 관통하는 시공간으로 본다면, 성폭력을 내장한 국가와 군대, 성폭력 문화 기계인 군사주의, 민족차별, 젠더 차별과 일본군‘위안부’ 제도와의 연

관성을 잇는 문제의식이 시스템의 공식적 기록 속에서 제외되었던 존재들-성인 여성과 남성은 물론, 어린 여성들과 남성, 퀴어들과, 장애인들-의 이야기를 드러내는 단초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다양한 이야기들이 과거-현재-미래라는 근대적인 시간 속에서 애초에 설명될 수 있을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문득 들기도 한다. 이 근대적인 시간 속에서 일본군‘위안부 제도에 천착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반복되는 듯한 장면들-일본군의 허가를 받은 식당/위안소-A사인바-미군전용 클럽-을 해명하지 못한 것은 아닐까?

여름철 주말을 맞아 ‘외출’한 젊은 여성의 드러난 몸을 쳐다보며 따라가는 어떤 남자를 발견하고 그 앞을 가로막았던 적이 있다. 남자가 사라지고 나서 젊은 여성에게 ‘이상한 남자가 따라왔다, 조심하라’고 얘기하고 돌아설 때, 자괴감을 느꼈다. 그리고 다른 세계에서 일본군‘위안부’들의 서사가, 또 다른 세계에서 미군 ‘위안부’들의 서사가, 또 다른 세계에서 군대도 전쟁도, 성폭력도 없는 서사가 동시에 존재하고 있는 것은 어떨까? 하고 생각해 버렸다.

수치심을 느껴야 할 오직 한 사람인 가해자가 아니라, 아직도 피해자에게 ‘조심하라’는 말을 하는 시스템 속에서 그 시스템에 일조하고 있는 나를 절감하며 지금 당장 “다 그랬다”는 이 시스템을 깨부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책임감과 연구자로서 어떻게 깨부술 것인가라는 질문이 나에게 다가온다.

自然らしさについて - 平和時の「文化」と戦時の「暴力」

チャン・スヒ (トンア(東亜)大学)

今から私は世の中の破壊について話をしようと思う。その世の中とはどんなものなのかを想定するために、戦争と暴力が折り重なっている世界と歴史について先に話すべきであろう。日本軍「慰安婦」の話は、太平洋戦争と朝鮮戦争、そして冷戦へと戦争が続く中、忘却されてきた。この忘却の本質は、帝国日本と日本軍がアジア太平洋戦争における加害者としての自身と被害者としての日本軍「慰安婦」を非可視化させたことに関係している。したがって、このような世の中での「自然らしさ」とは、「忘却」、そして加害と被害の「非可視化」を意味する。女性たちに起こった出来事は、特殊すぎるため普遍的ではない、或いは普遍的すぎるため特定できないという二つのうちのいずれかであり、あまりにも人間的であるため女性的ではなかったり、或いはあまりにも女性的であるため人間的ではなかったり、そのどちらかを意味する¹⁾。

戦争中に日本軍「慰安婦」を見たことがあったり、慰安所を記憶している軍人たちが、慰安所や「慰安婦」女性に対して「戦争中のこと」として淡々と記録していたり、戦中ならではの当たり前なこと、あるいは過去の痛ましいエピソードとして回想する場面を容易に見ることができる。日常で起こる普通の話やよくある出来事は、「事件」や「加害」「被害」とは見なされない。そのような「世の中」で被害を生きている人にとっては、自分に何が起きているのかを認識することは難しく、さらにその日常的加害の主体が誰なのかを把握することも難しい。被害者たちは暴力を振るう目の前の加害者、慰安所を訪れる兵士たち、拉致や就職詐欺を犯した業者らを知るにとどまる。

性暴力や民間人奴隷化を「戦争中だから常にあること」と認識させてきたシステム、加害者をして自らの加害を認識できなくさせているシステムにしばし目を向けてみよう。本報告が、重層的な抑圧状態にあった植民地女性たちの苦痛に焦点を合わせていないのは、歴史修正主義者の多くが日本軍「慰安婦」制度に対する責任を最も末端の「業者」に転嫁し、軍部と植民地宗主国の責任を削除しているためである。日本軍「慰安婦」制度の責任の所在を明確化するために重層的加害主体をはっきりさせ、これら抑圧の主体がシステム

1) キャサリン・マッキン、「戦争時の犯罪、平和時の犯罪」、チョ・シヒョン(趙時顯)訳、『現代思想と人間』、サラムセンガク(사람생각)、2000、109頁

的につながっていることを示す必要がある。

「戦争中に起きた性暴力は当たり前」、「戦争中の慰安所利用は普通だった」といった認識は、戦争中にのみつくられたのではない。戦争の前後を通じて持続的につくられ、今も多くの人はそのような認識を持っている。これは人の頭の中の単なる「認識」レベルでつくられたのではなく、第2次世界大戦とアジア太平洋戦争の実際の状況と、その後の戦犯裁判で女性に対する犯罪を不処罰にしたこと、そして植民地支配と植民地支配以降の植民地システムの働きの中でつくられたものである。したがって、このことは、単に被害者と加害者という二人の「ひと」だけでなく、この二人がどんな状況と条件、構造の中に置かれているのかを見なければならないことを意味する。そしてまた、構造の中での直接的加害者と被害者でないにしても、この構造・社会・時代を構成し支え維持していた人間に対する責任感を求める話でもある。

On Naturalness - the 'Culture' in Peacetime and the 'Violence' in Wartime

Jang Su-Hui (Dong-a University)

From now on, I'm going to talk about the destruction of the world. In order to assume what kind of world it is like, first I would like to talk about the world and history where war and violence have piled up. The stories of "Japanese Military Sexual Slavery" have been forgotten in the series of wars overlapped by the Pacific War, the Korean War, and the Cold War. The nature of this oblivion is related to Imperial Japan and the Japanese military's sink-down of themselves as perpetrators and "Japanese Military Sexual Slavery" victims during the Asia-Pacific War. Therefore, in this world, 'natural' means 'delusion', and 'visualization' of harm and damage. What happened to women is either too specific to be universal or too universal to be specific, or too human to be feminine or too feminine to be human.

It is not difficult to find soldiers who remembered "Japanese Military Sexual Slavery" during the war and plainly recorded on comfort stations and "Japanese Military Sexual Slavery" victim women into some episodes in the past regarded as either 'natural' or sad, for they were just "happenings during wartime". Common stories in everyday life or ordinary events are not 'incidents', 'harms', or 'damages'. For those suffering in such a "world," it is so hard to recognize what is happening to them, as well as to identify the perpetrators of the daily harm. Victims get to know only the immediate offenders of violence against them, soldiers seeking brothels and business managers involved in kidnapping and employment fraud.

Systems in which sex violence and enslavement of civilians are recognized as "everyday occurrences happening due to the war, or systems in which perpetrators are not aware of their own injurious acts, should be paid our attention to for a while. This article does not focus on colonial women's sufferings from multi-layered oppression, for many historical revisionists have shifted the blame for "Japanese Military Sexual Slavery" to the lower layer of 'operators' of the business and erased the responsibility of the military and the colonial powers. In order to clarify the responsibility of

"Japanese Military Sexual Slavery", the layers of perpetrators should be necessarily clarified, so some systemic networking of these perpetrators should be revealed.

The ideas that sexual violence occurring during the war was natural and that the use of brothels during the war was common were not invented only during the war. They were continuously created before and after the war, and many people still recognize it this way. It was not created on the level of 'perception' by the human mind, but in actual situations of World War II and Asia-Pacific War, with the impunity of crimes against women in war crimes trials after the war, and under the operation of the colonial system during the post-colonial period. Therefore, responsibility is demanded those who have supported and maintained such a structure/society/period of time even though they did not belong to the immediate perpetrators.

여성사로서 일본군 '위안부' 연구와 일본인 '위안부'의 불가시화 문제

후지메 유키 (藤目ゆき, 오사카대)

여성사로서 일본군 ‘위안부’ 연구와 일본인 ‘위안부’의 불가시화 문제

후지메 유키 (藤目ゆき, 오사카대)

김학순(金學順) 씨의 커밍아웃은 ‘위안부’ 제도의 생존자가 반세기 가까운 침묵을 깨고, 전시 성폭력 문제를 국제사회에 환기한 역사적 전환점으로,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이날을 ‘일본군 위안부 기림의 날’로 정한 한국인들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또 이러한 의미 있는 국제 심포지움을 기획하고, 발언자로서 초대해 주신 주최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머리말

‘위안부’를 위한 정의로움을 추구하는 한국 내 운동에 호응하여, 일본에서도 ‘위안부’ 문제에 대한 정의로움, 일본 정부에 의한 전후 보상의 이행을 요구하는 시민운동이 시작되어, 그 뒤 다양한 활동이 전개되었다. 그러나 여성사 연구자로서 30여 년간을 회고해 보면, 일본의 역사연구가 지닌 취약성이 여전히 극복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생각하면, 통한스런 마음이 솟는다. 과거 30여 년간, 일본에서는 ‘위안부는 매춘부다. 돈을 받고 일한 기생이다’, ‘당시는 매춘이 합법이었고, 평범한 일이었다’, ‘외국의 군대에서도 하고 있었다’고 하면서, 전 ‘위안부’를 모욕하고, 일본을 면죄해 주려는 혐오(ヘイト) 언설이 함부로 행해져 왔다. 그러나, 그러한 차별적 언설에 대해 일본의 역사연구자는 어느 정도로 대항해 왔는가. 오늘은 세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어떻게 해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지에 대해 여러분과 함께 생각하는 계기로 삼고 싶다.

1.

첫 번째는, ‘위안부’ 문제를 공창(公娼)제도 문제에서 따로 떼어내서, 그 차이를 강조하는 언설이 지배적이며, 일본인 ‘위안부’를 불가시화시키거나, 왜곡하는 것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이다.

김학순 씨가 이름을 밝히며 공개적으로 나선 당시의 일본에서는, 스즈키 유코(鈴木裕

子) 씨나 송연옥 씨 등이 여성사 연구의 입장에서 공창제도 역사의 연장선상에서 위안부 문제를 제기했다. 위안부 문제에 대한 정의로움을 요구하는 국제 운동이 시작되었을 때, 일본에서 먼저 발언하기 시작한 이들은 1980년대부터 성과를 내놓고 있던 이들 여성사 연구자들이었으며, 나는 그러한 연구자들의 성과에 힘입어 여성사 연구를 시작했다. 그러나 이러한 여성사의 시점은, 알곤키에도, 전후 보상 운동이 고조되고 확대되어가는 와중에 뒤로 물러나게 되고, 심지어 발언을 삼가야 한다는 분위기조차 조성되었다. ‘위안부’와 ‘공창’의 차이를 강조하는 연구자는 초기부터 존재했는데, 2000년대에는 그들이 주류가 되어 갔다.

그 배경에는 일본 사회에 횡행하고 있는 혐오 언설에 대해서, 사회 통념으로서 반론하고자 했던 일본인들의 태도가 있었다. 즉 혐오 언설인 ‘위안부=공창’론에 대한 대항 언설로 ‘위안부≠공창’론이 제시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언설은 얼핏 충분한 반론이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회 통념에 뿌리박힌 공창=매춘부=돈만 밝히는 추업부(醜業婦)라는 식의 반여성적인 공창제도 인식을 지속시키는 것이며, 공창제도 자체가 지닌 폭력성에 대한 비판이 부족하며, 공창제도를 토대로 전개된 ‘위안부’ 제도의 전체상을 왜곡시키는 것이다.

나는 이러한 점에 의구심을 가지고, 1997년에 위안부 문제와 공창문제의 차이를 강조하는 시각의 문제성을 지적하고, 또 2001년 개최된 일본군 성노예 제도를 재판하는 국제 여성 전범 법정에서 공창제도와 일본인 ‘위안부’에 관한 전문가 증언을 행했다(1). 이러한 주장에 공감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2000년대에는 전체적으로 ‘위안부’와 ‘공창’의 차이를 강조하고, 이러한 주장을 자신의 입장이라고 표명하는 것이 널리 받아들여져 갔다. 여성사의 관점에서 본다면, 공창제도와 위안부 제도의 연관성은 뚜렷하며, 일본군 성폭력에 의한 큰 피해자 집단으로서 일본인 ‘위안부’가 존재했다는 점은 명백하다. 그러나 일본에서는 그 역사적 연관성의 지적은 부정적으로 받아들여졌고, 심지어 의도적으로 배제되어 왔다. 일본인 ‘위안부’의 배제가 표출된 사례가 바로 2000년대 민주당, 사회민주당, 일본 공산당의 야당 3당이 국회에 제출한 ‘전시 성적 강제 피해자 문제의 해결을 촉진하는 것에 관한 법률안’이었다. 이것은 1999년말 민주당이 만든 초안 단계에서부터 일본인 여성은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명시되어 있었다. 입법에 의해 ‘위안부’ 문제의 해결을 촉구한다는 중요한 시도이긴 했지만, 국적 조항에 의해 일본인 ‘위안부’를 제외한 부분은 당시 야당과 유권자 시민의 의식을 반영한 것이었다.

과거 10년간 일본인 ‘위안부’를 재조명하는 다수의 조사와 연구가 나오고 있는 것은, 놓치기 쉬웠던 일본인 ‘위안부’를 가시화하려는 움직임으로서 주목받고 있다. 2018년에는 고 마쓰이 야요리(松井やより) 씨의 유지를 이어 설립된 액티브 뮤지엄 여성들의 전쟁과 평화자료관(WAM)이 일본인 ‘위안부’를 주제로 한 기획전을 기획하고, 읽기 쉽도록 쓰여진 『일본인「위안부」의 침묵-국가에 의해 관리된 성(性)』을 발행했다. 또 과거 ‘전시 성적

강제 피해자 문제의 해결을 촉진하는 것에 관한 법률안'에 의원으로서 관여했던 요시카와 하루코(吉川春子) 씨는 이 법안에 일본인 '위안부'를 포함시키지 못했던 것에 대한 반성으로, 2016년에 새로운 조사 팀을 만들어, 한 군의관이 조카딸에게 남긴 여성들의 명부를 단서로 해서, 일본인 '위안부'에 대한 조사를 개시했다. 올해 그 성과가 『일본인 「위안부」를 잊지 않는다』(鴨川書房, 2023年) 라는 제목의 책으로 출판되었다. 이러한 꾸준한 조사에 의해 우리는 일본인 '위안부'의 실상에 접근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으로 역사적 사실을 발굴해 내는 조사는 많지 않다. 오히려 노골적인 공창 차별이라고 비난받지 않기 위해 표현을 조심스레 삼가고, '위안부'와 '공창'의 차이를 강조하는 언설이 널리 유포되고 있으며, 그 중에는 아직도 일본인과 외국인 '위안부'의 차이가 애국심의 유무에 있었다고 설명되는 일도 있다. 그러나 일본인이 '위안부'가 되었던 동기나 이름을 밝히며 공개적으로 나서지 않았던 이유를 단순히 애국심으로 귀결시키는 해석은, 일본 지배층과 '위안부' 사이에 존재했던 압도적인 권력 관계나, 그 '위안부'들을 전후 일본사회가 냉대했던 일을 경시하는 것이다. 박유하(朴裕河)씨가 『제국의 위안부』에서 일본병과 조선인 '위안부의' '동지적 관계'를 논한 것에 대해, 여성에 대한 언어도 단적인 모욕이라고 비난을 받았는데, 일본인 '위안부'의 애국심을 강조하는 강조하는 것 역시 그들에 대한 모욕일 것이다. 말하자면 일본병과 일본인 '위안부'의 동지적 관계를 주장하는 것과 같으며, 일본인 '위안부'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해석이라 할 수 있다. 일본인 '위안부'에 대한 침묵을 강요해 온 일본 사회의 억압성이 여기에도 표출되고 있다.

여성사적 관점으로 되돌아 가 보면, 공창제도는 '공권력에 의한 성매매 통제' 제도이며, 국가가 그 경영 주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일본사에서는 '창기(娼妓) 단속 규칙'(내무성령) 뿐만 아니라, 국가의 지방 관청, 식민지, 점령지의 지배 기구에 의해 19세기 말부터 다양한 명칭과 형식으로 조직된 공창제도가 있었다. 일본군 '위안소'는 1930년대 이후 전쟁 속에서 군, 내무성, 외무성이 연계하여 설립한 것이며, 따라서 정의상 공창제도에 다름없다. 역사 연구자는 전시 공창제도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다. 혐오 언설에 대해 역사 연구의 축적된 성과를 바탕으로 말해야만 했던 것은, 만약 '위안부'가 '공창'이라고 인정한다면,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에 더욱 국가가 사죄와 배상을 해야만 한다는 주장이었던 것이다.

2.

두 번째는 일본의 '위안부' 문제 해결 운동에서 주장되는 '당시에도 비합법이었다'는 주장의 과잉된 강조다.

이 주장도 또한 혐오(ヘイト)적 언설에 대한 반론으로, '당시에는 합법이었고, 당연한 것이었다'는 주장에 대해 '당시에도 위법이었고, 공창제도를 비판하는 폐창(廢娼)운동도

있었다'고 맞선 대항 구도가 나타났다. 그러나 이 또한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에 현재의 일본인은 '악행이 횡행하고 인권이 무시되었던 당시(과거)'를 정확히 인식하고 국가의 잘못을 인정해서 피해자에 대한 배상을 함으로써 과거를 청산하고, 세계에 대해, 세대를 넘어서, '현재의 일본은 과거의 일본과 다르다'는 사실을 표명해야만 했다.

'당시에도 위법이었고, 폐창운동이 있었으며, 공창제도는 비판받고 있었다'고 강조하는 것은 폭력이 합법화되어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 정상적인 상태였던 공창제도 체제가 지닌 불의에 관한 성찰을 약화시킬 위험성을 지닌다. 군부만이 문제가 되고, 내무성, 경찰관료의 책임이 뒤로 빠져버리게 된다. 애시당초 일본 내지에서는 군대가 주둔하는 각 지역에 실질적으로 군용 시설이라 말할 수 있는 공창지구가 이른 시기부터 형성되어, 내지의 공창제도는 항상 경찰의 감시하에 놓여 있었다. 경찰은 공창제도라고 하는 합법화된 폭력의 법적 집행자였으며, 창기(娼妓)가 고통을 이기지 못해 달아나게 되면 경찰이 강제력을 발휘하여 유곽으로 되돌려 보내는 역할을 했던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공창제도에 대한 비판을 염두에 두는 것을 통해, 사료의 해석도 좀 더 깊이를 지닐 수 있다. 예컨대 내지에서 일본인 '위안부'가 모집되었던 실태를 보여 주는 중요한 자료로서 다수의 현(縣) 경찰부가 내무성에 부녀 유괴 피의사건에 대해 조회한 일련의 문서가 있다. 이 자료는 자주 당시 일본에서도 여성을 황군 위안부로 삼을 목적으로 해외에 데려가는 행위가, 미풍양속에 반하는 것으로 인식되어, 양심 있는 경찰관이 분개하는 대상이었다는 증거로서 해석되어 왔다. 그러나 그 해석이 마치 '양심 있는 경찰관들은 군이 황군 위안을 위한 '위안부'를 모집하는 행위는 있을 수 없는 국제법 위반 행위이며, 미풍양속에 반하는 행위로 인식했다'는 식으로 확대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한 확대 해석은 당시 일본의 실태를 착각하게 만드는 것이다. '황군의 위안소'에 분노하는 의식이 당시 경찰에게 있었는지 아닌지는 의문스럽다. 경찰부장은 내무성의 엘리트 관료였으며, 식민지와 내지를 차례로 이동하고 있었다. 만주 사변 발생 이후 식민지와 점령지에는 각지에 일본이 설치한 공창제도가 이미 존재했고, 다수의 일본군이 주둔하면서 여성들을 '위안부'로 삼았다. 이러한 식민지와 점령지의 사정을 경찰부장들이 몰랐을 리가 있겠는가.

여러 개의 현 경찰부를 하나하나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여기서는 이바라키(茨城) 현의 사례만을 살펴 보겠다. 이바라키 현 경찰부 미야타 쇼나이(宮田笑内)가 직전에 근무했던 지역은 1920년대부터 매춘 거리가 번창했던 하얼빈이었다. 1931년 만주 사변이 시작되고, 관동군 참모장 이타가키 세이시로(板垣征四郎)가 치치하얼로 진격해 나가자, 하얼빈 총영사 오하시 주이치(大橋忠一 '만주국' 수립 이후에는 만주국 고위 관료)가 일본군이 치치하얼에 주둔할 것을 예측하고, 하얼빈에서 치치하얼로 '위안부'들을 이동시켰다(森島守人 『陰謀・暗殺・軍刀 - 一外交官の回想/森島守人』 岩波新書). '만주사변' 이후 하얼빈에서 매매춘은 급격히 늘어났고, 중국인, 조선인, 러시아인과 함께 일본인 기녀들이 공적 통제를 받고 있었다. 미야타가 부임

한 1935년, 하얼빈 기녀 건강 진료소에서는 839명의 여성에 대한 매독 검사가 행해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하얼빈에 2년여간 주재했던 미야타가 ‘황군의 위안소’에 일본인 여성이 보내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몰랐을 리가 없다. 뿐만 아니라 이바라키 현은 미야타가 부임하기 이전부터 황군 ‘위안’이 행해지고 있었다. 이바라키 현에는 1931년 폐창 결의 이후에도 ‘하나마치(花街)’라는 명칭으로 성매매 지구가 존속했으며, 육군 연병대(練兵隊)가 있는 미토(水戸)의 야나카(谷中)나 가스미가우라(霞ヶ浦) 항공대 주변에도 ‘하나마치’가 설치되어 있었다. 각 현의 경찰부에서 보낸 조회문에 보이는 경찰측의 당혹스러움과 분개는, 내지에서 전권을 지니고 공창제도를 도맡아왔던 경찰이, 자신들의 관할 영역에 자신들을 무시하고 군의 비호를 등에 업은 업자가 양해도 구하지 않고 모집 활동을 행하고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춘 것이며, 황군 ‘위안부’를 모집하는 것 그 자체를 향한 것은 아니었다고 생각할 수 있다. ‘당시의 법률에서도 비합법이었다’고 강조해서, ‘양심 있는 내지의 경찰관으로서는 황군위안부를 받아들이기 어려웠다’고 까지 확대 해석하는 것은 식민지와 점령지 지배의 실태를 은폐하고, 내지의 공창제도와 그것을 통제했던 내무성 및 경찰을 미화하는 행위일 수밖에 없다.

3.

세 번째 문제는, ‘외국군도 하고 있었는데, 일본만이 비난받는 것은 부당하다’고 하는 ‘위안부’ 제도 면죄 언설에 대항해서, 외국군에서는 일본군 정도로 문제가 일어나지 않았다고 말하는 언설의 위험함이다.

혐오 언설을 일삼는 쪽에서는 연합국이 일본을 점령한 시기 일어난 미군 성폭력 문제나 한국전쟁 당시 한국군 ‘위안부’의 존재를, 일본군 ‘위안부’ 제도에 대한 면죄론을 주장하기 위해 제멋대로 이용해 왔다. 그러나 이에 대항하여 일본군 위안부 제도는 노예제도였지만 구미의 군대는 상업 매춘을 이용했던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하거나, 미국의 매춘 금지 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등의 주장은, 미군이나 한국군의 성정책(性政策)을 부당하게 옹호하는 결과를 불러올 수밖에 없다. 일본군 ‘위안부’ 제도가 유례없는 규모로 행해졌고 또 흉폭한 성격을 띠고 있었던 것은, 군국주의와 식민주의가 수반하는 상업 매춘 그리고 공창제도에 의해 아시아 태평양 전쟁 개전이 단행되기 전까지 여성에 대한 폭력이 구조화되어 있었던 결과이다. 또한 구미의 여러 나라 군대에 있었던 ‘상업’ 매춘도 군사 지배력을 전제로 한 여성 학대이며, 직접적인 여성에 대한 폭력을 수반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군은 노예제/외국군은 상업매춘’이라는 구도로 설명하는 것은, ‘일본인은 매춘부/외국인은 성노예’로 묘사하는 것을 통해 일본인 ‘위안부’를 불가시화하는 논리와 근본적으로 통하고 있으며, 둘 다 군사적 성폭력의 전체상을 놓치게 만든다.

단순히 일본측의 자발적인 RAA 설립 경위나 미군의 매춘 금지 정책에 대해 논할 것이 아니다. 미군이 일본측에 의해 마련된 성적 위안 시설을 대대적으로 이용했고, 단순히 성병이 만연할 것을 두려워하여 이에 대한 출입을 금지했을 뿐이라는 사실이나, 미군의 매춘 금지 정책이 기지 주변 5마일 내에서 관현에 의한 여성의 자의적 체포, 강제 검진을 가능하게 하는 반 여성적 아메리칸 플랜을 원형으로 하고 있었다는 사실, 점령군이 일본의 길거리에서 여성을 체포 영장도 없이 연행하여 성병 검진을 강제했던 폭력, 그리고 점령군이 일본 당국에게 미군 매춘에 유리한 매춘 통제를 요청하고 실행시켰던 사실을 드러내 기록하고, 그러한 폭력을 용납하지 않는다는 태도를 분명히 드러내는 것이야말로 일본군 '위안부' 제도를 규명하기 위한 건설적인 행동일 것이다.

왜냐하면, 냉전하 한미일 군사 동맹 체제에 의해 일본인 여성과 조선인 여성이 입은 군사적 성폭력은, 일본군 '위안부' 제도에서 연속되어 있기 때문이다. 점령기의 RAA(특수 위안시설 협회)로 시작된 일본 점령군 '위안'정책만큼 일본군 '위안부'제도의 정체를 잘 드러내 주는 것은 없다. 점령기 성적 '위안'을 누린 것은 연합국 군인들이었지만, 시설 설치를 지시하고, 업자를 동원했던 주체는 패전 이전과 같은 일본국이었다. 일본 정부는 여성을 전시하에서 일본군 '위안부'로 이용했는데, 패전하게 되자 자국 군대가 전투 지역에서 요구하고 있던 것과 똑같은 성적 '위안'을 상위에 서게 된 군(점령군)에 대해서 자발적으로 제공했던 것이다. 제2차 세계대전의 종결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의 체결이라고 생각한다면, 점령기의 RAA나 미일 양국 정부 협동을 통한 매춘 제도는, 일본 지배층이 전쟁의 최종 단계에서 자신들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점령군에게 여성을 제공했고, 미국은 이에 가담했다는 의미에서, 이는 미국과 일본이 공동으로 저지른 범죄, 군대 '위안부' 정책이었다.

일본의 시민들은 전 '위안부'를 위한 정의를 추구하고면서, 일본군 '위안부'가 이름을 밝히며 공개적으로 나서지 못했던 이유에 대해 주체적으로 마주하고, 그들이 전시기뿐만 아니라 패전 후에도 일본 정부와 일본 사회에 의해 억압되어 온 현실을 파악해야만 했다. 일본군 '위안부' 제도를 이어 받아 점령과 냉전 체제 하에서 계속되어 온 일본 정부의 여성 학대, 그리고 그러한 학대를 조장하고 위안을 누려 온 외국 정부의 가담 행위도 포함하여, 일본 정부에 진상 규명을 압박할 수 있도록 일본 재주 시민의 운동이 전개될 때, 비로소 일본인 '위안부'의 커밍 아웃을 받아들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다.

4. 맺음말

'위안부' 생존자들은 반 세기의 침묵을 깨고 '위안부' 제도를 고발했다. 그들을 침묵시켰던 반 세기는 너무나도 길고, 무겁다. 성 피해를 수치로 여기는 여성 억압적 사회의

식이나 일본의 배상 책임을 면제시켜 주었던 냉전 정치 아래서 생존자들은 고통스러운 전후를 살아왔고, 피해를 쉽게 말할 수 없었다. 이러한 사실에 대해 일본의 역사 연구자들은 어떻게 해서 ‘위안부’를 위한 정의로움을 위해 공헌할 수 있겠는가. 집요하게 반복되는 혐오 언설에 대해, ‘위안부는 매춘부나 공창과 다르다’, ‘당시에도 비합법이었다’, ‘외국의 군대는 상업 매춘을 이용했을 뿐이다’라는 주장으로 일관하기만 하는 것은, 참된 의미에서 대항 언설이 될 수 없고, 오히려 여성 억압적 사회 통념에 가볍게 의존하는 것을 통해, 공창제도에 면죄부를 주고, 냉전 체제하의 미군이나 한국군 ‘위안부’ 문제에 관해 마치 일본은 책임이 없으며, 게다가 외국군 성폭력 문제를 경미한 문제로 착각하게 만든다. 역사 연구자는 용기를 내고 나선 생존자들의 행동에 응답하고, 혐오 언설에 대한 피상적인 반론에만 그치지 말고, 진실된 역사를 기록할 책임이 있다. 그들이 타계한 뒤에 아무도 생존자가 남지 않게 된 이후에도, 오랜 세월을 걸쳐 역사 연구자들이 국경을 넘어 협력하는 것을 통해, 역사를 좀 더 바람직하게 수정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야만 한다.

주(註)

(1) 藤目ゆき 「女性史からみた『慰安婦』問題」 『戦争責任研究』 (18) 1997年12月; 「日本人『慰安婦』を不可視にするもの」 VAWW-NET ジャパン編 『裁かれた戦時性暴力—「日本軍性奴隷制を裁く女性国際戦犯法廷」とは何であったか』 白澤社; 「女性国際戦犯法廷に参加して」 『日本史研究』 2001年8月. 이들 논고는 『『慰安婦』問題の本質 - 公娼制度と日本人「慰安婦」の不可視化』 白澤社, 2014年 에 수록되어 있다.

(挨拶)

金学順氏のカミングアウトは「慰安婦」制度のサバイバーが半世紀近い沈黙を破り、戦時性暴力問題を国際社会に喚起した歴史的転換点として永遠に記憶されるでしょう。この日を「日本軍慰安婦を讃える日」と定めた韓国の人々に敬意を表します。また、このような意義ある国際シンポジウムを企画し、発言者としてお招きいただきました主催者の皆さんに感謝申し上げます。

女性史としての日本軍「慰安婦」研究と日本人「慰安婦」の不可視化問題

(はじめに)

韓国の「慰安婦」の正義を求める運動に呼応して日本でも「慰安婦」の正義、日本政府による戦後補償の履行を求める市民運動が始まり、その後様々な活動が展開した。が、女性史研究者として30余年間を回顧すると、日本の歴史研究の脆弱性が依然として克服できていないことに痛恨の念がわく。過去30余年間、日本では「慰安婦なんて売春婦だ。金を稼いだ商売女だ」「当時は売春は合法で、普通のことだった」「外国の軍隊でもやっていた」といった、元「慰安婦」を侮辱し、日本を免罪しようとするヘイト言説が跳梁してきた。が、そんなヘイト言説に対して日本の歴史研究者はどの程度に対抗できたのだろうか。本日は三つの問題点を指摘して、皆さんと共にどのようにして私たちが前進できるかを考える契機にしたい。

第一は、「慰安婦」問題を公娼制度問題と切り離し、その差異を強調する言説が支配的であり、日本人「慰安婦」の不可視化や歪曲が続いていることだ。

金学順氏が名乗りでた当時の日本では、鈴木裕子氏や宋連玉氏たちが女性史研究の立場から慰安婦問題を公娼制度の歴史を背負ったものとして提起していた。慰安婦の正義を求める国際運動が始まったとき、日本で先ず発言したのは1980年代から成果を出していたそのような女性史研究者であり、私は彼女たちの仕事に励まされて女性史研究を始めた。だがそんな女性史の視点は、皮肉なことに、戦後補償運動の高まりと拡大の中で後景に退き、むしろ発言を控えざるをえない空気さえ出てきた。「慰安婦」と「公娼」の差異を強調する研究者は当初から存在したが、2000年代にはそれが主流化し、定着していった。

その背景には、日本社会に横行するヘイト言説に対して社会通念を以て反論しようとする日本人の姿勢があった。すなわちヘイト言説たる「慰安婦 = 公娼」論への対抗言説としての「慰安婦 ≠ 公娼」論である。だが、この言説は一見反論のように見えながら、社会通

念に埋め込まれている公娼 = 売春婦 = 金めあての醜業婦という反女性的な公娼制度認識を温存させており、公娼制度自体が持つ暴力性に対する批判が弱く、公娼制度を土台に展開した「慰安婦」制度の全体像を歪めて描くことになりかねない。

私はこれに危惧を抱き、1997年に慰安婦問題を公娼問題との差異を強調することの問題性を指摘し、また、2001年に開催された日本軍性奴隷制度を裁く国際女性戦犯法廷において公娼制度と日本人「慰安婦」に関する専門家証言を行った(1)。それらを共感的に受けとめる人々もいたが、2000年代には全体として「慰安婦」と「公娼」の差異を強調し、その強調を以て自分の立場だと表明するような主張が広く受け容れられていった。女性史から見れば、公娼制度と慰安婦制度の結びつき、日本軍性暴力の大きな被害者集団としての日本人「慰安婦」の存在は明白である。ところが日本では、その歴史的連続性の指摘は否定的に扱われ、むしろ意図的に排除されていったのである。日本人「慰安婦」の排除が表出したのが2000年代に民主党・社会民主党・日本共産党の野党三党が国会に提出した「戦時性的強制被害者問題の解決の促進に関する法律案」であった。これは1999年末に民主党が作った当初案の段階から日本人女性は対象除外されていた。立法によって「慰安婦」問題の解決を促そうとする重要な試みであったものの、国籍条項により日本人「慰安婦」を除外したところに当時の野党と有権者市民の意識が反映していた。

過去10年の間に日本人「慰安婦」を見直す複数の調査や研究が出てきていることは、見失われがちな日本人「慰安婦」を可視化しようとする動向として注目される。2018年には故松井やより氏の遺志を継いで設立されたアクティブ・ミュージアム 女たちの戦争と平和資料館(WAM)が日本人「慰安婦」を主題として企画展を企画し、読みやすい工夫をこらした冊子『日本人「慰安婦」の沈黙 - 国家に管理された性』を発行している。また、かつて「戦時性的強制被害者問題の解決の促進に関する法律案」に議員として関与した吉川春子氏は、この法案に日本人「慰安婦」を盛り込めなかった反省から、2016年に新しい調査チームをつくり、ある軍医が姪に遺した女性たちの名簿を手がかりとして日本人「慰安婦」の調査を開始した。本年、その成果が『日本人「慰安婦」を忘れない』(鴨川書房、2023年)と題して上梓された。このような地道な調査によって私たちは日本人「慰安婦」の実像に近づいていくことができるだろう。

もっとも、このように史実を掘り起こす調査は多くない。むしろ、露骨な公娼差別だと非難されないように言葉を慎重に選びつつ、「慰安婦」と「公娼」の差異を強調する言説の方が広く流布されており、その中では依然として日本人と外国人の「慰安婦」の差異が愛国心の有無によって説明されることもある。だが日本人が「慰安婦」になった動機や名乗り出なかった理由を愛国心に帰着させる解釈は、日本支配層と「慰安婦」との間の圧倒的な

権力関係や、彼女たちをとりまく戦後の日本社会が彼女たちを冷眼視してきたことを軽視するものだ。朴裕河氏が『帝国の慰安婦』の中で日本兵と朝鮮人「慰安婦」との「同志的關係」を論じて、女性たちに対する言語道断な侮辱だとして非難を浴びたが、日本人「慰安婦」の愛国心を強調することも彼女たちへの侮辱である。いわば日本兵と日本人「慰安婦」の同志的關係を主張しているのであり、日本人「慰安婦」に責任を転嫁する解釈である。日本人「慰安婦」を沈黙させ続けた日本社会の抑圧性が、ここにも表出している。

女性史に立ち帰れば公娼制度は「公権力による性売買統制」の制度であり、国家がその経営主体であると定義できる。日本史的には「娼妓取締規則」(内務省令)のみならず、国家の地方庁・植民地・占領地の支配機構によって19世紀末から様々な名称と形式で組織された。日本軍「慰安所」は1930年代以後の戦争の中で軍・内務省・外務省が連携して設立したものであり、その定義において公娼制度に他ならない。歴史研究者は戦時公娼制度という表現を使うことを恐れるべきではなかった。ヘイト言説に対して歴史研究の蓄積をふまえて言うべきは、もし「慰安婦」が「公娼」だと認めるなら、だからこそ国家として謝罪と補償を行うべきだということだったのである。

第二は、日本の「慰安婦」問題解決運動における「当時においても非合法だった」ことの過剰な強調だ。

この主張もまたヘイト的言説に対する反論として、「当時は合法で、当たり前だった」VS「当にも違法であり、公娼制度を批判する廃娼運動もあった」という対抗構図として現れた。が、これもまた、だからこそ現在の日本人は、「悪法が横行し人権が無視されていた当時(過去)」を正確に認識し、国家の非を認めて被害者に対する賠償によって過去を清算し、世界に、世代を越えて、「現在の日本は過去の日本とは違う」ということを表明するべきであった。

「当時も違法だった、廃娼運動があり公娼制度は批判されていた」と強調することは、暴力が合法化されて人権侵害が常態であった公娼制度体制の不正義に関する省察を弱める危険性を持つ。軍部のみが問題にされ、内務省・警察官僚の責任が二義的なものとみなされてしまう。そもそも日本内地には軍隊が駐屯する各地に実質的に軍用といえる公娼地区が早くから形成され、内地の公娼制度は常に警察の監視下にあった。警察とは公娼制度という合法化された暴力の法的執行者であり、娼妓が辛さに耐えかねて逃げ出すと警察が力づくで遊廓に連れ戻す役割を果たしていたことを忘れてはならない。

公娼制度に対する批判を持つことによって、史料の解釈もより深いものとなる。たとえば、内地で日本人「慰安婦」が募集された実態を示す重要資料として、複数の県警察

部が内務省に婦女誘拐被疑事件について照会した一連の文書がある。この資料はよく、当時の日本においても女性を皇軍慰安婦にする目的で海外に連れ出すことは公序良俗に反すると認識され、まじめな警察官が憤慨することだった、という証拠として解釈されてきた。だがその解釈が、しばしば、あたかも「まじめな警察官にとっては、軍が皇軍慰安の「慰安婦」を募集するなどありえない国際法違反、公序良俗違反だった」かのようにまで解釈しては、当時の日本の実態を錯覚することになる。「皇軍の慰安所」に憤怒する意識が当時の警察にあったかどうかは疑問である。警察部長は内務省のエリート官僚であり、植民地と内地を次々に異動していた。満州事変勃発後の植民地・占領地には、各地に日本が植え付けた公娼制度があり、すでに多数の日本軍が駐留して女性たちを「慰安婦」にしている。そのような植民地・占領地の事情を警察部長たちが知らないなどということがありえるだろうか。

複数の県警察部を逐一調べてみるべきだが、ここで茨城県の例のみをあげてみよう。茨城県警察部宮田笑内の前任地は、1920年代から売春街が賑わっていたハルピンである。1931年、満州事変が始まって関東軍参謀長板垣征士郎がチチハルに進撃すると、ハルピン総領事大橋忠一（「満洲国」樹立後はその高官）が日本軍のチチハル常駐を見越してハルピンからチチハルへと「慰安婦」たちを送り込んでいる（森島守人『陰謀・暗殺・軍刀－一外交官の回想/森島守人』岩波新書）。「満州事変」以降、ハルピンにおける売買春は急速に増え、中国人、朝鮮人、ロシア人ともに日本人の妓女たちが公的統制を受けていた。宮田が着任した1935年、ハルピン妓女健康診所では839人の女性に対して梅毒検査が行われていた。このようなハルピンに2年余り駐在した宮田が「皇軍の慰安所」に日本人女性が送られていることを知らぬはずがない。そもそも茨城県は宮田着任以前から、皇軍「慰安」が行われている。茨城県には1931年の廃娼決議以降も「花街」との名称で性売買地区が存続し、陸軍練兵隊のある水戸の谷中や霞ヶ浦航空隊の周囲にも花街が置かれていた。各県警察部からの照会文に見える警察側の戸惑いや憤慨は、内地で専横的に公娼制度を取り仕切ってきた警察が、自分の縄張りでも自分の頭越しに軍の意向をかさにきた業者が断りもなく募集活動を行っていることに向けられたものであり、皇軍「慰安婦」の募集それ自体ではなかったと考えてよい。「当時の法律でも非合法だった」と強調し、「まじめな内地の警察官にとって皇軍慰安婦は認めがたかった」とまで解釈するのは、植民地・占領地支配の実態を隠蔽し、内地の公娼制度とそれを統制する内務省・警察を美化することになりかねない。

第三の問題は、「外国軍もやっていたのに日本だけが責められるのは不当だ」という

「慰安婦」制度免罪言説に対抗して、外国軍には日本軍ほどの問題はなかったとする議論の危うさである。

ヘイト言説の側は、連合国対日占領期の米軍性暴力や朝鮮戦争下の韓国軍「慰安婦」の存在を日本軍「慰安婦」制度免罪論に都合よく利用してきた。だが、これに対抗して、日本軍慰安婦制度は奴隷制度であり欧米の軍隊は商業売春を利用したにすぎないと主張したり、米国の売春禁圧政策を肯定的に評価したりすることは、不当に米軍や韓国軍の性政策を擁護することになりかねない。日本軍「慰安婦」制度が類例のない規模と凶悪さをもったのは、軍国主義と植民地主義に伴う商業売春・公娼制度によって開戦までに女性に対する暴力が構造化されていた結果である。また欧米の諸軍隊の「商業」売春も軍事支配力を前提とした女性虐待であり、直接的な女性に対する暴力を伴っていた。にもかかわらず「日本軍は奴隷制・外国軍は商業売春」と構図を描くことは、「日本人は売春婦・外国人は性奴隷」と描いて日本人「慰安婦」を不可視化させる論理と通底しており、共に軍事的性暴力の全体像を見失わせている。

単に日本側の自発的なRAA設立経緯や米軍の売春禁圧政策について述べるのでなく、米軍が日本側に用意された性的慰安施設を大いに利用し、たんに性病蔓延に恐怖してこれをオフリミットにただけであった事実や、米軍の売春禁圧政策とはその原型が基地周辺5マイル内で官憲による女性の恣意的な逮捕・強制検診を可能にする反女性的なアメリカン・プランである事実、占領軍が日本の街頭で女性を逮捕状もなく連行して性病検診を強制した暴力や日本当局に米軍買春に好都合な売春統制を求めて実行させた事実を銘記し、そのような暴力を許さないという立場を鮮明にすることこそ日本軍「慰安婦」制度を究明するために建設的であろう。

というのは、冷戦下の日米韓の軍事同盟体制によって日本人女性と朝鮮人女性が被った軍事的性暴力は、日本軍「慰安婦」制度から連続しているからだ。占領期のRAA（特殊慰安施設協会）に始まる日本の占領軍「慰安」政策ほど日本軍「慰安婦」制度の正体を露出させるものはない。占領期の性的「慰安」の享受者は連合国軍人だが、施設を指示し、業者を動員した主体は同じ日本国家である。日本政府は女性を戦時下に日本軍「慰安婦」として利用したが、敗戦するや自軍が戦地で求めたのと同じように性的「慰安」を、上位にある軍（占領軍）に対して自発的に提供したのである。さらに、日本占領期の沖縄と「本土」における米軍「慰安婦」・米軍政下の南朝鮮における米軍「慰安婦」の中には、戦時下に日本軍「慰安婦」であった女性たちがいる。第二次世界大戦の終結をサンフランシスコ講和条約と考えれば、占領期のRAAや日米両政府協働の売春統制は、日本支配層が戦争の最終段階において自らの地位を守るために占領軍に女性を提供し、米国がそれに加担し

た日米共犯の軍隊「慰安婦」政策である。

日本の市民は元「慰安婦」の正義を希求して、日本軍「慰安婦」が名乗り出ることができなかった理由に主体的に向き合い、彼女たちが戦中のみならず戦後も日本政府と日本社会によって抑圧されてきた現実を看取すべきであった。日本軍「慰安婦」制度を引き継いで占領と冷戦の下に継続した日本政府の女性虐待、それを享受し助長もした外国政府の加担をもふくめて日本政府に真相究明を迫るような日本在住市民の運動が展開してこそ、日本人「慰安婦」にとってカミングアウトの受け皿をつくることができただろう。

(終わりに)

「慰安婦」サバイバーは半世紀の沈黙を破って「慰安婦」制度を告発した。彼女たちを沈黙させた半世紀はあまりに長く、重い。性被害を恥とする女性抑圧的社会意識や日本の賠償責任を免れさせた冷戦政治の下でサバイバーは苦しい戦後を生き、被害を軽々と語れなかった。それに対して日本の歴史研究者はどのようにして「慰安婦」の正義のために貢献できるだろうか。執拗に繰り返されるヘイト言説に対して、「慰安婦は売春婦や公娼とは違う」「当時も非合法だった」「外国の軍隊は商業売春を利用しただけだ」との主張に終始することは真の対抗言説とはなりえず、むしろ女性抑圧的社会通念に軽々しく依拠することによって公娼制度を免罪し、冷戦体制下の米軍や韓国軍の「慰安婦」問題に関して、あたかも日本には責任がなく、しかも外国軍性暴力は軽微であったかのように錯覚させることになる。歴史研究者は立ちあがったサバイバーたちに応答し、ヘイト言説に対する皮相な反論に終わらず、真実の歴史を書く責任がある。彼女たちが他界して誰も生存者がいなくなった後にも、歳月をかけて歴史研究者が国境を越えて協力することによって歴史をよりよく書きかえる努力を続けなくてはならない。

註

(1)藤目ゆき「女性史からみた『慰安婦』問題」『戦争責任研究』(18)1997年12月、「日本人『慰安婦』を不可視にするもの」VAWW-NET ジャパン編『裁かれた戦時性暴力—日本軍性奴隷制を裁く女性国際戦犯法廷』とは何であったか』白澤社。「女性国際戦犯法廷に参加して」『日本史研究』2001年8月。これらは『「慰安婦」問題の本質—公娼制度と日本人「慰安婦」の不可視化』(白澤社、2014年)に収録している。

(Greetings)

Kim Hak-soon's coming out will be remembered forever as a historic turning point in which the survivors of Japanese Military Sexual Slavery broke the silence for nearly half a century and brought the wartime sexual violence to the attention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 pay tribute to Koreans who designated this day as the "Memorial Day for Japanese Military Sexual Slavery Victims." I would also like to thank the host for planning this meaningful international symposium and inviting me as a presenter here.

An Approach to Japanese Military Sexual Slavery as a Study of Women's History and the Problems in the Sink-down of the Japanese '*Ianfu*'**(Introduction)**

In sympathy with the Korean movement pursuing justice for Japanese Military Sexual Slavery, civic movements started in Japan to demand justice for the Japanese Military Sexual Slavery issue and the implementation of post-war reparation by the Japanese government, and various activities have been conducted since then. However, as I look back on more than 30 years as a women's history scholar and think that vulnerabilities in Japanese historical research have still not been overcome, I get heartbreaking sympathies with them. For the past 30 years or so, in Japan, some hate speeches insulting former Japanese Military Sexual Slavery victims and intending to absolve Japan have been recklessly made, stating, 'Japanese Military Sexual Slavery victims were prostitutes; they were *gisaeng* working for money; prostitution was legal at the time, it was common; and armies from other countries also committed it'. How have we Japanese history researchers resisted such discriminatory utterances? Today, three arguments will be discussed in dispute as approaches to consideration of how to take our steps forward.

The first problem is that the Japanese Military Sexual Slavery issue has been taken aside from licensed prostitution and emphasized the differences of the two, which leads to the dominance of the discourse, and the sink-down and

distortion of Japanese victims by Japanese Military Sexual Slavery still continues.

At the time when Kim Hak-soon revealed her name herself and came out in public, Yuko Suzuki and Song Yeon-ok in Japan raised the Japanese Military Sexual Slavery issue in an approach to historical study that laid it on the extension of the history of licensed prostitution. When the international actions for justice on the Japanese Military Sexual Slavery issue began, it was these women's history researchers making achievements from the 1980s that enabled me to start studying women's history. But such points of view in women's history have been ironically pushed back amid the escalation and expansion of the post-war reparation movement, leading to an avoidance of speaking of the issue. From the early days, there were researchers emphasizing differences between Japanese Military Sexual Slavery and licensed prostitution, who came to prevail themselves in the 2000s.

This lies in the background of the fact that there was an attitude of the Japanese who tended to argue against these hate (ヘイト) speeches prevalent as a social convention in Japanese society. The argument that Japanese Military Sexual Slavery is not licensed prostitution was presented as a counterargument to the hate speech that Japanese Military Sexual Slavery is licensed prostitution. However, the argument seems to be a sufficient counterargument at first glance, but it maintains the anti-feminist recognition of licensed prostitution that licensed prostitutes are just prostitutes or 'women working with dirty jobs' (醜業婦) and obsessed only with money, so it lacks and distorts the overall features of Japanese Military Sexual Slavery, which has developed on the basis of licensed prostitution.

With my doubts due to such ideas, I pointed out the problematic points in the view points emphasizing the difference between the Japanese Military Sexual Slavery issue and the licensed prostitution issue in 1997 and gave expert testimony on licensed prostitution and Japanese Military Sexual Slavery at the International Women's War Crimes Court in 2001. There are some who sympathize with my argument, but in the 2000s in general, the emphasis on the difference between Japanese Military Sexual Slavery and licensed prostitution was widely accepted and expressed as their own position. from the perspective of women's history, the

relationship between licensed prostitution and Japanese Military Sexual Slavery is clear, and it is clear that Japanese ‘*ianfu* いあんふ’ existed as a large group of victims of Japanese sexual violence. However, in Japan, pointing out the historical connection was taken negatively and even deliberately excluded. The bill to the Diet of Japan to promote the resolution for the issue of wartime sexual coercion victims must be the case revealing the exclusion of Japanese ‘*ianfu*’, which the three opposite parties filed to the Japanese Diet in the 2000s. At the draft stage created by the Democratic Party in late 1999, it stipulated that Japanese women were excluded from the list. Although it was an important attempt to urge the resolution of the Japanese Military Sexual Slavery issue by legislation, the exclusion of Japanese ‘*ianfu*’ by the nationality clause reflected the opposition party’s mind and voters’ civic consciousness at the time.

The fact that a number of surveys and studies have come out over the past decade and shed new light on Japanese ‘*ianfu*’ is drawing attention as a move to visualize Japanese ‘*ianfu*’, which was simply missed. In 2018, the Active Museum Women’s War and Peace Archives (WAM), which was established honoring the late Matsui Yayori’s wishes, organized a special exhibition on the theme of Japanese ‘*ianfu*’ and published "Silence of Japanese "*Ianfu*": Sex Governed by the State." It was the version written for easy reading. Haruko Yoshikawa (吉川春子) was once involved as a member of the Diet in the "Bill of Act on Promoting the Resolution of the Problem of Wartime Sexual Coercion Victims" and later regretted not including Japanese ‘*ianfu*’ in this bill, so she organized a new research team and started a survey on Japanese ‘*ianfu*’ with clues in the list of women left by a military doctor to his niece. In this year, its achievement resulted in the publication of a book titled *Never Forget Japanese ‘Ianfu’* (鴨川書房, 2023). Through such continuous investigations, we gain access to realities of Japanese '*ianfu*'.

However, there are not many investigations to discover historical facts with this approach. Rather, in order not to be accused of explicit discrimination against licensed prostitution, words that refrain carefully from expression and emphasize the difference between Japanese Military Sexual Slavery and licensed prostitution are widely circulated, and some of them explain that the difference between Japanese and foreign

'ianfu' was still in the presence of patriotism. However, the interpretation that results in patriotism simply being the reason why the Japanese did not publicly step forward by revealing their motivation to become Japanese 'ianfu' and names means the downplay of the overwhelming power relationship between the Japanese ruling class and 'ianfu' and the post-war Japanese society's inhospitable treatment of those 'ianfu'. Park Yoo-ha discusses the "comrade relationship" between Japanese soldiers and Korean 'ianfu' in *Ianfu of the Empire*, which leads her to be criticized as an extortionate insult to women. In the same way, the emphasis on the Japanese 'ianfu's patriotism would also be an insult to them. In other words, it is the same as claiming the the comrade relationship between the Japanese soldiers and the Japanese 'ianfu', and it can be said that it is an interpretation that shifts the blame to the Japanese 'ianfu'. The Japanese society's oppression, forcing Japanese 'ianfu' into silence, is also expressed here.

And back to the perspective of women's history, licensed prostitution can be defined as a "control system of sex trafficking by public authority", whose principal agent is the state. In Japanese history, there were not only the Sho-o-gi 娼妓 Regulation Rules (by the Ministry of Internal Affairs' Ordinance), but also other licensed prostitution organized in different names and forms by the local authorities of the state and the governing body of colonies or occupied territories from the late 19th Century. In the 1930s during the war, the Japanese military's 'comfort stations' were established in association with the military, the Ministry of Interior, and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thus they were nothing short of licensed prostitution by definition. It is no different from a public funeral system. History researchers didn't have to be afraid of using the expression of wartime licensed prostitution. To speak of hate speeches based on the accumulated achievements of historical research means, for that reason, the argument that if Japanese Military Sexual Slavery was recognized as licensed prostitution, the state should make more apologies and reparations.

The second is the excessive emphasis on the argument that 'it was illegal at the time' which was insisted on by the campaign for resolution of the

Japanese Military Sexual Slavery issue.

This argument was also a counterargument to the hate speech, saying, "It was illegal at the time, and there was also an abolition movement criticizing licensed prostitution." However, for this very reason, today the Japanese had to accurately recognize 'the time (in the past) when evil acts were rampant and human rights were ignored, acknowledge the state's wrongdoings, liquidate the past by paying reparation to the victims, and so express the fact that "the present Japan is different from the past."

Emphasizing that "it was illegal at the time, there existed a prostitution abolishment movement, and the licensed prostitution was criticized" risks weakening the introspection on the injustice of the licensed prostitution where violence was legalized and violating human rights. Only the military becomes a problem, and the responsibility of the Home Office and police officers falls behind. Initially, in the inland of Japan, the licensed prostitution district, which can be called a military facility was formed from an early stage in each area where the military was stationed, and the licensed prostitution in inland Japan was always under surveillance by the police. The police were the legal enforcers of legalism violence called the licensed prostitution, and it should not be forgotten that, when *sho-o-gi* 娼妓 ran away as she could not overcome the suffering, the police play a role of sending her back to the licensed quarters 遊廓.

Keeping criticism of licensed prostitution in mind can deepen the interpretation of historical records. For example, as a significant source showing the conditions of recruiting Japanese '*ianfu*' in the inland, a series of documents in which several departments of prefectural police have inquired about the kidnapping of women at the Ministry of Home Affairs. This record has often been interpreted as evidence that even in Japan at the time, taking women abroad for the purpose of making them the Imperial Army's *ianfu* was recognized as an act against good and laudable custom and so used to be a source of resentment among conscientious police officers. However, this interpretation should not be expanded as if "conscientious police officers recognized that the military's recruitment of '*ianfu*' to comfort the imperial army was an improbable violation against international law and an act contrary to the

good and laudable custom." Such an expanded interpretation leads to a delusion about the realities of Japan at the time. It is also questionable whether the police then had a sense of resentment at the 'comfort station for the Empire's Army'. The police chief was an elite official of the Interior Ministry and was moving through both the colonies and the inland in turn. After the Manchurian Incident, there was already licensed prostitution established by Japan at many places in colonies and occupied areas, where many Japanese troops were stationed and made women 'ianfu'. How could the police chiefs not have known about these circumstances in colonies and occupied territories?

Several prefectural police departments should be examined one by one, but here, we will only study the case of Ibaraki Prefecture. Shonai Miyata at the Ibaraki Prefectural Police Department worked just before it in Harbin, where prostitution had flourished since the 1920s. When the Manchurian Incident began in 1931, Itagaki Seishiro (板垣征四郎) the chief of staff of the Kwantung Army advanced toward Chichi Harbin, and Ohashi Juichi (大橋忠一) the Consul General of Harbin (he became a high-ranking official of Manchuria after the establishment of 'Manchuria') predicted that the Japanese military would be stationed in Chichi Harbin and transfer the 'ianfu' from Harbin to Chichi (Iwami Shinsho 森島守人, *Conspiracy, Assassination, Military Sword: Memoirs of a Diplomat* 陰謀・暗殺・軍刀 - 一外交官の回想, Morishima no kami 岩波新書).

After the "Mukden Incident," the number of sex trade increased rapidly in Harbin, and Japanese *geisha* along with Chinese, Koreans, and Russians were under public control. In 1935 when Miyata was appointed, 839 women were tested for syphilis at the Harbin Health Clinic for geisha. Under these circumstances, Miyata, who presided over Harbin for more than two years, could not have known that Japanese women were being sent to the 'Comfort Station for the Imperial Army'. In addition, Ibaraki Prefecture practiced 'ian' or comfort for the Imperial Army even before Miyata took office. In Ibaraki Prefecture, a sex trafficking district existed under the name of 'Hanamachi (花街)' even after the resolution to abolish it in 1931, and 'Hanamachi' was also established around Yanaka (谷中) in Mito (水戸), where an army regiment was located, and Kasumigaura (霞ヶ浦) Air Force Troop. The inquiry from the police departments of each prefecture revealed that the police departments of each prefecture

had been in charge of licensed prostitution with full authority in the inland. It resulted from the fact that those prostitution managers were involved in the recruitment, not asking for the police's permission but ignoring them in their districts under their control and receiving protection for the military. It is not considered for the recruitment itself for the Imperial Army's *ianfu*. Emphasizing that "it was illegal even in the law at the time", if we expand the interpretation to the insistence that "it was difficult for a conscientious inland police officer to accept the Imperial Army's *ianfu*", it cannot but be an act of concealing the realities of colonial and occupied territorial dominance and glorifying the interior ministry and police that controlled it.

The third problem is the danger of the utterance that the foreign military did not have as serious problems as the Japanese military, which was made against the utterance of exoneration for the Japanese Military Sexual Slavery that it was unfair for only Japan to be blamed.

Those who often make hate speeches have arbitrarily used the sexual violence by the U.S. military during the Allied occupation of Japan and the existence of the Korean 'comfort women' during the Korean War to claim the exoneration of Japanese Military Sexual Slavery. However, such claims as that Japanese Military Sexual Slavery was slavery but the military in Europe and America used only commercial prostitution and that the U.S. policy to ban sex trafficking can be evaluated positively will inevitably lead to an unfair defense of the sex policies by the U.S. and Korean military. The unprecedented scale and violent nature of Japanese Military Sexual Slavery resulted in the structuralization of violence against women until the outbreak of the Asia-Pacific War by both commercial and licensed prostitution, accompanied by militarism and colonialism. In addition, 'commercial' prostitution in the military in various countries in Europe and America was also abuse of women on the premise of military dominance and was accompanied by immediate violence against women. Explaining such a composition as "Japanese military goes to slavery, and foreign military goes to commercial prostitution" is, nevertheless, fundamentally in line with the logic of sink-down of Japanese '*ianfu*', and both enlargements miss the overall features of military sexual violence.

We should not simply discuss either the Japanese side's voluntary establishment of

the RAA or the U.S. military's policy to ban prostitution. We need some progressive actions to identify Japanese Military Sexual Slavery, which would mean disclosing and recording the fact that the US military made extensive use of Japanese sexual comfort facilities and banned them simply for fear of the spread of sexually transmitted diseases, the fact that US policy to ban sex trafficking lies typically in the anti-feminine American plan capable of arbitrary arrest of women within 5 miles of the base and of forced medical examination by government constitutions. and the fact that the occupation forces took a woman from the streets in Japan without warrants to arrest her, forced her to check for STDs, and asked the Japanese authorities to control prostitution in favor of U.S. prostitution, revealing our position distinctly that we will not tolerate such violence.

This is because the military sexual violence suffered by Japanese and Korean women under the ROK-US-Japan military alliance during the Cold War is continuous in the system of Japanese Military Sexual Slavery. Nothing reveals the identity of Japanese Military Sexual Slavery better than the Japanese occupation army's "comfort" policy, which started with the RAA (the Recreation and Amusement Association in English, or the Special Comfort Facility Association 特殊慰安施設協会) during the occupation period. It was the Allied soldiers who enjoyed the sexual "comfort" during the occupation period, but the subjects ordering the installation of facilities and mobilizing managers were the same Japanese countries as before the defeat. The Japanese government used women as the nation of Japan before the defeat of the war. The Japanese government used women as Japanese military 'ianfu' in wartime, but with the defeat in the war, it voluntarily provided the same sexual 'comfort' as their military armies had demanded in the battle areas for the military (occupying army) who came up to the dominant position. Considering the signing of the San Francisco Peace Treaty as the end of World War II, the RAA during the occupation period and the prostitution system provided by the governmental cooperation between the U.S. and Japan provided women for the occupation forces in order for the Japanese ruling groups to maintain their position at the end of the war. In pursuit of justice for the former victims of Japanese Military Sexual Slavery, Japanese citizens had to face independently the reason why the Japanese 'ianfu' could not come out publicly, and they grasped the reality that they had been suppressed by the Japanese government and

Japanese society after the defeat as well as during the war. Not until civil campaigns develop to pressure the Japanese government to probe the truths, including the Japanese government's continued abuse of women under occupation, the Cold War followed by Japanese Military Sexual Slavery, and involvements by a foreign government that has encouraged such abuses and enjoyed the 'comfort', will it be possible to create an environment to recognize the Japanese '*ianfu*'s' coming out.

Closing Remarks

Japanese Military Sexual Slavery survivors have broken the half century's silence and accused the Japanese Military Sexual Slavery system. The half century that silenced them is too long and heavy. Under the oppressive social consciousness of women regarding sexual violence as a disgrace to women and the Cold War politics that exempted Japan from liability for reparation, survivors have lived through poignant post-war years and could not easily speak of their sufferings. In response to this fact, how can Japanese historical researchers contribute to justice for Japanese Military Sexual slavery? Regarding the consistently repeated hate speeches, arguments like "ianfu is different from prostitutes or prostitutes," "it was also illegal at the time," and "foreign troops used commercial prostitution only" cannot be a counter-statement in the true sense, but rather slightly rely on female oppressive social norms, so they would absolve themselves of licensed prostitution, think as if Japan is not responsible for the military sexual slavery issue by U.S. or South Korean armies under the Cold War, and make the issue of sexual violence by foreign forces mistaken for a minor one. Historical researchers are responsible for the response to the actions of survivors who have taken courage and recorded true history, not just raising superficial objections to hate speeches. Even after they die and no one remains alive, the researchers must keep on making efforts to modify history in more desirable ways through cooperation with other historical researchers across borders over many years.

확장과 누락: 전시 성폭력 연구에 대한 고찰과 제언

백재예 (메사추세츠 주립대)

동북아역사재단 학술행사

확장과 누락: 전시 성폭력 연구에 대한 고찰과 제언

백재예 (매사추세츠주립대 앰허스트 캠퍼스 정치학과)

질문

- 전시 성폭력에 대한 연구들은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가?
- 그리고 그 변화 속에서 전시에 발생하는 다양한 위협들이 어떻게 포착되고 이해되어 왔는가?
-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무엇이고, 여전히 모르는 것은 무엇인가?

성폭력에서 젠더 기반 폭력으로

민간인 남성, 소년에
대한 성폭력

무장조직 내부의
성폭력

여성 전투원에 의한
성폭력

성/젠더 소수자에
대한 성폭력

전시 성폭력 발생 메커니즘에 관한 연구

기회주의적

인종적 혐오

젠더 차별

사회화

기회주의적 관점

분쟁이라는 상황이 개인의 욕망과 내재된 폭력성을 분출하게 만드는 기회를 조성하고, 개인은 그러한 기회가 조성되면 강간 등의 성폭력을 저지르게 된다는 관점

관련 연구들:

- 윌리 (2000): 전시 성폭력 뿐만 아니라 전시에 자행되는 민간인에 대한 폭력의 원인은 무장 단체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근본적으로 폭력에 욕망과 매력을 느끼는 특성이 있기 때문이다.
- 골드스타인 (2001): 분쟁으로 인한 국가의 붕괴가 평화시기에 존재하는 사회적 규범과 법적 제한들을 무력화 시키기 때문에 남성의 강간에 대한 내재된 욕망이 분쟁상황에서 발현된다.
- 와인스타인 (2007): 내전 하, 반란군이라는 무장조직의 특성이 전시 성폭력과 같은 대규모의 폭력의 원인이다. 특히, 반란군 중에서도 재화에 대한 접근이 목적이 된 반란군의 경우, 이념에 입각한 무장집단보다 폭력을 저지를 경향이 더 크다. 왜냐하면 모병의 과정에서 재화 확보에 목적이 된 경우, 폭력을 저지를 경향이 큰 사람들을 모집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인종적 혐오 관점

강간은 인종적 혐오와 연관되어 있으며 상대 조직에 대한 지배를 드러내는 목적으로 일어난다.

관련 연구들:

- 플림퍼와 누메이어 (2006): 다른 유형의 분쟁보다 인종간 갈등이 분쟁의 원인이 되는 경우, 강간이 만연하다. 이러한 강간은 적대적 인종에게 모욕을 주기 위해 발생한다.
- 피어론 (2006): 인종 간 분쟁에서 강간과 같은 극단적 폭력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이유는 그 갈등이 존재론적 위협에 입각해 있기 때문이다.

여성 전투원에 의한 성폭력

관련 연구들:

- 콩고민주공화국에서 여성 전시 성폭력 피해자 중 41퍼센트의 경우, 가해자가 여성이었다. 리비아에서의 내전 당시 여성 전투원들이 여성에 대한 강간에 연루되었다. 그리고 이라크 전쟁 당시 아부 그라브 (Abu Ghraib)에서 미군 여성 병사들이 이라크인 포로들에 대해 가했던 성적 학대 저질렀다.
- 조베르그 (2017): 생물학적 성이 아닌 젠더 개념을 통해 전시성폭력을 이해해야 한다. 성별에 상관없이 누구나 젠더 관념에 기반하여 폭력행위를 저지할 수 있다.
- 코헨 (2013): 여성도 남성과 마찬가지로 결집력이 약한, 강제로 징집하는 무장조직에서 내부 결속력을 조성하는 등의 사회화 과정 혹은 압력이 존재하는 경우 전시 강간을 저지르게 된다.

사회화 관점

전시 성폭력은 무장집단 내 사회화 과정을 위해 활용된다.

관련 연구들:

- 골드스타인 (2001): 집단 결속력을 높이는 도구로서의 집단 강간이 활용된다.
- 우드 (2009): 군대 내에서의 폭력은 집단 결속력을 만드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 코헨 (2013): 전시 강간을 상대 공동체를 모욕하거나 공격하기 위한 도구로 보는 것은 전시 강간이 분쟁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나는 것을 충분히 설명할 수 없다. 무장집단에게 있어 전시강간은 부대 내 사회화를 위한 도구, 즉 수행으로서 전시 강간을 이해해야 한다.
- 코헨 외 (2013): 전시 강간은 전쟁의 의도적 전략적으로 명령에 의해서 자행되기보다는 사령관에 의해 "용인(tolerated)"됨으로써 발생한다.
- 포울크너와 웰시 (2022): 납치와 같은 강압적 모병활동 (특히 소년병을 강제 징집하는 경우)에 의해서 내부적인 결속력이 약한 무장집단일수록 전투원들 사이의 공포와 불신으로부터 충성심과 권위를 만들어 내기 위해 활용된다.

다양한 연구영역에서의 접근

시공간적 범위 확장

통계적 분석 연구 증가

민간인 남성, 소년에 대한 성폭력

관련 연구들:

- 카펜터 (2006): 기존의 학계와 시민사회가 남성, 소년이 겪는 전성 성폭력 피해를 도외시 해왔다.
- 시바쿠마란 (2007): 남성에게 가해지는 다양한 전성 성폭력 유형(예시: 강간, 강제 불임, 강제 노출, 거세 등)을 파악하고, 나아가 이를 제대로 포착하고 이해하기 위해서 전성성폭력에 대한 기존의 젠더 고정관념을 수정해야 한다.
- 트라운롤러 외 (2019): 스리랑카 내전에서 남성의 경우, 특히 기존 거주지에서 쫓겨난 경우, 비슷한 처지의 여성보다 성폭행의 위험에 처하는 확률이 높다.
- 아이허트 (2019): 남성을 겨냥한 성폭력은 공격하는 공동체에 대한 지배를 드러내기 위한 행위이다.
- 솔츠와 투케 (2020): 우간다와 스리랑카에서의 분쟁에서 나타난 기회주의적 동기에서 자행된 성폭력 사례를 통해, 남성에 대한 성폭력의 경우 여성에 대한 경우와 달리 '전략적' 목적에서 이루어진다고 간주해온 기존의 관점은 이성애 중심적이다. 퀴어 이론을 통해 성폭력 문제에 있어 이성애적 젠더, 섹슈얼리티 이해를 극복해야 한다.
- 솔츠 (2020): 북부 우간다 내전에서 남성에 대한 전성 성폭력이 만연했던 현실을 폭로하면서, 특히 내전 초기 정부군이 민간인 남성에 대해 저지르는 경우가 많았다. 이분법적, 이성애적 편견에 기반한 모욕과 낙인 때문에 많은 생존자들이 전후 자신의 경험을 침묵하거나 숨겨야 했다.

무장 조직 내부의 성폭력

관련 연구들:

- 로겐 (2017): 조직 내 문화와 같은 조직적 요소를 통해 무장집단 내 순응도가 결정되고, 여성 전투원 또한 그 속에서 같은 영향 속에 있기 때문에 여성 전투원의 증가가 무장집단에 의한 강간 발생을 줄이는데 영향을 주지 않는다.
- 티린 (2020): 콜롬비아 반란 무장조직 내부에서 동성애 전투원에 대한 성폭력과 처벌 사례를 통해 무장조직 내 성폭력은 이성에 규범을 통한 사회통제에 대한 갈망에서 일어난다.

여성 전투원에 의한 성폭력

관련 연구들:

- 콩고민주공화국에서 여성 전시 성폭력 피해자 중 41퍼센트의 경우, 가해자가 여성이었다. 리비아에서의 내전 당시 여성 전투원들이 여성에 대한 강간에 연루되었다. 그리고 이라크 전쟁 당시 아부 그리브 (Abu Ghraib)에서 미군 여성 병사들이 이라크인 포로들에 대해 가졌던 성적 학대 저질렀다.
- 조베르그 (2017): 생물학적 성이 아닌 젠더 개념을 통해 전시성폭력을 이해해야 한다. 성별에 상관없이 누구나 젠더 관념에 기반하여 폭력행위를 저지할 수 있다.
- 코헨 (2013): 여성도 남성과 마찬가지로 결집력이 약한, 강제로 징집하는 무장조직에서 내부 결속력을 조성하는 등의 사회화 과정 혹은 압력이 존재하는 경우 전시 강간을 저지르게 된다.

성/젠더 소수자에 대한 성폭력

관련 연구들:

- 두건 (2016): 분쟁 중 성/젠더 소수자들은 정부 및 사회의 보호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반란군들이 이들에 대한 혐오와 박해를 자신들의 정당성과 권위를 내세우고자 한다.
- 찬트렛 (2018): 차별이 용인되는 사회에서 여러 조직이 경쟁하는 경우 동성애 혐오적 살해를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한다.
- 로켄과 헤이건 (2022): 이들은 성적/젠더 정체성이 젠더의 핵심 요소라는 점에서 성/젠더 소수자를 겨냥한 전시 폭력을 젠더 기반 성폭력에 포함하여 보아야 한다.

다양한 연구영역에서의 접근

시공간적 범위 확장

통계적 분석 연구 증가

시간적 범위 확장

유고슬라비아 내전과 르완다 내전에서 전시 성폭력을 집중하던 것에서 점차 1990년대 정도로 시간적 범위가 확장되었고, 지역적으로도 세계 각국의 크고 작은 무력 분쟁을 다루며 공간적으로도 확장.

- 콜롬비아 내전 (1964~Present), 우간다 내전 (1980~1986), 페루 내전 (1980~2000), 스리랑카 내전 (1983~2009), 라이베리아 내전 (1989~1997), 콩고민주공화국 내전 (1997~1999) 등

관련 연구들:

- 도벨리 (2018): 우간다의 주의 저항군(Lord's Resistance Army: LRA) 사례 → 비국가 무장조직은 전시 젠더 통제/폭력을 통해 통제하고자 하는 공동체는 물론 그들 조직 내에서 새로운 젠더 질서를 만들고자 한다. 주의 저항군은 강간과 강제 혼인이라는 강압적 성행위를 통해 자신들의 이념적 저항성과 자신들이 원하는 사회적 질서(비혼인 성관계 금지)가 무엇인지 드러내고자 했고, 그것을 통해 자신들의 이념적 저항에 따라 공동체를 새롭게 구성하고자 했다.
- 트라운올러 외 (2019): 스리랑카에서 반관군들에게 협력한 티밀족과 무장 반군 단체인 티밀 일람 해방 호랑이에 협력했다고 추정되는, 남성 난민의 경우 특별히 전시 성폭력의 위험에 많이 노출되었다.

통계적 분석 연구 증가

1990년부터 전세계의 전시 성폭력 사례들을 무장 조직, 성폭력 유형, 분쟁 기간 및 지역 등으로 지표화 하고, 이들 간의 상관관계를 통계적 분석을 적용하여 전시 성폭력의 양상과 변화를 설명. 기존의 전쟁 관련 통계에서 집계되지 않았던 전시 성폭력에 대한 독립적인 양적사료를 구축.

관련 연구들:

- 파 (2009): 기존의 현대의 전시 성폭력을 다룬 정부 혹은 비정부기구(NGOs)보고서와 학술 자료 등을 활용해 1990년 이래로 시작되어 2009년 이전에 종료된 27개 지역에서 자행된 전시 강간 자료를 구축하여, 지역별로 전시 강간이 발생 정도, 가해자, 피해자 원인, 피해 지역 등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비교 → 전시 강간은 광범위하게 자행되며, 특히 분쟁 당시 그 지역의 경제적 상황이 악화 될수록 여성들이 폭력에 노출된다.
- 코헤 노르도스 (2014): 1989년에서 2009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에 100여 개의 분쟁에서 600여 개의 무장 조직(정부군, 반군, 친정부, 민병대로 구분)들의 전시 성폭력 관련 양상을 다룬 양적자료 → 1) 전시 성폭력은 흔하게 일어나지만, 불가피하게 항상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2) 정부군이 반군이나 민병대보다 전시 성폭력을 저지르는 경향이 많다, 3) 분쟁 직후에도 분쟁 종과 연관된 성폭력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경향이 있다.
- 트라운올러 (2019): 스리랑카에서 전시 성폭력에 대한 설문지의 질문을 간접적 질문 유형으로 바꿨을 때 피해 보고 비율이 10배가 높았으며, 남성 피해자에 대한 피해보고도 늘었다.

전시 성폭력 연구 담론에서 일본군 '위안부' 제도

국가 및 군대에 의한
성폭력의 예시

성 노예제의 예시

전시 성폭력에 대한
불처벌의 기원

국가 및 군대에 의한 성폭력

근대 이후 국가 및 군대에 의해 체계적, 광범위하게 자행된 성폭력의 예시. 최근의 연구에서 특이할 만한 점은 전시 성폭력의 특성을 이해하는 과정에서 활용되는 예시로서 제시

관련 연구들:

- 코헨 외 (2013): 일본군 '위안부' 제도를 예시로 하여 일상에서 성폭행을 저지르지 않는 남성들이 전쟁 중에 성폭력을 저지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 → 일본군 지도부는 난징 대학살 이후 단순히 성매매의 대체제로 위안소를 만들었다며 일본군 '위안부' 제도를 일반 병사들이 지닌 성적 충동을 관리하고자 한 것이었다고 주장하지만, 전시 성폭력은 모든 분쟁에서 모든 무장집단이 저지르기 보다는 강제 징병을 한 경우 내부의 결속을 도모하는 과정에서 활용했다. 즉, 전시 성폭력은 단순히 성적 충동의 발현이 아니라 피해 집단에 대한 권력의 수월성의 표현이다.

성 노예제의 예시

2010년대 이후의 전시 성폭력 관련 연구들 중 특정하게 성 노예제의 메커니즘에 대해 다루는 연구들이 많지는 않지만, 대부분의 연구들이 성노예화가 "혼인"관계라는 형식에 의해 은폐되는 것을 지적

관련 연구들:

- 만주와 맥라이스 (2011): 성적 노예화는 분쟁 시 젠더 기반 폭력의 대표적인 방식이다. 이 과정에서 성폭력의 행위는 "혼인"관계라는 형식 속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로는 무장 집단의 통제 아래 여성들, 특히 소녀들이 국경을 건너 혹은 군부대 사이에서 인신매매 되는 과정을 거친다.
- 우드 (2014): 무장조직이 성 노예제나 강제 결혼을 규정을 마련하여 제도화 하는 경우, 그 조직은 전쟁의 전략이라는 관점에서 조직의 목표를 위해 의도적으로 그러한 방식을 채택한다. 세노와 비슷 않은 경우라면, 사형판들은 공간과 성 노예제를 막는 것이 너무 미흡이 없이 큰나는 점에서 그러한 행위를 '보상'이라는 관점에서 용인한다.

전시 성폭력에 대한 불처벌의 기원

전시 성폭력과 관련하여 안전한 불처벌(impunity)을 지적하는 연구들은 일본군 '위안부' 제도를 포함한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전범재판을 그 기원으로 제시

관련 연구들:

- 그레이 (2019): 전시 성폭력에 대한 불처벌의 역사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전범재판, 특히 일본군 '위안부' 제도에 대한 불처벌에서 시작되어, 냉전시기의 침묵을 거치며 공고화 되었다. 이후 1990년대 유고슬라비아와 르완다의 국제형사재판소와 이후 상설 국제형사재판소 설립에 이르는 과정에서 점차 전시 성폭력을 전쟁범죄로 인식하게 되었으며, 이에 대한 기소 비율이 여전히 부족하긴 하지만 점차 증가하고 있다.
- 발다노빅 (ZUZU): 국제형사재판소에서의 일본군 위안부를 비롯한 일본의 전쟁 범죄에 대한 불처벌을 포함하여 각종 국제형사재판에서의 불처벌 사례들 → 국제형사재판의 신뢰성은 재판의 절차적, 형식적 공정성 보다 피해 지역의 특정한 맥락을 반영하여 기소, 판결이 이루어지느냐에 달려있다. 재판의 결과에 대한 부정하는 경향은 네 가지 요소에 의해 결정된다. 1) 지속적인 집단 단결력과 대립 정도, 2) 엘리트 그룹 인적, 이념적 지속 정도, 3) 관련 사회의 권위주의 정도, 4) 재판의 결과가 엘리트 그룹의 권력과 영향력에 위협이 된다고 느끼는 정도.

외연의 확장 속 맥락의 누락

외연의 확장

- 남성 가해자/여성 피해자라는 이분법 속에서 비가시화 된 피해자/피해 유형 가시화
- 전시 성폭력을 독립적인 주제로 하는 장기적이고 광범위한 양적 자료를 구축 → 인과관계적 설명을 제시하는 연구

맥락의 누락

- 전시 성폭력의 공간적, 시간적 조건을 해당 분쟁과 폭력 행위가 수행되는 순간으로 제한 → 입체적 맥락 누락
 - 각 전시 성폭력 사례들을 공간적, 역사적으로 단절된 것으로 다룸
 - 불처벌의 경험을 현대의 정치, 사회적 조건과는 단절된 '과거'의 경험으로 호명

외연의 확장 속 맥락의 누락

외연의 확장

- 남성 가해자/여성 피해자라는 이분법 속에서 비가시화 된 피해자/피해 유형 가시화
- 전시 성폭력을 독립적인 주제로 하는 장기적이고 광범위한 양적 자료를 구축 → 인과관계적 설명을 제시하는 연구

맥락의 누락

- 전시 성폭력의 공간적, 시간적 조건을 해당 분쟁과 폭력 행위가 수행되는 순간으로 제한 → 입체적 맥락 파편화, 누락
 - 각 전시 성폭력 사례들을 공간적, 역사적으로 단절된 것으로 다룸
 - 불처벌의 경험을 현대의 정치, 사회적 조건과는 단절된 '과거'의 경험으로 호명



입체적 맥락들 동안 다층적 의미의 발견

- 역사적 맥락(제국주의, 식민주의 경험)에 대한 충분한 고려
- 과거의 사제가 현대의 사제를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고찰

東北アジア歴史財団 学術会議

拡張と遺漏： 戦時性暴力研究に対する考察と提言

ペク・ジェイエ(マサチューセッツ州立大学アマースト校政治学科)

問い

- ・戦時性暴力に関する研究はどのように変化してきたか？
- ・そして、その変化の中で戦時下に発生する様々な脅威はどのように捉えられ理解されてきたか？
- ・私たちが知っていることは何であり、依然として知らないことは何か？

概要

1. 現代の内戦下で起きる性暴力への関心により研究が多角化
 - ・ 戦時性暴力の発生メカニズムに関する研究
 - ・ 性暴力からジェンダー基盤の暴力へ
 - ・ 多様な研究領域からのアプローチ
2. 戦時性暴力研究の言説における日本軍「慰安婦」制度
3. 外証拡大におけるコンテキストの遺漏

戦時性暴力の発生メカニズムに関する研究

日和見主義

人種的ヘイト

ジェンダー差別

社会化

日和見主義の視点

紛争という状況が個人の欲望と内在する暴力性を噴出させる機会をつくり、個人はそのような機会が造成されれば、強かんなど性暴力を犯すことになるという見方

関連研究：

- ・ ミュラー(Mueller, 2000)：戦時性暴力に限らず、戦時下で民間に加えられる暴力の原因は武装団体に参加する人々が、根本的に暴力に欲望と魅力を感じる特性を持ったため。
- ・ ゴールドスタイン(Goldstein, 2001)：紛争による国家の崩壊が平和な時期に機能する社会的規範や法的制限を無力化させるため、男性に内在する強かんへの欲望が紛争の状況下で発現される。
- ・ ワインスタイン(Weinstein, 2007)：内戦下での反乱軍という武装組織の特性が、戦時性暴力のような大規模な暴力の原因だ。中でも特に、財貨に対する接近が目的となった反乱軍の場合、理念に基づく武装集団より暴力を犯す傾向がより大きい。なぜなら、募兵の過程で財貨確保に目的を置いた場合、暴力を犯す傾向の強い人々を募集する可能性が高いためだ。

人種的ヘイトの観点

レイブは人種的ヘイトと関連しており、相手側組織に対する支配を示す目的で実行される。

関連研究：

- ・ ブランパー(Plümper)とニューマイヤー (Neumayer)(2006)：人種間の対立が原因となる紛争の場合、他の類型の紛争より強かんが蔓延する。このような強かんは敵対する人種を侮辱するために犯される。
- ・ フェアロン(Fearon)(2006)：人種間の紛争で強かんのような極端な暴力が発生する可能性が高い理由は、その対立が存在論的脅威に基づいているためだ。

ジェンダー差別の視点

社会に内在していたジェンダー差別が戦時性暴力発生の原因であり、紛争前に家父長的社会秩序によるジェンダー差別が蔓延している度合いが強ければ強いほど、紛争下での性暴力、特に強かんが多く起きる。

関連研究：

- ・ マッキノン(MacKinnon, 1994)：集団レイプは女性に対する不平等が激しい地域で起こる可能性が高い。
- ・ エンロー(Enloe, 2000)：軍事化された男性性が戦時性暴力の原因の中心だ。戦時性暴力の論理は、国家安保組織の機能および必要に対する論理と相通じる。
- ・ ヒューマン・ライツ・ウォッチ(2009)：イラクのアルマフディー軍は髪が長かったりピアスをした男性など同性愛またはジェンダー非順応アイデンティティ人口を特定し、非難・暴力・虐殺を犯した。
- ・ フェアロン(2010)：一つの地域のジェンダー不平等により内戦勃発を予測できる。

社会化の視点

戦時性暴力は武装集団における社会化の過程に活用される。

関連研究：

- ・ ゴールドスタイン(2001)：集団の結束力を高める道具として集団レイプが活用される。
- ・ ウッド(2009)：軍隊内での暴力は、集団の結束力をつくり出す上で決定的役割を果たす。
- ・ コーヘン(2013)：戦時レイプを相手側の共同体を侮辱したり攻撃するための道具と見なすことは、戦時レイプが紛争によって異なる形で現れる現象を十分説明できない。武装集団の戦時レイプについては、部隊内の社会化のための道具、すなわち遂行としての戦時レイプへの理解が必要。
- ・ コーヘン、ほか(2013)：戦時レイプは戦争の意図的・戦略的な命令によって行われるのではなく、司令官に「容認(tolerated)」されることで発生する。
- ・ フォークナー(Faulkner)とウェルシュ(Welsh)(2022)：拉致のような強圧的な募兵活動(特に少年兵を強制徴集する場合)に頼っているため内部の結束力が弱い武装集団ほど、戦闘員間の恐怖や不信から忠誠心と権威を作り出すために活用される。

性暴力からジェンダー基盤暴力へ

民間男性・少年に
対する性暴力

武装組織内部での
性暴力

女性戦闘員による
性暴力

セクシュアル/ジェン
ダー・マイノリティに
対する性暴力

民間男性・少年に対する性暴力

関連研究：

- ・カーベーター(2006):従来、学界や市民社会は男性・少年が体験する戦時性暴力被害を度外視してきた。
- ・シバクマラン(Sivakumaran, 2007)：男性に加えられる多様な戦時性暴力の類型（例:レイプ、強制不妊、強制露出、去勢など）を把握し、さらにこれらをきちんと捉えて理解するために、戦時性暴力に対する既存のジェンダー固定観念を改めなければならない。
- ・トラウンミュラー(Traunmüller)外(2019)：スリランカ内戦で男性の場合、特に元の居住地から追い出された場合、似たような境遇の女性より性的暴行の危険にさらされる確率が高い。
- ・アイハート(Eichert, 2019)：男性を狙った性暴力は、攻撃する共同体に対する支配を表明するための行為である。
- ・シュルツ(Schulz)とトゥケ(Touquet) (2020):ウガンダとスリランカの紛争における日和見主義的動機の性暴力ケースを通じて、男性に対する性暴力は女性に対する場合とは異なり「戦略的」目的で行われるとしてきた従来の見方は異性愛中心的と指摘。クィア理論を通じて、性暴力問題における異性愛的ジェンダー、セクシュアリティ理解を克服しなければならない。
- ・シュルツ(2020)：北部ウガンダ内戦で男性に対する戦時性暴力が蔓延した現実を暴露した。特に、内戦初期に政府軍が民間男性に対して犯す場合が多かったが、二分法的、異性愛的な偏見に基づいた侮辱と烙印のため、多くの生存者が戦後自分の経験について沈黙したり隠さなければならなかった。

武装組織内部での性暴力

関連研究：

- ・ローケン(Loken, 2017): 組織文化のような組織的要素によって武装集団における順応度が決定される、女性戦闘員もその中で 同じ影響を受けているため、女性戦闘員の増加が武装集団によるレイプ発生に減少に影響するわけではない。
- ・ティリン(Thylin, 2020): コロンビアの反乱武装組織内部における同性愛戦闘員への性暴力と処罰事例を通じて、武装組織内の性暴力は異性愛規範による社会統制への渴望から起きると指摘。

女性戦闘員による性暴力

関連研究：

- ・コンゴ民主共和国における戦時性暴力で女性被害者の41%は、加害者が女性だった。リビアでの内戦当時、女性戦闘員が女性に対するレイプにかかわった。そして、イラク戦争当時、アブグレイブで米軍女性兵士がイラク人捕虜に対し性的虐待を加えた。
- ・ショーバーグ(Sjoberg, 2017): 生物学的性ではなく、ジェンダー概念を通じて戦時性暴力を理解しなければならない。性別に関係なく、誰でもジェンダー観念に基づいて暴力行為を犯すことができる。
- ・コーヘン(2013): 女性も男性同様に結集力の弱い、強制的に徴集された武装組織において、内部結束力を作るなどの社会化過程、あるいは圧力が存在する場合、戦時レイプを犯すことになる。

セクシュアル/ジェンダー・マイノリティに対する性暴力

関連研究：

- ・ドゥガン(Duggan, 2016):紛争下で性/ジェンダー少数者は政府や社会の保護を受けられないため、反乱軍は彼らに嫌悪と迫害を加えることで、自分たちの正当性と権威を前面に押し出そうとする。
- ・チャントレット(Tschantret, 2018):差別が容認される社会で色々な組織が競合する場合、競争で優位を占めるための手段として同性愛フォビア的殺害を活用する。
- ・ローケン(Loken)とハーゲン(Hagen) (2022):彼らはセクシュアル/ジェンダー・アイデンティティがジェンダーの核心要素であるという点で、セクシュアル/ジェンダー・マイノリティを狙った戦時暴力をジェンダー基盤性暴行に含めて見なければならない。

多様な研究領域からのアプローチ

時空間的範囲の拡張

統計的分析研究の増加

時間的範囲の拡張

ユーゴスラビア内戦とルワンダ内戦での戦時性暴力への集中から、次第に1980年代あたりまで時間的範囲が広がり、地域的にも世界各国の大小の武力紛争を扱うことで空間的にも拡張。

・コロンビア内戦(1964~Present)、ウガンダ内戦(1980~1986)、ペルー内戦(1980~2000)、スリランカ内戦(1983~2009)、リベリア内戦(1989~1997)、コンゴ民主共和国内戦(1997~1999)など

関連研究：

・ドネリー(Donnelly, 2018):ウガンダの「神の抵抗軍」(Lord's Resistance Army; LRA)ケース→非国家武装組織は戦時ジェンダー統制/暴力によりコントロールしようとする共同体はさることながら、彼らの組織内で新しいジェンダー秩序を作ろうとする。「神の抵抗軍」はレイプと強制婚姻という強圧的な性行為を通じて、自分たちの理念的志向性と自分たちの望む社会秩序(非婚人性関係禁止)が何かを明らかにしようとした。そのことにより、自分たちの理念的志向による新たな共同体づくりをしようとした。

・トラウンミュラー(Traunmüller)外(2019):スリランカで反乱軍に協力したタミル族と、武装反軍団体である「タミル・イーラム解放のトラ」(the Liberation Tigers of Tamil Eelam)に協力したと推定される男性難民の場合、特に戦時性暴力の危険に多く露出した。

統計的分析研究の増加

1980年からの世界中の戦時性暴力事例を、武装組織、性暴力の類型、紛争期間および地域などに指標化し、それらの相関関係に統計的分析を適用して、戦時性暴力の様相と変化を説明。従来の戦争関連の統計では集計されなかった戦時性暴力に対する独立した量的資料を構築。

関連研究：

・ファー(Farr, 2009)：それまでに現代の戦時性暴力を扱った政府やNGOの報告書や学術資料などを活用し、1990年以降始まり2009年までに終了した77地域での紛争で行われた戦時レイプの資料を構築。地域別に戦時レイプの発生程度、加害者、被害者、原因、被害地域などがどのように変化したかを比較→戦時レイプは広範囲に行われており、特に紛争当時その地域の経済状況が悪化するほど女性が暴力にさらされる。

・コーヘンとノルダス(Nordås) (2014):1989年から2009年までの間に、100件余りの紛争で600余りの武装組織(政府軍、反軍、親政府、民兵隊に区分)の戦時性暴力関連の様相を扱った量的資料→ 1) 戦時性暴力は一般的だが、やむを得ず常に起きるわけではない、2) 政府軍が反軍や民兵隊より戦時性暴力を犯す傾向が多い、3) 紛争直後にも紛争中と関連した性暴力が継続する傾向がある。

・トラウンミュラー(2019):スリランカで戦時性暴力に対するアンケートの質問を間接的な質問タイプに変えた時、被害報告の比率が10倍増え、男性被害者の被害報告も増えた。

戦時性暴力言説における日本軍「慰安婦」制度

国家および軍隊に
よる性暴力の例示

性奴隷制の例示

戦時性暴力への
不処罰の起源

国家および軍隊による性暴力

近代以降、国家および軍隊によって体系的かつ広範囲に行われた性暴力の例示。最近の研究で特記すべき点は、戦時性暴力の特性を理解する過程で活用される例示として提示。

関連研究：

- ・ コーヘンほか(2013)：日本軍「慰安婦」制度を例に、日常で性的暴行を犯さない男性が戦争中に性暴力を犯す理由を説明→日本軍の指導部は、南京大虐殺以降、単に性売買に替わるものとして慰安所を作ったとしながら、日本軍「慰安婦」制度は一般兵士の持つ性的衝動を管理するためのものだったと主張するが、戦時性暴力はすべての紛争ですべての武装集団が犯すものというよりは、強制徴兵をした場合、内部の結末を回る過程で活用された。すなわち、戦時性暴力は単なる性的衝動の発現ではなく、被害集団に対する権力の優越性の表現である。

性奴隷制の例示

2010年代以降の戦時性暴力関連研究の中で、特定して性奴隷制のメカニズムについて扱っている研究は多くないが、ほとんどの研究は性奴隷化が「婚姻」関係という形式によって隠蔽されていることを指摘している。

関連研究：

- ・マンジュ(Manjoo)とマクレイス(McRaith)(2011):性的奴隷化は紛争下でのジェンダー基盤暴力の代表的なあり方だ。この過程で性暴力の行為は「婚姻」関係という形式の中で行われる場合が多いが、実際は武装集団の統制の下で女性、特に少女たちが国境を越えて、あるいは軍部隊の間で人身売買される過程を経る。
- ・ウッド(2014):武装組織が性奴隷制や強制結婚の規定をつくり制度化する場合、その組織は戦争の戦略という視点から組織の目標のために意図的にそのような方法を採用する。制度化されていない場合だと、司令官らはレイプと性奴隷制を防ぐには費用がかかりすぎるからと、そのような行為を「報奨」として容認する。

戦時性暴力に対する不処罰の起源

戦時性暴力に蔓延してきた不処罰(impunity)を指摘する研究は、日本軍「慰安婦」制度も含む第二次世界大戦後の戦犯裁判をその起源として提示している。

関連研究：

- ・グレイ(Grey, 2019):戦時性暴力に対する不処罰の歴史は、第二次世界大戦後の戦犯裁判、特に日本軍「慰安婦」制度に対する不処罰から始まり、冷戦時代の沈黙を経て強国になった。その後、1990年代、旧ユーゴスラビアとルワンダの国際刑事裁判所と常設国際刑事裁判所の設立に至る過程でしだいに戦時性暴力を戦争犯罪と認識するようになり、起訴率は依然として少ないが増加している。
- ・ミラノビク(Milanović, 2020):極東国際軍事裁判における日本軍「慰安婦」など日本の戦争犯罪に対する不処罰を含め、国際刑事裁判における不処罰の様々な事例→国際刑事裁判の信頼性は、裁判の手続き的・形式的な公正性よりも加害・被害地域の特定の脈絡を反映して起訴や判決がなされるかにかかっている。裁判の結果を否定する傾向は4つの要素によって決定される。1) 持続的な集団団結力と対立の程度、2) エリートグループの人的・理念的な持続度、3) 関連社会の権威主義の程度、4) 裁判の結果がエリートグループの権力と影響力に脅威になると感じる程度。

外延拡大におけるコンテキストの遺漏

外延拡大

- 男性加害者/女性被害者という二分法の中で非可視化された被害者/被害類型の可視化
- 戦時性暴力を独立したテーマとする長期的かつ広範囲な量的資料の構築→因果関係の説明を提示する研究

コンテキストの遺漏

- 戦時性暴力の時空間的条件を当該紛争と暴力行為が遂行される瞬間に制限→立体的な脈絡が欠落する
- 各戦時性暴力の事例を空間的、歴史的に断絶されたものとして扱う
- 不処罰の経験を現代の政治・社会的条件とは断絶された「過去」の経験と見なす

外延拡大におけるコンテキストの遺漏

外延拡大

- 男性加害者/女性被害者という二分法の中で非可視化された被害者/被害類型の可視化
- 戦時性暴力を独立したテーマとする長期的かつ広範囲な量的資料の構築→因果関係の説明を提示する研究

コンテキストの遺漏

- 戦時性暴力の時空間的条件を当該紛争と暴力行為が遂行される瞬間に制限→立体的な脈絡が欠落する
- 各戦時性暴力の事例を空間的、歴史的に断絶されたものとして扱う
- 不処罰の経験を現代の政治・社会的条件とは断絶された「過去」の経験と見なす



立体的脈絡を通じて 多層的意味を発見

- 歴史的脈絡(帝国主義、植民地主義の経験)に対する十分な考慮
- 過去の事例と現代の事例を有機的関係の中で考察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International Conference

Expansion and Omission: Rethinking and Reimagining the Study of Conflict-Related Sexual Violence

JaeYe Baek (Ph.D. Candidate, University of Massachusetts Amherst)

Research Question

- How have research on conflict-related sexual violence (CRSV) changed?
- How does the recent research capture and explain various types of violence?
- What do we know about CRSV and what do we still not know?

Overview

1. Expansion of Research Scope on CRSV
 - Research on the Mechanisms of CRSV
 - Sexual Violence to Gender-Based Violence
 - Diversified Approaches
2. JMSS in the Recent CRSV Research
3. Omission of Contexts in Methodological Expansion

Research on the Mechanisms of CRSV

Opportunism

Ethnic Hatred

Gender
Inequality

Cohesion

Opportunism

Armed conflicts provide individuals with latent greed to rape opportunities to rape, and combatants commit rape when such opportunities are offered.

Related Research:

- Mueller (2000): People who are more attracted to violent armed groups are more likely to have latent greed for violence. The individual nature is a cause of wartime violence against civilians, including CRSV.
- Goldstein (2001): Men's latent desire to commit rape is unleashed during armed conflicts because the collapse of states nullifies social norms that exist in peacetime.
- Weinstein (2007): The characteristics of rebel groups in civil war shape the patterns of mass atrocities, including CRSV. The more access to resources insurgent groups have, the more likely they commit mass-scale violence. This is because groups with access to material resources attract more violent-prone combatants than groups relying on ideology.

Ethnic Hatred

Wartime rape is most prevalent when the major cause of the conflict is ethnic differences and occurs to represent the dominance over their ethnic opponent.

Related Research:

- Plimber and Neumayer (2006): Wartime rape is more prevalent in ethnic conflicts than in other types of conflicts. The purpose of wartime rape is to humiliate the opponent's ethnic groups.
- Fearon (2006): The reason why wartime rape is more likely to occur is that ethnic conflicts is based on "a sense of existential threat."

Gender Inequality

Gender inequality in peacetime is a precursor of CRSV. The more gender inequality prevails, the more likely CRSV, particularly rape, occurs.

Related Research:

- MacKinnon (1994): The more inequality against women prevails, the more likely mass rape in armed conflict occurs.
- Enloe (2000): The major cause of CRSV is militarized masculinity. The logic of CRSV resonates with that of the functions and necessities of national security institutions.
- Human Rights Watch (2009): The al-Mahdi Army condemned, lynched, and killed gender-non-conforming individuals because of their appearances or clothing.
- Fearon (2010): It is possible to anticipate the outbreak of civil war in a certain region by gender inequality.

Group Cohesion

CRSV is utilized for the internal socialization process within armed groups.

Related Research:

- Goldstein (2001): Gang rape is used to promote internal cohesion within armed groups.
- Wood (2009): Violence within armed groups plays an important role in building internal cohesion.
- Cohen (2013): The existing argument that views wartime rape as a tool for humiliating and attacking the opponent community cannot fully explain the fact that not all armed groups commit rape. Rape is more likely to occur in groups with low social cohesion for increasing group cohesion. Wartime rape occurs as a practice, not a weapon.
- Cohen et al. (2013): Wartime rape is not ordered as an intentional strategy of war but tolerated by commanders as a practice.
- Faulkner and Welsh(2022): The weaker intragroup cohesion armed groups have due to coercive recruitment, particularly child recruitment, the more likely armed groups engage in wartime sexual violence for loyalty and authority based on fear and mistrust.

Sexual Violence to Gender-Based Violence

Against Men and
Boys

Within Armed
Groups

By Female
Perpetrators

Against
Sexual/Gender
Minority

Against Men and Boys

Related Research:

- Carpenter (2006): Gender-based violence against men (including sexual violence, forced conscription, and sex-selective massacre) has been marginalized in the human security community.
- Sivakumaran (2007): The existing gender stereotype of CRSV needs to be revised to capture and understand various forms of CRSV against men (e.g., rape, enforced sterilization, enforced nudity, emasculation, etc.)
- Traumnüller (2019): In Sri Lankan civil war, the male-displaced population suspected of collaboration with the Liberation Tigers of Tamil Eelam were more likely to experience sexual violence than displaced women.
- Eichert (2019): CRSV against men is a message to express supremacy and power hierarchy to the opponent community.
- Touquet and Schulz (2020): According to CRSV motivated by opportunism in Northern Uganda and Sri Lanka, the existing assumption that views GBV against men as a strategic and military objective is heteronormative and often homophobic. Queer theory contributes to disrupting the heteronormative frameworks based on binary and dichotomous conceptions of sex and gender.
- Schulz (2020): During civil war in Northern Uganda, CRSV against men was prevailed and perpetrated by the government army. Due to the shame and stigma surrounding CRSV, many male victims had to uphold silence for a long time.

Within Armed Groups

Related Research:

- Loken (2017): Because organizational factors, such as internal culture, shape conformity in armed factions irrespective of a combatant's sexuality, the participation of female combatants does not lessen an armed group's propensity to rape.
- Thylin (2020): In some Colombian insurgencies, sexual abuse and punishment against homosexual combatants are perpetrated by a desire for control based on heteronormative social order.

By Female Perpetrators

Related Research:

- In the eastern DRC, 41 percent of female CRSV victims reported that they were victimized by female perpetrators, as did 10 percent of male victims. In Liberia, female combatants were directly or indirectly implicated in the rape of women. At Abu Ghraib, US female combatants sexually abused male Iraqi prisoners.
- Sjoberg (2017): Since anyone can perpetrate violence based on gender hierarchy, CRSV needs to be understood through gender, not biological sex.
- Cohen (2013): Under similar social pressures within armed groups, female combatants are likely to commit wartime rape as men do.

Against Sexual/Gender Minority

Related Research:

- Duggan (2016): Insurgent groups construct their legitimacy and authority by hatred and persecution of sexual and gender minorities because the minorities are excluded from the government protect.
- Tschantret (2018): When homophobic practice is tolerated before armed conflicts, rebel groups utilize homophobic abuses and even murders to legitimize their claims to power.
- Loken and Hagen(2022): Given that sexuality and gender identity are integral components of gender, violence against sexual and gender minorities is CRSV.

Diversified Approaches

Expansion of Spatial-
Temporal Scope

An Increase in
Quantitative Research

Extension of Spatial/Temporal Scope

Temporal focus has extended from post 1990s to post 1980s. Spatial focus has also expanded to include armed conflict across the world.

- Colombia's civil war(1964~Present), Ugandan civil war (1980~1986), Peruvian civil war (1980~2000), Sri Lankan civil war(1983~2009), Liberian civil war (1989~1997), Congo war(1997~1999) 등

Related Research:

- Donnelly (2018): Lord's Resistance Army(LRA) in northern Uganda → Non-state armed groups aim to create new gender orders through gender-based control or violence not only in the community they seek to control but also within their own groups. LRA evidence their ideological commitment and desired social outcome by relying on forced marriage and prohibitions on extramarital sexual violence.
- Traummüller et al. (2019): Tamils who have collaborated with rebel groups and the male displaced population suspected of collaboration with the Liberation Tigers of Tamil Eelam have become more vulnerable to sexual abuses.

An Increase in Quantitative Research

Quantitative research creates new indices, such as types of armed groups, types of violence, conflict areas, solely to understand CRSV, and statistically analyzes the patterns and changes of CRSV through the correlations between the indices.

Related Research:

- Farr (2009): Using the existing reports or data produced governmental or NGOs, she create a new dataset about wartime rape in 27 countries from 1990 to 2009 and examines how the occurrence of wartime rape, perpetrators, victim types, and perpetrated areas vary depending on regions. → Wartime rape is widespread, and women are more likely to face sexual abuses when the economic status of the country declines as armed conflict erupts.
- Cohen and Nordis (2014): Dataset of CRSV from 1989 to 2009 in 129 active conflicts by 625 armed actors → 1) CRSV is widespread but not inevitable., 2) State forces are more likely to perpetrate sexual violence than rebels., 3) CRSV often continues even after the conflicts.
- Traummüller et al. (2019): When using unobtrusive method for survey experiment a reported prevalence is ten times higher than surveyed by direct questioning. There were more reports on CRSV against men.

JMSS in the Recent CRSV Research

An Example of SVAC
by State Forces

An Example of
Sexual Slavery

An Origin of
Impunity over
SVAC

An Example of CRSV by State Forces

JMSS as an example of CRSV as mass atrocities perpetrated by state forces during modern warfare.

Related Research:

- Cohen et al. (2013) mention the JMSS as an example of systematic rape of noncombatants by state forces while arguing patriarchy and individual desire cannot adequately explain the varying patterns in wartime rape → Japanese leaders have argued that they have established the "comfort women" system of military brothels as a substitute for consensual sex to manage uncontrollable male sexual desire. However, this argument cannot explain the incidence of wartime rape committed by soldiers with regular access to sex workers or to sexual slaves. Rather, CRSV has been mobilized to promote internal cohesion within armed groups which rely on coercive recruitment like abduction.

An Example of Sexual Slavery

A few research on CRSV since the 2010s address the mechanism of sexual slavery, specifically, most of them point out that actions of sexual enslavement are often disguised as a "marriage."

Related Research:

- Manjoo and McRaith(2011): Sexual enslavement is a frequent form of gender-based violence in conflict areas but is often disguised as a marriage. Such 'marriages' including kidnapping, trafficking across borders and military units should be regarded as crimes of enslavement.
- Wood (2014): When armed organizations institutionalize sexual slavery or forced marriage, the organization has purposefully adopted that form of sexual violence as a strategy of war. If not, commanders rather tolerate rape or sexual slavery as a form of compensation to combatants due to the cost of effective prohibition.

An Origin of Impunity over CRSV

Research focusing on the longstanding impunity over CRSV suggests the impunity over the JMSS at the Tokyo Trial as its origin.

Related Research:

- Grey (2019): The history of impunity over CRSV began from the impunity over the JMSS and has become strengthened through the silence of the violence during the Cold War. The ICTY and ICTR in the 1990s began recognizing CRSV as a war crime, and the rate of prosecution is increasing.
- Milanović (2020): Cases of impunity in various war crimes tribunals including the impunity of JMSS at the Tokyo trials → The quality of an international criminal tribunal depends on its contextual decision on prosecution, conviction, and judgment. There are four factors to predict the likelihood of adverse action to the decisions: 1) the degree of continuing cohesion and polarization; 2) the degree of elite continuity in terms of both personnel and ideology; 3) the degree of authoritarianism in the relevant society; and 4) the degree of threat that the work of the tribunal is perceived to pose the power and influence of these elites.

Omission of Contexts in Methodological Expansion

Methodological Expansion

- Make visible the concealed, silenced victims and forms of violence in the binary assumption of male perpetrator/female victim.
- Create empirical data exclusively on CRSV with a longitudinal and cross-national perspective and propose causal explanations for the CRSV mechanism.

Omission of Contexts

- Limit the spatial and temporal conditions of CRSV to the moment that the violence occur → Omit multi-dimensional contexts
- Lack historical perspective or context
- Consider the causes of impunity in the past and the present as discrete

Omission of Contexts in Methodological Expansion

Methodological Expansion

- Make the hidden, silenced victims and forms of violence in the dichotomous assumption of male perpetrator/ female victim visible
- Create empirical data solely on CRSV with a longitudinal and cross-national view, and suggest causal explanations on the mechanism of CRSV

Omission of Contexts

- Limit the spatial and temporal conditions of CRSV to the moment that the violence occur → omit multi-dimensional contexts
- Lack historical perspective or context
- Consider the causes of impunity in the past and the present as discrete



Nuanced Meanings Through Multi-layered Contexts

- **Historical contexts:** Imperialism and colonialism
- **Linkage** between the past and the present

トロン文

嶽本新奈, 「**「からゆきさん」に / からみる性と権力**」

大畑凜

嶽本さんのご報告は、近代以降の帝国化していく日本の海外政策と公娼制度とが交差するところに〈からゆきさん〉という存在があったこと、移動先においてもさまざまな次元でその身体やセクシュアリティ、生殖が国家や男性たちから管理され続けていたこと、そしてまたこうしたかの女たちを取り巻く構造からは日本軍「慰安婦」制度との繋がりも見出されることなどをご指摘されたものかと思います。

ところで、〈からゆきさん〉と日本「慰安婦」制度との繋がり・連続性という点は、近年は公娼制度—日本軍「慰安婦」制度を批判するという観点からだけ提示されてきているわけでもありません。朴裕河『帝国の慰安婦』における論点の一つは、同書が、嶽本さんも触れられている森崎和江『からゆきさん』(1976)を参照しながら、異国の地で〈帝国〉としての日本に協力しようとした—と単純化して朴氏が解釈しているということですが—からゆきさんを、朴氏がいうところの「慰安婦」たちの「自発性」や「愛国心」と重ね合わせて論じていることです。

『帝国の慰安婦』における『からゆきさん』の引用上の問題はすでに指摘されているところですが、そこではあきらかに恣意的な引用がなされています。しかしながら、本来森崎の『からゆきさん』とは元〈からゆきさん〉の女性たちの聞き書きをおこない、その「アジア体験」をつぶさに検討することで、かの女たちが帝国の利害と相容れなくなる地点を見出し、帝国化する国家への批判をも読み解いた著作です。また同時に森崎は〈からゆきさん〉が帝国日本のアジア侵略や加害にたいして無実だとしたわけでもありません。一方で、森崎もまた、『からゆきさん』を描くことはあっても、日本軍「慰安婦」問題に対しては多くを語ったわけではありません。

そのうえで、私の方からまず嶽本さんに伺いたいのは、〈からゆきさん〉の専門家である嶽本さんの立場からみて、共通点も差異も当然あるこの〈からゆきさん〉と日本軍「慰安婦」制度の関係について、どのような点にとりわけ注目して考えるべきなのか、ということです。

また、これと関連しますが、〈からゆきさん〉を研究することは日本軍「慰安婦」制度を理解する上でどのような意味があり、また逆に、日本軍「慰安婦」制度を研究することは〈からゆきさん〉を理解する上でどのような意味があるのでしょうか？これらの点について嶽本さんのご意見をお聞かせください。

다케모토 니나, 「『가라유키상』에 /로부터 보는 성과 권력」토론

오하타 린(大畑凜)

다케모토 씨의 보고는 근대 이후 제국화되어 가는 일본의 해외정책과 공창제도가 교차하는 곳에 <가라유키상>이라는 존재가 있었다는 점, 이동 지역에서도 다양한 차원에서 그 신체나 섹슈얼리티, 생식이 국가나 남성들로부터 계속 관리되었다는 점, 그리고 이러한 여성들을 둘러싼 구조에서는 일본군‘위안부’제도와의 연결도 발견된다는 점 등을 지적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가라유키상>과 일본‘위안부’제도의 연결, 연속성이라는 점은, 최근에는 공창제도-일본군‘위안부’제도를 비판한다는 관점에서만 제시되어온 것은 아닙니다. 박유하의 『제국의 위안부』가 안고 있는 논점 중 하나는, 이책이, 다케모토 씨도 다루고 있는 모리사키 가즈에의 『가라유키상』(1976)을 참조하면서 이국 땅에서 <제국>으로서의 일본에 협력하려고 했다 - 라고 단순화시켜서 박유하 씨가 해석한다는 것입니다만 - 가라유키상을 박유하 씨가 말하는 바의 ‘위안부’들의 ‘자발성’이나 ‘애국심’과 겹쳐서 논한다는 것입니다.

『제국의 위안부』에서 이미『가라유키상』인용의 문제가 지적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는 명백하게 자의적으로 인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래 모리사키의『가라유키상』이란 이전에 <가라유키상>이었던 여성들의 구술청취를 수행하여, 그 ‘아시아 체험’을 자세하게 검토함으로써 그녀들이 제국의 이해와 양립될 수 없는 지점을 찾아내어, 제국화하는 국가에 대한 비판도 읽어낸 저작입니다. 또 동시에 모리사키는 <가라유키상>이 제국 일본의 아시아 침략이나 가해에 대해 무고하다고 한 것도 아닙니다. 한편 모리사키 또한 『가라유키상』을 묘사한 적은 있어도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많은 것을 말한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먼저 다케모토 씨에게 여쭙고 싶은 것은, <가라유키상> 전무가인 다케모토 씨의 입장에서 볼 때, 공통점도 차이점도 당연하게 있는 이 ‘가라유키상’과 일본군‘위안부’제도의 관계에 대해 어떤 점을 특히 주목해서 생각해야 하는가, 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와 관련합니다만, <가라유키상>을 연구하는 것은 일본군‘위안부’제도를 이해하는 데 어떠한 의미가 있고, 또 반대로 일본군‘위안부’제도를 연구하는 것이 <가라유키상>을 이해하는 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점에 대해 다케모토 씨의 의견을 말씀해주시길 바랍니다.

嶽本新奈先生 「「からゆきさん」に / からみる性と権力」コメント

宋連玉

「からゆきさん」の出身地が天草・島原に多いといわれているが、東アジア全域に出掛けて行った日本人は、史料で見る限り長崎県全域に及んでいたように思える。天草・島原が辺境の地として政治的言説上、利用されている面はないのだろうか。

また「からゆきさん」としてシンガポールなどに出る前に、歴史的に長崎の丸山遊廓や、寄合遊廓への出稼ぎはなかったのだろうか。

上海での2代目領事だった安藤太郎が日本女性の売春問題に腐心した挙句に、女性たちをシンガポールや香港に追放したとあるが、この時に追放された女性たちと口之津港からシンガポールに出掛けた女性たちはどう繋がっているのか、わかる範囲でご教示いただきたい。

上海では英国租界、仏租界ともに1920年代半ばまで公娼制を認め、なおかつ日本、朝鮮、中国女性を娼妓として使っていたが、シンガポールでの廃止されるまでの公娼制の実態とはどのようなものだったのか、規則、業者、売春女性の出身、数など教えていただきたい。

また「からゆきさん」と「慰安婦」制度における断続性・連続性についてはどのように考えておられるのかお聞きしたいです。

朴貞愛先生

「植民地朝鮮において日本の性管理と「管理される女性」」コメント

宋連玉

この論稿の目的を著者は ① '慰安婦'の被害性格を強調する対応の仕方に対する批判的問題意識 ② 植民地という地域の問題であることを強調する ③ '帝国日本'の公娼制を、従来の英文表記ではなく'Koushousei(公娼制)'を固有の歴史的用語として定着させるべきだと提起する。

日本では、'慰安婦'問題の国家的責任を否定しようとする、いわゆる'歴史修正主義'と呼ばれる勢力が、'慰安婦'当事者、市民活動家、研究者に対し、猛烈な攻撃を続け、歴史教科書における'慰安婦'記述も全面的に削除させてきた。ヘイトスピーチもこの流れのなかで生まれたといっても過言ではない。問題は'北風'が強いほど旅人がユートをしっかりと押さえたという寓話にも似て、問題解決をめざす運動側の公論は'慰安婦'制度と公娼制とは本質的に異なるという説が強調されてきた。'慰安婦'裁判が盛んだった時期に、ある在日韓国人研究者は裁判に勝つために本質的に異なるといわなければならないと、筆者に語ったことがある。しかし裁判がことごとく敗訴した今、その研究者は「'慰安婦'と公娼を分ける意味がない」と自己の主張を変えるようになった。

しかし研究は運動団体の論理に従属すべきではないし、国家的利益に左右されてもいけない。この問題を30年以上も考察してきた朴貞愛先生ならではの考察を全面的に支持したい。

②に関して、帝国「内地」と植民地の間に存在する差別の本質が明らかになる。1931年の女性人口を日本「内地」と朝鮮で比較すると、朝鮮は日本の30%にしかならないのに、公娼制度下の娼妓は52,000人対3000人である。公娼制とは朴貞愛先生の指摘通り、在朝日本人のために存在していた性管理制度である。それが1931年以降、管理対象を朝鮮女性に拡大し、植民地のシンジケートを使って性収奪を図ったのが'慰安婦'制度に繋がっていく。

よって③は、画期的で重要な提起だと思う。しかし公娼制に対しての知識のない、海外の研究者に対しては本質を反映した英文副題は必要であろう。また日本「内地」と朝鮮とでは公娼制の中身は異なるだけでなく、朴貞愛先生が博士論文「日帝の公娼制施行と私娼管理研究」で明らかにされたように、朝鮮では狭義での遊廓内の娼妓ではなく、零細な業者のもとで搾取される私娼が多く、広義のシステムとしての公娼制を植民地の特徴としてあげられよう。それを'Koushousei(公娼制)'という歴史的用語で一括するのではなく、植民地の問題を可視化するための別の用語を創造する必要があるのではないだろうか。

다케모토 니나 선생님 「‘가라유키상’에 /로부터 보는 성과 권력」 코멘트

송연옥

‘가라유키상’ 출신지가 아마쿠사(天草)·시마바라(島原)에 많았다고 하지만, 동아시아 전역으로 나간 일본인은, 사료에서 보는 한 나가사키현 전 지역에 미쳤던 것으로 생각된다. 아마쿠사·시마바라가 변경의 땅으로서 정치적 언설 차원에서, 이용되는 측면은 없는 것일까.

또한 ‘가라유키상’으로서 싱가포르 등에 나오기 전에, 역사적으로 나가사키의 마루야마(丸山) 유곽이나 요리아이(寄合) 유곽에서 지냈을 때의 별이는 없었던 것일까.

상하이의 2대 영사였던 안도 다로(安藤太郎)가 일본 여성의 매춘 문제에 부심한 끝에, 여성들을 싱가포르나 홍콩으로 추방했다고 했는데, 이때 추방된 여성들과 구치노츠(口之津) 항에서 싱가포르로 나간 여성들은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까. 아는 범위에서 가르쳐 주셨으면 한다.

상하이에서는 영국 조계, 프랑스 조계 모두 1920년대 중반까지 공창제를 인정하고, 심어지는 일본, 조선, 중국 여성을 창기로서 사용했는데, 싱가포르에서 폐지될 때까지 공창제 실태는 어떤 것이었는지 규칙, 업자, 매춘 여성의 출신, 수 등을 알려주셨으면 한다.

또 ‘가라유키상’과 ‘위안부’제도의 단속성·연속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다.

박정애 선생님, 「식민지 조선의 일본의 성관리와 ‘관리되는 여성’」 코멘트

송연옥

이 논고의 목적을 저자는 ① 위안부의 피해 성격을 강조하는 대응 방식에 대한 비판적 문제의식 ② 식민지라는 지역의 문제를 강조한다 ③ '제국일본'의 공창제에 대한 영문 표기를 기존 방식이 아니라 'Kousei'라고 표기하여 고유한 역사적 용어로 정착시켜야 한다고 제기한다.

일본에서는 '위안부' 문제의 국가적 책임을 부정하려는 이른바 '역사수정주의'라 불리는 세력이 '위안부' 당사자, 시민활동가, 연구자에 대해 맹렬한 공격을 계속하여, 역사교과서의 '위안부' 기술도 전면 삭제시켜 왔다. 헤이트 스피치도 이러한 흐름 속에서 생겨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문제는 '북풍'이 강할수록 나그네가 코트를 짝 눌렀다는 우화와도 비슷하게, 문제 해결을 목표로 하는 운동 측의 공론이 '위안부' 제도와 공창제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설로 강조돼 왔다. '위안부' 재판이 한창이던 시기에 한 제일교포 연구자는 재판에서 이기기 위해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해야 한다고 필자에게 말한 적이 있다. 그러나 재판이 사사건건 패소한 지금, 그 연구자는 "'위안부'와 공창을 나누는 의미가 없다"고 자신의 주장을 바꾸었다.

그러나 연구는 운동단체의 논리에 종속되어서는 안 되며 국가적 이익에 좌우되어서도 안 된다. 이 문제를 20년 넘게 고찰해 온 박정애 선생님만의 고찰을 전폭 지지하고 싶다.

②에 관해서도 제국 「내지」와 식민지 사이에 존재하는 차별의 본질이 드러난다. 1931년의 여성 인구를 일본 「내지」와 조선으로 비교하면 조선은 일본의 30%밖에 되지 않았는데, 공창 제도의 창기는 52,000명 대 3000명이었다. 공창제란 박정애 선생의 지적대로 재조 일본인을 위해 존재했던 성 관리 제도이다. 그러다가 1931년 이후 관리 대상을 조선 여성으로 확대하고 식민지 신디케이트를 이용해 성 수탈을 꾀한 것이 '위안부' 제도로 이어져갔다.

따라서 ③은 획기적이고 중요한 제기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공창제에 대한 지식이 없는, 해외 연구자에 대해서는 본질을 반영한 영문 부제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일본 내지와 조선은 공창제의 내용이 다를 뿐만 아니라 박정애 선생이 박사논문 「일제의 공창제 시행과 사창 관리 연구」에서 밝혔듯이 조선에서는 좁은 의미에서의 유곽 내 창기가 아닌 영세한 업자 밑에서 착취당하는 사창이 많아 광의의 시스템 성격을 지닌 공창제를 식민지 특징으로 들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을 'Kousei'라는 역사적 용어로 일괄할 것이 아니라 식민지의 문제를 가시화하기 위한 다른 용어를 만들어낼 필요가 있지 않을까.